

연구자료

인도지원 2025-02-117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2025. 01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2025. 1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한재광

- 발전대안피다 대표

공동연구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송계희

- 前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선임매니저

이경주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이경신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 전문관

연구보조원

박준영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과장

조수안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간사

윤다솔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대리

보조원

김동현

-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대리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한재광 외. 2025.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1. 서론

○ 한국 정부는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직후 정부-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긴급구호부터 조기복구 단계까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KOICA는 3개 NGO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튀 우정마을 사업을 조성했으며, KOICA와 시민사회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인 RAPID(Responseive Action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해외재난대응협력 이니셔티브)을 신설했다.

○ 본 연구는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민관(공공, 시민사회 및 기업 등) 협력체계 개선안 도출을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다.

- 타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분석을 통한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의 강점을 반영한 포괄적 이해 관계자 간 협력과 자원 확대 방안 제시
-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체계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 과정 분석을 통해 핵심적 작동 기제(enabler) 제시, 핵심적 작동 기제 구축을 위한 장애 요인 해소 방안 도출 및 RAPID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브랜드 공유, 모금 및 분배, 기금형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협업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간 협업의 성과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십 형성방안과 성과지표 제시

○ 본 연구는 한국의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연구 범위를 설정했다.

-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 및 정책 분석
- 4개 공여국(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협력체계 조사·분석
- 국내 인도적 지원 분야 이해관계자 조사·분석하여 특성에 부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구성
-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출 및 홍보방안 구성

○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파트너십 협력체계, 파트너십 핵심작동기제(enabler)와 장애요인(disabler) 도출과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 효과적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종합적 접근, 실제 사례 통한 교훈 중심 접근, 단계적 접근, 참여적 접근을 활용했다 그리고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초점집단인터뷰’ 및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네 가지 조사방법을 실행했다.

2. 인도적 파트너십 및 국가 공동 대응 플랫폼

- 전 세계 인도주의 대응은 점차 현지화, 유연한 자금 조달, 조율된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파트너십 플랫폼은 위기 피해 인구를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부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포용적 거버넌스, 민첩한 운영, 공동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적 대응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 본 연구는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플랫폼의 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 설립 배경, 추진 체계와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플랫폼의 핵심 작동기제와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RAPID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2-1. 일본 (Japan Platform, JPF)

- Japan Platform(JPF)는 정부 자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전체 예산의 약 76%가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JPF는 정부, NGO, 기업 파트너가 함께하는 공동 플랫폼으로, 자금 조달의 예측 가능성, 이해관계자 참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보장한다. 특히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독특한 기업 회원 모델을 통해 민간 협업을 유도한다. 거버넌스 구조 상 외무성이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승인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지원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자율성과 독립성 측면에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2-2. 영국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DEC & Start Network)

- 영국은 DEC(Disasters Emergency Committee)와 Start Network라는 두 개의 주요 플랫폼을 운영한다.
 - DEC는 미디어, NGO,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재난 발생 시 공동 모금을 통해 신속한

재원 확보 가능. 미디어 기반의 모금 캠페인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모금액은 회원 NGO를 통해 집행.

- Start Network는 중소기업 재난 대응에 특화하여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국제NGO뿐만 아니라 현지에 기반한 국가NGO와 지역NGO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 현지 주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
- 두 플랫폼은 정부 주도보다는 시민사회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RAPID가 자율성과 민간 주도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2-3. 캐나다 (Humanitarian Coalition, HC)

- Humanitarian Coalition(HC)은 캐나다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서 운영되며, 전체 예산의 75% 이상이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HC는 회원 NGO를 위한 자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다년간의 협약을 캐나다 정부와 체결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공동 모금과 연계한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제공함으로써 NGO의 자원 동원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 HC는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원 간 공동 심사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자원의 투명한 배분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민간 간 공식 협약 체계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참여적 거버넌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2-4. 호주 (Emergency Action Alliance, EAA)

- Emergency Action Alliance(EAA)는 호주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플랫폼으로, 특정 긴급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로 운영되고 있다. EAA는 미디어, NGO, 기업 파트너를 공동 대응 및 모금 활동에 참여시키는 포용적 재난 대응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 플랫폼은 ABC, SBS 등 주요 국가 언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EAA는 신속하고 투명한 자금 분배에 중점을 두어 인도적 필요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 동 연구에서 조사한 공동 대응 플랫폼들은 정부, NGO, 언론,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랫폼은 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여 공동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영향력 있는 긴급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구축한다.

3. 한국의 인도적 파트너십 체계

○ 본 장에서는 한국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법적 기반, 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RAPID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심층 분석한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조명하고 핵심 과제를 식별하며, 한국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 **정부의 인도적 지원제도:**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전략」을 2015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에 따라 수립했고, 이후 2019년 개정했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ODA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의 경우 예산확정액 기준 7,346억 원으로 17년 대비 10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및 민-민 파트너십:**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은 2012년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출범과 함께 제도화됐다. 2012년 8개 단체의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 연간 약 20억 원의 규모로 시작했으며, 2024년 약 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시되는 인도적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 2023년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체 규모는 2,993억 원이며, NGOs가 자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실행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2,236억 원이다(KCOC, 2024). NGOs가 실행하는 인도적 지원 규모는 시민과 기업의 기부를 통해 그 재원을 형성한다.
- **RAPID 출범:** 정부는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이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KOICA는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추진한 튀르키예 우정 마을 사업」을 모델로 하여 기존의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내 인도적 민관협력 브랜드「RAPID(Responseive Actions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를 2024년 시작했다. RAPID는 현재 6개의 NGO(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KCOC), KOICA,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공동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RAPID 파트너십 협력 등을 위해 KOICA와 MOU를 맺은 바 있다.
- **주요 과제 및 기회 요인:** RAPID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제한된 자금, 협소한 이해관계자 기반, 명확하지 않은 운영 지침의 부재 등이다. 이에 따라 재원 다변화, 중소기업 조직의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확보가 핵심 우선과제로 제시된다. 브랜딩 전략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RAPID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도 제기된다.
- **이해관계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RAPID의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분위기는 긍정적이나, 보다 체계적인 조정 구조와 포용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기관은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NGO들은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요청하였다. 기업 및 언론은 투명한 운영과 인도주의 원칙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인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제 혜택 도입, 독립적 거버넌스 기구 조성, 공동 모금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다수 이해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참여 촉진, 장애 요인 및 유인책 요약

수준	촉진 요인	장애 요인	유인책
거시	법률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	경직된 자금 구조	세제 혜택, 공로 인정 프로그램 도입 등
중간	조정 플랫폼	데이터 공유의 제한	공동 자원 접근 기회, 공동 브랜드 활용 등
미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행정적 부담	교육 및 훈련, 조직 가시성 제고, 절차 간소화 등

- 상기 표는 RAPID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들을 정리하며, 현재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4.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RAPID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제안을 한다. 첫째는 현재 ‘RAPI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둘째는 현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한 ‘공동모금플랫폼’이다.
- RAPID 실행 단계와 공동 모금 플랫폼 단계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과 지향 프레임워크로서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을 제안한다. 동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긴급구호 분야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촉진 요인과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단기, 중·장기, 그리고 궁극적 영향 수준의 목표들을 포함한다. 각 수준별로 핵심 성과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KOICA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동 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한국의 인도적 파트너십 체계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책임성과 지속적 개선을 담보할 것을 권장한다.

4-1. RAPID 실행 단계

○ RAPID의 실행 단계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긴급 구호 파트너십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동 단계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다룬다:

- **포용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다양한 규모와 역량을 가진 조직들이 RAPID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민간 기업, 언론, 학계, 기술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RAPID 러닝랩(Learning Labs)’을 도입하여 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며 인도적 모금 및 대응에서의 혁신을 장려한다.
- **역량 강화:** 각 부문 파트너 조직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은 기술적 전문성, 경영 시스템, 국제 인도주의 기준 준수를 포함한다.
- **재원 확보 및 자원 동원:** RAPID 플랫폼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을 확대하여 긴급 대응을 위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재원을 확보한다. 민간 기업, 재단, 일반 대중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자원 동원 역량을 강화한다.
- **브랜드 가시성 제고:**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RAPID의 가시성을 높인다. 언론, SNS, 파트너십 등을 활용하여 RAPID의 영향력 및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대중의 신뢰와 참여를 증진한다.
- **부가가치 및 시너지 창출:** RAPID의 긴급 대응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 인구를 지원한다. 우수 사례를 통합하고 다양한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대응의 질을 향상시킨다. RAPID만의 고유한 역량과 시너지 영역을 발굴하여 인도적 노력의 공백을 매운다.

RAPID 실행 단계별 핵심 지표

목표	지표	설명
포용성 확보	유형 및 규모별 등록 NGO 수	참여 NGO의 다양성 측정.
역량 강화	RAPID 러닝랩 운영 횟수	교육 참여도 평가
ODA 예산 확대	KOICA 인도적 자원 예산 중 RAPID 배정 비율	재정적 기여도 평가
가시성 강화	RAPID 관련 언론 보도 횟수	인지도 및 공공참여 수준 측정
시너지 및 효과 창출	RAPID 공동사업 수혜 인원 수	연간 수혜자 수 추적

4-2.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 공동모금플랫폼 단계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인도적 재정 조달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단계는 다음의 세 가지전략적 목표에 집중한다:

- **국제적 위상 강화:** 우수 사례, 성과 사례, 혁신적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한국 공동모금플랫폼의 국제 가시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모금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국제 포럼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교류를 통해 한국의 인도적 리더십을 강화함.
- **인도적 생태계 확장:** 지자체, 민간기업, 언론, 학계 등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플랫폼의 기반을 확대함, 부문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여 국내외 인도적 대응을 지원하는 견고한 생태계 조성
- **민간 자원 동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가치를 강조하고 인도적 재정 기여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재정 참여를 장려함. 기업 및 자선재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참여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유연한 자원 확보를 도모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공동모금플랫폼 단계는 한국이 국제 인도주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시의적이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동원의 핵심 주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공동모금플랫폼 단계별 핵심 지표

수준	촉진 요인	장애 요인	유인책
거시	법률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	경직된 자금 구조	세제 혜택, 공로 인정 프로그램 도입 등
중간	조정 플랫폼	데이터 공유의 제한	공동 자원 접근 기회, 공동 브랜드 활용 등
미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행정적 부담	교육 및 훈련, 조직 가시성 제고, 절차 간소화 등

○ 본 단계는 공공 신뢰,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지표는 플랫폼의 가시성, 파트너십, 재정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5. 결론

- 동 연구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 사례로부터 배운 교훈과 국내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RAPID는 조정된 재난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촉진 요인으로는 견고한 법제도, 유연한 자금 메커니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 등이 있으며, 이는 협력과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 RAPID 실행 단계와 공동 모금 플랫폼 단계에 대한 정책 권고안은 이해관계자 참여, 자원 동원,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경로를 제시한다. 공동모금플랫폼으로의 전환은 한국이 국제 인도주의 분야의 핵심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실행함으로써 한국은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포용성과 회복력을 갖춘 기민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The global humanitarian landscape has evolved with increasing demands for inclusivity, transparency, and coordination in response to crises. The 2016 World Humanitarian Summit introduced the Grand Bargain, emphasizing localization, accountability, and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Korea, as a signatory since 2020, has aimed to align its humanitarian aid efforts with these principles. Despite grow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humanitarian support, Korea's PPPs remain limited in scope and engagement, with minimal private sector involvement.

The 2023 Türkiye-Syria earthquake response highlighted the potential of collaborative disaster relief when KOICA partnered with NGOs to establish the Korea-Türkiye Friendship Village. This initiative showcased the benefits of joint disaster relief efforts, setting a precedent for expanding Korea's humanitarian PPPs through the Responsive Action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RAPID)—a KOICA-led platform designed to foster coordinated disaster responses. However, RAPID's success requires addressing key barriers, such as rigid funding mechanisms, limited stakeholder alignment, and insufficient visibility.

This study aims to enhance RAPID by identifying enabling mechanisms, addressing operational challenges, and proposing strategies for inclusive humanitarian partnerships. The study's key objectives are:

- To analyze global best practices in humanitarian partnerships from Japan,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o identify enablers relevant to Korea.
- To assess domestic stakeholder roles, capacities, and challenges to inform an improved partnership framework.

-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stakeholder engagement, resource mobiliza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RAPID.

The research adopted a mixed-methods approach, including document analysis, field research in four donor countries, and participatory workshops with government agencies, NGOs,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to ensure comprehensive, stakeholder-driven insights.

2. Humanitarian Partnership and National Joint Appeal Platforms

As global humanitarian responses increasingly emphasize localization, flexible funding, and coordinated emergency action, partnership platforms play a crucial role in mobilizing resources efficiently and protecting crisis-affected populations. Strengthening partnerships across sectors fosters inclusive governance, agile operations, and shared decision-making, making humanitarian responses more effective and accountable.

The study examined national joint appeal mechanisms in the form of humanitarian partnership platforms in four donor countries: the UK, Japan, Canada, and Australia. These platforms demonstrate diverse models shaped by their national contexts, with varying governance structures, government involvement, public engagement strategies, and funding mechanisms. By analyzing these platforms, Korea's RAPID initiative can identify key elements to strengthen its structure, governance,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1) Japan (Japan Platform, JPF)

- Japan's Japan Platform (JPF) takes a contrasting approach, with a strong reliance on government funding—approximately 76% of its total budget comes from the government. JPF operates as a joint platform for the Government of Japan, NGOs, and corporate partners, ensuring predictability in funding, stakeholder engagement,

and rapid disaster responses. The platform's unique corporate membership model includes over 100 companies, fostering cross-sector partnerships. JPF's governance structure involves direct government participation, particularly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cision-making and project approvals. While government support ensures stable funding, it also poses challenges to the platform's autonomy and independence.

2) United Kingdom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DEC & Start Network)

- The UK's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DEC) stands out for its strong media partnerships and public fundraising model. It is highly independent from government influence, with less than 5% of its funding coming from public funds. DEC's close collaboration with major media outlets like the BBC enables rapid, large-scale fundraising for major disasters,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increasing trust in overseas disaster appeals. The DEC Accountability Framework ensures transparent reporting and program evaluations, further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the platform's operations.
- Another significant UK initiative is the Start Network, which focuses on innovative and localized funding approaches for small and medium-scale crises. The Start Network promotes locally-led respons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imely funding for underfunded emergencies.

3) Canada (Humanitarian Coalition, HC)

- Canada's Humanitarian Coalition (HC) operates as a key government partner, with over 75% of its funding coming from government grants. The HC plays a critical role in managing the Canadian government's humanitarian funding, responding to both large-scale and small-scale crises. The platform's governance system integrates localization principles by requiring member NGOs to engage local partners in their response efforts.

- Multi-year agreements between the HC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provide predictability in funding and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member NGOs. Additionally, the HC's performance-based funding mechanism ensur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resource allocation, fostering trust among stakeholders.

4) Australia (Emergency Action Alliance, EAA)

- Australia's Emergency Action Alliance (EAA) is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platform, operating primarily as a private initiative with strategic government support for specific emergencies. The EAA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opting an inclusive approach to emergency rapid response by engaging media, NGOs, and corporate partners in joint appeals and fundraising efforts.
- The platform works closely with national media outlets such as ABC and SBS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secure donations. EAA's focus on swift and transparent fund distribution ensures timely responses to humanitarian needs, fostering public trust in the platform's operations.

The joint appeal platforms examine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gaging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s, NGOs, media, and corporations. These platforms promote cross-sector collaboration that leverages collective resources for timely, impactful responses to emergencies. They also build public trust by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use of funds.

3. Korea's Humanitarian Partnership Scheme

This chapter offers a detailed analysis of the legal foundations of South Korea's humanitarian aid system, it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APID program. It highlights significant achievements, identifies key challenge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cope of South Korea's humanitarian aid efforts.

-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outh Korea's humanitarian assistance operates under robust laws, including the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Overseas Emergency Relief Act. These laws guide the government's emergency response and international aid efforts. However, the focus on immediate disaster response limits their ability to address chronic crises.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trategy, updated in 2017, expanded the scope of government decision-making but lacks binding authority compared to formal legislation.
-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Humanitarian Aid:** The evolving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s emphasized throug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 This initiative has enabled NGOs to contribute to disaster response and risk reduction efforts. However, reliance on large NGOs excludes smaller organizations, hindering broader collaboration. Successful case studies, such as the Türkiye-Syria earthquake response, showcase the potential for coordinated efforts among government, NGOs, and local actors.
- **RAPID Program: Development and Functionality:** Launched in 2024, RAPID serves as a strategic partnership platform for collective humanitarian action. It aims to enhance collaboration among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NGOs, corporations, and media. Pilot projects, such as addressing the acute food crisis in East Africa, demonstrate RAPID's capacity to mobilize resources effectively and deliver measurable outcomes. Standardized performance metrics ensur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Key challenges for RAPID include limited funding,

a narrow stakeholder base, and the absence of clear operational guidelines. Expanding financial resources, engaging small and medium-sized organizations, and improving stakeholder diversity are highlighted as priorities. Stronger branding and public engagement are also recommended to raise RAPID’s visibility and impact.

○ **Stakeholder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Stakeholder analysis reveals broad support for RAPID’s objectives but emphasizes the need for better coordination and inclusivity. Government agencies stress the importance of clear governance structures, while NGOs call for expanded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Corporations and media underscore the value of transparency and alignment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to sustain their involvement. Stakeholders advocate for tax incentives, independent governance, and a potential transition to a collaborative fundraising platform.

Key Enablers, Barriers, and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Level	Key Enabler	Barrier	Incentive
Macro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unding inflexibility	Tax incentives and recognition programs
Meso	Coordination platforms	Limited data-sharing	Access to pooled resources and joint branding
Micro	Capacity-building programs	Administrative burdens	Training, visibility, and simplified processes

This table outlines key mechanisms that influence RAPID’s effectiveness, highlighting strengths to leverage and areas for improvement.

4.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commendations focus on two phases: the RAPID activation phase and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Drawing up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APID activation phase and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this study proposes a **results framework** in

the form of a **theory of change**. The framework outlines the **enablers and precondition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emergency assistance in Korea, along with **short-term, mid-to-long-term, and impact-level objectives**. For each level, key **performance, output, and outcome indicators** are identified. The study recommends that **KOICA** and relevant stakeholders regularly **collect data, monitor progress, and evaluate outcomes** of Korea's Humanitarian Partnership scheme using these indicators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continuous improvement.

4.1 RAPID Activation Phase

The overarching goal of the RAPID activation phase i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emergency response partnerships. This phase addresses key challenges such as fragmented emergency responses, insufficient visibility of the RAPID brand, low inclusivity, limited expertise, and funding constraints. To achieve this, the framework outlines the following core objectives:

○ **Inclusiveness and Stakeholder Engagement:**

Expand participation to ensure a diverse range of organizations with varying capacities can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platform. Strengthen engagement with private corporations, media outlets, academic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organizations with technical expertise. Introduce **RAPID Learning Labs** to promote cross-sector collaboration, enhance stakeholders' operational capacities, and foster innovation in humanitarian fundraising and response.

○ **Capacity Strengthening:**

Offer comprehensive learning programs to enhance the operational capacities of partner organizations across various sectors. These program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echnical skills, management systems,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standards.

○ **Funding and Resource Mobilization:**

Increase the ODA budget allocated for the RAPID platform to ensure stable and

flexible funding for emergency responses. Diversify funding sources by engaging private companies, found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to strengthen long-term resource mobilization efforts.

○ **Visibility and Branding:**

Improve the visibility of the RAPID platform through coordinated communications and storytelling. Build a strong RAPID brand by promoting its impact and success stories through media, social media, and partnerships. Raise public awareness to increase trust and engagement with the platform.

○ **Value-Addition and Synergy:**

Expand RAPID's emergency response coverage to support more affected populations. Improve the quality of response by integrating best practices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diverse organizations. Focus on areas where RAPID can make a unique impact, enhancing coordination and filling gaps in humanitarian efforts.

Key Indicators for the RAPID Activation Phase

Objective	Indicator	Description
Ensure Inclusiveness	Number of registered NGOs by type and size	Tracks diversity of participating NGOs.
Enhance Capacity	Number of RAPID Learning Lab sessions conducted	Measures partner engagement in training programs.
Increase ODA budget	Share of KOICA's humanitarian aid budget allocated to RAPID	Assesses budgetary commitment to RAPID.
Strengthen Visibility	Number of media mentions related to RAPID	Evaluates brand awareness and public engagement.
Value-addition and synergy	Number of beneficiaries of the RAPID assistance	Track the annual number of beneficiaries receiving support through RAPID joint interventions

4.2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The transition to a Joint Fundraising Platform aims to position Korea as a global pivotal player in humanitarian funding by fostering a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model. This phase focuses on three key objectives:

○ **Strengthening Global Recognition:**

Enhance the international visibility of Korea's joint fundraising platform by actively sharing best practices, success stories, and innovative approaches. Build connections with global fundraising networks,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forums, and engage in ongoing communication to promote Korea's leadership in humanitarian funding.

○ **Expanding the Humanitarian Ecosystem:**

Broaden the platform's reach by engaging a wider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media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Foster collaboration across sectors to create a strong, interconnected ecosystem that supports humanitarian responses both domestically and globally.

○ **Mobilizing Private Funding:**

Encourage increased financial contribu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by promoting the val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demonstrating the impact of humanitarian funding. Develop tailored engagement strategies for corporations and philanthropic organizations to secure long-term, flexible funding that strengthens the platform's capacity to respond to crises.

By achieving these objectives,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will ensure that Korea not only meets global humanitarian standards but also establishes itself as a key player in mobilizing resources for timely and effective emergency responses.

Key Indicators for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

Objective	Indicator	Description
Strengthen the platform's global recognition	Number of global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Media coverage frequency of the joint fundraising platform	Tracks participation in global fundraising platform networks and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Tracks the media coverage frequency
Expand the Humanitarian Ecosystem	Number of new partnerships with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and media organizations	Tracks expansion of partnerships across sectors.
Mobilize private funding	Total funds raised from private sector contributions	Monitors financial contributions from private companies to evaluate success in resource mobilization.

This stag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ublic trust, stakeholder engagement, and regulatory support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Indicators at this stage are designed to capture the platform's growth in visibility, partnerships, and funding impact.

5. Conclusion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trengthening Korea's humanitarian PPPs. By learning from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addressing domestic challenges, RAPID can become a leading model for coordinated disaster response. Key enablers include robust legal frameworks, adaptive funding mechanisms, and transparent governance structures that foster collaboration and accountability.

The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APID activation and joint fundraising platform phases provide a roadmap for enhancing stakeholder engagement, resource mobiliza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 transition to a joint fundraising platform offer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humanitarian leader.

By implementing these recommendations, Korea can reinforce its commitment to global humanitarian principles and enhance its capacity to respond to crises with agility, inclusivity, and resilience, contributing to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disaster relief efforts.

영문 약어

ABC	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ACFID	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 Commission
AHP	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BRC	British Red Cross
CBC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CBHA	The Consortium of British Humanitarian Agencies
CCIC	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FGB	Canadian Food Grain Bank
CHAF	Canada Humanitarian Assistance Fund
CHS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SF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RT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
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C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EAA	Emergency Action Alliance
EAA	Emergency Appeals Alliance
EC	European Commission
ECHO	European Commission Civil Protection & Humanitarian Aid Operations
EDAF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
FCDO	The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IAP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GAC	Global Affairs Canada
GHD	Principles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
GNI	Gross National Income
HC	Humanitarian Coalition
HDP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PAG	Humanitarian Policy Advocacy Group
HPP	Humanitarian Partnership Program

ABC	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HRG	Humanitarian Reference Group
HRN	Humanitarian Response Network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VA	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IDEC	International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HA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IoC	Indicator of Capacity
IPC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JANIC	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PF	Japan Platform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WoW	New Way of Working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PSEA	Prevention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RAPID	Responsive Action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RRN	Rapid Response Network
RRF	Rapid Response Facility
RTE	Real-Time Evaluation
PJA	Period Joint Action
PSEA	Prevention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BS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SCUK	Save the Children UK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IFT	Sustainable Humanitarian Innovation for Transformation
SI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VCOAD	Voluntary Committee on Overseas Aid and Development
WHS	World Humanitarian Summit

주요 용어 정의

용어	설명
핵심작동기제(Enabler)	• 실제로 플랫폼이 작동 가능하게 하는 매커니즘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층위에서 분석함. - Macro: 외부에서 플랫폼을 제도(정책, 법)적 및 사회문화(정서, 문화)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영향을 주는 내용 - Meso: 플랫폼 자체에 존재하는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내용 - Micro: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별NGO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내용
참여유인(Incentive)	•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이점의 성격을 담은,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임.
장애요인(Disabler)	• 플랫폼을 구성하고 작동하는데 방해나 어려움이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임.
공동대응 (Joint response) 플랫폼	• 정부, NGO, 기업, 일반 시민, 미디어가 국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모금, 배분, 평가 및 성과관리를 시행하는 플랫폼.
공동어필(Joint appeal)	• 국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모금 및 관심을 촉구하는 행위임.
공동모금(Joint fundraising)	• 국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대한 공동어필(Joint appeal)을 통해 공동 대응 플랫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모금하는 행위임.

목 차

국문 요약	i
Executive Summary	ix
영문 약어	xix
주요 용어 정의	ixi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과 범위	2
3. 연구방법론	5
4. 연구진 구성	13
5. 연구 일정	15
II.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의 원칙, 글로벌 동향 및 성과	16
1.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인도적 대합의	16
2. 현지화	20
3. 국제 행위자들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동향	22
4. 소결	28
III.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 분석	29
1. 한국 인도적 지원 및 RAPID 현황	29
2.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분석	41

IV. 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체계 현황 분석	53
1. 영국	53
2. 일본	92
3. 캐나다	118
4. 호주	144
5. 소결	166
V. 결론: RAPID 발전방안 제안	180
1. 국내 이해관계자 제안	180
2.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방안	183
3. 성과관리틀 및 성과지표	216
참고문헌	229

표 목차

[표 1] 연구 이해관계자 및 연구 참여방식	6
[표 2]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참여 공공 및 민간 파트너 현황 조사분석 틀	7
[표 3]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핵심작동기제(enabler) 분석틀	8
[표 4]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	9
[표 5] 4개국 현지 조사 결과	11
[표 6] 연구팀 업무분장	13
[표 7] 세부 연구일정	15
[표 8] GHD의 24대 원칙 및 관행 주요 내용	16
[표 9] EAA 소속 12개 인도적 지원 공동대응 플랫폼 성격	26
[표 10] 한국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의 발전 과정과 특성	32
[표 11] 한국 인도적 지원 민민(사회복지공동모금회&NGOs) 파트너십 현황	33
[표 12] 국내 민민 파트너십의 다양한 사례	33
[표 13] 인도적 위기에 따른 기업의 참여 현황	34
[표 14] 인도적 위기에 따른 미디어의 참여 현황	34
[표 15] RAPID 목적 및 운영위원회	36
[표 16] 2024 RAPID 동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사업 목록	38
[표 17] 국내 이해관계자 분석 목록	41
[표 18] RAPID 미참여 NGO 초점그룹토론 주요 내용	49
[표 19] 공공기관의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52
[표 20] DEC 개요	57
[표 21] DEC 어필별 모금액	62
[표 22] DEC 작동기제	73
[표 23] Start Network 개요	76
[표 24] Start Network 작동기제 요인	88
[표 25] JPF 개요	96
[표 26] JPF 작동기제	111
[표 27] 캐나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기금 종류	121

[표 28] HC 개요	124
[표 29] HC 작동기제	137
[표 30] EAA 개요	148
[표 31] EAA 긴급 어필 종류(2021~2023)	152
[표 32] EAA 작동기제	160
[표 33] 4개국 플랫폼 요약	171
[표 34] 각국 플랫폼 사례를 통한 시사점	174
[표 35] 핵심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요	180
[표 36] RAPID 및 RAPID Plus 참여단체 기준 (안)	186
[표 37] RAPID 파트너 기관 역할	187
[표 38] RAPID 사업유형	189
[표 39] RAPID 멤버 사업 참여방식	190
[표 40] RAPID의 핵심작동기제,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주체별 참여유인	195
[표 41] 공동모금플랫폼 멤버단체 기준(안)	200
[표 42] 파트너 기관 역할	201
[표 43] 공동모금플랫폼의 사업단계별 내용	202
[표 44] 공동모금플랫폼의 핵심작동기제,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주체별 참여유인	208
[표 45] RAPID 활성화와 공동모금플랫폼 병행 추진(안)	212
[표 46] RAPID 프로그램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안)	214
[표 47] RAPID 활성화 단계 시스템 차원 지표: 산출/성과(안)	221
[표 48] RAPID 활성화 단계 사업 시너지효과 제고 차원 지표: 산출/성과	223
[표 49]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지표(풀): 산출/성과(안)	22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범위와 결과물	3
[그림 2] 연구 수행 전략	5
[그림 3]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분석 틀	7
[그림 4] 연구수행을 위한 전담체계	14
[그림 6] Grand Bargain beyond 2023	18
[그림 7] 인도적 대합의 내 현지화 핵심 공약	20
[그림 8] 2022년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이행 규모	23
[그림 9] 2024년 국가별 인도적 지원 수요 대비 재원 확보 현황	23
[그림 10] 한국의 인도적 지원 ODA 규모 추이(2017~2022)	31
[그림 11] RAPID 프로그램 승인 절차	37
[그림 12] 영국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2019~2023)	54
[그림 13] DEC Strategy 2024-2029	59
[그림 14] DEC 사무국 조직도	61
[그림 15] 섹터별 지출 유형(2022년 3월~2024년 2월)	67
[그림 16] DEC 책무성 프레임워크	68
[그림 17] DEC 회원단체 CHS에 대한 독립검증 현황	69
[그림 18] Start Network 사무국 조직체계	80
[그림 19] Start Network 총수입액 및 영국 정부 지원액 규모	81
[그림 20] 일본 ODA 예산 추세	93
[그림 21] Japan Platform 구조도	100
[그림 22] 2023년 JPF 대응 재난	103
[그림 23] 캐나다의 ODA 예산 추세	119
[그림 24] 2023년 HC 대응	129
[그림 25] 호주의 ODA 예산 추세	145
[그림 26] 호주 EAA의 3년간 모금 내용	151
[그림 27] EAA 조직도	154
[그림 28] EAA의 아프리카 기아 공동어필 모금 금액 배분 및 사용 내용	156

[그림 29] RAPID 플랫폼 구성주체	185
[그림 30] 공동모금플랫폼 구성주체	199
[그림 31] RAPID 활성화 -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변화 선결과제	226

I. 서론

1. 연구 필요성

- 국제사회는 2016년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인도주의 국제기구, 공여국, 시민사회가 서약한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¹⁾를 통해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 책무성 증대 및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 정부 또한 2020년 동 합의에 가입했으며, 합의 내용 이행을 노력 중이다.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의 주요 공여국들은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의 효과성 제고 및 이재민 책무성 강화 노력의 하나로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 맥락에서의 정부-시민사회 협력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하는 상황이다.
- 한국 정부는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직후 정부-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긴급구호부터 조기복구 단계까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는 3개 NGO²⁾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튀 우정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KOICA와 시민사회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인 RAPID(Responseive Action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긴급재난대응 민관협력사업)을 신설했다.
- 이에 KOICA는 포괄적 파트너십인 RAPID을 발전시키기 위해 타 국가 협력체계, 파트너십의 핵심적 작동 기제(enabler),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타 국가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형태를 분석하여, 한국 국내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1)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그랜드바겐으로 기술한다.

2)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희망친구 기아대책

2. 연구 목적과 범위

2-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그랜드바젠’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민관(공공, 시민사회 및 기업 등) 협력체계 개선안 도출을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다.

- 첫째, 타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을 분석해 ‘그랜드바젠’에 준하여 분절화를 지양하고, ‘Good Humanitarian Donorship’, ‘현지화(localization)’ 등이 제시하는 중요한 국제 인도적 지원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의 강점을 반영한 포괄적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재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 둘째,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체계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핵심적 작동 기제(enabler)를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4개국의 특성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및 분석해, 성공적인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에 필요한 핵심적 작동 기제 구축을 위한 장애요인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국내 주체 간 협업을 위해 운영 중인 RAPID³⁾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 셋째, 한국 인도적 지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브랜드 공유, 모금 및 분배, 기금형 운영 체계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협업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실현한다. 또한 포괄적 이해관계자 간 협업의 성과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십 형성방안과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RAPID 운영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2-2.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한국의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민관(공공, 시민사회 및 기업 등) 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내용을 연구범위로 정했다.

- 첫째, 인도적 지원과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정책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파트너십 원칙,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인도적 대합의(그랜드바젠) 및 현지화(localization)에 대한 적용 사례를 포함했다.
- 둘째, 4개 공여국(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협력체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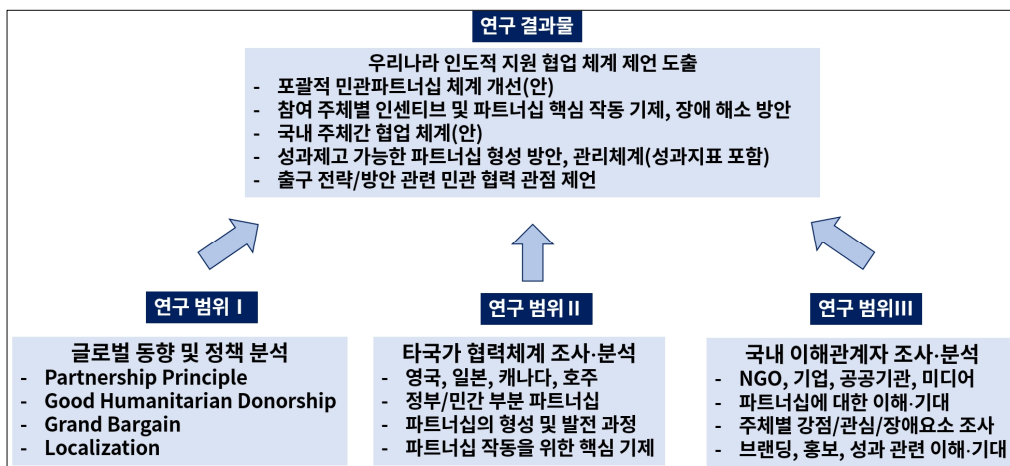
3) KOICA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내 긴급재난대응 사업의 세부형태로 특정 인도적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조사·분석했고, 구체적으로는 ①파트너십 체계를 둘러싼 제도환경, ②플랫폼 형성과 발전 과정, ③플랫폼의 체계와 운영 방식, ④작동기제 및 저해 요인, ⑤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다.

- 셋째, 국내 인도적 지원 분야 이해관계자를 조사 분석하여 특성에 부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 구성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외교부, KOICA), 공공기관, 민간(NGO, 기업, 미디어, 모금·배분기관 및 기타 주체)을 대상으로 ①각 주체들이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에 가지는 이해와 기대 및 그들의 강점·관심·이해도를 정리하고 ②이들이 새로운 체계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핵심작동기제(enabler)와 참여유인(incentive), 장애요인(disabler)을 정리했다. 그리고 ③참여 주체별로 사업을 수행할 NGO에 대한 조직/역량필수요건 및 요건에 대한 검증체계, 재원파트너로 참여할 NGO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유인과 방식을 정리하고자 한다.
- 넷째,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홍보 방안을 구성한다. ①본 연구 제언의 방향성에 기반한 성과관리틀을 마련, 이를 기반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②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브랜딩을 포함한 홍보방안을 구성한다.

○ 이상의 범위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파트너십 협력체계, 파트너십 핵심작동기제(enabler)와 장애요인(disabler),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그림 1] 연구 범위와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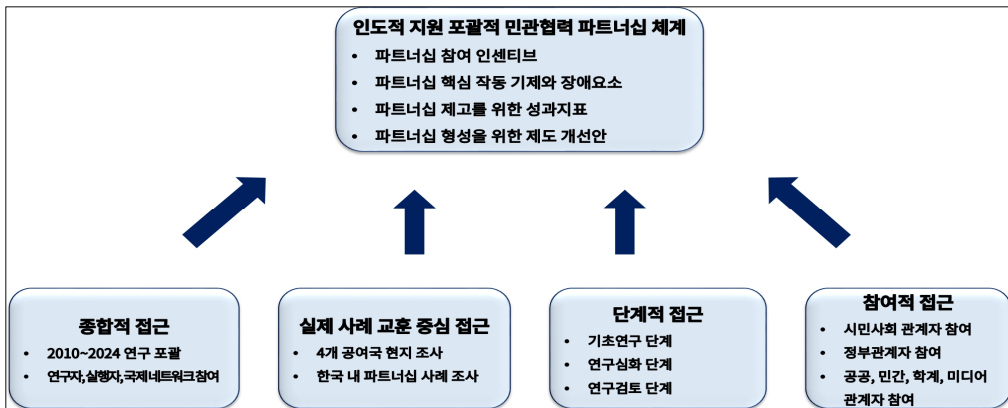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주 범위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실행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유인(incentive)과 핵심작동기제(enabler) 및 장애요인(disabler)을 연구했다.
-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표현인, 핵심작동기제(enabler), 참여유인(incentive), 장애요인(disabler)에 대해 문헌조사를 통해 본 연구만을 위한 개념을 정의했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 수행 전략

- 본 연구는 효과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종합적 접근, 현장중심 접근, 단계적 접근 및 참여적 접근 전략을 활용했다.

[그림 2] 연구 수행 전략



3-1-1. 종합적 접근

- 지난 15여 년간(2010~2024년) 국내외에서 추진된 선행연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금 번 연구를 통해 현지 조사(4개국 사례)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인도적 대합의 및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 정책, 전략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 인도적 지원과 정부-민간파트너십 그리고 성과관리와 관련한 연구팀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국내 시민사회, 민간, 공공 네트워크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총괄 분석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인도적 지원 포괄적 정부-민간 파트너십 구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을 통합적으로 연구했다.

3-1-2. 실제 사례 통한 교훈 중심 접근

-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을 정책과 사업 측면에서 활발하게 실행해온 일본,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등 타 공여국을 방문 조사하여 실제 정책의 형성과 사업 실행과정에서의 도출된 교훈을 정리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하여 반영했다.

-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민간파트너십 정책과 사업실행 현장에서 문제점과 대안 필요성을 느낀 정부, 시민사회, 학계 및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제 필요를 청취하고 정리해 연구에 반영했다.
-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복구과정에서 형성한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에 적용했다.
- 2024년 KOICA-NGO가 공동의 인도적 지원 대응을 위해 첫 사업이 시작되는 RAPID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했다.

3-1-3. 단계적 접근

- 기초연구 → 연구심화 → 연구검토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설정,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검증 및 질적 제고를 도모했다.
-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단계별 연구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정부, 학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자들과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했다.

3-1-4. 참여적 접근

- 인도적 지원 포괄적 정부-민간파트너십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팀뿐 아니라 시민사회, 정부, 학계 및 공공과 민간의 등 주요 관련자들이 연구 과정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토록 했다.
- 주요 전문가 집단, 실무자 그룹 등의 참여를 통해 인도적 지원 정부-민간파트너십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집성하여 연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표 1] 연구 이해관계자 및 연구 참여방식

이해관계자			연구참여 방식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	KOICA, 대한적십자사, 공동모금회	심층 인터뷰
	학계 및 연구자	대학 교수, KIEP 연구위원	자문
	NGO	RAPID 참여 NGO 및 비참여 NGO	자문 및 인터뷰
	기업, 미디어 등	인도적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참여 경험 기관	자문 및 인터뷰
해외	정부 및 공공기관	4개국 인도적 지원 담당 기관	심층 인터뷰
	NGO	4개국 인도적 지원 공동 대응 참여 경험 NGO	심층 인터뷰
	기업, 미디어 등	4개국 인도적 지원 공동 대응 참여 경험기관	심층 인터뷰

3-2. 연구 방법

3-2-1. 연구 분석 틀

○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분석 틀

구분	과업범위	세부 과업 범위	접근	제언도출
분석 내용	인도적 대합의, 파트너십 원칙 인도적 지원 국제 규범 및 협약 글로벌 동향 및 정책 분석 타 공여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비교 분석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국내 이해관계자 분석 행위자별 강점/역할 분석 작동 기제/장애물/유인 요소	•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인도적대합의 및 현 지화 분석 • 주요 공여국의 역사·사회·문화 맥락에서의 파트너십 특징 • 한국의 민간/민인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체계/현황/과제 • 체계/법제도/구조/전략/원칙 분석 • 주요 플랫폼, Pooled Fund 운영 사례 • 파트너십의 성과, 측정 지표, 성과 홍보 체계 • 행위자별 파트너십 유인 방식 •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특징, 한국대비 유사/차이점 • 사업수행 NGO 필수 요건, 요건 검증 체계 • 공여 파트너, 수행 파트너별 참여 유인 방식 • 기업, 미디어, 공공기관의 참여 유인 방식 • 행위자별 파트너십에 대한 성과 이해·기대 분석 • 브랜딩과 홍보에 대한 제언 도출	✓ 종합적 ✓ 사례기반 ✓ 단계적 ✓ 참여적	1. 포괄적 민간 파트너십 체계 개선안 2. 참여 주체간 인센티브, 파트너십 핵심 작동 기제 구축을 위한 장애 해소 방안 3. 국내 주체간 협업 체계(안) 4. 성과 재고 가능한 파트너십 형성, 관리체계(지표) 5. 브랜딩, 성과 홍보 체계 제언 6. 출구 전략/방안 민관협력 관점 제언
분석 방법	➢ 문헌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관련 연구자료, 정책문서, 기관자료, 가이드라인 - 관련 학술 논문, 타국가 관련 기구, 국제기구 발간 보고서, 평가 보고서 - OECD DAC, UN 등 인도적 지원 관련 통계 분석 ➢ 초점집단인터뷰(FGI) / 심층 인터뷰 : 국내외 정부(인도적 지원 담당), 시민사회, 기업, 미디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 (잠정)설문조사 : 주요 행위자별 그룹 대상 파트너십(브랜딩, 홍보 한정)관련 이해도, 선호도 조사 ➢ 공개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주요 행위자별 강점/약점, 유인책/작동기제/장애물 도출을 위한 토론			

○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중심인 민관협력에 더욱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실현하기 위한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참여 공공 및 민간 파트너 현황 조사분석 틀

구분	민간			공공	
	민간기업	미디어	모금·배분 기관 ⁴⁾	KOICA	대한적십자사
참여방식	기부처(NGO,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	NGO와 협력홍보	NGO에 기부	직접시행	직접시행
특성	재정 동원	홍보 중심	재정 동원	사업수행	사업수행
주 파트너	NGO	NGO		NGO	국제적십자회
도전과제	적절한 국내 파트너 발굴	적절한 국내 파트너 발굴	재원확보부족	현지파트너 연결	-

*예: 2023년 튀르키예 지진

○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의 핵심작동기제(enabler)를 외부적 제도 차원과 내부적 운용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틀을 구성해 적용하여 한국에의 적용점을 도출했다.

[표 3]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핵심작동기제(enabler) 분석틀

구분		내용
Macro-level (플랫폼 외부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법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다양한 부처별 관련 법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방향성 명시 - 상위법·지침·규정별 일관성 제고를 통한 범정부(Whole of government) 접근 제고 - 다양한 주체의 재정적 기부 참여에 하는 법적 세제 혜택
	정책, 전략	- 인도적 지원 전략 내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명확한 명시 - 범부처/주체 차원 동의 및 지지
	자금지원	- 인도적 지원 개입의 시의적절성, 예측 가능성 - 유연성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협력 프레임워크	다양한 주체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공통의 목표, 협력 체계 구축
Meso-level (플랫폼 자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자금지원	- 인도적 지원 개입의 시의적절성, 예측 가능성 - 유연성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 예측가능한 안정적 자금지원 체계
	협력 프레임워크	다양한 주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공통의 목표, 협력 체계 구축
	효과적 운용	- 포괄적 파트너십 플랫폼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는 사무국 - 전문적인 어필, 모금, 배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 공여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회원단체 구성
Micro-level (플랫폼에 참여하는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자금지원	- 인도적 지원 개입의 시의적절성, 예측 가능성 - 유연성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 예측가능한 안정적 자금지원 체계
	회원단체	-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또는 위험도를 높이는 타 동료단체의 합류 -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 단체라는 공인된 이미지 부여
	파트너 역량강화	포괄적 파트너십 참여하는 정부, 기업, NGO, 미디어, 현지 파트너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 실행 역량 강화
	공통 성과지표	- 파트너십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공통 지표 마련 - 포괄적 성과관리 및 시너지 효과 측정

3-2-2. 연구 방법

○ 연구팀은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초점집단인터뷰’ 및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네 가지 조사방법을 활용했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연구방법을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이행방안을 도출하여 선진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표 4]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

구분	내용
문헌조사	•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 현황 • 그랜드바겐, 공여국의 역사/사회적 흐름과 파트너십 •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 사업 현황
초점집단 인터뷰(FGI)	•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관계자(RAPID 비참여 NGO 관계자)
심층인터뷰	• 국내 정부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 사업 관계자(KOICA) • 국내 시민사회 내 RAPID 참여 NGO 관계자 • 국내 학계 주요 관련자 개국내 공공기관(대한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미디어, 기업 주요 관련자 • 4개국(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담당 부서 및 기관 주요 관계자 • 4개국(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관련 시민사회, 기업, 미디어 및 기타 기관 주요 관계자
이해관계자 워크숍	• 정부(KOICA)와 시민사회 관계자(RAPID 참여 및 비참여 NGO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참여방식의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

3-2-2-1. 심층인터뷰

○ 목적

- 정부-민간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핵심기제, 장애물, 참여유인, 제도개선안 구성을 위한 핵심적 내용을 청취해 연구에 반영했다.

○ 대상 및 내용

- 정부 관계자(KOICA): 정부-민간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
- 민간관계자(기업, 미디어, 모금·배분기관 및 기타):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 기타 주체(대한적십자 등):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민간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3-2-2-2. 초점집단인터뷰

○ 목적

- 정부-민간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필요한 주요 내용의 의견을 청취해 연구에 반영했다.

○ 대상 및 내용

- 시민사회관계자(NGO): 정부와의 협력을 심층화하기 위한 방안 및 민간 및 기타 주체와의 효과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3-2-2-3. 해외현지조사

○ 목적 및 국가 선정 이유

-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관파트너십 구성을 위한 정책현황 및 핵심기제, 장애물, 성과관리 체계, 제도개선안 구성을 위한 핵심적 내용을 청취해 연구에 반영했다.
- 연구진이 방문 조사한 4개국은 KOICA가 연구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국가들이다. 영국의 DEC(Disasters Emergency Committee)는 인도적 지원 공동대응플랫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의 EAA(Emergency Action Alliance), 캐나다의 HC(Humanitarian Coalition)는 같은 앵글로색슨 계열의 비슷한 문화와 사회적 관습들의 맥이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호주의 EAA는 2021년 설립된 3년 되어, 설립과정과 초기의 경험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법적 제도적 환경이 비슷하므로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이 활용할 만한 충분한 유사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 및 내용

- 일본은 Mo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무성),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PF(Japan Platform), NGO 및 민간기업을 만나 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과 실행체계, 주체별 참여유인과 방안, 핵심적 작동기제, 성과관리체계, 홍보체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 영국은 FCDO(The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외무·영연방 및 개발부), DEC, 세이브더칠드런, BOND, Start Network 등을 만나 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과 실행체계, 주체별 참여유인과 방안, 핵심적작동기제, 성과관리체계, 홍보체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 호주는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외교부), NGO협의체 AcFID(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개별NGO 등을 만나 AHP(Australian Humanitarian Partnership)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며, 민간기업, 미디어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과 실행체계, 주체별 참여유인과 방안,

핵심적 작동기제, 성과관리체계, 홍보체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 캐나다는 GAC(Global Affairs Canada, 외교부) IHA(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국제인도적지원국)를 방문해 'CHAF(Canada Humanitarian Assistance Fund, 캐나다인도적지원기금)'를 포함한 인도적 재난대응 주요기금의 운용과 민간의 참여에 대한 현황 및 정부정책과 실행체계 및 주체별 참여유인과 방안, 핵심적 작동기제, 성과관리체계, 홍보체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캐나다 인도주의 비영리기구협의체인 'HRN(Humanitarian Response Network, 인도주의 대응 네트워크)'과 협력해 정부와의 파트너십 및 타 민간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조사했다.
- 각 국가는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십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만의 파트너십,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연구에서는 인도적 지원으로 한정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표 5] 4개국 현지 조사 결과

구분	일정	주요 방문 기관 및 조사 내용	
일본	8/26 ~31	일본 정부(공여기관)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Japan Grant Assistance for Japanese NGO Projects) 운영 주체 - 파트너십 제도 파악(법적·제도 근거 조사)
		공동 대응 플랫폼 사무국(Japan Platform)	- JPF 플랫폼 운영체계(배분 및 운영) 전반 - JPF 파트너십 체계 전반 - 일본정부와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JPF 참여 NGO	(CWS, 굿네이버스, JEN) - 일본 정부, 민간파트너십의 공통점, 차이점 - 공공-민간 및 민간 파트너십에 따른 NGO 기관의 비교(장·단점)
		NGO 협의체(JANIC)	- 일본 NGO의 모금 환경 및 규모 -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NGO 정책 파트너십 현황 - JPF와 JANIC 관계
영국	9/7~ 9/15	영국 정부(FCDO)	-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책 및 실행체계 - DEC, Start Network 파트너십 방식
		공동 대응 플랫폼 사무국(Disaster s Emergency Committee)	- DEC 플랫폼 운영체계(배분 및 운영) 전반 - DEC 사무국으로서 NGO, 미디어,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 영국 정부와 플랫폼의 협력 방식
		NGO 협의체(BOND)	- 영국 정부, 민간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전반 - 영국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의 변화 - DEC와 BOND 관계
		DEC 참여 NGO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플랜, 영국적십자사) - 영국 정부, 민간파트너십의 공통점, 차이점 - 공공-민간 및 민간 파트너십에 따른 NGO 기관의 비교(장·단점)

구분	일정	주요 방문 기관 및 조사 내용	
		기타 (Start Network)	- DEC와의 차별점 -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점, Localization을 기반한 파트너십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등
호주	9/14~9/20	호주 정부(DFAT)	- AHP 파트너십 정책 및 제도 - 민간공동대응플랫폼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의 특징점
		공동 대응 플랫폼 사무국(EAA)	- EAA 플랫폼 운영체계(배분 및 운영) 전반 - EAA 파트너십 체계 전반 - 일본정부와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NGO 협의체(AcFID)	- 호주 정부, 민간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전반 - 호주 NGO의 인도적 지원 생태계
		EAA 참여 NGO	(Child Fund, 월드비전, ADRA) - 호주 정부, 민간파트너십의 공통점, 차이점 - 공공-민간 및 민민 파트너십에 따른 NGO 기관의 비교(장·단점) - EAA 파트너십의 특징과 강점
		미디어(ABC)	- EAA에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캐나다	9/21~9/29	캐나다 정부(GAC)	- 민간 프로그램 관련 정책 및 실행체계 - 캐나다 정부의 HC 프로그램 참여방식
		공동 대응 플랫폼 사무국 (Humanitarian Coalition)	- HC 플랫폼 운영체계(배분 및 운영) 전반 - HC 사무국으로서 NGO, 미디어,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 캐나다 정부와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NGO 협의체	(HRN, CC) - 캐나다 정부, 민간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전반 - 캐나다 NGO의 인도적 지원 생태계
		HC 참여 NGO	(Oxfam, Medicine du monde, CFGB) - 캐나다 정부, 민간파트너십의 공통점, 차이점 - 공공-민간 및 민민 파트너십에 따른 NGO 기관의 비교(장·단점) - HC 파트너십의 특징과 강점
뉴질랜드 (온라인)	9/19	공동대응플랫폼 (Emergency Alliance)	- EA 플랫폼 설립 배경 및 과정 - EA 플랫폼 운영 방식 - EA 플랫폼 발전 방향 및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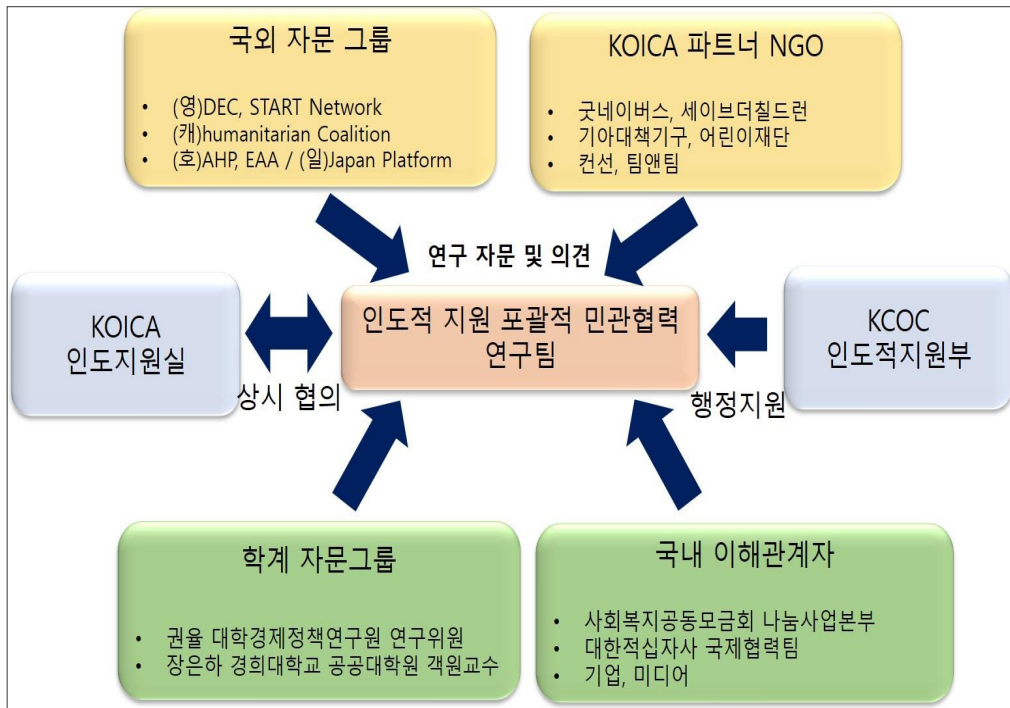
4. 연구진 구성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진을 구성했다.

[표 6] 연구팀 업무분장

참여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 관련 업무 분장
책임 연구원	한재광	- 연구과정 전반 총괄 - 연구관련 대외적 대표 - 핵심적작동기제 및 장애요소 적 용안 구성총괄	- 연구 수행 총괄 - KOICA 협의 - 호주(총괄) 현지조사 - 정책제안 작성
공동 연구원	정지선	- 해외연구동향조사 - 연구 및 파트너십 분석 틀 개발	- 해외 및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민간파트너십 정책연 구 조사 - 성과관리틀 구성
	송계희	- 국제인도주의 커뮤니티 동향조 사 총괄 - 영국 현지 조사 총괄	- 인도적 대합의, 인도주의 파트너십원칙, 국제 인도주의 커뮤니티 정책 동향 조사 - 캐나다, 영국(총괄) 현지 조사
	이경주	- 국내 이해관계자 조사 및 참여유 인방안 구성총괄 - 홍보체계 구성총괄 - 현지조사 참여	- 국내 공공, 민간 이해관계자 인터뷰/FGI/이해관계자 워크숍 총괄 - 참여자별 참여유인, 방안 작성 - 홍보체계 구성 - 일본, 영국 현지 조사 참여
	이경신	- 해외현지조사 총괄 - 캐나다, 일본 현지 조사 총괄	- 해외 사례연구 정리 한국적 적용 - 핵심적 작동기제 및 장애요소 연구 및 한국 적용 - 일본, 캐나다 현지 조사 총괄
연구 보조원	박준영	국내 이해관계자 조사 및 참여방 안 지원	- 국내 이해관계자 워크숍, 인터뷰/FGI 지원 - 영국, 호주 현지 조사 참여 및 지원
	윤다솔	- 해외조사실무지원 - 국내 이해관계자 조사 및 참여방 안 지원	- 해외조사 실무담당 - 국내 이해관계자 워크숍 및 인터뷰 지원 - 캐나다, 일본 현지 조사 참여 및 지원
	조수안	- 문헌조사 지원 - 해외조사실무지원	- 해외 및 국내문헌조사 지원 - 영국 현지 조사 참여 - 국내 이해관계자 워크숍 및 인터뷰 지원
보조원	김동현	연구행정 지원	계약 및 연구비 정산 관리

[그림 4] 연구수행을 위한 전담체계



○ 또한, 인도적 지원 국내 포괄적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결과물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행위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본 연구의 단계마다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팀은 모금기관, 기업, 미디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자문그룹을 구성했다. 특별히 국내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워크숍 과정에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5. 연구 일정

○ 본 연구팀의 세부연구일정은 [표 7]과 같다.

[표 7] 세부 연구일정

주요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주	2 주	3 주	4 주
세부계획 수립																										
연구 방법론 및 설계																										
문헌조사 및 분석																										
착수보고회																										
국내 관계자 인터뷰																										
현지 조사 사전 준비																										
현지 방문조사(일본)																										
현지 방문조사(영국)																										
현지 방문조사(호주)																										
현지 방문조사(캐나다)																										
각종 조사결과 결과 분석																										
대상별 초점집단인터뷰																										
연구진 워크숍																										
중간보고회 개최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KOICA와 협의(수시)																										
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 제출																										
집행경비 정산																										

II.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의 원칙, 글로벌 동향 및 성과

1.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및 인도적 대합의

1-1.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

-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행위에 대한 원칙과 관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GHD(Principles of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 원칙)는 OECD 동료평가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OECD DAC 회원국 전체 및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위원회) 포함 총 35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09년 7월에 가입했다(KCOC, 2020).
- GHD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행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고, 기금지원, 조정, 사후조치 및 원조행위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혜자, 수행기관, 공여국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성을 증진한다(KCOC, 2020:40).
- GHD의 24대 원칙 및 관행의 주요 내용은 [표 8]과 같으며, 전체적인 특징은 △재원의 예측 가능성, 적시성, 유연성 확보 △수혜자의 수요비례 △지정 기금 축소 △공여국-수행기관 간의 보고체계의 표준화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여국-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한다(GHD, 2023).

[표 8] GHD의 24대 원칙 및 관행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인도주의 원칙 및 보호에 따른 이행 • 국제법 준수 • 인도적 재원의 예측 가능성, 유연성 및 적시성 확보 • 인도적 지원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수혜자의 참여 보장 • 현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 예방, 경감 역량 강화 • 긴급구호시 복구 및 장기적 개발과의 연계성 고려 • 장기적 기금 마련, 지정 기금 축소 혹은 유연성 강화 등의 노력 • UN의 대응체계 및 전략 활용 • 공여국의 인도적 위기 대응에 대한 정기적 평가 • 보고의 정확성, 적시성, 투명성 확보 및 이를 위한 표준화된 양식 개발 • 효과적 대응 방식으로 현물보다 현금 지급 권장

출처: KCOC(2020), GHD(2023)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003년에 도입된 이래 공여국의 노력 또는 수행기관과 협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현금 지급의 사용 증가를 비롯한 그 효율성과 수혜자의 존엄성 측면에서의 혜택을 고려하여 2018년 고위급 회의에서 현금 지급을 GHD의 24번째 원칙으로 채택했다. 또한,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중앙 긴급구호 기금) 및 다양한 국가의 공동기금(Pooled funds)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자금조달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유연한 메커니즘이 잘 구축되어 있다. GHD에 가입한 여러 공여국들은 GHD 원칙을 준수하고자 NGO 및 적십자 파트너기관 대상으로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조정한다. 긴급 대응에서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GHD 프레임워크는 긴급 대응에서 UN 기구가 수행하는 고유한 리더십과 조정 역할을 활성화한다(GHD, 2023).

1-2. 인도적 대합의

○ 배경 및 주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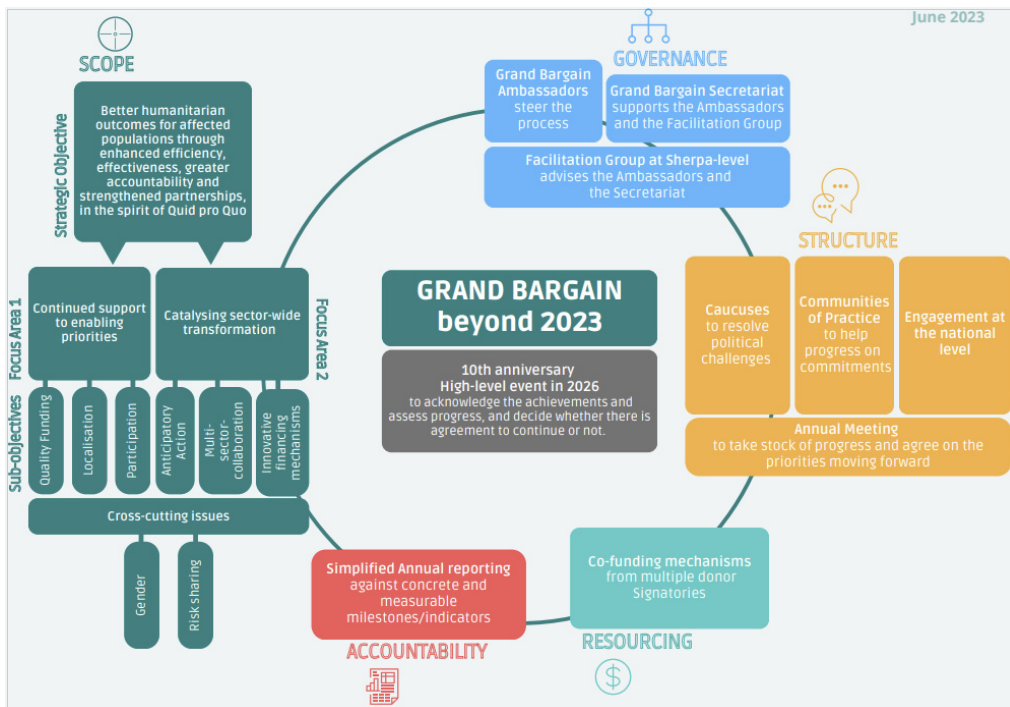
- 2016년 5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WHS(World Humanitarian Summit,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인도적 지원 자금조달 격차 해소를 모색하고자 구성된 고위급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주요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수행기관 간에 체결한 공동 협약이다(ICVA, 2022; KCOC, 2021).
- 인도적 대합의의 핵심 요지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책무성 증진에 있어서 인도적 재원의 적시성, 유연성,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년도 기금을 마련하고 지정 기금을 축소하며, 의사결정 단계에서 현지 주민(수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여국-수행기관 간의 보고 체계 표준화 및 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다(KCOC, 2020).
- 현재 총 67개의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수행기관⁵⁾이 인도적 대합의에 서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2월에 가입하여 지정 기금 규모 축소, 유연한 다년도 기금 조성, 보고 요건 간소화 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KCOC, 2023).
- 2016년에 처음 도입된 인도적 대합의 이후 5년이 지난 2021년 6월 인도적 대합의 연례 회의에서 10개 행동 과제 및 51개 공약을 포함한 인도적 대합의 2.0이 도출됐다. 10개의 행동 과제에는 △재정 투명성 강화 △현지화 △현금지원 △행정비용 축소 △수요조사 확대 △현지 주민(수혜자) 참여 보장 △다년도 기금 확대 △지정 기금 축소 △보고 절차 간소화 △인도적

5) 25개 회원국, 26개 NGO, 12개 유엔 기구, 2개 적십자·적신월 운동, 2개 정부 간 기구가 인도적 대합의에 서명함(IASC, 2023).

지원-개발 연계가 포함된다. 이중 △다년도 기금 확대와 △지정 기금 축소는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인도적 지원-개발 연계는 2018년부터 다른 행동 과제로 편입됐다. 따라서, 인도적 대합의 2.0에서 △재정 투명성 강화 △현지화 △수요조사 확대 △현지 주민(수혜자) 참여 보장 △보고 절차 간소화만 유지하고 나머지 행동 과제들은 필요시 진행하는 것으로 변동됐다(ICVA, 2022; KCOC, 2023).

- 다만, 점차 심화하는 인도적 위기와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10개 행동 과제 및 51개 공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순위 및 구조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합의된 결과가 [그림 5]의 Grand Bargain beyond 2023이다.

[그림 6] Grand Bargain beyond 2023



출처: IASC(2023)“Grand Bargain beyond 2023”

○ Grand Bargain beyond 2023

- 첫 번째 중점 영역은 현지화, 지역사회 참여, 양질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가시성, 투명성, 책무성을 보장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자금을 확보하고, 현지 행위자의 리더십, 현장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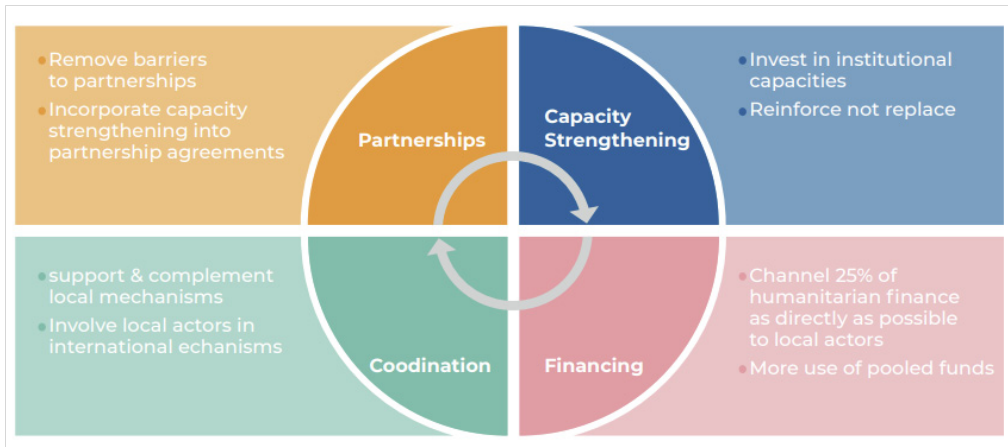
제공하며,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적 위기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한다(IASC, 2023).

- 두 번째 중점 영역은 예측적 조치(Anticipatory Action), 다양한 섹터 간 협업, 혁신적인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통한 섹터 전반의 혁신 촉진으로 예측적 조치(Anticipatory Action)을 확대하고자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 인도적 대합의 하에 HDP-N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목적에 맞는 섹터 간 협업과 혁신적인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기존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지원하여 규모를 확대한다(IASC, 2023).
- 책무성 측면에서 연례 보고의 중요성과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많은 인도적 대합의 서명 기관이 보고 요건의 간소화를 표명함에 따라, 보고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여 예를 들면, 비교 및 후속 조치가 용이하도록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중요한 단계/지표에 대한 연례 보고로 수정한다(IASC, 2023).
- 재정적 지원은 사무국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독립 보고서 및 연례 회의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과거에는 Facilitation Group의 일부 회원들이 자금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비용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하고 서명 기관의 자발적인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기금 메커니즘을 마련한다(IASC, 2023).
- 인도적 대합의 서명 기관들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고위급 회의를 목표로 2개의 중점 영역을 달성하고자 한다.

2. 현지화

- 현지 국가 및 지역 주민(수혜자)을 배제하고, 공여국의 이해관계와 수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던 기존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원방식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현지화가 대두됐다(월드비전, 2024).
- 인도적 대합의에서 현지화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고 재난 전후에, 재난에 대비하거나 지역사회에 남아서 복구하는 당사자는 현지 국가 및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월드비전, 2024).

[그림 7] 인도적 대합의 내 현지화 핵심 공약



출처: IFRC(2023). "The Grand Bargain and Localisation Commitments"

-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적 대합의에서 현지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크게 파트너십, 역량 강화, 자금지원, 조정으로 나뉜다. 역량 강화의 경우, 현지 지역 및 국가 행위자(Local and National Responders)의 조직 역량에 대한 다년도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취약지역과 무력 분쟁, 재난, 질병,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대상으로 예방, 대응 및 조정 역량에 투자한다. 이는 개발협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루어야 하며, 파트너십 협약에 역량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 자금지원 측면에서 피해 주민에게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및 국가 행위자에게 인도적 재원의 최소 25%를 가능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IFRC, 2023).
- 인도적 대합의에서 현지화에 대한 공여국 및 수행기관의 노력을 엿보자면, 미국은 2030년까지 원조 자금의 50%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활동에 투자하겠다는 목표 하에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DG ECHO guidance note - Promoting Equitable Partnerships with Local Responders in Humanitarian Settings(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현지 행위자와의 공평한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가이드)를 수립한 유럽연합 등 주요 공여국들은 현지화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현지 지역 및 국가 행위자에게 가능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원된 자금은 전체의 2%, 특히 직접 지원은 1.2%에 불과할 만큼 현재 자금지원에서 국제사회의 현지화 이행 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월드비전, 2024:13).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ODA 및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기 행정부 집권 당시 추진한 미국의 해외원조자금(USAID 예산 포함) 삭감, UN 지원 자금 감축 등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ODA 및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성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 현지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Gawel, 2024; Loy,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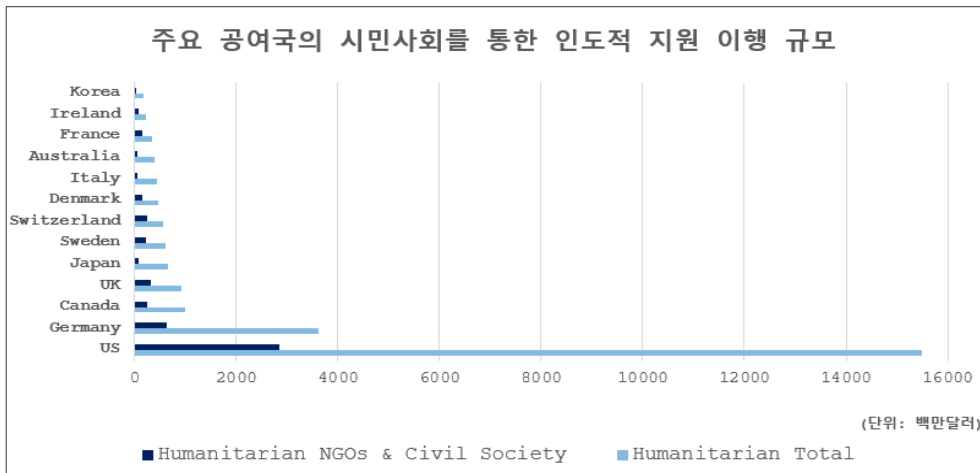
3. 국제 행위자들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동향

-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층적인 행위자들의 협력과 조정이 중요하다. 피해 규모가 큰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적시 대응을 요구하는 긴급구호 활동은 공여국, 국제기구, NGO 행위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긴급한 인도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홍지영, 2022).
- 다수의 공여국이 인도적 지원을 실행함에 따라, 양자,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파트너를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독립적 행위자인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 또는 기관 단독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한바, 지원/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및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시됐다(Milward and Provan, 2006).

3-1.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에서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 인도적 지원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강조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시민사회의 재정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한편, 시민사회는 정부가 갖지 못한 수혜자 접근성,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현지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Bryson and Crosby, 2008).
- 2011년 OECD DAC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DAC 공여국들이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12가지 이유로는 △서비스지원 수혜자 접근성 △인도적 지원 신속성 △취약국/상황에서 활동 가능 △전문성 △혁신성 △파일럿 사업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Scale-up) 가능성 존재 △지역/분야 중심 확대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활성화 △민주적 절차 및 책무성 증진 △공여자-시민사회 협의의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활성화 △개발협력 인지 제고로 나타난다(OECD, 2011).
- [그림 7]은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이행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13개 공여국은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평균 25%를 NGO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전체 인도적 지원 규모의 46%를 NGO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3.5%만이 NGO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8] 2022년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이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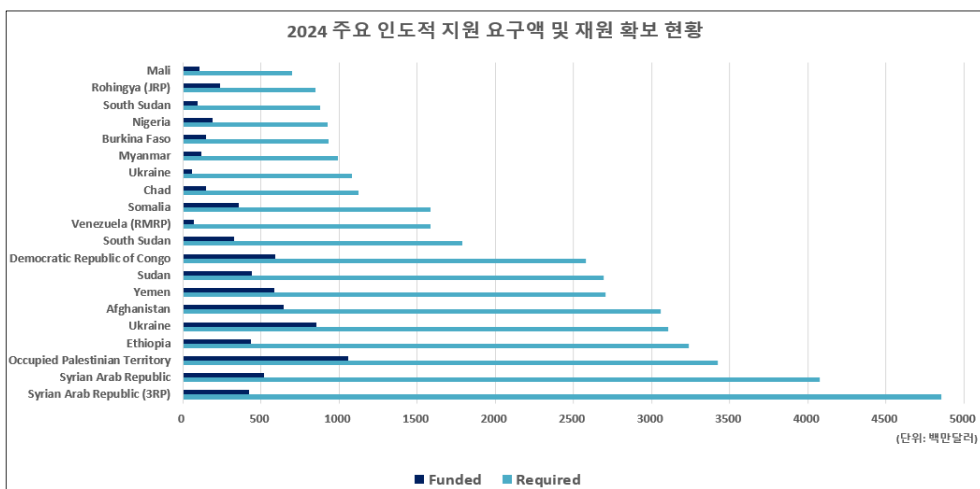


출처: <http://stats.oecd.org>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검색일: 2024.06.18.)

3-2. 주요 공여국의 공동대응 파트너십 현황 및 특성

○ 인도적 위기가 점점 고조됨에 따라, 급증하는 인도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수의 공여국과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위기 수요의 증가세가 인도적 지원 재원 마련 속도보다 빠르므로 여전히 인도적 수요 대비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9] 2024년 국가별 인도적 지원 수요 대비 자원 확보 현황



출처: <http://fts.unocha.org>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검색일: 2024.06.18.)

- 동일한 인도적 위기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중복하는 경우, △재원확보의 효율성 저하 △대중의 모금 피로도 증가 △행정 및 홍보 비용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따라서, 기존 공여국들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또는 민간단체 위주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도적 재원을 동원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 현장에서 이재민 보호 및 고통 경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외 긴급구호를 위해 모금을 늘리고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OECD DAC 회원 12개국에서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공동대응 플랫폼의 글로벌 연합체인 EAA(Emergency Appeals Alliance)가 있다.

3-2-1. EAA(Emergency Appeals Alliance)

- EAA(Emergency Appeals Alliance)는 인도적 지원 공동대응 플랫폼을 가진 전 세계 12개 국가가 연합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공동대응 플랫폼의 성격은 다양하며, EAA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설립역사 및 회원단체 수)** 12개 국가의 공동대응 플랫폼 중 스웨덴 Radiohjälpen가 1939년에 설립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호주 EAA(Emergency Action Alliance)가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설립됐다. 공동대응 플랫폼에 참여하는 회원단체 수는 스페인 Comité de Emergencia 6개에서 일본 JPF 47개까지 다양하다.
 - **(목적)** 공통적으로 목적은 협력을 통해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일랜드 Irish Emergency Alliance는 모금 환경 격차 해소 및 단체 간 경쟁 완화, 호주 EAA는 대중의 인지제고, 스웨덴 Radiohjälpen는 국민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 인식 제고를 해당 공동대응 플랫폼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대응성격 및 기준)** 다수의 공동대응 플랫폼은 국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며, 대응 기준으로는 △회원단체 참여 여부 △미디어의 관심도 △대중의 참여도를 설정하는 한편, 일본의 경우, 국제사회나 정부의 요청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사무국)** 네덜란드 Giro555를 제외한 11개 공동대응 플랫폼은 독립법인 형태로 사무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 인원은 벨기에 Consortium 12-12와 호주 EAA처럼 최소 2명부터 독일 Aktion Deutschland Hilft처럼 최대 60명까지 다양하다.
 - **(모금 수입원)** 2023년 기준 모금 수입원으로는 주로 대중 모금, 정부, 기업후원, 연회비, 보조금,

유산기부 등이 차지한다. [표 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2개 공동대응 플랫폼 중 최소 모금 규모는 아일랜드 Irish Emergency Alliance의 134만 USD이고, 최대 모금 규모는 영국 DEC의 3억 4천만 USD이다.

- **(대응사업 및 규모)** 2023년 기준 모든 공동대응 플랫폼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응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공동대응 플랫폼은 총 10개다. 다수의 공동대응 플랫폼이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왔으며, 독일, 스웨덴, 스페인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둘러싼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를 지원했다.
- 개별 공동대응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EAA 소속의 12개 공동대응 플랫폼 중에서 영국 DEC, 일본 JPF, 호수 EAA, 캐나다 HC의 설립배경, 발전과정, 현황 등을 비롯하여 4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작동을 위한 핵심작동기제(enabler), 장애요인, RAPID에 대한 시사점을 IV장(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체계 현황 분석)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표 9] EAA 소속 12개 인도적 지원 공동대응 플랫폼 성격

순서	국가	플랫폼 명	설립 연도	목적	회원수	대응성격 및 기준	대응사업 (2023)	대응규모 (2023)	모금수입규모 및 수입원 (2023)	사무국
1	네덜란드	Giro555	2007	• 공식적인 협력을 통한 한 국제인도적 재난 지원	10	• 국제인도적 재난 • 회원단체 참여 여부/인론 관련 심도/대중 참여도 평가	• 튀-시 지진	1억3,627만 USD (€ 126,282,086)	1억 3,725만 USD (€ 127,176,970) 대중모금, 정부	• Oxfam Novib 수행 • N/A
2	독일	Aktion Deutschland Hilft	2001	• 대규모 재난 지원의 효율성 제고	23	• 국내외 인도적재난 • 별도 기준 명시 X	• 우크라이나 • 가자지구 • 튀-시 지진 • 리비아 홍수 • 아프가니스탄 지진 • 수단난민지원 등	1억5,799만 USD (€ 146,361,235)	1억 7,421만 USD € 161,379,000) 기부금, 회비, 벌금, 기타수익	• 독립사무국 • 60명
3	벨기에	Consortium 12-12	2005	• 인도적 재난 대응 기금 마련	7	• 국제인도적 재난 • 재난의 심각성 및 규모/회원 단체 대응 능력/대중 및 미디어 관심도 평가(최소 5개 단체 동의 필요)	• 튀-시 지진 • 우크라이나	5,025만 USD (€ 46,489,643)	5,086만 USD (€ 47,058,510)	• 독립사무국 • 2명
4	스위스	Swiss Solidarity	1983	• 국민 연대 의식 고취를 통한 인도적 위기 지원 • 인도적 지원 분야 기술 및 지식 교류 촉진	25	• 국내외 인도적 재난 • 피해 규모/피해 당사국의 지원 요청/미디어 및 대중 인지도/회원단체 활동 능력(최소 3개 단체가 이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것)	• 튀-시 지진 • 우크라이나 • 모로코 지진 • 중동 위기 • 동아프리카 기근 • 아프가니스탄 위기 등(국제 6개, 국내 4개 사업)	7,782만 USD (CHF67,691,536)	6,175만 USD	• 독립사무국 • 19명
5	스웨덴	Radiohjälpen	1939	• 전국적 기금 모금 통한 위기 대응 및 취약 계층 지원 • 국민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 인식 제고	20	• 국내외 다양한 위기(이동 권리 증진 등) • 재난의 가시성(visibility)/현지 인도적 지원 파트너 유무/모금 가능성 평가	• 튀-시 지진 • 가자지구 • 국내 장애인 및 아동 지원 등	1,461만 USD (1억6천만 SEK)	1,775만 USD (1억 9천만 SEK) 대중모금, 기업후원	• 독립사무국 • 7명

순서	국가	플랫폼 명	설립 연도	목적	회원수	대응성력 및 기준	대응사업 (2023)	대응규모 (2023)	모금수입규모 및 수입원 (2023)	사무국
6	스페인	Comité de Emergencia	2017	• 협력을 통한 재난 지원 효율성 제고	6	• 국제인도적 재난 • 지원 필요성 및 재난의 규모 평가 (회원단체 50% 이상 동의 필요)	• 튀-시 지원 • 모로코 지원 • 우크라이나 • 가자지구 • 기타 위기	182만7,286 USD (€ 1,689,351)	183만 7,290 USD (€ 1,689,355)	• 독립사무국 • 3명
7	아일랜드	Irish Emergency Alliance	2018	• 아일랜드 모금 환경 격차 해소 및 단계 간 경쟁 완화, 대중모금 통한 재난 지원 확대	7	• 국제인도적 재난 • 재난의 긴급성 및 규모/회원 단체 3분의 2 이상 대응 가능/대중지지 가능성 평가	• 우크라이나 • 아프리카 기근	134만 USD (€ 1,238,822)	152만 USD (€ 1,407,984) 대중 모금, 회비	• 독립사무국 • 3명
8	영국	DEC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1963	• 해외 재난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15	• 국제인도적 재난 • 재난 긴급성 및 규모/회원단체 접근성 및 대응 역량/대중의 공감 및 지지 가능성	• 튀-시 지원 • 우크라이나 • 아프가니스탄 기근 • 파키스탄 홍수	3억 4천만 USD (£262,430,000)	2억 8천만 USD (£215,698,000) 모금, 회비 및 유산기부, 투자, 기타	• 독립사무국 • 23명
9	오스트리아	Nachbar In Not	1992	• 구유고슬라비아 내전 피해자 지원 위해 출범 해외 재난 및 위기 대응	8	• 국제인도적 재난 • 별도 기준 명시 X	• 튀-시 지원 • 우크라이나 • 아프가니스탄 • 시리아난민 지원	N/A	4,785만 USD (€ 44,266,000) 정부 기금, 기부	• 독립사무국 • 3명
10	일본	JPF (Japan Platform)	2000	• 포괄적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일본 NGO 역량 강화	47	• 국내외 재난 • 재난의 규모 및 긴급성/현지 정부 및 국제사회의 요청/회원단체 활동 가능성	• 해외 사업 13 - 튀-시 지원 - 우크라이나 - 아프가니스탄 - 예멘 등 • 국내 사업 10	5,190만 USD (¥79억 5천만)	4,893만 USD (¥74억 9천만) 정부, 기부금, 회비	• 독립사무국 • 40명
11	캐나다	Humanitarian Coalition	2010	• 인도적 지원 및 국제 구호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지원 통합	12	• 국제인도적 재난 • 미디어 및 대중의 관심 필요 (0월 기간 3주간 개별 모금)	• 튀-시 지원 • 동아프리카 위기 • 우크라이나 • 소규모 재난 대응 18건	4,322만 USD	4,315만 USD - 정부, 공동모금, 긴급대응기금, 회원기여금	• 독립사무국 • 8명
12	호주	EAA (Emergency Action Alliance)	2021	• 인간의 모금 동원 및 대중모금 통한 대중 인지 제고	15	• 국제인도적 재난 • EAA 회원단체가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최소 5-6개 현장 대응해야 함) • 대중모금 가능	• 우크라이나 • 아프리카 허리 • 튀-시 지원	501만 USD (7,468,000AUD)	518만 USD (7,730,000 AUD) 대중모금, 정부, 회비	• 독립사무국 • 2명

출처: EAA 홈페이지를 통해 각 플랫폼 홈페이지를 조사한 내용을 재구성함.

4. 소결

- **(공동 이행 협약)**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행위에 대한 원칙과 관행을 체계화하고자 2003년에 도입된 GHD와 인도적 지원 자금조달 격차 해소를 모색하고자 2016년 WHS에서 처음 제안된 인도적 대합의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및 일관성을 비롯하여 수혜자, 수행기관, 공여국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성을 증진하고자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주요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수행기관이 체결한 공동 협약이다.
- **(GHD와 인도적 대합의 핵심 요지)**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규범체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GHD와 인도적 대합의에서 제시하는 공통된 내용은 △인도적 지원 기금의 유연성 및 적시성 확보 △인도적 재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년도 기금 확대 및 지정 기금 축소 △현지 주민(수혜자) 참여 보장 △인도적 지원-개발과의 연계 △공여국-수행기관 간의 보고 체계 표준화 및 간소화다. GHD가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여국-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인도적 대합의에서는 현지화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확대)**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에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공동대응 파트너십으로 나뉜다.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이유로는 △수혜자 접근성 용이 △인도적 지원 신속성 △취약국/상황에서 활동 가능 △전문성 △혁신성 등으로 나타나며, 공동대응 파트너십은 △급증하는 인도적 수요 대비 자원 부족 △대중 모금활동 중복으로 인한 재원의 분산 및 대중의 모금 피로도 증가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동대응 파트너십의 경우, 선진 공여국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또는 민간 단체 위주로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도적 자원 동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전 세계 12개국 공동대응 플랫폼의 글로벌 연합체인 EAA처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한다.
- **(현지화를 통한 현지 주도 인도적 지원 시스템 마련)**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에 대비하거나 지역사회 복구를 맡아야 할 당사자는 현지 국가 및 지역 주민(수혜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도적 역할(재난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 기금 자체 운영, 사업 설계 및 관리 등)이 지속가능하도록 현지에 대한 역량 강화, 자금지원, 파트너십, 조정에 대한 다년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현지화를 위한 실천은 현지 국가 및 지역 주민(수혜자)를 배제하고, 공여국의 이해관계와 수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던 기존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개선뿐 아니라, 지원 방식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 분석

1. 한국 인도적 지원 및 RAPID 현황

1-1. 파트너십 제도와 환경

1-1-1. 정부의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관련 법과 제도

-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근거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인도적 지원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결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으로, 동 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1항에는 인도주의 실현을 기본정신으로 담고 있으며, 2항4호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없으나, 인도주의 실천과 단일 국가나 개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실행에 법적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률이다. 동 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긴급구호의 종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구호 물품과 장비 지원, 현금지원, 보건 의료 활동, 수송 지원, 재해 복구 등이 그 범위에 해당한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실행할 때 중앙부처의 역할,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규정, 인도적 지원 실행 과정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거버넌스에 대해 상세히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상세히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기본대책은 2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관련 법과 제도를 살필 때는 동 법과 함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단, 동 법과 동 기본대책은 인도적 지원 실행 과정에서 초기 긴급구호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현재 국제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만성화된 인도적 위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KCOC&KOFID,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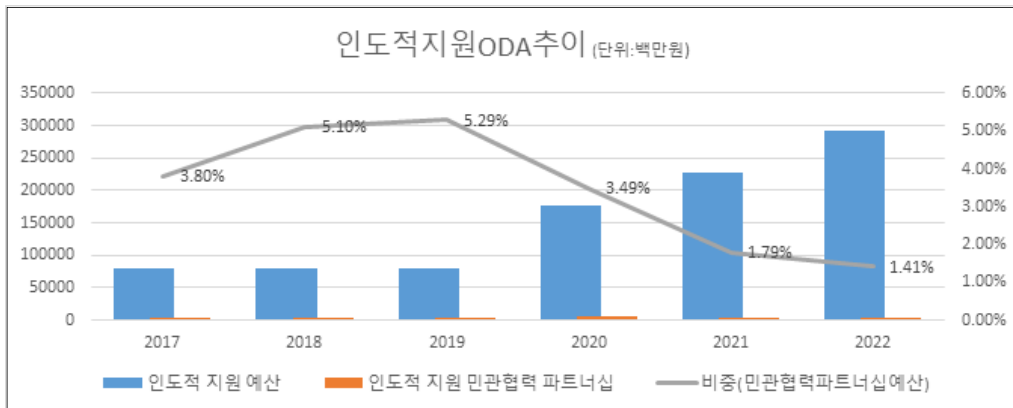
- 정부가 2015년 수립한 「인도적 지원 전략」은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에 따라 수립됐다. 2017년 개정된 동 전략은 대규모의 분쟁, 장기화된 난민 위기 등 최근의 인도적 위기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 시 포괄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동 전략의 경우 법과 시행령에 비해 구속력이 미비하고, 같은 준위에서의 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 「다자협력 추진 전략」등에서 중복 및 충돌 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KCOC&KOFID, 2023).
- 마지막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은 민간에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 상황에서 일반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목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 인도적 지원 NGO들은 동 법을 기반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모금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인도적 지원 이행 및 채널

- 정부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확대 기조에 있다. 인도적 지원(해외긴급구호) 실적은 2017년 786억 원에서 2022년 2,923억 원 규모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4년의 경우 예산확정액 기준 7,34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0배 가깝게 성장했다.⁶⁾
- 주요 이행채널은 다자와 양자채널이며, 민간단체의 경우 별도의 채널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다자기구와의 협력은 전체 인도적 지원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공동기금(13.0%), 정부(6.8%), 적십자(1.5%) 순으로 협력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은 0.1%로 인도적 지원에 있어 다자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박차미 & 윤혜민, 2023).
-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이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방향 하에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측면에 있어서 예산 비중을 볼 때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확대·강화되는 반면 민관협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6) https://www.koica.go.kr/koica_kr/955/subview.do (검색일: 2024년 6월 20일)

[그림 10] 한국의 인도적 지원 ODA 규모 추이(2017~2022)



출처: KOICA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1-1-2.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협력

- 한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파트너십은 해외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민간의 역할 확대와 정부의 OECD DAC에 가입한 공여국으로서 DAC 기준에 부합한 인도적 지원 체계와 제도의 선진화 필요성과 맞물려 형성되고 발전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의 발전과 특성을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협력은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이라는 형태로 2012년부터 운영·발전됐다. 외교부는 2012년 8개 단체를 선발하여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의 NGO 초동대응을 약 20억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운영했으며, 이 사업은 2018년 KOICA로 이관되어 2024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업의 운영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나, 정부-시민사회의 유일한 파트너십으로써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매년 약 10개 내외의 NGO들이 총 40억 원의 규모로 자연재해나 전쟁 직후의 긴급구호 사업부터 2-3년에 걸쳐 지원되는 만성적 위기, 난민 지원 등 다양한 형태와 분야로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진행되고 있다.

[표 10] 한국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의 발전 과정과 특성

시기	주요 특징
국내 인도적 지원 시작과 확대	
1990년대	국내 민간단체들의 긴급구호활동 시작 (르완다 내전 등)
2000년대	-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인도양 쓰나미 등 대규모 재난에 민간단체 참여 확대 - 정부와 민간의 단발적 협력, 제도적 협력 미흡
민관협력의 제도적 기틀 확립 및 형성	
2010년	- OECD DAC 가입 -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확정, "국제개발협력 무상원조기본계획(2011-2015)" 발표
2011~2012년	- 해외긴급구호법 개정(2011) -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실무위원회 규정' 제정 - 제1차 민관협력실무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실행계획' 수립 - 공식적인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파트너십' 착수
2012~2018년	- 「인도적지원민관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외교부-KOICA-KCOC 3자 협의 - 운영방식: 역량기반 사전단체 선정 - 지원규모: 기관당 20만 불 규모 - 총지원예산: 2012년 20억 ▶ 2017년 30억 - 구성요소: 자금지원, 역량강화, 네트워크 - 지원성격: 재난대응 중심에서 재난위험경감으로 확대
2018년~현재	- 2018년 주관 기관이 외교부에서 KOICA로 이관되며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운영방식 등의 변화 -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의결에 따른 파트너십 방향 설정: 인도적 지원 생태계 조성 - 파트너십 참여기관(15개) 및 예산 확대(40억 원) - 지원분야: 긴급재난과 만성재난을 아우르는 방식
포괄적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확대 가능성	
2023년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 시의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실질적 공조: 해외긴급구호대에 민간단체 참여, 공동 수요조사, 구호물자지원협력 - 재건복구 단계에서 이재민정착촌건립사업 공동수행. 특히 한국의 민간단체를 포함, 현지 정부와 현지민간단체까지 포괄한 협력경험은 포괄적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계기.

출처: 연구진 내 논의를 통해 작성

○ 한국은 해외에서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모금 플랫폼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인도적 지원 전문 NGO를 통해 꾸준히 대응이 진행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전문모금·배분기관으로 공공성이 높은 민간단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해외 인도적 위기에 대한 NGO를 통해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하며, 특별히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는 대국민 특별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래 [표 11]과 같이 해외 주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대표적인 민민파트너십을 작동시켜 이재민의 빠른 고통경감과 생명유지에 기여해 왔다.

[표 11] 한국 인도적 지원 민민(사회복지공동모금회&NGOs) 파트너십 현황

연도	재난명	공여기관	실행기관	규모
2015	네팔 대지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KCOC, 국제민간교류협회, 글로벌케어, 밀알복지재단, 더멋진세상, 써빙프렌즈, 지구촌공생회, 팀앤티	14.5억 원
2018	인도네시아 지진		KCOC, 어린이재단, 플랜, A-PAD	6.2억 원
2021	아이티 지진		KCOC, 굿네이버스, 글로벌케어, 기아대책	6.5억 원
2022	우크라이나 전쟁		KCOC,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기아대책, 월드비전	18.8억 원
	파키스탄 홍수		KCOC, 굿네이버스, 컨선월드와이드	3.9억 원
2023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KCOC, 컨선월드와이드, 함께하는 사랑발, 지파운데이션,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116억 원

출처: KCOC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이외에도 민간 분야 내 민민파트너십 사례는 [표 12]와 같은 기업, 국제기구, 동료 NGO와 NGO 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해외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내 재난 발생 시에도 이재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적시 지원을 목적으로 효율성 높은 협력체계 구축과 실행 과정의 다양한 사례이다.

[표 12] 국내 민민 파트너십의 다양한 사례

협력 파트너 구성		주요 내용
공여 파트너	실행 파트너	
NGO	NGO	•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대형 NGO C기관은 중견 NGO P기관을 통해 긴급구호는 5만 불 규모로 진행함 • 사업계획과 보고의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여 파트너십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인도적 지원을 실제 실행하는 NGO가 타NGO를 지원하는 독특한 사례로 주목받음
협동조합	NGO	• 협동조합 I기관은 2015년 네팔 대지진부터 꾸준히 해외 인도적 위기 발생 시마다 모금회, 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국NGO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기업1	NGO	• 외국계 기업 L기관은 모금회, 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당시 직접 한국 NGO를 지원함
기업2	NGO	• 항공운송 A 기관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당시 NGO에게 무상으로 물류 운송을 지원함 • 현금지원보다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자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크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지원 결정
공공기관	NGO	• ☆☆ 공사는 국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고통경감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NGO기관과 포괄적 협약에 따라 현금(1억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재난 발생 시 NGO가 자율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함
국제기구	NGO	• ☆☆ 기구는 국내 NGO 대상 예비 pool을 구성했음. • 국제기구의 업무 방식에 따라 타 국가에서 파트너를 선발하는 기준에 준하여 Due Diligence를 실시했으며, 선발된 NGO는 국내 재난 발생 시 컨셉 노트를 제출하고 긴급지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함

출처: KCOC 회원단체 대상 인터뷰(24년 6월)를 통해 연구진 작성

-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정부와 NGOs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행위자들도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별히 대규모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의 빠른 고통 경감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동원하는 중요한 행위자가 기업과 미디어다.
- 한국의 인도적 지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시되는 규모가 작지 않다. 2023년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체 규모가 2,993억 원이며, NGOs가 자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실행하는 인도적 지원 규모는 2,236억 원이다(KCOC, 2024)⁷⁾. NGOs가 실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재원은 시민과 기업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다.

[표 13] 인도적 위기에 따른 기업의 참여 현황

인도적 위기 종류	모금에 참여한 법인 기부자 수	모금 규모 (법인 기부/전체 모금)
2015년 네팔 대지진	98건	2.4억 원/10.1억 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51건	2.2억 원/4.3억 원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564건	87.9억 원/145억 원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표 14] 인도적 위기에 따른 미디어의 참여 현황

인도적 위기 종류	미디어명	내용
2015년 네팔 대지진	BBS 불교 방송	TV와 라디오를 통한 모금 홍보 ⁸⁾
	MBC	특별 모금 생방송 ⁹⁾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MBC	월드비전과 후원목적의 자선콘서트 개최 ¹⁰⁾
	CTS	특별 모금 생방송 ¹¹⁾
	극동방송	특별 모금 방송 ¹²⁾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BBS 불교 방송	특별 모금 방송 ¹³⁾
	KTV 국민방송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모금 ¹⁴⁾
	KBS	특별 모금 생방송 ¹⁵⁾
	한국일보사 및 한국 신문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모금 ¹⁶⁾

7) 연간인도주의(KCOC Humanitarian Briefings), KCOC(2024)

8)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45>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9) <https://blog.mbc.co.kr/1155>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0)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09300005>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1) <https://www.newspower.co.kr/52020>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2) <http://gnpnews.org/archives/146069>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3)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18>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4)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670655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5)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id=PS-20

- 이러한 한국의 기업 및 미디어의 인도적 지원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의 모금 플랫폼인 사회복합공동모금회를 통해 해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모금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규모가 증가 추세다. 방송과 신문사와 같은 미디어의 경우 단순 피해 사실을 뉴스를 전하는 것을 넘어 인도적 지원 전문 NGOs와 함께 현장 조사에 참여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방송을 실시해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다.

1-2. RAPID 현황

1-2-1. RAPID 개요

-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직후 정부는 튀르키예에 KDRT(Korea Disaster Response Team, 해외긴급구호대) 1진을 파견하여 구조·수색 활동을 실시했으며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정부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구조·수색의 단계를 지나 KDRT 2진 파견을 통해 정부-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구호 물품을 전달했으며, 임시 재건·복구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를 파악했다.¹⁷⁾
- 정부는 KDRT 2진이 발굴한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이라는 수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KDRT 3진을 파견했다. 3진은 기본 방향에 따른 사업의 세부 사항을 기획하고 튀르키예 정부와 합의 과정을 달성했다. 이는 향후 「튀르키예 우정 마을 사업」으로 발전하여 KOICA와 3개 NGO(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가 공동으로 약 1,000만 불 규모로 18개월간 사업을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과 튀르키예 현지의 시민사회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함으로 인도적 지원의 현지화를 강조하는 「그랜드바겐」 이행의 실제 사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동 대응에 참여한 기관들과의 평가회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호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¹⁸⁾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KOICA는 「튀르키예 우정 마을 사업」을 모델로 하여 기존의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내 인도적 민관협력 브랜드 「RAPID」를 2024년에 출범했다.

23030761-01-000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415090002190>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7) (23-151)외교부 보도자료(2023.2.19.)

18) (23-312)외교부 보도자료(2023.4.5.)

1-2-2. RAPID의 성격과 기능

○ RAPID는 인도적 지원 브랜드 사업 참여 기관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성과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KOICA와 NGO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 기업, 재단, 정부 부문(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등의 참여를 유치하여 브랜드 사업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RAPID의 목적은 해외 인도적 지원에 있어 KOREA One Team을 표방하고 KOICA, NGO, 기업, 공공기관들이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위상 제고, 국내적으로는 한국 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 등이다.

1-3. RAPID 운영현황

1-3-1. RAPID 운영 체계

○ 2024년 출범한 RAPID는 2024년 12월 현재 6개의 NGO(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KCOC)와, KOICA,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공동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RAPID의 일원으로 KOICA와 MOU를 맺은 바 있다.

[표 15] RAPID 목적 및 운영위원회

구분	주요 내용
RAPID 배경 및 목적	- 인도적 지원 브랜드 사업 참여기관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성과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도입 - 도입 단계에서는 KOICA와 NGO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 기업, 재단, 정부 부문(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등의 참여를 유치하여 브랜드 사업 규모 확대 도모
RAPID 운영위원회	(구성원) 긴급재난대응사업 수행단체, KOICA 분쟁취약지원팀, 운영기관 실무 담당자 (역할) RAPID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 관리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등 - RAPID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전반 협의 - 사업 대응 분야 선정 - 필요시 현지 조사 및 공동 모니터링 실시 - 정기 회의 실시 : 기본 2달 간격으로 하되, 참여 단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긴급 상황 발생 시 모든 위원은 임시 회의 개최 가능

출처: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수행안내서

○ 2024년 설립된 신생 프로그램인 RAPID는 현재 △파트너십 비전 및 발전 방향, △참여기관 협업 방안, △재원 마련 전략 및 공동 노력 등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로드맵 수립에 대해 RAPID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합의 및 정리를 하고 있다. RAPID 운영위원회는 KOICA,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KCOC로 구성되어 있다.

1-3-2. RAPID 대응 방식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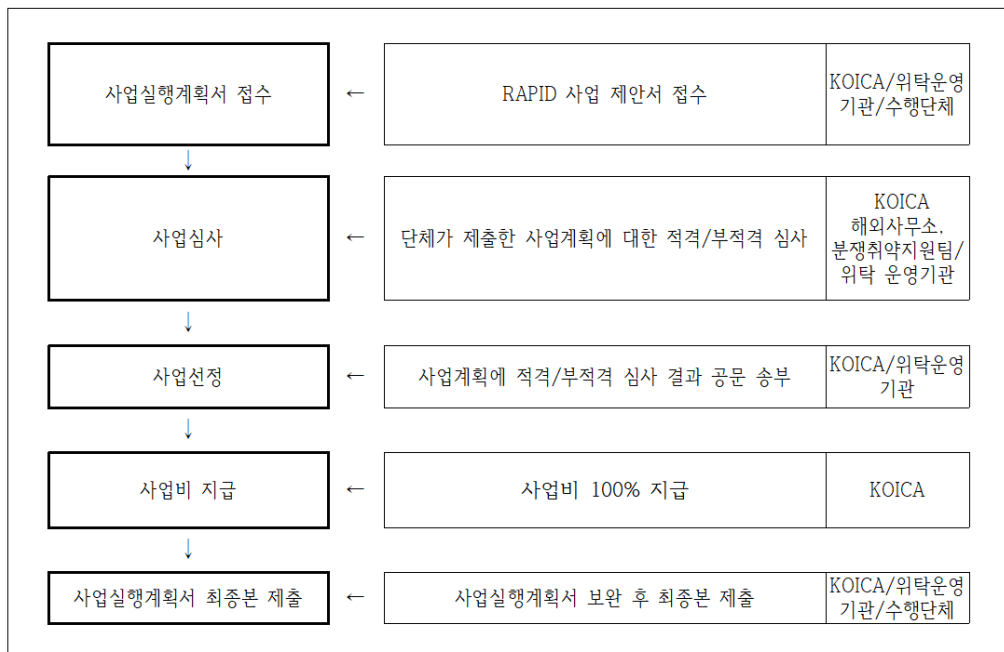
○ RAPID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동 대응 주제 선정

- KOICA, KCOC, 5개 NGO가 참여하는 RAPID 운영위원회는 사업 대응 분야를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RAPID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이면 누구나 소집할 수 있으며, 합의에 따른 공동 대응 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절차에 따른 진행

- RAPID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대응 분야가 선정된 이후에는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며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RAPID 프로그램 승인 절차



1-3-3. RAPID 대응 프로그램 사례: 동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대응

○ 동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대응 개요

- **(공동 대응 선정 배경)** 2024년 RAPID 운영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 위기 고조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자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식량 배분이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동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대응'을 공동 대응 주제로 선정했다. 특별히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3단계 이상의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대응 대상으로 한정했다.

[표 16] 2024 RAPID 동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사업 목록

기관	국가	주요 사업 내용
굿네이버스	말라위	• 국내실향민(IDPs) 및 취약계층 대상 긴급 식량 제공
기아대책	마다가스카르	• 취약 가구 및 영양실조 아동 가족 대상 긴급 식량 제공
세이브더칠드런	부르키나파소	• 취약가구 대상 긴급 식량 제공 및 급성 영양 실조 선별 • 사업지역 주민 대상 PSEA, GBV, 보호 관한 옹호 활동
어린이재단	잠비아	• 능동적 영양실조 사례 발굴 활동 • 중증영양실조 아동, 임산부, 수유부 대상 치료식 제공
월드비전	앙골라	• 중증영양실조 아동 가족 대상 식량 바우처 제공

- **(공동 성과관리)** RAPID는 공동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추적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 2024년 공동사업의 경우 공통적 성과지표로 '식량 소비 지수(Food Consumption Score)'를 채택했다. 사업 시작 대비 종료 시기에 식량소비지수(FCS) Poor인 가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공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공통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4. 책무성 제도 및 절차

○ RAPID 자격 평가 과정에서의 책무성

- **(기관의 신뢰성)** RAPID 참여를 위해 단체를 선발하는 심사 항목 중 기관의 거버넌스 건전성, 재정 투명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심사 항목이 있다. 이는 책임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제도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운영되는지 확인 항목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 **(기관의 책무성)** RAPID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인도적 지원 원칙과 행동 강령, Sphere와 같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받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RAPID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 항목 중 하나다.

○ RAPID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책무성

- **(이재민 책무성 이니셔티브)** RAPID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KCOC는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직후부터 회원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 책무성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KCOC는 RAPID 참여 NGO를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 시 기관과 활동가들이 준수할 수 있는 이재민 책무성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 **(이재민 책무성 관련 성과 지표 관리)** RAPID는 참여 NGO들이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의 논리 모형에 이재민 책무성과 관련된 세부 활동과 관련된 산출물 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가 이재민 책무성을 이해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1-3-5. 한계와 과제

○ RAPID 정의 및 목적 명확화

- RAPID는 2024년 출범해 현재까지는 기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RAPID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RAPID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 RAPID 프로그램의 방향과 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시작 단계에서는 다양한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RAPID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운영 방식, 행위자들 간의 역할들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 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한 직·간접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RAPID 프로그램은 포괄적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으나, 2024년 현재 KOICA, KCOC, 5개 NGO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금 더 확대된 RAPID에는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로 신한은행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연대 활동을 염두에 둔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국내 생태계의 활성화와 포괄적 파트너십으로서 정체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 미디어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 재원 다각화 및 규모 확대

- 2024년 기준으로 RAPID의 재원은 KOICA 재원 10억 원, 신한은행 재원 10억 원, RAPID 5개 참여 NGO의 매칭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 기관당 4억 원 남짓의 규모로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 RAPID의 목적 중 하나가 급성 인도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시너지를 도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의 재원 규모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한은행 지원 재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향후 RAPID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의 출처를 다각화하고, 규모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분석

2-1. 개요

○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연구 과정에 반영이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 심층 인터뷰, 초점그룹 면담 등을 통해서 포괄적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작동 기제, 장애요인, 참여유인을 파악했다.

[표 17] 국내 이해관계자 분석 목록

구분	일정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정부	24년 11월 1일	KOICA 인도지원실, 분쟁취약팀	심층 인터뷰	- 튀르키예 지진 대응, 정착촌 사업 교훈 - 현 RAPID가 인도적 지원 생태계 미치는 영향
RAPID 참여 NGO	24년 10월~11월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기관별 심층 인터뷰	- 현 RAPID의 발전 방안 및 개선점 - 현 RAPID 참여 이유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할 이유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을 위한 선결 조건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의 참여/미참여 이유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의 참여 자격
RAPID 미참여 NGO	24년 11월 20일	더멋진세상, 밀알복지재단, 아디, 지파운데이션, 컨선월드와이드, 팀앤팀, 플랜한국위원회, 하트하트재단, 함께하는 사랑발	초점 그룹 면담	- 현 RAPID가 인도적 지원 생태계 미치는 영향 - 현 RAPID의 발전 방안 및 개선점 - RAPID의 모금플랫폼 전환할 이유 - RAPID의 모금플랫폼 전환을 위한 선결 조건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의 참여/미참여 이유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의 참여 자격
기업	24년 10월~11월	국내 10대 기업 중 3개 기업의 CRS 부서장	기관별 심층 인터뷰	- 인도적 지원 참여 경험 - 기업의 인도적 지원 의사결정 방식 및 참여 이유 - 신규 공동모금플랫폼에 대한 견해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가 갖춰야 할 요건
공공 기관	24년 11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별 심층 인터뷰	- 튀르키예 지진 대응 교훈 - 튀르키예 정착촌 사업 교훈 - 현 RAPID가 인도적 지원 생태계 미치는 영향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할 이유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을 위한 선결 조건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의 참여/미참여 이유
미디어	24년 12월 10일	공중파 TV 방송국 중 1개	기관별 심층인터뷰	- 인도적 지원 참여 경험 - 미디어의 공동모금 참여 의사결정 방식 및 참여 이유 - 신규 공동모금플랫폼에 대한 견해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가 갖춰야 할 요건

- 이해관계자 의견분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별 기관별로 심층 인터뷰를 먼저 진행했으며, 관련된 국내 이해관계자 분석을 모두 마친 후 최종적으로 핵심 이해관계자를 다시 한번 구성하여 초점집단 인터뷰와 워크숍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 이는 동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안될 RAPID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 가능성을 담은 RAPID 발전방안에 대해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인, 동의 및 반대 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자 했다.

2-2. 분석 주요 내용

2-2-1. KOICA

- KOICA는 현재 RAPID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며, 동 연구의 발주처로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고, 현 RAPID 프로그램은 KOICA 인도지원처 내 인도지원실과 분쟁취약지원팀에서 각각 기능을 나누어 업무를 대응하고 있다. 인도지원실의 경우 RAPID 브랜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NGO 외에 기업,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RAPID에 잠재적 참여가 가능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쟁취약지원팀은 RAPI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개 NGO와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튀르키예 지진 대응 및 정착촌 사업에서 교훈

- **(협업과 조율의 어려움)**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업과 업무 조율하는 것이 도전적인 상황이었으며, 기관들마다 의사결정 원칙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매우 컸음이 설명됐다. 특별히 정부와 NGO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충분한 사전 합의나 논의, 준비 과정이 없었기에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컸음을 확인됐다.
- **(NGO 역량에 대한 새로운 인식)** 튀르키예 정착촌 사업의 총규모는 약 130억 원으로 KOICA가 과거 진행했던 단일 사업 중에서는 짧은 사업 기간 대비 큰 규모였다. 또한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짧은 기간임에도 사업이 모두 완료된 점, KOICA와의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 NGO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추가 사업을 진행한 것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 **(원조 조화 및 최소 기준에 대한 고민)** 「한·튀 우정의 마을」로 불리는 튀르키예 정착촌 사업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의 타 정착촌에 비해 잘 구성되어 타 정착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에 정착촌 사업 NGO들의 자체 예산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존 사업을 보완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긴급구호라는 상황에서 다른 인도적 지원 활동과의 조화를 고려했을 때,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동사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다.

○ 현 RAPID가 한국 NGO의 인도적 지원 생태계 미치는 영향

- **(가시성 및 인지제고에 긍정적 영향)** RAPID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책적 파급력,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국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지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RAPID라는 프로그램의 출범과 실행은 국민 등을 대상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됐다.
- **(현지 기반 NGO와의 협업 창구 상설화)** RAPID는 인도적 위기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NGO들과 KOICA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현장 수요조사 단계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이해, 위험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것을 고려할 때, NGO들은 현지 기반 세팅,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KOICA)가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RAPID라는 공간에 모이게 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 RAPID 발전 방안 및 개선점

- **(예산 확대 필요)** RAPID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중요한 개선 과제임이 제시됐다. 2024년 기준 정부 예산 10억 원, 기업 사회공헌자금 10억 원 총 2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5개 기관에 4억 원씩 배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규모, RAPID라는 브랜드 자체의 가시성과 인지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재원 기여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며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 **(RAPID 발전을 위한 정부 관심 및 리더십 필요)** KOICA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RAPID는 튀르키예 지진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NGO들과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KOICA의 중장기 전략과제와의 연계, 의사결정자들의 관심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공동사업이 가능한 제도로서 RAPI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교부, 기재부, 국회 등과 같은 정부 부처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빠른 의사결정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제시됐다.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 전환 이유 및 선결과제

- **(동등한 관계로서의 파트너십 필요)** 현행 RAPID 프로그램의 경우 KOICA의 프로그램으로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의 권한이 KOICA에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됐다. 향후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되면 KOICA는 플랫폼의 참여하는 행위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파트너십 역학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욱 동등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성 축적과 가시성 확보)**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NGO의 비교우위를 살려 전문성을 축적하고, 가시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며, 이것이 확보될 때 공동모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설명됐다.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의 NGO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NGO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정적 재원 확보)** 공동모금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공동모금이 가능하다는 전제이며, 공동모금이 가능한 경우 플랫폼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모금시장은 경쟁이 높은 편이며, 새로운 공동모금플랫폼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 참여 여부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현지의 맥락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NGO와의 협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모금플랫폼으로 발전된 RAPID에 KOICA 참여는 긍정적으로 제시됐다.

2-2-2. RAPID 참여 NGO

○ 2024년 현재 RAPID에 참여하고 있는 NGO는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으로 5개이다. 현행 RAPID 프로그램의 경우 5개 NGO의 국제사업부서에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발전될 경우 개별 NGO의 모금 활동과도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고려하여 국제사업부서뿐 아니라 대중 및 기업 대상 모금부서도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튀르키예 지진 대응 시 KDRT 활동이 준 교훈

- **(정부의 정보력, 수송·통관의 강점 활용)** 튀르키예 지진 직후, 피해국의 수요, 지진 피해 현장까지의 물류 수송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와 직접 소통을 하고, 공식 협조를 얻고 있었으므로 구호 물품의 수송,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KDRT 2진에서 3개 NGO와 공동으로 구호 물자를 준비하고 빠른 시간 내 현장에 구호 물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가진 강점을 민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개별 NGO가 신속한 수송, 통관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행정 절차보다 정부와 협업할 경우 훨씬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제공했다.
- **(민관협력에 대한 상시 협업 구조 구축)** 비상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물자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상시에 협업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협업 구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소통, 합의 할 것인가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어야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적시에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한 구호 물품 비축)** 지진 당시 튀르키예 정부는 방한용 텐트 및 방한용품은 우선 필요 물품으로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관련된 물자를 민간에도 동일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물품은 이재민들에게 배분될 물품으로, 통상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이재민들에게 배분되는 물품이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준비되는 것과 달리 기준과 규격에 대한 안내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민간의 경우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준과 상관없이 정부에 제공했다. 향후 비슷한 대응 시,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소 기준에 맞춰서 구호 물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튀르키예 지진 대응 시 정착촌 사업에서 교훈

- **(참여 기관과 참여 인력의 학습 기회)** 정착촌 사업에 참여한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굿네이버스는 공통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관과 참여 인력이 인도적 지원 사업 수행, Shelter 분야에 대한 전문성, 타 기관과의 협업 경험 및 소통 등에서 학습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 **(정부와 NGO와의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정부 간 양자적 관계에서의 사업은 물자와 인프라 제공으로 한정되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튀르키예 정착촌 사업의 경우 정부가 NGO와 함께 협업함으로써 물자와 인프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NGO의 강점 중 하나인 이재민들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했다.

- **(기관의 전문성 중복 및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율 부족)** 정착촌 사업에 참여한 3개 NGO는 유사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들로, 다분야에서 고른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동일한 역할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했고, 정부와의 협력에서도 사업 초기에 역할과 책임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아 수행 과정에서 협의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RAPID 참여 이유

- **(대정부 애드보커시)** RAPID 참여 NGO는 RAPID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NGO가 가지고 있는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RAPID 참여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RAPID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 지침에 대한 개선과제를 기관의 대정부 애드보커시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실제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RAPID 프로그램 참여 이유를 밝혔다.
- **(정부와의 정기적 파트너십 확보)** RAPID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KOICA와 지속적이면서도 밀접한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이 RAPID의 참여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RAPID에 참여하고 있는 5개 NGO는 KOICA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업이 중요하므로 RAPID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원 및 동료학습 공간 확보)** RAPID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ODA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측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참여 NGO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RAPID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식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동 사업참여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었다.

○ 현 RAPID 발전방안 및 개선점

- **(예산 확대 필요)** 현재 RAPID 프로그램의 제한된 재원으로 RAPID 자체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RAPID 참여 기관의 수도 전체 예산이 확대될 경우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RAPID의 성격과 목적 명확화)** RAPID 프로그램은 긴급하게 발생한 재난에 긴급구호 대응, 혹은 만성화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구호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RAPID가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RAPID 홍보 및 브랜딩 집중 필요)** RAPID가 가지고 있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전하여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RAPID 브랜드 자체가 대중과 정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RAPID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 전환 이유 및 선결과제

-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모금 어려움)** RAPID에 참여하고 있는 5개 NGO의 모금 본부는 공통적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모금이 다른 개발협력사업, 결연사업, 교육과 식수와 같은 섹터 기반 사업에 비해 월등히 모금이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 재난의 경우에는 더욱 모금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공동모금을 하게 된다면 함께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국내 모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 공동모금을 실시할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로 국내 모금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상황, 즉 대형 기관들은 모금이 더욱 잘 되고, 중·소형 기관들은 모금에 고전을 하는 상황에서 중·소형 기관들이 공동모금플랫폼에 들어올 경우 모금 격차를 해소할 것을 기대했다.
- **(개별 모금보다는 공동모금 효과성 확신 필요)** RAPID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5개 NGO는 국내 비영리 생태계에서 상당한 모금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로서, 기관별로 확보한 정기 후원자와 기업 후원자 그룹이 상당한 상황에서 특정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개별 기관의 모금 대신 공동모금을 실시하려는 결정을 할 때는 공동모금이 더 많은 재원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동모금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미디어의 참여)** 해외 4개국 조사에서도 공통된 시사점으로 나온 것이 공동모금 효과성을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디어가 강력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RAPID 참여 NGO의 모금 부서에서는 공중파 미디어가 참여 여부가 공동모금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시간 NGO와 함께 모금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 SBS 희망 TV를 그 예로 들었다.
- **(기타)** 배분 원칙의 수립, 대중과 정부의 NGO 신뢰도 이슈 극복 필요, 공동모금플랫폼의 조정 및 지휘, 거버넌스 세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시됐다.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 전환 시 정부의 역할

- **(공동모금플랫폼의 법적 세제 혜택)** 국내 모금 생태계에서 해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공동모금플랫폼이 만들어질 경우, 대한적십자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수준에서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의지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의사결정 과정에 미참여 및 플랫폼의 독립성 보장)** 인도적 위기에서의 지원이라는 특성상, 인도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가가 가지는 정치·외교적 영향과 상관없이 인도적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동모금플랫폼 의사결정과정 참여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4개국 조사에서 도출한 것과 동일한 시사점으로, 최근 가자지구 사태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미디어가 의사결정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플랫폼의 독립성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의 참여 NGO 자격

- **(책무성, 투명성 시스템을 갖춘 기관)** 공동모금플랫폼 참여 NGO는 높은 수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원이 모이고 공동의 브랜드를 공유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자칫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책무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 참여 기관 전반으로 부정적 효과가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대중과 기업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모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금플랫폼이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사업 실행 역량, 경험, 분야 전문성)** 공동모금플랫폼의 목적이 인도적 위기 해결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기관은 적시에 신속하게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 행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인도적 지원 실행이 가능한 경험과 전문성이 NGO의 필수 자격이라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 **(기타)** 공동모금플랫폼은 정치적으로 성향이 강한 기관은 참여에 제한을 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대중과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플랫폼의 특징과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 참여 여부

- **(참여 이유)** 효과성 있는 공동모금의 기회를 얻고자, 동료 기관의 참여(Peer Pressure) 영향으로, 비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 **(조건부 참여)** 공동모금플랫폼의 목적과 정체성이 기관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한다면, 공동모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명확하다는 조건이 성립되면 조건부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도 있었다.
- 단, 5개 기관이 모두 명확하게 참여 여부를 동의, 미동의로 밝히는 형태는 아니었으며, 참여하게

될 경우의 이유, 조건부로 참여하게 될 경우의 이유를 밝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2-2-3. RAPID 미참여 NGO

○ 현 RAPID가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안정적 자원 조달)** KOICA의 프로그램으로서의 RAPID는 매년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NGO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NGO의 긴급구호 활동을 꾸준히 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 **(전문성 향상)** 긴급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NGO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강조했다.
- **(연대 강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통 이슈를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현 RAPID 발전 방안 및 개선점

- **(중·소단체 참여 기회 확대)** 현 RAPID는 대형 NGO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단체의 긴급구호 자원 마련에 어려움과 높은 장벽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RAPID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성 축적, 역량강화 목적 트랙 필요)**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인도적 위기에서 긴급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회를 꾸준히 활용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트랙이 필요하다고 참여자들은 발언했다.

[표 18] RAPID 미참여 NGO 초점그룹토론 주요 내용

질문	주요 내용
공동모금플랫폼으로 RAPID 전환이 필요한 이유 및 선결과제	신속한 자원 조달 및 과도함 모금 경쟁 해소 개별적으로도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대형단체의 참여
공동모금플랫폼으로 RAPID 전환 시 정부의 역할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까지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공동모금플랫폼에 대한 공신력 제공(법·제도적 기반)
공동모금플랫폼으로 RAPID 전환 시 참여 NGO의 자격	인도적 지원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기관 공동모금플랫폼 자체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관 모금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기관 중·소단체를 위한 전체 중 일부에 대해 쿼터제 필요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 참여 여부

- **(참여 이유)**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성장하고, 동료학습의 기회 등을 기대효과로 예상하여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2-4. 기업

○ 기업의 해외 인도적 직원 참여 경험 및 동기

- **(기업의 비즈니스와의 연계)** 기업이 해외 재난에 대응에 참여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절대적으로 비즈니스와 연계되는 것이 기업의 사회공헌의 원칙이라고도 강조했다.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기업이 재난 대응을 할 경우 해당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했다.
- **(해외법인을 통한 지원 우선)** 국내 10대 기업의 경우 대부분 해외 법인화가 많이 되어 있으므로, 한국 법인이 해외 인도적 위기에 직접 대응을 하는 경우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과 같이 대국민 관심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음을 3개 기업의 CSR 부서장들이 공통적으로 발언했다.
- **(정규 예산이 아닌 긴급한 재난에 대한 의사결정)** 대부분 기업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정규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 NGO를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서의 긴급구호의 경우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기업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예: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심의 후 CEO 결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규 공동모금플랫폼에 대한 견해

- **(기부처 다양성 확대)** 해외 재난 발생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대표되는 모금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의 신설은 기업으로써 기부처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므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부처 간의 경쟁은 더 나은 기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플랫폼의 대표성과 공신력에 따른 기부 명분 제공)**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되었을 때 플랫폼은 높은 신뢰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는 것이 중요한 명분이라고 기업 관계자들은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공공기관 혹은 공공성이

높은 기관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공신력을 갖춘 플랫폼이어야 기업들은 기부를 할 만한 곳, 기부를 해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 RAPID 전환 시 정부의 역할

- **(세제 혜택 마련)**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기부 시 세제 혜택인 새로운 공동모금플랫폼에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규제 부담 최소화)** 법과 제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없음에도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 기업은 공식화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동모금플랫폼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할 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는 것이 기업들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2-2-5.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튀르키예 지진 대응 활동이 준 교훈

- **(배분과 집행 과정에 일관성 부족)** 국내 재난의 경우 모금은 개별 기관(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해구호협회 등)이 각자 하더라도, 사용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배분위원회를 통해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튀르키예 지진 당시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기부가 진행되었으나, 집행 방식은 제각기 달랐던 부분에서 한국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 RAPID가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인도적 지원 플랫폼 체계화 및 공식화에 기여)** 국내 인도적 지원 행위자 가운데 NGO와 KOICA 중심의 파트너십에서 확대된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식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적십자사도 RAPID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 현 RAPID 발전방안 및 개선점

- **(중·소형 NGO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보)** 대형 NGO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현 RAPID는 중·소형 NGO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강점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것인데, 중·소형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적십자사의 역량강화 기여)** 현 RAPID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는 역량강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인도주의 전문기관으로서, 인도적 지원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인도주의 생태계에 역량강화 혹은 정책 활동 등으로 RAPID 발전에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표 19] 공공기관의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질문	주요 내용
공동모금플랫폼으로 RAPID 전환이 필요한 이유, 선결과제	• 미디어를 통한 기부 호소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부 활성화 기대 • NGO 사업 및 인도적 지원 규모 자체의 성장 기대 • 인도적 지원 활동 원칙 준수 우려
공동모금플랫폼으로 RAPID 전환 시 정부의 역할	• 공동모금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여 필요 • 정부는 협력의 장을 만드는데 기여하되, 플랫폼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최소화 필요
공동모금플랫폼으로 RAPID 전환 시 공공기관의 참여 여부	• (조건부 참여) 모금은 별도로 하되, 배분처로서 RAPID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모금회의 경우 기존의 배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KCOC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 • (조건부 참여) 인도적 지원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독립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참여

○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전환 관련 정부 기관 논의 필요사항

-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전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정책관련 주요 부처인 외교부와 모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IV. 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체계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플랫폼의 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 설립 배경, 추진 체계와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플랫폼의 핵심작동기제와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RAPID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1. 영국

1-1. 파트너십 제도와 환경

1-1-1. 정부의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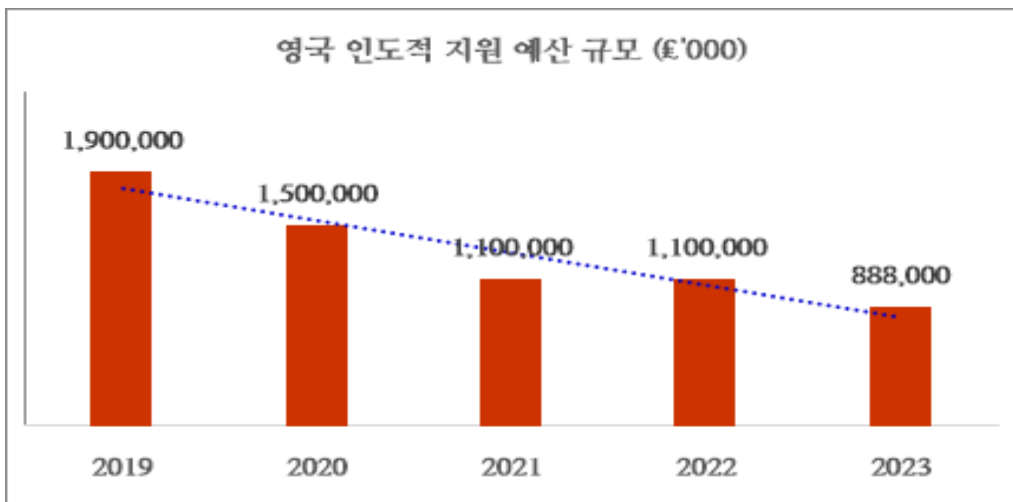
- (영국의 ODA 정책과 동향)

- 영국 정부의 국제개발전략에 따르면, 2022~2030년까지 4가지 중점 분야인 △영국의 금융 전문성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투자와 파트너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보장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자연보호, 세계 보건을 우선하고 있다(FCDO, 2022).
- 영국의 ODA는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팬데믹 이후 영국 정부가 해외 원조 지출을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의 0.7%에서 0.5%로 일시적으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ODA 예산은 153억 4,400만 GBP(27조 3,450억 KRW)였으며, 이는 GNI의 0.58%에 해당한다. 다만,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0.51%)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팬데믹 이전 0.7%의 ODA/GNI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Rabinowitz, 2024).
-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영국 정부도 자국 내 난민 수용에 드는 비용을 해외 원조 지출에 포함함에 따라, 취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욱 감소하게 됐다(DEC, 2024). 실제로, 2022년에 37억 GBP(6조 6,003억 KRW)에서 2023년에 43억 GBP(7조 6,706억 KRW)로 16.4% 증가하여 전체 ODA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영국 내 난민 수용에 지출되었음을 의미한다(Cohrs, 2024).

- (영국의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

- 2022년 10월 영국 FCDO는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인도주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중점 분야로는 △전문성 및 펀딩 기반 확대(세계은행, 금융기관, 영국 투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적 재원의 다양성 추구) △외교 채널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통해 영향력 확대 △과학, 기술 및 데이터 활용 △현지 지역 인도적 지원 행위자 중심의 접근방식(지역 이해당사자들의 리더십 및 의사결정 강화, 여성 주도적 조직의 참여 장려) △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력 유지 △인도적 지원 전문 역량 네트워크 구축 △위험관리가 포함된다(FCDO, 2022).
- SID(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 예산은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그림 12] 영국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2019~2023)



출처: FCDO(2024)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l UK ODA Spend 2023"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023년 인도적 지원 분야에 8억 8,800만 GBP(1조 5,840억 KRW)를 양자 ODA로 지출(전체 양자 ODA의 5.8% 차지)한 반면, 2024년에는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으로 10억 GBP(1조 7,838 KRW) 지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등 향후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 규모 확대 기조를 보인다(Rabinowitz, 2024).
- 2022년에 발표된 영국 정부의 국제개발전략은 분쟁취약국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 국방 및 개발 부문을 통합하여 해당 국가에서 갈등과 폭력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분쟁 및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ODA와 비(非)ODA 기금을 결합한 CSSF(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분쟁, 안정 및 안보 기금)을 2015년에 출범시키고 8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오지영과 박소정, 2023:19-20).

-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시리아·소말리아, 레바논 등의 분쟁, 평화 및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우크라이나는 2022~2023년 회계연도에 총 4,100만 GBP(731억 3,908만 KRW)를 영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CSSF를 지원받은 국가였다(오지영과 박소정, 2023:20; DIGIT NEWS, 2024).

○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 (영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 FCDO는 양자 간 In-country funding(국가 내 기금) 및 RRF(Rapid Response Facility)를 통해 NGO 수행단체에 인도적 지원 자금을 제공했다. 그중 양자 간 In-country funding은 최대 1년 동안 조기 복구에 기여하고자 다자/지역 기구, 적절한 NGO, 민간 부문에 기금을 제공했다.
- RRF는 사전 심사를 거친 30~40개 NGO로부터 위기 대응 사업 제안서를 받아 선정 후,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최근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서 DEC가 활성화되어 있고, DEC 회원단체와 RRF 선정 단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RRF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FCDO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됐다.¹⁹⁾
- 2021~2022년 영국 정부의 다자간 자금이 2억 GBP(3,567억 7,600만 KRW) 이상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국제기구(UNICEF, WFP, OCHA, UNDP 등)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타 국가와의 공동 자금지원도 진행하는데, 2024년 2월에 영국과 카타르는 7,940만 GBP(1,452억 4,245만 KRW) 규모의 공동 자금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기존의 중동 및 아프리카 공동기금 프로젝트를 확대하고자 했다(FCDO, 2024). 또한, 2024년 9월에는 영국과 쿠웨이트는 UNICEF에 450만 GBP(80억 2,746만 KRW)의 공동 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여 가자지구의 상수도 및 위생시설 복구, 예멘의 1차 의료 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UNICEF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Elkurd, 2024). 이와 같이 여러 국가와 공동 자금을 마련하여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 협력을 추진했다.

19) FCDO 관계자 A 인터뷰(2024.10.24.)

1-1-2.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 제도적 환경

- **(대중의 높은 기부 참여)** 2023년에 영국에서 대중의 기부 참여율은 67%였으며, 기부자 일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65 GBP(11만 5,952 KRW)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기부자의 수는 감소한 반면, 평균 기부액은 증가하는 추세 △영국 성인의 75%가 기부, 물품 기증, 자원봉사 등의 방식으로 자선활동에 참여를 보인다(The Guardian, 2024). 도시별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을 보자면, Cardiff 및 Belfast 시민들이 각각 소득의 2.1%와 2.5%를 기부하여 가장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기부 분야별로는 △종교 단체(13%) △아동 및 청소년(10%) △동물 보호(9%) △푸드뱅크(7%) △해외 원조 및 재난 구호(7%) 등의 순으로 분석된다(CAF, 2024).
- **(모금 시장 규모)** 2023년 총모금액은 약 139억 GBP(24조 7,716억 KRW)며, 2019~2023년 연평균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talker, 2024). 개인기부 규모를 보자면, 2021년(107억 GBP/19조 875억 KRW), 2022년(127억 GBP/22조 6,552억 KRW)처럼 매년 기부액이 상승하고 있다(CAF, 2024). DEC 모금 추세를 대비해 볼 때, DEC 설립 이래 현재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 시민사회 규모 및 인도적 지원 참여

-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역사 및 동향)

- 영국에서는 20세기 초·중반에 Save the Children(1919년), Oxfam(1942년), Christian Aid(1945년), War on Want(1952년) 등과 같은 주요 NGO 단체들이 다양한 목적(1차 세계대전 피해 아동 지원, 2차 세계대전 난민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됐다(Hilton, 2014).
- 1950~70년대에는 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정부와 자원봉사 단체가 영국 내 난민 수용 및 정착 지원,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특히, 1960년대는 NGO 활동의 체계화 및 확대되는 시기로서 DEC(1963년) 및 VCOAD(Voluntary Committee on Overseas Aid and Development, 해외원조개발 자원봉사위원회)(1965년)가 설립되었으며, 1968년에 발의한 Haslemere Declaration(헤슬미어 선언)을 통해 원조의 규모와 질을 높일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하며 영국 NGO의 옹호 역할이 강화됐다(Hilton, 2014).
- 1981년에 설립된 Refugee Action은 1980년대 초 영국에 도착한 베트남 난민들의 입국에 대응했으며, 이후 보스니아 난민(1992년) 및 코소보 난민(1999년) 정착 등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Girvan & Taylor, 2018).

-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른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모금액 규모가 매우 커지고, NGO들 간 전략적 협력 체계가 활성화됐다. 예를 들면, 2004년 쓰나미(3억 9,200만 GBP/6,992억 8,096만 KRW) 대응에서 엄청난 규모의 모금이 이뤄졌다(Reliefweb, 2014).
- 2024년 3월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 170,056개의 자선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361개의 BOND 회원단체 중 약 106개 단체가 인도적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2024; BOND, 2024).

1-2. DEC 플랫폼 형성과 발전과정

○ 영국의 대표적인 공동 플랫폼으로는 DEC와 Start Network가 있다. DEC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모금 중심 플랫폼이며, Start Network는 2010년에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분권화·현지화를 목표로 설립됐다. 본 영국 사례에서는 DEC(1-2)와 Start Network(1-6)를 소개하고자 한다.

1-2-1. 플랫폼 개요

○ 개요

- DEC는 영국의 대표적인 15개 NGO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공동모금 및 대응을 목표로 민간의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법인이다.

[표 20] DEC 개요

	설립연도	설립 및 운영주도 성격	회원단체 수	법적지위
DEC	1963년	민간 설립 및 운영주도 정부 지원형	15개 ²⁰⁾	1997년에 독립 자선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20) DEC의 15개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Action Against Hunger UK △ActionAid UK △Age International △British Red Cross △CAFOD △CARE International UK △Christian Aid △Concern Worldwide UK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UK △Islamic Relief Worldwide △Oxfam GB △Plan International UK △Save the Children UK △Tearfund △World Vision UK

1-2-2. 형성과 발전과정

○ 설립배경 및 취지

- **(1960년대: 인도적 지원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1963년 12월 스리랑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피해 대응을 계기로 영국 난민 구호 단체 상임 회의 의장이었던 Lord Astor(에스터 경)은 해외 재난 구호 시, 수행단체, 정부 부처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BRC(British Red Cross, 영국적십자사)가 조정 역할에 동의하면서 BRC를 포함한 Save the Children, Christian Aid, Oxfam, War on Want 총 5개의 영국 구호 단체가 모여 DEC를 설립했다. 또한, 1965년에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는 DEC를 재난 조정 기구로서 인정하며, DEC가 추진하는 모든 어필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혔다(DEC, 2024).
- **(1970~1990년대: DEC 인지도 및 영향력 확대)** 이 시기에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대중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1966년 8월에 터키 바르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어필을 시작으로 1999년 11월 코소보 위기 어필까지 총 44개 긴급 어필을 진행하여 총 2억 2,136만 GBP(4,015억 6,917만 KRW)를 모금했다. 특히 1994년 르완다 긴급 어필을 통해 DEC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체계적인 운영 방식과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DEC, 2024).
- **(2000년대 이후: DEC 성장 및 모금력 강화)** DEC 창립 당시, 5개 회원단체에서 현재는 15개로 증가하여 전 세계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인도적 대응을 수행한다. 특히, 2004년 인도양 주변 7개국을 강타한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 쓰나미 어필을 통해 약 두 달간 모금된 금액은 총 3억 9,200만 GBP(7,111억 2,720만 KRW)²¹⁾이며, DEC 역사상 가장 큰 모금액으로 DEC의 강력한 모금력을 입증한다(DEC, 2024).

1-2-3. 성격과 기능²²⁾

- **(비전)**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재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미션)** 공동모금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해외 긴급 상황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고, 재건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대규모 인도적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모금할 것이다. 둘째, 높은 수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준수할 것이다.

21) 다른 어필과 달리, 이 총액에는 회원단체에 직접 전달된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고 DEC에 직접 전달된 기부금만 포함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23년에 6억 6,800만 GBP의 가치가 있는바, 이는 DEC 역사상 가장 큰 모금액인 것으로 판단됨.

22) DEC 연차보고서 및 전략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셋째,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여 효과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 **(목표)** DEC는 다음의 4가지 목표에 중점을 둔다. 첫째, 합의된 기준에 따라 RRN(Rapid Response Network, 긴급대응 네트워크)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의적절하게 올바른 어필을 개시한다. 둘째, 기존 모금 출처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각 어필에 대한 모금액을 극대화하고, 현재 및 잠재 기부자의 관심, 기호, 방식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기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이재민들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Adaptive Program(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DEC 모금 지원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인도적 위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모금의 영향력을 높인다. 넷째, DEC를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영국의 대중 모금의 핵심 조정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일반 대중 대상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적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중의 기부 의지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 **(목적 및 운영 원칙)** DEC가 제시하는 목적 및 운영 원칙에는 첫째, 모금된 자금을 극대화하고 참여단체의 즉각적인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NGO 단체들을 위한 공동모금의 장을 마련한다. 둘째, 해외 재난에 대한 일반 대중, 방송사 및 기타 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마련한다. 셋째, 참여단체 간 협력, 조정 및 소통을 촉진한다. 넷째, 모금된 자금이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책무성을 가지고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 **(전략)** 글로벌 인도적 위기는 지정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디어 소비가 변화하고 있으며, 대중의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게 됐다. 따라서, DEC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적시에 올바른 어필을 개시하고 대중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EC 15개 회원단체 및 RRN과 협력하여 전략적 기조 아래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림 13] DEC Strategy 2024-2029

적시에 올바른 어필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대중 및 파트너 기관과의 신뢰 구축	인도적 지원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영향력 확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는 DEC
• 모금액 극대화 • 파트너십 강화 •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의 최적화 • 데이터 및 선별 기술의 우선순위 지정	•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위주의 접근방식 • 지지자의 경험을 재구성 • DEC 현재 및 잠재적 기부자에 투자 • 시기 적절하고 영향력 있으며 진정성 있는 콘텐츠 추구	• 공동의 영향력 활용 •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 기후 변화 및 장기적인 위기 대응 강화 • 현지 기반 권리 이양 지	• 직원 지원 •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에 대한 의무이행 포함 • 재무 및 위험 관리 전략 발전 • 내부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투자

출처: DEC(2024). “DEC Strategy 2024-2029”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1-3. 플랫폼의 체계와 운영방식

1-3-1. 플랫폼 운영체계²³⁾

○ 의사결정체계

- (이사회)

- DEC 이사회는 15개 회원단체의 대표들과 6명의 외부 이사(이사회 의장, 부의장, 최고 재무 책임자 포함)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지며, DEC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DEC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맡고 있다.
- 이사회 의장은 방송사 출신의 인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현 이사회 의장뿐 아니라, 차기 의장으로 임명된 후임자 모두 ITN, BBC, ITV처럼 방송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DEC 어필 결정 시, 규정상 방송사의 의결권은 부재하지만, 방송사 출신 이사회 의장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입장 혹은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DEC 어필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⁴⁾

- (4개 이사회 구성 위원회)

- 멤버십 및 책무성 위원회는 책무성 정책을 개발하고 회원단체 및 DEC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학습과 책무성 증진을 위해 DEC 활동을 감독한다. 위원회 의장은 외부 이사 1명이며, 7명의 회원단체 대표(BRC, CARE International UK, Oxfam GB 등) 및 3명의 외부 이사로 구성된다.
- 회계감사, 재무 및 위험관리 위원회는 재무제표 초안 및 외부 감사인의 관리 서한 검토를 비롯하여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감사 권고 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위원회 의장은 외부 이사 1명이며, 6명의 회원단체 대표(Action Against Hunger UK, ActionAid UK, CAFOD 등) 및 1명의 외부 이사로 구성된다.
- 급여 위원회는 급여 정책과 관행을 매년 검토하여 전체 이사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 의장은 외부 이사 1명이며, 2명의 회원단체 대표(Age International, SCUK) 및 2명의 외부 이사로 구성된다.
- 기부금 승인 위원회는 DEC 기부금 승인 정책에 따라 기부금, 지원 제안 또는 모금 파트너십 심사 및 검토를 담당한다. 위원회 의장은 외부 이사 1명이며, 5명의 회원단체 대표(BRC,

23) DEC 연차보고서 및 DEC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함.

24) SCUK 관계자 C 인터뷰(2024.9.20.)

Oxfam GB, SCUK 등) 및 3명의 외부 이사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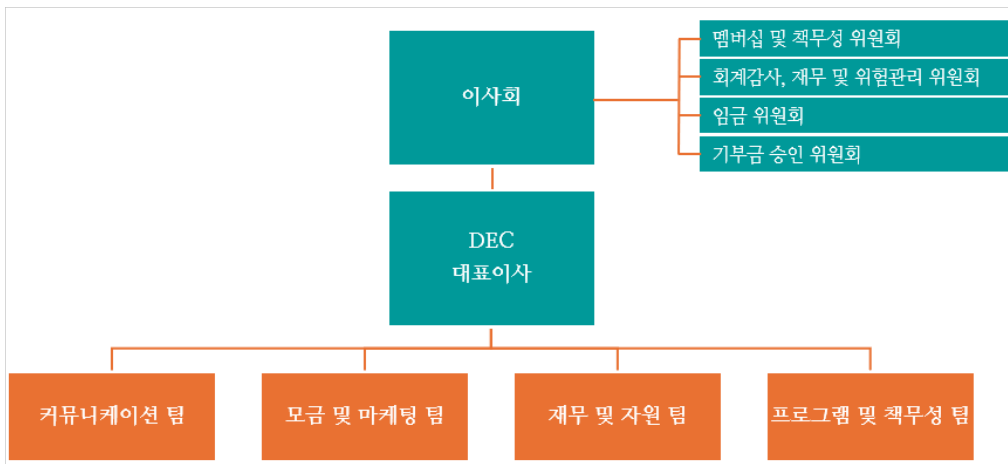
- (회원단체 및 RRN)

- DEC 회원단체는 총 15개의 주요 영국 NGO 단체이며, 5개 방송 파트너 기관으로는 BBC, Channel 4, Channel 5, ITV, Sky가 있다.²⁵⁾ 또한, RRN에는 방송, 금융, 전자결제 서비스,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총 22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매우 짧은 시간에 긴급 어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이 빠르고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무국

- (역할 및 운영) 36명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DEC 대표이사의 지휘하에 커뮤니케이션, 모금 및 마케팅, 재무 및 자원, 프로그램 및 책무성 총 4개 팀으로 나뉜다(2024년 3월 31일 기준).

[그림 14] DEC 사무국 조직도



출처: DEC 2023-2024 연차보고서 및 DEC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구성

- 사무국은 어필 운영 및 기금 관리, 프로그램 검토, 조직 운영, 전략적 목표의 계획 및 실행 등을 담당하며, 어필을 개시하면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직원, 프리랜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가 대규모 팝업 팀을 구성한다. 또한, 회원단체가 5만 GBP(9,070만 5,000 KRW)의 연회비를 납입하며, 연회비와 더불어 Unrestricted trust donations(비지정 신탁 기부금)은 2024-29년 5개년 전략에 따라, DEC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25) 5개 방송 파트너 기관 모두 RRN의 멤버임.

○ 재무현황

- **(모금 수입 분포)** 2023~2024년 3월까지 DEC 총수입액은 2억 4천8백만 GBP(4,434억 7,970만 KRW)로 이 중에 비지정 수입 비율은 Gift Aid가 71%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현금 투자 수입(17%), 회원단체 기금(10%), 비지정 신탁 기부금(1%), 유산기부(1%)로 나타난다. 또한, 영국 정부의 UK Aid Match를 통해 2023년에는 파키스탄 홍수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어필에 대해서 각각 500만 GBP(89억 1,940만 KRW)로 총 1,000만 GBP(178억 3,880만 KRW)를 지원했으며, 정부지원비율은 4.6%를 차지한다. 다만, 2024년 1~3월까지 진행된 DEC 어필은 없어서 정부 지원금은 반영되지 않았다(DEC, 2024).
- **(DEC 어필별 수입)** 2021~2023년까지 DEC 어필 종류에 따른 수입을 보자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DEC 어필별 모금액

어필	시작시기	DEC 수입 (‘000 GBP)	회원단체 수입 (‘000 GBP)	총모금액 (‘000 GBP)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어필	2023년 2월	113,921	48,217	162,138
파키스탄 홍수 어필	2022년 9월	38,171	11,829	50,000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	2022년 3월	307,116	130,333	437,449
아프가니스탄 위기 어필	2021년 12월	39,863	12,763	52,626

출처: DEC 연차보고서 및 DEC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구성

각 어필에 대한 총수입에는 어필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DEC에 직접 기부한 기부금과 15개 회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모두 포함됐다. DEC 수입에는 어필 기부금, Gift Aid, 유산 기부가 포함된다. 단, 일부 어필 수입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DEC, 2024).

- **(UK Aid Match 및 Gift Aid)** 2019~2024년 동안 영국 정부는 5개의 어필에 UK Aid Match를 통해 총 5,500만 GBP(981억 1,340만 KRW)를 지원했다. 이러한 UK Aid Match를 통한 정부 지원은 국민들이 DEC 어필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²⁶⁾ 또한, DEC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영국 납세자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영국 정부로부터 총 1,300만 GBP(231억 9,044만 KRW)의 Gift Aid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EC, 2024).

26) DEC 그룹 인터뷰(2024.9.9.); BRC 그룹 인터뷰(2024.9.10.); FCDO 관계자 A 인터뷰(2024.10.24.)

1-3-2. 대응 방식과 절차

○ 대응재난

- 대형 재난 위주로 DEC 설립 이래 총 78회 어필을 진행해 왔다. DEC 최초 어필은 1966년 8월에 터키 바르토 지역에서 2,300명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에 대응하고자 진행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중동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레바논 및 웨스트 뱅크에서 피해를 당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Middle East Humanitarian Appeal(중동 인도적 지원 어필)이 2024년 10월 17일에 착수됐다.

○ DEC 어필 결정 3가지 기준

- DEC가 어필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기준으로는 △재난 규모 및 긴급성(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위기) △참여단체 역량(인도적 위기 지역에 대한 접근성, 수백만 명에 대한 대응 가능 여부) △대중의 인지도 및 기부 성향(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져 어필을 진행할 경우, 대중 모금의 성공을 담보 확신)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미디어 연계 및 DEC 어필 보도가 대중 모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국 일정 조율 및 15개 회원단체로부터 언론 보도와 소셜 미디어 담당자 파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대응절차

DEC 어필 개시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진이나 태풍과 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비상사태를 프로그램 팀이 모니터링하고 회원단체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다.
- 둘째, 일련의 모니터링 및 회원단체들과 소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필 사례로 정리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셋째, 제출된 어필 사례에 대한 평가 자료에 대해서 이사회는 DEC 어필 결정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지 검토한다. 이사회가 어필 개시에 동의하면, 참여 방송사가 매스컴 보도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한다.
- 넷째, 참여 방송사가 최종적으로 동의하면 어필을 시작한다.

○ 수행절차

DEC 어필 완료 후, 모금액을 배분받는 참여단체는 운영 매뉴얼에 따라 대응 사업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 대응 시작 한 달 후, 참여단체는 첫 6개월 동안의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필요 여부를

DEC에 알려야 한다.

- 1단계(초기 6개월간의 대응): 참여단체는 IoC(Indicator of Capacity)배분액의 최소 30%를 사용하며, 주로 구호 물품 구매와 전달에 사용한다.
- 2단계: 지역사회 재건에 중점을 두며, 대규모 재난 발생 후 2~3년 동안 계속되며, '1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물론, DEC가 처음에 할당했던 금액 외에 추가로 받은 모금액도 해당 단계에 사용한다.
- DEC는 참여단체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첫 3개월과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자금 사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모금출처

- **(Gift Aid)** Gift Aid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절세형 기부이며, 한 해 동안 기부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DEC에 환급되는 것으로 즉, 납세자가 DEC와 같은 자선단체에 절세형 기부를 허용하면, DEC는 그 세금을 정부로부터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회수된 세金的 50% 이상을 각 공동기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DEC의 정책이다(DEC, 2024).
- **(UK Aid Match)** DEC와 FCDO가 5년 약정으로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대중 모금에 정부가 매칭 하는 방식으로 예산은 미정이며, 인도적 위기 어필 때마다 DEC-FCDO 간에 협상하여 예산 할당액을 결정한다. 평균적으로 FCDO는 어필당 5백만 GBP(89억 1,940만 KRW)의 Aid Match를 지원해 왔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의 경우, 대중 기부금에 2,500만 GBP(445억 9,700만 KRW)를 매칭했으며, 이는 영국 Aid Match를 통해 DEC 어필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영국 정부의 매칭 금액이었다(DEC, 2024).
- **(일반 기부)** 대중, 신탁 및 재단, 기업 등에서 모금하는 기부금을 모두 포함한다.

○ 모금방식

- **PJA(Period Joint Action)**
 - PJA(Period Joint Action)는 DEC와 회원단체가 DEC 어필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활용하여 2주간 집중적으로 공동모금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해당 기간에는 회원단체의 개별 모금 활동을 자제하는데, 이는 DEC 운영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으며, 2주 간 대중 모금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DEC와 회원단체가 사전에 합의한 협업 방식이다. 다만, PJA 이전과 이후, 회원단체는 개별 모금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²⁷⁾

27) BRC 그룹 인터뷰(2024.9.10.)

- PJA 기간에는 DEC만이 유일하게 BBC, ITV 등 방송사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Google, Facebook, X 등)에 DEC 어필 광고를 전면에 게재하여 대중 홍보에 집중한다.²⁸⁾
- **(대중 모금)** 영국 대중을 대상으로 △DEC 홈페이지(www.dec.org.uk) △전화 모금 △문자 혹은 SMS 전송을 통한 소액 기부 △수표 우편발송과 같이 4가지 방식으로 DEC 어필 모금을 진행한다(DEC, 2024).
- **(RRN 모금)**
 - RRN에 속한 주요 미디어 및 기업 파트너들은 사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DEC 어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RRN 회원사인 NatWest Group는 2021년에 진행했던 아프가니스탄 위기 어필을 당사 앱에 게재하여 100만 GBP(18억 1,410만 KRW) 이상의 대중 모금을 지원했다. 또한, 2013년부터 DEC와 파트너십을 맺어온 British Airways는 2022년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을 위해서 기내 모금을 진행하여 총 200만 GBP(36억 2,820만 KRW) 이상의 기부금을 마련했다(DEC, 2024).
 - 영국 유명 배우인 Adrian Lester와 Kit Harrington이 BBC, ITV, Channel 4, Channel 5, Sky와 같은 미디어에 출현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을 소개한 후, 24시간 만에 5,500만 GBP(997억 7,550만 KRW)가 모금됐다. 또한, 영국 신문사인 i Paper는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독자들이 모금한 85만 GBP(15억 4,198만 KRW)가 넘는 금액을 DEC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에 기부한 바 있다(DEC, 2024).

○ 배분방식

- **IoC(Indicator of Capacity)**
 - DEC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IoC는 회원단체의 모금 및 현장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계산식으로 DEC 내부적으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IoC를 적용하여 회원단체를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IoC에 따른 DEC 공동모금 배분 비율이 미리 정해져서 회원단체에 사전 공유되며, 어필 대응에 참여하는 단체는 공동모금액의 최소 3%에서 최대 20%까지 배분받는다. 단, DEC 어필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모금 배분에서 제외된다.
 -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어필 공동모금액 배분에서 SCUK, Oxfam GB, BRC가 배분 규모에서 1~3위를 차지했으며, 3개 단체의 전체 배분 비율이 전체 모금액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DEC 그룹 인터뷰(2024.9.9.)

- 배분 규모에 대한 정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으로 인해 단체별 배분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회원단체들의 불만이나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DEC 어필 시, 배분 비율을 예상할 수 있어 DEC 어필 대응 시, DEC로부터 모금 배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참여단체 내부 유연 기금을 미리 사용하고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신속하게 긴급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지화 고려

- **(현지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과 업무방식 시도)** DEC는 대응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데 DEC 회원단체 및 현지 파트너에게 현지 직원과 지역사회의 수요에 기반해서 제안된 새로운 모델과 업무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연구, 역량 강화, 공동 작업, 새로운 파트너십 등이 있으며, 보호, 현지화, 이재민 책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DEC, 2024).
- **(현지화의 적용 사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 내에서 현지화를 고려한 프로젝트로는 세이프터칠드런과 현지 파트너가 1,000만 GBP(178억 3,880만 KRW)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은 'SHIFT(Sustainable Humanitarian Innovation for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 혁신)'이다. 본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교육, 코칭 및 멘토링, 연구 및 분석, 현금 및 바우처 지원, 보조금,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적 위기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DEC, 2024).

1-3-3. 대응 프로그램 사례

지난 60년 동안 DEC는 대형재난 위주로 총 78회 어필을 진행해 왔으며, 그중 일주일 내 온라인 상 최대 모금액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Ukraine Humanitarian Appeal(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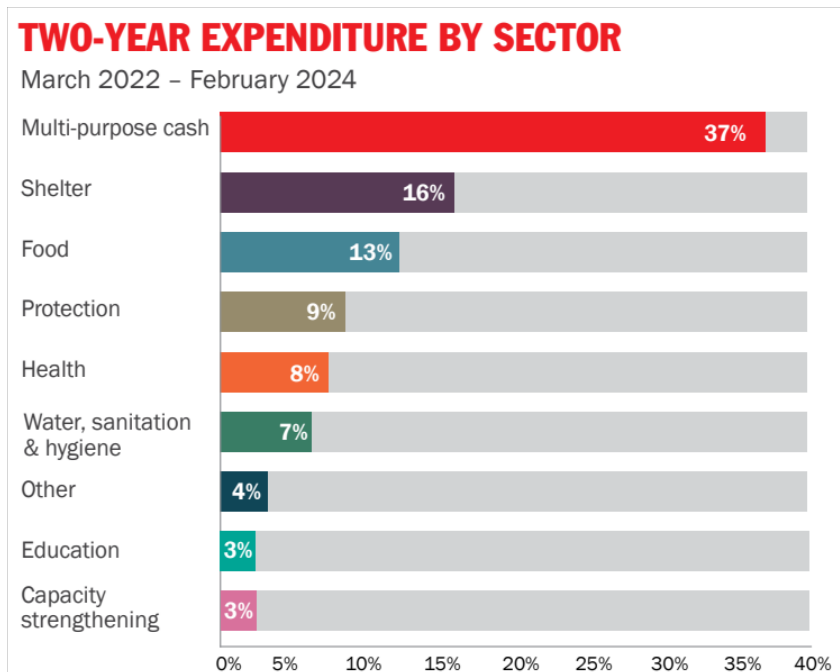
○ Ukraine Humanitarian Appeal(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어필)

- DEC는 2022년 3월 Ukraine Humanitarian Appeal을 시작했으며, 영국 정부가 매칭한 2,500만 GBP(445억 9,700만 KRW)를 포함해 4억 3,700만 GBP(7,795억 5,556만 KRW)를 모금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DEC 어필 중 하나로 기록됐다. 모금된 금액으로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의 820만 명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 어필에 대응하기 위해 DEC 13개 회원단체가 참여했고,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5개국(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2025년 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DEC, 2024).

-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3개 회원단체와 현지 파트너들은 5개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총 2억 2,390만 GBP(3,994억 1,073만 KRW)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DEC, 2024).

[그림 15] 섹터별 지출 유형(2022년 3월~2024년 2월)



출처: DEC(2024). “DEC Annual Report 2023-2024”

-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 지급, 거주지, 식량, 보호, 의료, 위생용품,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뤘다: △865,000명이 전문적 서비스 의뢰를 포함한 보호 지원을 받았다, △463,000명에게 음식 바구니와 따뜻한 식사를 포함한 식량을 제공했다, △187,000명에게 위생 및 존엄성 키트를 제공했다, △89,300명이 법률 지원 및 조언을 받았다, △149,000명이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25,000명의 성인과 아동이 통합 및 사회 결속력 활동에 참여했다(DEC, 2024:19).
- Ukraine Humanitarian Appeal은 ITV의 Good Morning Britain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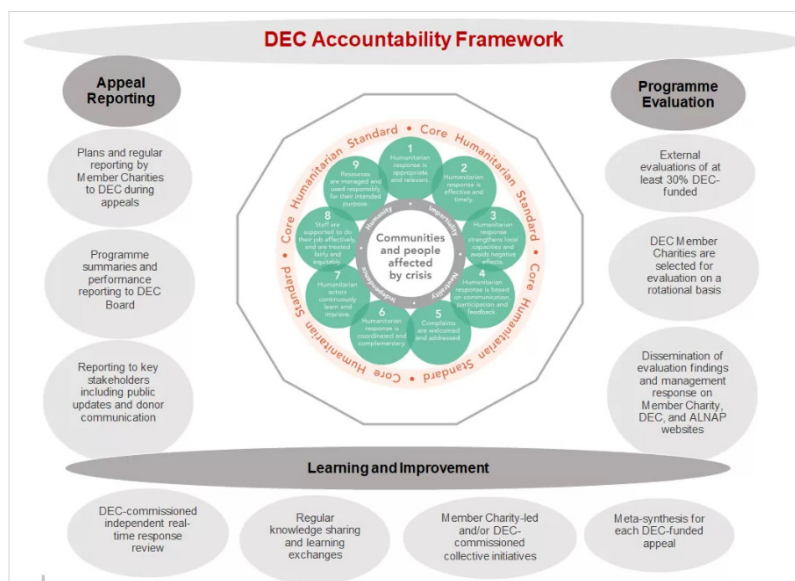
총 223개의 영국 언론에서 보도됐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 기사는 150개 이상의 현지 신문에서 재인용되었고, 8개의 국제적인 신문에서 보도자료의 주요 수치를 그래픽으로 전면에 게재했다. DEC 웹사이트의 Ukraine Humanitarian Appeal 페이지에는 어필의 타임라인과 함께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었고, 2024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24,000회 이상의 DEC 웹사이트 페이지를 본 것 중에서 약 5,700회가 Ukraine Humanitarian Appeal 페이지를 본 것으로 기록됐다(DEC, 2024:23).

1-3-4. 책무성 제도와 절차

○ 책무성 메커니즘

- DEC 회원단체들은 책무성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CHS(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관한 핵심 기준)²⁹⁾을 채택하고 있다.
- DEC 책무성 프레임워크는 여러 활동을 고안하여 책무성, 학습 및 개선을 촉진하고 입증하며, △우수한 기준 감사 △특정 어필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평가 시스템 △학습 및 개선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림 16] DEC 책무성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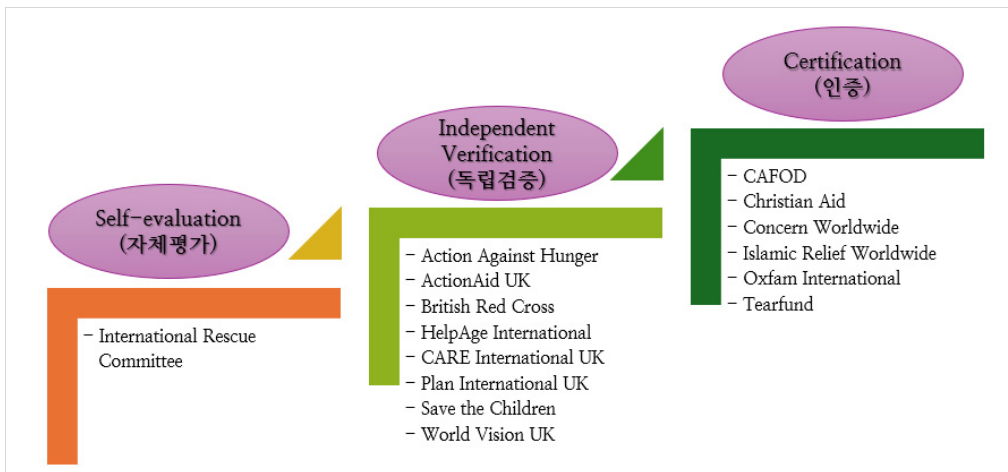


29) 인도적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이 인도적 지원의 질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9가지 서약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지침 및 지표를 포함함(Sphere, 2018).

출처: DEC(2024). “DEC Accountability Framework”

- 회원단체들은 CHS에 대한 독립검증³⁰⁾을 통해 단체가 수행하는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DEC는 회원단체 모두에게 재난 대응에 대한 책무성 이행을 비롯하여 모든 긴급구호 전반에 걸친 업무수행 방식을 검토하고 이재민들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뒷받침할 만한 단체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 [그림 17]은 15개 회원단체가 CHS에 대한 독립검증 절차를 거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DEC 회원단체 CHS에 대한 독립검증 현황



출처: DEC 연차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평가체계 및 방식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DEC는 회원단체들과 협력하여 DEC가 어필을 진행한 재난들에 대한 회원단체들의 대응을 평가한다. 독립 검토 및 평가 시스템을 통해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사업평가)

- Response Reviews(대응 검토): 재난 발생 직후에 실시하여 대응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독립 컨설턴트가 구호 활동 개시 후 3~6개월 이내에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남은 활동 기간에 활동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조언과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 대응 검토 보고서는 DEC에서 전문을 공개한다.

30) 독립검증이란 기관이 CHS를 달성하기 위해 진척도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검증 제도는 CHS Alliance에서 관리하며, 이는 검증 절차에 대한 정책과 규칙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 되도록 보장한다(DEC, 2024).

- DEC Milestone Reporting(DEC 주요 단계 보고): 6개월 또는 1년 후 긴급 대응의 주요 시점이 되면 DEC는 회원단체들이 DEC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재난 지역에서 무엇을 지원했는지 등 회원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상세히 공개한다.
- Member Agency Evaluation(회원단체 평가): DEC 회원 자격 요건으로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어필에 따라 수행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또는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독립 평가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전문 또는 요약 형식으로 공개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이내에 수행된다.

- (멤버십 평가)

- Membership Review(멤버십 검토):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멤버십 검토는 회원단체를 평가하는 매우 광범위한 심사로 CHS에 대한 독립검증 및 PSEA(Prevention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성적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IASC 최소 기준 서약을 포함한 DEC 멤버십 기준과 의무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회원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 평가 결과는 이사회와 멤버십 및 책무성 분과위원회에 보고되며, 회원단체의 수행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회원단체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시정조치를 받고, 분기마다 멤버십 및 책무성 분과위원회에 개선 사항을 보고한다. 개선되기 전까지 시정조치를 받은 회원단체는 DEC 기금을 철회할 수 없고, 새로운 어필에 참여할 수 없다.
- Due diligence self-assessment standards: 모든 회원단체에 적용되며 복잡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무 관리, 거버넌스, 책무성, 파트너와의 협력, 조달 및 현금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본 기준에 따라, 회원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피드백을 통해 보고된 의심되거나 심각한 사건을 즉시 조사하여 DEC, 자선 감독위원회, 경찰 및 관련 기부단체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1-4. 작동기제 및 장애요인

1-4-1. 주체별 참여유인

○ 정부 참여

- (협력 방식)

- DEC 주도-정부 지원 방식: 2013년부터 DEC는 영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UK Aid Match 방식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왔다. 정부는 Ukraine Humanitarian Appeal에

2,500만 GBP(445억 9,700만 KRW)를 매칭한 것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는 개별 어필에 5백만 GBP(89억 1,940만 KRW)를 매칭한다.³¹⁾ 정부는 자금지원은 하지만, DEC 어필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 (참여/협력요인)

- **대중의 신뢰도 및 정부의 가시성 증가:** PJA 기간에 BBC, ITV, ITN 등 주요 방송사뿐 아니라 다른 소셜미디어(Google, Facebook, X 등)에서 DEC 어필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므로, DEC 어필에 영국 정부의 Aid Match 지원 방식과 더불어 UK Aid Match logo를 사용함으로써 영국 정부의 위상과 선한 영향력을 일반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비용 대비 효율성 극대화:** FCDO의 인력 부족 및 5% 이하의 정부지원비율에 대비해서 FCDO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DEC 및 회원단체들이 자체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며, 15개 회원단체를 통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대응 성과와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온다.
- **FCDO-DEC 간 단일화한 소통 채널:** 어필에 대해서 FCDO가 개별 회원단체와 소통하는 대신, DEC 사무국을 통해서 소통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 전달, 오해로 인한 관계 악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다.

○ 미디어 참여

- (협력 방식)

- **모금 극대화의 견인 역할:** RRN 멤버 중 미디어 파트너(BBC, ITV, ITN, Channel 4, 5 등)가 가장 많이 차지할 정도로 DEC는 미디어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TV, 라디오뿐 아니라, 다양한 소셜미디어(Facebook, X, Google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자 또는 셀럽의 현장 방문을 통해 모금 사용처를 대중에게 알린다. 국영 방송사인 BBC는 규정상 DEC 어필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BBC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DEC 모금의 성공을 좌우하기에 BBC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참여/협력요인)

- **미디어와 연계를 통한 모금액 증가:** DEC와 미디어의 연계 및 DEC 어필에 대한 집중적 보도는 DEC 모금액 증가 및 어필의 성공을 좌우한다.
- **잠재 시청자 확보:** DEC 어필에 대해서 다양한 미디어에서 보도함으로써 기존의 시청자들뿐 아니라 잠재 고객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해당 미디어가 국제적 이슈를 포함한

31) Start Network(2024)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3. London: Start Network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전달력을 가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의 위상을 구축한다.

○ 기업 참여

- (협력 방식)

- **기업 전문성 활용을 통한 기부 확대:** 기업 파트너들은 사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DEC 어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PayPal은 어필 개시와 동시에 모든 PayPal 고객에게 DEC 어필에 대한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동시에 전용 모금 페이지를 만들어 '결제 시 기부' 방식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게 했다. Ukraine Humanitarian Appeal 개시에 대한 이메일로 290만 GBP(51억 7,325만 KRW)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DEC, 2024).

- (참여/협력요인)

-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따른 직원의 참여도 상승:**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이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다.
-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효과:** 대중에게 잘 알려진 DEC 혹은 DEC 어필에 기업의 참여는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도뿐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각인시킨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DEC의 대표성과 인지도:** 기업의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개별 자선단체를 선택하는 것보다 영국의 대표적인 15개 NGO 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는 DEC와 협력함으로써 DEC가 갖고 있는 대표성과 인지도가 기업에도 동반 효과를 얻게 한다.

1-4-2. 작동기제

DEC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작동 기제를 대외환경적 층위(Macro level), 플랫폼 조직적 층위(Meso level), 회원단체 층위(Micro level)에서 제도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2] DEC 작동기제

층위	제도적 요소 (Hardware)	사회문화적 요소 (Software)
Macro (대외환경)	인도적 지원 정책 부합 정부의 제도적 지원(UK Aid Match, Gift Aid 등)	오랜 기부 역사 및 문화 20세기 초반부터 설립된 영국 기반 NGO의 증가로 인도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Meso (플랫폼 조직)	회원단체 주도적/참여적 거버넌스 주요 미디어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 구조 높은 수준의 책무성 이행 요구 배분 및 정보 공유의 투명성	회원단체 간의 경쟁을 넘어선 협동심 브랜드로써 DEC 혹은 DEC 어필에 대한 대중의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 DEC 어필에 대한 대표성 확보
Micro (회원단체)	회원단체에 대한 높은 자격 요건 및 멤버십 유지 모금 경쟁 및 피로도 감소를 위한 PJA 방식 적용 배분 모금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 회원단체 간 소통과 조정 DEC-회원단체 간 co-branding으로 회원단체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 및 대표성 인정 광범위한 정보 접근성에 따른 학습

○ Macro level

- **(제도적 요소)** 영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 재원의 다양성 추구, 정부의 신속한 대응 유지, 인도적 지원 전문 역량 네트워크 구축 등에 부합하고자 UK Aid Match 방식, Gift Aid 등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다.
- **(사회문화적 요소)** 영국사회가 20세기 초부터 발생한 국내외 난민을 대응하며 얻은 경험은 영국의 주요 NGO 단체들이 출범하는 배경이 됐고, 대중적 기부 및 봉사 문화를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오랜 기부와 인도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국에는 DEC라는 공동 플랫폼을 최초로 만드는 기반이 됐다.

○ Meso level

- **(제도적 요소)** DEC는 회원단체 모두에게 CHS에 대한 독립검증을 요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갖고 회원단체가 주도적으로 DEC 운영의 전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며, IoC를 적용한 참여단체별 모금배분 산출, 다양한 소통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활동 보고를 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한다. 또한, 주요 미디어, 특히 BBC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관계는 모금 극대화의 성공 요인으로 파악된다.
- **(사회문화적 요소)** 회원단체들의 경쟁을 넘어선 협동심은 DEC가 지난 60년간 모금 극대화와 인도적 지원 행위자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오랫동안 쌓아온 DEC 어필의 성과 및 영향력, 영국을 대표하는 NGO가 회원단체로 구성, 정부의 자금 매칭을 비롯해서 국영방송사인 BBC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은 브랜드로써 DEC 또는 DEC 어필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DEC 어필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한다.

○ Micro level

- **(제도적 요소)**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단체에 요구하는 높은 자격 요건은 개별단체의 역량과 책무성을 담보함에 따라, 정부, 대중, 기타 이해당사자가 회원단체 및 DEC에 대한 신뢰도와 가시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PJA 방식을 적용하여 회원단체 간 모금 경쟁 및 피로도를 줄여서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배분된 모금으로 개별 모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할 수 있었다.
- **(사회문화적 요소)** 어필 이후 회원단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상호 소통과 조정을 통해서 참여단체 수만큼의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하여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DEC-회원단체 간 co-branding은 모든 회원단체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DEC 대표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1-4-3. 장애요인

DEC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대외적/대내적 측면으로 나뉜다.

○ 대외적 측면

- **(젊은 세대의 기부 감소)** 향후 기부자 그룹의 세대교체를 고려하여 젊은 세대의 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기부에 관한 생각, 기부방식, 결정요인 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DEC 어필 의사결정에 대한 BBC의 영향력)** 규정상 BBC는 DEC 어필에 대한 의사결정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2024년 10월에 개시된 Middle East Humanitarian Appeal의 경우, 2023년에 진행하려고 회원단체들이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BBC의 반대로 인해서 어필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없었다. 이처럼 BBC의 개입에 대한 향후 DEC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조정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내적 측면

- **(DEC 어필 결정에 대한 기준의 수정 필요)** DEC 어필이 없는 경우에도 DEC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이런 경우, 향후 상시 모금액을 모아서 긴급 자금으로서 중소형 재난, 오랜 분쟁이나 잊혀진 위기에 대응할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현재의 어필 결정에 대한 3가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절차의 간소화)** DEC 어필에 참여한 회원단체는 2년간의 사업 기간에 DEC 사무국으로부터 일련의 보고 절차를 요구받는다. 문서상으로는 보고의 간소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참여단체 입장에서 DEC가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5-1. 주요 특징

- **(미디어와 연계를 통한 모금의 극대화)** 다양한 미디어 파트너들, 특히 BBC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모금을 극대화하여 엄청난 대중 모금을 이끌어낸다.
- **(DEC-회원단체 간 Co-branding의 영향력)**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개별사업을 진행하지만, DEC-회원단체의 co-branding 하에 막강한 공동의 영향력을 가진다.
- **(경쟁을 초월한 협력을 가능케 한 PJA 메커니즘)** 개별단체 간에 대중 모금에서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모금의 골든타임에 경쟁을 하기보다는 PJA 기반으로 15개 회원단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어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모금의 성공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 **(DEC 어필 결정에 대한 BBC의 영향력)** DEC 어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회 의장이 이전 미디어 출신이라는 점과 BBC가 DEC 설립 초기부터 DEC와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DEC 어필 결정에 BBC의 막강한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 **(DEC의 대표성 확보)** DEC는 정부 주도의 국가적 어필은 아니지만, 정부, 주요 방송사와의 협력, 셀럽 참여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DEC 어필의 독보적인 대표성 또는 공공성을 확보한다.

1-5-2. RAPID에 대한 시사점

- **(RAPID 용 PJA 설정)** DEC 회원단체들이 모금 경쟁을 초월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이유는 2주라는 PJA 기간에만 협업이 적용되기 때문인 바,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 하에 협업 기간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RAPID 활성화 및 공동 파트너십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RAPID 특화된 성과관리체계 마련)** 재난 및 기금 규모, 대응 기간, 지원 분야, 참여단체의

성과관리 역량, 사업수행 체계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RAPID에 특화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모금과 홍보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 설립)** 향후 RAPID가 공동 플랫폼으로 발전될 때, 공동모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하며, 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대중 모금과 홍보의 활성화여서 모금과 홍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 **(참여단체의 의결권 부여)** RAPID가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동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소수의 이해당사자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참여단체에도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한다.
- **(온라인 모금 팝업 공간 마련)** 오프라인에서는 참여단체들 간에 모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협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짧은 시간에 모금을 위한 온라인 팝업 공간을 설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6. Start Network 플랫폼 형성과 발전과정

1-6-1. 플랫폼 개요

○ 개요

Start Network는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분권화·현지화를 목표로 97개 국제·현지 NGO 단체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민간의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다만, 앞서 소개한 DEC처럼 공동 어필과 연계해서 공동모금을 하는 것이 아닌 주요 공여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프로그램 및 자금을 운용하는 공동 플랫폼이다.

[표 23] Start Network 개요

	설립 연도	설립 및 운영주도 성격	회원단체 수	법적지위
Start Network	2010년	민간 설립 및 운영주도 정부 지원형	97개 ³²⁾	2019년에 독립 자선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32) 회원단체 리스트는 첨부 문서 참조.

1-6-2. 형성과 발전 과정

○ 설립배경 및 취지³³⁾

- **(2010년 - CBHA 탄생)**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 정부의 늦장 대처,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상황, 인도적 대응이 피해 당사자의 수요보다 정치·외교 또는 언론의 관심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 등을 마주하면서, 협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더 효과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후반 SCUK(Save the Children UK, 세이브더칠드런 영국)의 주도하에 15개 단체³⁴⁾가 모여 CBHA(The Consortium of British Humanitarian Agencies, 영국 인도주의 단체 컨소시엄)를 설립했다.
- **(2012년 - Start Network 본격적인 시작)** 2012년에 CBHA에서 Start Network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Start Network의 글로벌화 △인도적 위기에 대한 초기대응 △기존 인도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추진했다.
- **(2014년 - The Start Fund)**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Start Fund는 2014년 4월에 생겼다. 이 기금은 대중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소재난 위기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졌으며, 특히 자금이 부족한 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자금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 **(2020년 이후 - Start Network Hubs와 Start Ready)** Start Network Hubs는 재난 위기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인도, 태평양 지역, 파키스탄 총 5개국에 Hub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23년 기준으로 8개 Hub가 가동 중이며,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에 Hub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Start Ready는 모형화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단체에 다양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Start Fund를 보완하고자 2021년 말에 시작되어 2022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처럼 협력과 혁신을 통해 현지 주도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Start Network, 2023).

33) Start Network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함.

34) CBHA 15개 창립단체는 다음과 같다: △Action Against Hunger △actionaid △CAFOD △CARE △Christian Aid △Concern Worldwide △HelpAg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slamic Relief Worldwide △merlin △Oxfam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Tearfund △World Vision

1-6-3. 성격과 기능³⁵⁾

- **(비전)** 현지 주도의 선제적인 인도적 대응 시스템은 인도적 위기로 위협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손실과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 **(미션)** 현지 주도의 선제적인 인도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협업, 운영 및 자원제공 방식을 개발, 테스트 및 확산하고자 한다.
- **(목표)** 인도주의 활동의 효율성, 효과성, 윤리를 개선하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 **(가치)** Start Network가 추구하는 6가지 가치로는 첫째,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현지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셋째, 네트워크로서 일하고, 위험과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활용한다. 넷째,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의견을 활발히 공유한다. 다섯째, 조직 관리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반인종주의, 비차별, 반식민주의의 핵심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운영한다.
- **(전략)** 2021-2023 전략이 전 세계에 Start Network Hub 수를 증가시켜 현지 이해당사자들에게 권한, 의사결정, 자원, 발언권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2026 전략에서는 회원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및 영향력 모델을 정해서 사용 범위를 Start Network 전반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현지 주도의 선제적인 인도적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7. 플랫폼의 체계와 운영방식

1-7-1. 플랫폼 운영체계

○ 의사결정체계³⁶⁾

- **(최고 운영 기구)** Start Network 최고 운영 기구는 각 회원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며, △전략 및 발전 방향 설정 △이사회 임명 또는 해임, 이사회의 활동 감독 △회원단체 임명 또는 해임 △멤버십 정책 변경 승인을 맡고 있다.

35) Start Network 연차보고서 및 전략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36) Start Network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 **(이사회)** 이사회는 회원단체 및 외부 이사들이 참여하여 총 9명(4개 회원단체·5명 외부 이사)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내 팀별 성과 감독 △전략적 운영 방식 제안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새로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검토 등 조직의 관리 책임을 총괄한다.
- **(분과위원회)** 총 7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Start Fund 및 Start Ready 분과위원회를 제외한 5개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멤버가 의장을 맡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 **멤버십 분과위원회:** △새로운 회원단체 임명 추천 △Hubs의 운영 모델 감독 △연간 멤버십 분담금 및 수수료 체계를 포함한 멤버십 정책을 유지 및 검토한다.
 - **재무 및 감사 분과위원회:** △연간 회계, 예산, 재무 관리 등 모든 재무 업무에 대한 감독 △Start Network에 대한 모든 재무위험을 파악 및 검토한다.
 - **인사 분과위원회:** △조직의 인사 및 급여 체계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 제공을 한다.
 - **임명 분과위원회:** △이사회 후보의 추천 및 선출에 필요한 기량 및 경험 권고 △충원해야 할 공석이 있을 때, 선거 절차를 주도하여 담당한다.
 - **위험 및 규정 준수 분과위원회:** △Start Network의 위험 수용범위 성명서, 위험관리 전략, 관련 프레임워크 및 기능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법인 감독을 지원한다.
 - **Start Fund 분과위원회:** 모든 Start Network 회원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며, △자금 배분을 포함한 자금의 전략적 관리와 운영 담당 △현지 주도로 운영하는 자금을 대한 권한을 해당 국가 관리 기관에 위임한다.
 - **Start Ready 분과위원회:** 총 9명 중 7명이 Start Network 회원단체로 구성되며, △위험, 국가 및 금융 수단을 포괄해서 자금을 대한 사전 지정 △재난 위험 금융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해당 국가에 비용을 할당한다.
- **(회원단체)** Start Network는 전 세계 6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97개의 현지 및 국제 NGO 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이 중 56개는 현지 단체이고, 41개는 국제단체이다. 현지 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국제단체의 가입은 제한하며, 현지 단체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옹호 활동 그룹)** OCHA, BBC Media Action, ICVA, BOND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옹호 활동 그룹이 2023년에 출범했으며, 다양한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동료 학습과 기획 및 설계를 함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사무국³⁷⁾

- (역할 및 운영)

- 총 79명의 직원이 Start Network에 근무하고 있으며, 55명이 영국(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편, 24명은 Start Network hubs가 구축된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 5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대표이사 및 최고 재무 및 운영 책임자의 지휘하에 [그림 18]과 같이 12개 팀으로 나뉜다.

[그림 18] Start Network 사무국 조직체계



자료출처: <https://startnetwork.org/about/mission-vision-and-values/team>(접속일: 2024년 11월 1일)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사무국은 전반적인 조직 운영, 전략적 목표 계획 및 실행, 멤버십 관리 등을 총괄하지만, Start Network 안에서 특정 국가 및 지역에 구축된 hubs 중심으로 분권화된 조직 운영이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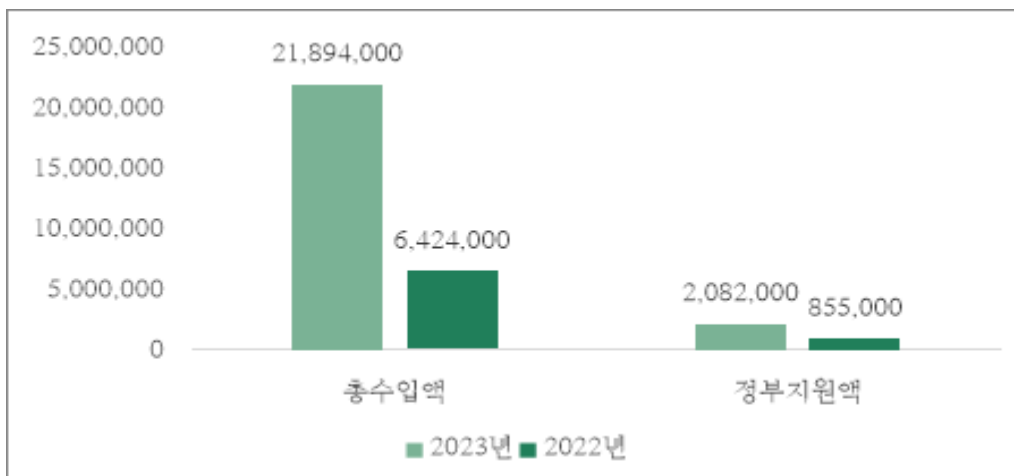
37) Start Network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활성화됨에 따라, 각 hub가 해당 국가 및 지역 네트워크 내 조직 운영, 자원 및 멤버십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자체적으로 주도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재정, 역량, 조직체계 등에 따라 연회비 납입 시 차등을 두며, 회원단체의 연회비는 Start Network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 재무현황

- 2023년도 Start Network 총수입액은 2,189만 4천 GBP(389억 6,628만 KRW)이며, 이 중에 비지정 수입은 344만 4천 GBP(61억 2,952만 KRW)으로 전체 수입 비율 중 약 16%를 차지한다. 수입원별로 보자면 △기부금(2,133만 7천 GBP/379억 7,495만 KRW) △연회비(54만 GBP/9억 6,107만 KRW) △기타(1만 7천 GBP/3,025만 KRW)로 구성되며, 특히, 영국 정부는 208만 2천 GBP(37억 548만 KRW)를 지원했으며, 정부지원비율이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rt Network, 2024).

[그림 19] Start Network 총수입액 및 영국 정부 지원액 규모



출처: Start Network(2023; 2024) “Start Network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023.”

-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총수입액이 642만 4천 GBP(114억 3,324만 KRW)이며, 영국 정부는 85만 5천 GBP(15억 2,170만 KRW)를 지원하여 총수입액 대비 정부지원비율이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총수입액이 341%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Start Network가 SCUK와의 자금 관리 계약을 통해 받은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직접 수령하고, 2023년에 ECHO(European Commission Civil Protection & Humanitarian Aid Operations), Howden Group Foundation, L’Oreal Foundation 총 3개의 새로운 기부단체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부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Start Network, 2023; 2024).

[글상자] Start Network의 Grant Custodian(자금 관리기관)으로써 SCUK 역할³⁸⁾

Start Network 설립 이후로 Start Network와 SCUK 간 자금 관리 계약에 따라 SCUK는 공여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합의된 절차와 추진 일정에 따라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련 자금을 회원단체(프로젝트용)와 Start Network(운영비, 기타 비용 등)에 배분하는 등 Start Fund의 모든 재정 및 위험 관리에 대해 책임지며, Start Network의 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소임을 수행해 왔다.

자금 관리 계약의 일환으로 Start Network는 SCUK의 인프라(인력, IT, 기타 시스템 등)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CUK 소속이지만, Start Network 직접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일부 SCUK 직원들이 Start Fund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는 2025년 Start Network가 독립절차를 밟으면서 Start Network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Start Network 내 의사결정에 SCUK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SCUK는 Start Network 설립 당시부터 자금 관리기관 역할을 대행했는데 그 이유로는 Start Network의 △자금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신생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 및 가시성 부재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Start Network는 독립적으로 기금을 수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2022년 6월 이사회는 2025년에 SCUK와의 자금 관리 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따라서, 2025년 10월에 Start Network는 SCUK의 시스템, 절차, 네트워크 등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영국의 자선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한다.

- 2023년 기부금 총액 2,133만 7천 GBP(379억 7,495만 KRW) 중 약 76%가 영국 정부 및 타 국가 정부(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지원이 차지하는데, 이는 재난 대응에 현지 주도의 선제적인 인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지화 확산에 이바지한 Start Network의 인지도와 국제적 위상을 입증한다.

1-7-2. 대응 방식과 절차

Start Network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인 Start Funds 및 Start Ready의 대응 방식과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 Start Funds

- **(중소 규모 위기 대응 자금 조달 메커니즘)** 2014년에 만들어진 Start Fund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 규모 위기에 중점을 두며, 회원단체들이 Start Network 내부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후 72시간 이내에 자금이 지급된다. 2014년부터 2024년 2월까지 76개국에서 580건의 위기 대응에 총 1억 3,435만 GBP(2,437억 4,808만 KRW)를 지출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도적 지원 자금 조달 메커니즘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³⁹⁾

38) SCUK 관계자 A 인터뷰(2024.9.10.); Start Network 그룹 인터뷰(2024.9.12.)

- **(위기 정보 발령-자금 할당-프로젝트 선정 과정)** 위기 정보 발령에서부터 프로젝트 선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72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내부 절차로는 첫째, 회원단체들에 의해 발령된 '위기 정보'를 기반으로 Start Fund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기들을 모든 회원단체가 확인한다. 둘째, 정보가 공유되고 자금 조달 여부에 관해 결정이 내려진다. 자금이 할당되면 회원단체들은 24시간 이내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셋째, 제출된 제안서들은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면 24시간 이내에 자금이 전달되며, 선집행도 가능한 유연한 시스템이다(Start Network, 2024).
- **(회원단체 주도적 의사결정 방식)** Start Fund 배분위원회에서 자금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만, Start Fund에 적합한 위기 및 프로젝트 선정을 포함한 대부분 결정은 회원단체들이 직접 내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⁴⁰⁾
- **(프로젝트 수행과 학습 및 평가)** 프로젝트는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학습 및 평가 단계가 있으며, 회원단체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회원단체들과 공유한다.
- **(Anticipatory Action 지원)** Start Fund는 기존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재난(홍수, 태풍, 화산 등)의 징후가 임박했을 때, 회원단체들이 제공하는 예측 정보를 통해 사전 조치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정보 발령에서 자금 조달 전반에 걸쳐 대응 절차의 신속성 및 자금의 유연성이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위기 정보 발령의 23%가 Anticipatory Action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Start Network, 2023).
- **(Start Fund 공여 기관)** Start Fund는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저지 정부 및 IKEA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Start Network, 2024).

○ Start Ready

-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Start Ready는 Disaster risk financing approach(재난위험자금 조달방식)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들이 충족되면 미리 설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미리 합의된 규모의 자금을 지급한다. 2022~2023년간 총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연재해(가뭄, 폭염, 홍수, 태풍 등) 위기 대응에 총 695만 GBP(125억 9,763만 KRW)를 지출한 적시에 제공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자금으로 평가한다(Start Network, 2022; 2023).

39) Start Network 그룹 인터뷰(2024.9.12.)

40) World Vision 관계자 B 인터뷰(2024.9.11.)

- (신청 자격획득-인증서 발급-자금 지급 과정)

- 첫째, 회원단체 네트워크가 협력하여 재난위험자금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을 분석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한 후에 Start Ready coverage⁴¹⁾에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 둘째, Start Ready 관리위원회는 공여 기관으로부터 미리 받은 자금을 공동기금(Pooled funds)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한편, 신청서를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선정된 회원단체 네트워크에 12개월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 셋째, 공동기금은 12개월 동안 운영되며, 나라마다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에 위험 요인들(홍수, 가뭄, 사이클론 등)을 모니터링한다. 각 재난 위험 자금 조달 시스템에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위험 한계치를 정의하는 비상 계획이 포함되며, 이러한 한계치에 도달하면 즉시 자금이 지급된다(Start Network, 2024).
- (학습 및 평가)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Post Risk Season Learning and Evaluation 단계가 있으며, 회원단체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회원단체들과 공유한다.
- (Start Fund의 보완적 자금 조달 방식) 현지 주도로 진행한 위험 식, 비상 계획 등을 활용해 예측가능한 위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량화하여 사전에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들이 충족되면 미리 설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미리 합의된 규모의 자금을 지급하는 Disaster risk financing approach와 같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 Start Fund를 보완한다.
- (Start Ready 공여 기관) Start Ready는 정부 기관(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유럽연합) 및 기업(IKEA, Margaret A. Cargill, Swiss Re, Howden Group, L'Oreal)의 지원을 받고 있다(Start Network, 2024).

○ 현지화 고려

- (현지 주도적-예측가능한 인도적 대응 시스템 우선) Start Network는 인도적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나은 양질의 지원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현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여국의 이해관계와 수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던 기존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보다는 현지 주도적이고 예측가능한 인도적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인도적 대합의 현지화 이행) Start Network는 현지 주도적 협력-조정 체계 구축,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 개발, 회원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실천하여 인도적

41) Start Ready Coverage는 △Global Risk Pool △National Reserves △Reinsurance Premium △Basic Risk로 구성됨(Start Network, 2023:50).

대합의에서 현지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파트너십, 조정, 자금지원,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 **(현지화의 적용 사례)** 97개 회원단체를 보유한 Start Network는 초기에는 현지 단체 보다 국제단체의 참여가 더 활발했으나, 현재는 현지 단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단체의 참여를 높이고자 국제단체의 가입은 제한을 두고, 현지 단체만 회원 가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Start Ready를 통해 현지 주도로 진행한 위험분석, 비상 계획 등을 활용해 예측할 수 있고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 Anticipatory 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장해 왔다. 그뿐 아니라, 재난 위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와 지역사회로 구성된 협력체계인 Hub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 자금의 자체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현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지 주도의 인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지화에 앞장서고 있다.

1-7-3. 책무성 제도 및 절차

○ 책무성 메커니즘

- **(Tiered Due Diligence System)**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단체 대상으로 △거버넌스 △재무통제/관리 △법적 규정 준수 △제공/운영 효율성 △위기관리 △인도적 지원 활동의 모범 사례에 대한 이행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세이프가딩 △파트너 관리 총 9개 부분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Tier별 기금 배분 금액, 회원 혜택 범위 등을 구분한다.
- Tier 1 그룹: Start Network 회원 규정 조건에 최소한 수준으로 충족하는 단체들로 정책 옹호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고, 조직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받는다. 전체 멤버십의 약 20%가 Tier 1 그룹에 속한다.
- Tier 2 그룹: 회원 규정 조건에 부분적으로 충족한 단체들로 Start Fund에 지원 시, 10만 GBP(1억 8,141만 KRW)의 한도가 있으며, 전체 자금지원에서는 20만 GBP(3억 6,282만 KRW)까지 가능하지만, 추가 보고가 요구된다. 전체 멤버십의 약 30%가 Tier 2 그룹에 속한다.
- Tier 3 그룹: 회원 규정 조건에 모두 충족한 단체들로 모든 펀딩 및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며, 전체 멤버십의 대략 50%가 Tier 3 그룹에 해당한다.⁴²⁾
- **(CHS 및 IATI 이행 권고)** 3년마다 회원단체 대상으로 포괄적인 Due diligence 평가를

42) Start Network 그룹 인터뷰(2024.9.12.)

시행하며, 회원단체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CHS 및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행을 권고한다(Start Network, 2019).

○ 평가체계 및 방식

- **(프로젝트 종료 보고의 간소화)** 사업수행 기간이 짧고 자금 규모가 작아서 종료 프로젝트 보고에 대해 수행단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프로젝트 종료 후 30일 안에 1시간의 회의 형식으로 최종 보고를 진행한다.
- **(회원단체의 Start Network 평가에 대한 다양한 채널)** 매년 회원단체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요약 보고서 형식으로 모든 회원단체에 공유한다. 설문조사 외에도 Internal Complaints and Disputes(내부 불만 및 분쟁)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Start Network 전반에 걸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년에 두 번 대면 및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단체들로부터 Start Network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한다.
- **(회원단체 수행 평가 부족)** DEC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회원단체 대상 평가와 달리, Start Network는 그런 평가가 부재하다. 회원단체 중에서 World Vision, CAFOD, SCUK, Plan International이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반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도 있어서 회원단체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회원단체 수행 평가의 필요성을 Start Network 이해관계자 면담에서 나타났다.

1-8. 작동기제 및 장애요인

1-8-1. 주체별 참여유인

○ 정부 참여

- **(협력 방식)**
 - **현지 주도-정부 지원 방식:** Start Network 설립 초기부터 영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으며, 2023년에는 208만 2천 GBP(37억 7,695만 KRW)로 정부지원 비율이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지속해서 자금은 지원하지만, Start Network 운영 및 관리, 의사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참여/협력요인)**
 - **비용 대비 효율성 극대화:** Start Network와 협력 시, 인력이 부족한 FCDO는 자금만 지원하는 대신 Start Network가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아서 97개 회원단체를 통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대응 성과와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

- **Start Network의 인지도와 국제적 위상:** Start Network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도적 지원 자금조달 메커니즘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현지화, Anticipatory Action, 혁신적인 시도, NWoW(New Way of Working, 새로운 업무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알려지면서 자국 정부뿐 아니라, 타 국가 정부 및 기업들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인도적 대협의 이행 의무 연계:** 현지화, 자금의 유연성, 신속한 자금 조달 등 인도적 대협의에서 추진하는 행동 과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원에서 자국 정부뿐 아니라, 타 국가 정부들(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도 Start Network에 지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미디어 참여

- Start Network는 그동안 미디어와의 협력은 부재했으며, 2023년에 OCHA, BBC Media Action, ICVA, BOND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옹호 활동 그룹을 출범했다. 협력 초기 단계여서 미디어의 협력 방식과 참여 유인 분석은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참여

- **(협력 방식)**
 - **자금지원:** 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Start Network 운영 및 관리, 의사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협력요인)**
 -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효과:** 미디어에서 조명받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잊혀진 위기 지원에 참여는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도뿐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성과 및 영향력 기대:** 기업의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개별 자선단체를 선택하는 것보다 97개 국내외 NGO 단체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대응 성과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1-8-2. 작동기제

Start Network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작동 기제를 대외환경적 층위(Macro level), 플랫폼 조직적 층위(Meso level), 회원단체 층위(Micro level)에서 제도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4] Start Network 작동기제 요인

층위	제도적 요소 (Hardware)	사회문화적 요소 (Software)
Macro (대외환경)	• 인도적 지원 정책 부합 • 정부의 예산 지원 • 그랜드바겐(인도적 대합의) 이행 의무	• 현지 주인의식 • 반인종차별 및 탈식민주의 의식 고취
Meso (플랫폼 조직)	• 네트워크 운영 및 의사결정 분권화 • 중소형 재난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채널 마련 • 현지화 중심 틈새시장 전략(현지 Hubs 연계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배분 및 정보 공유의 투명성	• Start Network에 대한 인지도와 국제적 위상 • 현지화 및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표성 확보
Micro (회원단체)	•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 •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조달 시스템 확대 및 자금 확보 • 회원단체 역량 강화 및 학습 기회	• - 회원단체 간 소통과 정보공유 • 현지화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위상 확립

○ Macro level

- **(제도적 요소)** Start Fund와 Start Ready를 통한 자금의 다양성 모색, 혁신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조달, 인도적 지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 세계 97개 회원단체를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인 Start Network는 영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재원의 다양성 추구, 정부의 신속한 대응 유지, 인도적 지원 전문 역량 네트워크 구축 등과 부합하며, 그에 따라, Start Network 설립 초기부터 지속해서 정부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사무국 중심의 중앙집권적 운영체제가 아닌 현지 Hubs 연계하여 네트워크 운영 및 의사결정을 분권화해서 현지의 역량 강화, 권한 이양 등의 현지화를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대합의 이행 의무와 연계한다.
- **(사회문화적 요소)** 현지화 중심의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현지 회원단체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리더십 및 주인의식을 고취한다. 또한, Global North가 아닌 Global South의 주도하에 현지 Hub 관리, 자금 운용, 의사결정 등을 표방하는 만큼 네트워크 안에서 반인종차별 및 탈식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Meso level

- **(제도적 요소)** 대중의 관심과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채널 확립뿐 아니라, 현지 Hubs 중심으로 분권화된 조직 운영, 자원 및 멤버십 관리, 위기 대응 등은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입지를 넓혀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대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대응 성과 및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현지화에 특화된 Start Network의 전략 및 방향성과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Tired Due Diligence System을 통한 자금 배분, 회원 혜택 범위 등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은 Start Network의 책무성 준수에 대한 회원단체들 뿐 아니라, 공여 기관의 신뢰도를 높인다.
- **(사회문화적 요소)** 기업 및 타 국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증가하는 데에는 Start Network에 대한 인지도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는 Start Network가 현지화 및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표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 Micro level

- **(제도적 요소)** Start Fund와 Start Ready를 통해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회원단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학습 기회를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조달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서 전반적인 인도적 지원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 **(사회문화적 요소)** 전 세계 9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답게 회원단체 간에 소통과 정보 공유는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전 세계 공동 플랫폼 중 현지화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대표성은 그 위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1-8-3. 장애요인

Start Network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대외적/대내적 측면으로 나뉜다.

○ 대외적 측면

- **(Start Network의 독립 운영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변화)** Start Network 설립부터 지금까지 SCUK가 자금 관리기관으로 지원해 왔으나, 2025년 10월에 SCUK와의 자금 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완전히 독립해서 영국의 자선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다만, 타 국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자금 관리기관인 SCUK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때문이라는 의견을 고려하면, 향후 Start Network가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 시,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각인된 높은

책무성 및 신뢰도를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위상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⁴³⁾

○ 대내적 측면

- **(회원단체의 업무 부담 및 시간 투자)** Start Network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여서 제대로 파악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각 회원단체의 Start Network 담당자는 Start Network에서 요구하는 업무(제안서 검토 및 심사, 멘토링, 회의 참여 등)가 많아서 업무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⁴⁴⁾
- **(자금 부족)**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회원단체 수와 사업의 다양성에 비해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 다양성 확대)** Start Network는 전 세계 6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97개의 현지 및 국제 NGO 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이 중 56개는 현지 단체이고, 41개는 국제단체이다. 현지 단체가 더 많이 소속되어 있지만, 이사회는 Global North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에 대해 계속해서 제기됐다.

1-9.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9-1. 주요 특징

- **(중소형 재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채널)** DEC가 대형재난 위주라면, Start Network는 미디어나 대중의 관심이 적고, 자금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중소형 재난에 안정적인 지원 채널이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 **(현지 주도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 강화)** 재난 위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Hub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 재난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 자금의 자체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현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지 주도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현지화 전략 수립)** 글로벌 국제개발협력·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핫이슈일 뿐 아니라, 인도적 대합의의 공약 및 행동 과제 중 하나인 현지화를 Start Network의 기본 가치로 두고 전략적 우선순위들을 명확히 설정해서 추진한 점이 Start Network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 **(현지화에 대한 Start Network의 대표성 확보)** Start Network의 현지화 전략 및 성과가

43) SCUK 관계자 A 인터뷰(2024.9.10.)

44) World Vision 관계자 B 인터뷰(2024.9.11.)

글로벌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지도 상승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

- **(정보 공유를 통한 학습의 장 마련)** 국제단체는 다양한 노하우, 전문지식,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현지 단체는 현지에 대한 이해, 현지 네트워킹, 현지 이해당사자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1-9-2. RAPID에 대한 시사점

- **(RAPID만의 고유한 전략 및 방향성 설정 필요)** RAPID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 기금 규모 및 참여단체 수가 적다는 점, 공동 플랫폼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틈새를 공략할 만한 특화된 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 **(정보 공유 및 상호 멘토링을 통한 참여단체의 역량 강화)** 참여단체들 간에 인도적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멘토링 하면서 참여단체가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한국 NGO 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한다.
-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때, RAPID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파일럿 테스트, 피드백 기반 개선, 참여단체 간 공동 학습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한다.

2. 일본

2-1. 파트너십 제도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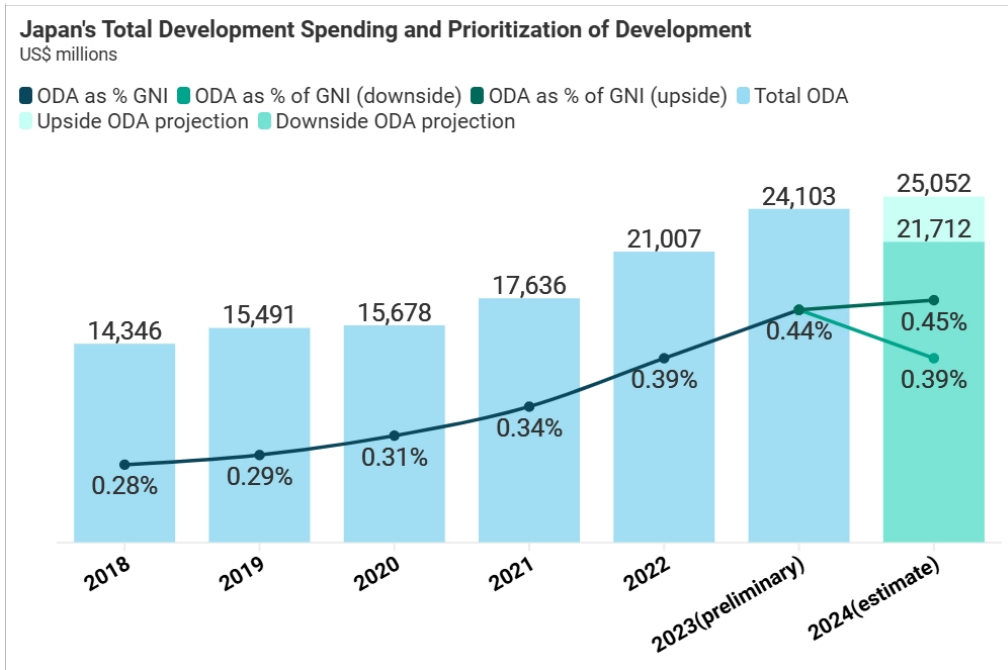
2-1-1. 정부의 인도적 지원

○ ODA 정책

- **(정책방향)** 2023년 개정된 일본의 개발협력정책은 비군사적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인도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개인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존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자의 잠재력 실현을 돕는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국제 협력에서 포용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 규범과 지침의 준수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한다.
- **(이행 방식)** 개발도상국의 자조 노력을 지원하며 민간기업,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일본의 강점을 살린 협력 메뉴를 제안하고, ODA 시스템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며, 재난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역량 집중, 정부 외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인도적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ODA 예산)** 일본의 ODA는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GNI 대비 0.28%에서 2023년 0.44%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DAC 회원국 중 13번째로 크지만 금액으로는 약 200억 USD (26조 4,000억 KRW)에 달해, DAC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한편 NGO를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는 달리 NGO를 통한 ODA 집행률은 2022년 1%에만 머물러 DAC 회원국 평균 14%를 한참 밑돈다. ⁴⁵⁾

45) https://donortracker.org/donor_profiles/japan (검색일: 2024.08.20.)

[그림 20] 일본 ODA 예산 추세



출처: Donortracker

○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제도

- **(정책방향)** 일본의 인도적 지원 정책은 2023년 개발협력현장 개정과 맞물려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인간안보에 초점을 두고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 **(이행방식)** 또한 일본은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의 수요 평가와 현지 요청을 고려하되 최종 결정은 자체 판단에 따른다. 양자 지원과 국제기구 지원을 유연하게 조합하여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며, 유엔의 긴급 호소문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더불어 현지 정부, 공여국, 국제기구,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인도적 지원 예산)**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분쟁지역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총 41억 USD로 ODA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지역 지원 예산을 제외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745백만 USD⁴⁶⁾이며 이중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 사업

46) https://donortracker.org/donor_profiles/japan (검색일: 2024.08.20.)

지원금(Japan Platform) 규모는 총 41백만 USD(62억 JPY)으로 전체 양자 인도적 지원 예산의 5.5%⁴⁷⁾를 차지한다.

○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NGO)** 민관협력은 개정된 개발협력현장(2023)과 인도적 지원 정책(2023)에서 주요 실행전략이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발협력현장(2023)에서는 재난, 분쟁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기구 및 NGO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재난 구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NGO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며, 현장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NGO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 간 지원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현하고자 함을 언급하며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파트너십체계)** 이러한 기초와 전략방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파트너십은 Japan Platform이다. Japan Platform은 난민 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인도적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GO,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컨소시엄으로 일본의 자국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Japan Platform을 통하여 일원화되어 있다. Japan Platform에 대한 내용은 2-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 외 인도적 지원 사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ODA 정책 협의와 역량강화 등의 활동은 도쿄 기반 NGO 협의체인 JANIC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2-1-2.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 제도적 환경: 기부문화 및 모금시장

- **(기부규모)** 일본은 OECD DAC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 문화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모금가협회(Japan Fundraising Association)가 발간한 2021년 기부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기부 총액은 약 1조 2126억 JPY (약 10조 9천억 KRW)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6,725억 JPY (약 6조1천억 KRW)은 일본 특유의 고향세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제외한 순수 개인기부는 약 5401억 JPY(약 4조9천억 KRW)으로, 이는 GDP의 0.23%에 해당하며 한국(0.5%), 미국(1.55%), 영국(0.47%)에 비해 낮은 수치다.

47) MOFA(2024),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GOs. <https://www.mofa.go.jp/files/000024755.pdf>

일본의 기부 시장 절대 규모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영국과 비교해도 절반에 그친다. 그러나 2016년 팬데믹 이전의 기부액 7,756억 JPY와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금액으로, Covid-19 이후 기부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기부 분야)** 주요 기부 분야별로는 도시 개발, 재해 구호, 국제 협력 분야가 17.7%, 종교 관련 및 일본 적십자사 등 사회복지 분야가 26.8%, 고향세 기부가 14.6%를 차지하며, 지역사회 및 재난 구호 관련 기부가 상대적으로 높다. 기부자들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며, 개인, 기업, 비영리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자원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부자들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부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증거와 성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민간단체들은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기부금의 구체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⁴⁸⁾

○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참여

- **(설립역사)** 일본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과 해외 인도적 지원은 1960년대부터 종교 단체들의 아시아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선활동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를 계기로 보다 본격적으로 NGO들이 설립되었으며 긴급구호와 중장기적 개발 협력으로 확대해 갔다. 1990년대부터는 걸프 전쟁 등 국제 분쟁에 대응하여 긴급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NGO들이 다수 등장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NGO의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정부,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시기로 발전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Japan Platform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JANIC, 2022).
- **(규모)** 일본 NGO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2021년 기준 약 424개의 NGO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법적 형태로 등록되어 있거나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NGO들의 재정 상태는 편차가 매우 크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경우 원화 환산 기준 연 예산 1천3백억 원, 월드비전 590억 원 규모이나, 중소규모 NGO의 평균 예산은 연 2억3천만 원 규모로 일본 NGO 사회가 재정적인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JANIC, 2022)
- **(네트워크)** 일본의 NGO 네트워크는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있으나 가장 대표적이고 다수의 NGO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도쿄에 기반한 JANIC이다. JANIC은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며 주로 정책 및 옹호, NGO 역량강화,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은 Japan

48) Enrichest, *The Impact of Charitable Donations: A Focus on Japan's Philanthropic Contributions*, <https://enrichest.com/en/blog/impact-of-charitable-donations-focus-on-japans-philanthropic-contributions> (검색일: 2024.10.21.)

Platform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두 네트워크 간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2. 플랫폼 형성과 발전과정

2-2-1. 플랫폼 개요

○ 개요

Japan Platform은 정부의 재원과 민간기업 및 대중의 기부와 후원으로 조성된 자금을 Japan Platform에 소속된 NGO들에게 배분하여 이들이 재난 피해 국가와 지역에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체제로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갖춘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표 25] JPF 개요

	설립연도	설립 및 운영주도 성격	회원단체 수	법적지위
Japan Platform(JPF)	2000년	민간, 정부, 기업간의 협력으로 설립 / 정부지원 방식	47개 단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 및 미션

정부, 기업, 민간단체 간의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기관 소개자료에 제시된 주요 미션은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NGO,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하여 수혜자들에게 최적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 재난 피해자 자립 지원: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민과 함께 노력, △ NGO의 인도적 활동 리더십 제공: 국내외 대응에 있어 NGO 활동의 역할모델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비전과 원칙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고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일본의 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라고 명시되며 일본NGO를 통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난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 제공 △ NGO, 개인,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일본의, 지원 전달, △ 다양한 강점을 지닌 NGO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효과적인 NGO 활동지원을 위한 리더십 발휘, △ 국제기준 준수, △ 신뢰 부응을 위한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

○ 성격과 기능

- **(재난대응 민관협력)** Japan Platform은 재난대응의 '민관협력' 체제로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NGO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며, 기업들은 자금뿐만 아니라 물품 제공, 기술 지원 등으로 기여한다.
- **(공동모금 및 배분)** Japan Platform은 여러 NGO들이 함께 자금을 모금하고 배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NGO들은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NGO들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배분받아 재난 현장의 필요를 채운다.
- **(공동 대응)** Japan Platform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난에 대해 소속된 NGO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플랫폼 사무국은 전체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개별 NGO들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또한, NGO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다만, 2023 튀르키예 지진대응에서 한국정부와 NGO 간에 이루어진 민관합동조사나 구호물자협력, 튀르키예 우정촌 건립 같은 형태의 민관합동대응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 재원 규모 및 조달 출처

2023년 Japan Platform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Japan Platform의 총 재원 규모는 74억9천 엔으로 이중 정부 재원은 59억 엔으로 전체 재원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15억엔(20%), 회비는 1천8백 엔(2.5%)으로 정부 보조금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글상제] 정부 재원의 종류

1. 보조금(subsidy): 주로 외무성에서 지원하는 다년도 재원.
2. 긴급 대응 자금(emergency fund):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3. 보충 자금(supplement): 국제적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는 자금으로 주로 회계연도 종료 시에 자금 지급 여부가 확인됨. 잔여예산 활용 형태로 운용됨.

○ 회원구성

- **(회원분류)** 회원가입절차에 따라서 정회원과 협력회원, 명예회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체와 개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NGO 회원의 경우 기금을 수령 받아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책무성 차원에서 별도의 가입 자격 심사와 기금 수령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의 경우, 후원회원으로 참여하며 기업의 경우 1주당(주식 개념) 5만 JPY, 개인의 경우 1주당 5천 JPY를 회비로 납입한다.⁴⁹⁾
- **(회원단체 수)** NGO 회원의 경우 2024년 현재 47개 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회원의 경우 88개 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2-2. 형성과 발전과정

○ 설립배경 및 취지

- **(설립배경)** 복수의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하면⁵⁰⁾ Japan Platform 설립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1999년 코소보 사태와 일본NGO 대응의 한계다. 코소보 사태 대응 당시 코소보 난민 지원을 위해 일본 NGO들은 'Japan Camp'를 만들려고 했으나, 당시의 일본 NGO들이 자금과 사업관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을 반추하여 국제재난에 대응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와 재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NGO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다. 일본 NGO들은 국제재난 대응 역량이 부족했고, 긴급 대응을 위한 빠른 자금 지원 시스템이 부재했으며 기존의 정부 자금은 대응에 3~4개월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졌기에, NGO들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게 됐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자국 내 모금 환경의 한계다. 일본은 잦은 재난발생국가로서 국내 재난 지원에 대한 대중의 기부는 활발했지만 해외 재난에 대한 기부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일본의 NGO들은 해외활동을 수행할 자금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동모금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파트너십 형성)** 이러한 NGO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에서 G7 국가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재난 현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본NGO를 통하여 일본 인도적 지원의 가시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와 맞물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자생 NGO인

49) Japan Platform 기업회원규정, <https://www.japanplatform.org/data/media/japanplatform/page/support/company/member-rule/contract.pdf> (검색일: 2024.10.15.)

50) 인터뷰: Yuko Shibata (2024.8.26), Hiroaki Higuchi (2024.8.27.), Kinbara (2024.8.27.)

Peace Winds Japan의 Onish Kensuke 대표가 주도적으로 NGO와 정부, 기업의 역량을 모아 하나의 공동브랜드로 협력하는 플랫폼 모델을 정부와 기업에 제시했고 이들의 협의를 통하여 Japan Platform이 2000년에 설립됐다.

-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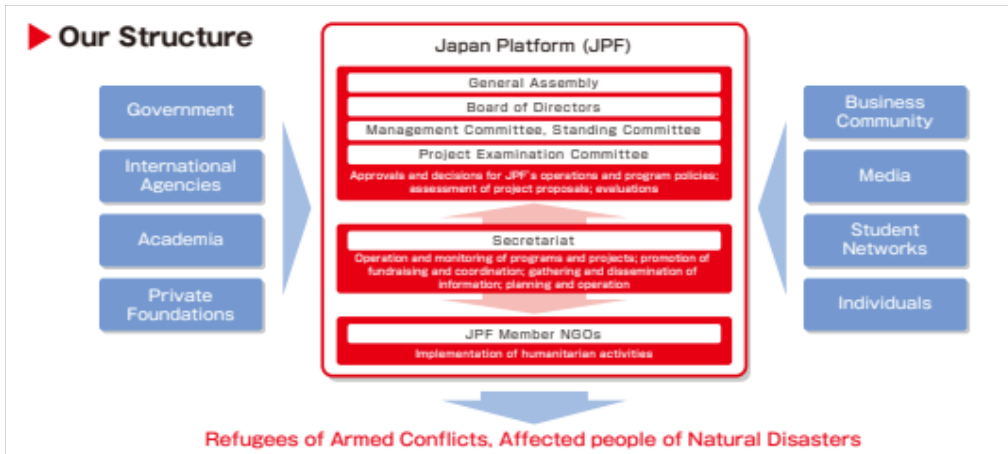
- **설립 직후:** 2001년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기점으로 NGO의 난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NGO에 500만 불을 지원하면서 초기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었고, 이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Japan Platform을 통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 **국내외 재난 대응 확대 (2000년대 중반):**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2005년 파키스탄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국제적 지원 활동을 강화했고. 또한, 일본 내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국내외에서의 역할을 확대했다.
- **파트너십 강화와 구조 정비 (2010년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JPF는 국내외 NGO와 협력하여 대규모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관협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원 역량을 증대시켰다.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의 연계 (2015년 이후):** 2015년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채택 이후, JPF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SDGs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 기후 변화 대응, 빈곤 퇴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했다.
- **현대적 도전과 대응(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위기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여, JPF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원 방안,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3. 플랫폼 체계와 운영방식

2-3-1. 플랫폼 운영체계

Japan Platform은 정부, 민간, 기업, 학계,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도적 위기 대응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됐다.

[그림 21] Japan Platform 구조도



출처: Japan Platform 브로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프로젝트 심사위원회가 각 단계별 의사결정기구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자세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사결정체계

- **총회(General Assembly):** Japan Platform의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연 1회 개최된다.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Japan Platform의 주요 전략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NGO, 정부(외무성), 민간 기업, 학계 대표들로 구성된다. 또한 이사회는 사무국의 전체 운영을 관리·감독역할을 수행한다.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Japan Platform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JPF의 일상적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자금 배분, 회원단체 활동 평가를 수행한다. NGO 대표들 중심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기업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
- **프로젝트 심사 위원회(Project Examination Committee):** 프로그램 정책과 운영에 대한 승인 및 결정, 프로젝트 제안서 평가, 사업 평가를 수행한다.
- **NGO Unit(Japan Platform의 NGO 회원):** Japan Platform 내부에는 NGO들을 대표하는 NGO 유닛이 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 NGO들이 참여하고

있다. Japan Platform 내에서 회원 NGO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NGO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NGO 유닛은 대표이사, 부대표, 9개 단체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를 포함한 자체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 JPF의 파트너

- **정부(외무성):** Japan Platform 활동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로서 Japan Platform의 초기 설립부터 참여해 왔다. 외무성은 NGO 활동에 필요한 정부 재원을 제공하며 상임위원회 회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민간기업:** 현재 100여 개의 기업이 기금공여, 후원활동 협력, 물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Japan Platform의 2인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은 기업대표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같은 Keidanren의 전 이사가 현재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위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 **국제기구:** 공식 파트너십 관계는 아니지만 NGO의 현장 대응 활동, 시 주요 협력기관이다.
- **학계(Academia) 및 민간 재단(Private Foundations):** 정책 및 연구 지원, 재원 제공의 방식으로 협력한다. 학계 전문가가 Japan Platform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 **미디어:** 미디어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홍보, 인지제고 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전통적 미디어인 방송사를 통한 협력보다 소셜미디어 채널 활용이 더욱 활발한 상태로 전통적 미디어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Japan Platform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기타:** 학생 네트워크, 개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Japan Platform의 활동에 참여하고 인도적 지원 관련 인지제고 활동에 기여한다.

○ 사무국 기능과 역할

Japan Platform은 약 40명의 직원이 종사하는 독립된 법인사무국을 갖추고 있다. 외부 파트너와 NGO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일본 NGO들의 국내 및 해외긴급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대응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 기금의 모금, 재원 배분 및 관리, 회원단체의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대응조정, 역량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금 조달 및 배분)** Japan Platform 사무국은 외무성 및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배분한다. 이는 국제적 재난 및 긴급 구호 상황에서 현장에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특히, 사무국은 NGO들이 긴급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신청, 심사, 배분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한다.

- **(행정 및 운영 관리)** 사무국은 Japan Platform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NGO와 협력해 프로젝트 관리, 재정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한다. 또한, NGO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외부 감사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해 NGO 활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유지한다.
- **(협력 및 조정)** 사무국은 NGO, 정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자원과 지원이 적시에 배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NGO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며 단체 간 활동을 조정 등의 역할을 통하여 Japan Platform 공동의 모금과 대응 활동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사무국은 각 NGO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Japan Platform을 통한 지원이 공여자와 이주민 모두에게 책임있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홍보 및 인지제고)** 사무국은 기업, 미디어, 대중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돕기 위하여 대중과 기업대상 교육 제공, 소셜네트워크 및 미디어와의 캠페인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지제고 활동을 수행하며, SDGs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Japan Platform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현지화 방식

- Japan Platform은 전략 방향이나 운영 방식에서 현지화를 별도로 고려한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수의 회원단체가 일본 내 자생 NGO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에 자체 지부를 설립하여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Japan Platform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 집행 시 현지 NGO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예산이 포함된 점은 현지화에 부합하는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2-3-2. 대응 방식과 절차

○ 대응재난

- Japan Platform이 공동모금이자 대응 플랫폼으로서 대응하는 재난은 크게 국내재난과 해외재난으로 분류된다. 2000년 설립 당시에는 해외 재난 대응을 중심으로 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자연재난에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대응을 통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과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하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지원한다. 2000년 설립 이래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 등 약 50여 개의 중대한 재난에 대응해 왔다. 2023년의 경우 총 20건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145개의 대응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림 22] 2023년 JPF 대응 재난

프로그램명	건수	금액	비율	프로그램명	건수	금액	비율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대응 지원	20	1,227,128,250	19.9	아프가니스탄 서부 지진 피해자 지원	4	200,000,000	3.2
터키 남동부 지진 피해자 지원	18	874,279,690	14.2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 지원	6	141,590,026	2.3
식량 위기 2022 지원	13	568,329,928	9.2	미얀마 피난민 인도적 지원	5	130,000,000	2.1
이라크-시리아 인도적 위기 대응 지원	18	565,606,919	9.2	모로코 홍수 지진 피해자 지원	2	123,300,000	2.0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 지원	7	545,000,000	8.8	파키스탄 수재민 지원	2	72,314,260	1.2
미얀마 인도적 위기	18	495,709,550	8.0	케냐 인도적 지원	2	66,576,408	1.1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위기 대응 지원	8	313,964,280	5.1	사이클론 모카 이재민 지원	3	65,000,000	1.1
아프가니스탄 귀국자 지원 긴급 대응	5	235,000,079	3.8	하와이 마우이섬 대규모 화재 긴급 지원	1	61,650,000	1.0
남수단 난민 긴급 지원	6	211,049,392	3.4	에티오피아 분쟁 피해자 지원	1	40,755,340	0.7
수단 인도적 위기 2023	5	202,939,200	3.3	모잠비크 북부 인도적 위기	1	34,000,710	0.6
				합계	145	6,174,194,032	100

출처: Japan Platform 2023연간보고서 <https://www.japanplatform.org/about/ar/2023.html>
(검색일:2024.11.1.)

○ 대응 기준

- 대응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참고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검토한다. 첫째, 재난의 규모 및 긴급성이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재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따라 피해 인구, 사망자 수, 재산 피해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는 현지 정부 및 국제사회의 요청이다. 현지 정부나 국제기구(예: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급하여 구호 활동을 개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는 JPF 회원 NGO의 활동 가능성이다. 다양한 일본 NGO들이 연합한 플랫폼으로, 회원 NGO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미 활동 중이거나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 대응 기준에 부합한 재난이 연내에 발생할 경우 NGO들이 대응의 필요성을 사무국에 제기하거나 사무국 차원에서 NGO에게 대응을 제안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어필의 성격보다 해당 재난대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NGO의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방식에 더 유사하다.

○ 대응절차

Japan Platform의 재난 대응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① 재난·인도적 위기 발생: 재난이나 인도적 위기 발생 시 JPF는 대응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 ② 프로그램 설립 및 준비 단계 (JPF): 프로그램 준비 및 대응 결정: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 구조를 수립한다. 필요 시 NGO와 협력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준비를 한다. 대응여부가 결정된 후에는 이 단계에서 대중과 기업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 ③ 긴급 지원 및 현지 수요조사 (JPF + NGO): 현지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른 긴급 지원을 계획한다.
- ④ 프로그램 승인 및 대응 시작 (JPF): 사무국에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결정되며, 각 NGO와 협력하여 실행 단계로 도입한다.
- ⑤ 사업(프로젝트) 신청 및 승인 (NGO): NGO가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고, JPF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⑥ 사업 시작 (NGO): NGO는 JPF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시작한다.
- ⑦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JPF + NGO): JPF와 NGO는 구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의 활동 및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⑧ 홍보 및 정보 공유 (JPF + NGO): 대응 과정과 결과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고,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리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한다.

[붙임] NGO 프로젝트 선정 및 예산배분 우선순위

- ① 가장 시급한 수요 지원(기본적 생존 필요)
- ② 프로그램 목표 및 영향력: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해당 프로그램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자금 할당.
- ③ 지역별 필요성: 해당 국가 내에서 특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배분.
- ④ 파트너 기관의 역량: 프로그램을 실행할 파트너 NGO들의 역량과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 경험이 많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더 많은 자금이 배정.
- ⑤ 이전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반영: 이전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 효과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에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성과 향상 도모.
- ⑥ 재정적 투명성 및 책무성: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자금 배분.
- ⑦ 협력 및 연계: 다른 기관 및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 컨소시엄 사업에 더 많은 예산 배정 가능

2-3-3. 대응 프로그램 사례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

- Japan Platform은 2023년 2월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이후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1차 년도 프로그램은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1년 6개월 기간으로 설정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조정 및 대응 계획과 연계하여 구호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지원 영역으로는 식수·위생, 보건, 주거, 식량 및 생계 지원 등을 포함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에 참여한 회원단체는 총 10개 단체였으며 이들은 튀르키예-시리아 피해지역에서 2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차년도 지원 예산은 약 12억 9천 5백만 JPY(약 117억 KRW, 환율 1엔 = 9.1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24개의 기업과 조직들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진행되는 2차년도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55백만 JPY(약 5억 KRW)이 추가적으로 지원됐다. 전체 대응절차를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진 발생 및 초기 대응 (2월 6~8일): 지진 발생 직후 JPF는 긴급 회의를 통해 초기 대응 및 수요조사를 그리고 2월 8일부터는 대중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 ② 현장 평가 및 계획 수립 (2월 중순): JPF의 협력 NGO들이 피해 지역에 파견되어 긴급 구호 필요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호 계획을 수립했다.
- ③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및 심사 (2월 말~3월 중순): 각 NGO가 세부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외부성을 포함한 JPF의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에서 24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 ④ 구호 활동 실행 (3월 중순 이후): 승인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피해 지역에서 실행되었고, NGO들은 상황에 맞춰 구호 활동을 조정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 ⑤ 모니터링 및 평가: 1차년도 사업의 중간 평가 후, JPF는 여전히 높은 구호 수요와 지역사회의 회복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차년도 사업을 추가로 계획했다.⁵¹⁾

[붙임자료] 튀르키예-시리아 참여 NGO

△ Peace Winds Japan, △ AAR Japan, △ JEN,
△ Peace Boat, △ Campaign for Children of Palestine,
△ PARCIC, △ Good Neighbors Japan, △ JISP
△ Shanti Volunteer Association, △ HUMA

51) Japan Platform 홈페이지 내용 정리 및 세부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내용 정리 <https://www.japanplatform.org/emergency/program/turkey-earthquake2023.html> (검색일: 2024.10.23.)

2-3-4. 책무성 제도와 절차

○ 책무성 제도

Japan Platform은 정부재원과 모금액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NGO와 NGO가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책무성 담보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부와 기업, 대중의 NGO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NGO들이 자발적으로 수립했다.

① NGO 자격심사

- Japan Platform에 가입하는 NGO는 회원 자격심사와 보조금 자격 심사를 거친다. 회원 자격심사는 JPF 가입을 위한 절차이며 가입자격은 기본적으로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법인 지위 획득 후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특히 3년 이상의 국내외 재난 대응 경험(인력파견포함실적)을 필수로 한다. 보조금 자격심사는 NGO의 성과와 재정 상태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심사로 NGO의 전년도 사업비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회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적절한 자금 카테고리를 부여한다. (카테고리 1~4 단계: 기관 규모에 따라 등급 부여 후 이후 실적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등급 조정).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NGO에게 배분된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Japan Platform의 회원이 된 NGO는 정기적으로 보조금 자격심사의 절차의 일환으로 NGO 자가 책무성(Accountability Self-Check) 진단을 통한 인증을 요구받는다.⁵²⁾

② 사업수행

- **(계획단계)** Japan Platform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필요에 따라 지원 방향을 조정한다. 현지 상황과 변화하는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며, 회원 NGO와 협력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프로젝트) 검토)** Japan Platform의 지원 사업은 실행 가능성과 적절성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모든 지원 사업은 진행 중 모니터링을 받고, 완료 후에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향후 프로젝트 계획에 반영되어 지원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순환 구조를 만든다.

52) Japan Platform 홈페이지 정보, https://www.japanplatform.org/data/media/japanplatform/page/about/documents/230401_1-2_1.pdf. (검색일: 2024.10.22.)

③ 평시의 활동 지원

- **(NGO 역량 강화)** Japan Platform은 회원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한다. 국제 인도적 지원 규범, 성폭력 방지, 안전 조치 등의 교육을 통해 NGO가 높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침제공)** '프로젝트 실행 및 보조금 지침'은 Japan Platform의 질 관리의 기본 틀이다. 이 지침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투명성을 위해 Japan Platform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④ 재난 대비 및 발생

- **(긴급 지원 및 현지 수요 조사)** 재난 발생 시 Japan Platform은 신속히 현장에 파견되어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현지의 필요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지원 사업이 현지 상황에 맞게 진행되도록 한다.
- **(재난 대비)** Japan Platform은 평시에 재난 대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한다.

○ 평가체계 및 방식

- **(사업평가)** Japan Platform의 사업평가체계는 인도적 지원 활동의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주로 프로그램 단위와 프로젝트 단위로 나뉘어 진행된다. Japan Platform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성과를 검토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루어진다. Japan Platform 회원 NGO들은 주간 또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JPF에 보고하며, JPF는 이를 바탕으로 비정기적 또는 분기별로 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JPF는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JPF 직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모니터링과 인터뷰를 수행하여 상황을 파악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프로젝트 진행 중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 **프로그램 단위 평가:** JPF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프로젝트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프로그램 단위 평가는 Outcome 단위 목표에 따라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프로그램 전체의 성과를 큰 틀에서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위 평가에 비해 유연하게 진행된다.
- **프로젝트 단위 평가:** Japan Platform의 평가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철저하게 진행된다.

각 프로젝트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성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젝트별 평가는 외부전문평가업체에 의해 진행되며, 매년 72~80개의 프로젝트가 외부 평가를 거친다. 프로젝트 평가 결과는 JPF의 사업 운영에 반영되며, 개선 사항이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 **파트너십 평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Japan Platform은 NGO와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평가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파트너십 성과평가 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파트너십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파트너십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⁵³⁾

2-4. 작동기제 및 장애요인

2-4-1. 주체별 참여유인

○ 정부

- **(협력 방식)** Japan Platform 설립에 기여한 공동설립자이자 핵심협력파트너인 외무성은 주요 재원 공여자로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회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Japan Platform 해외재난대응 재원의 90%가 외무성에서 제공되며, 외무성은 재난대응 시 자금 배분을 결정하고, NGO의 프로젝트 제안 및 승인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Japan Platform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 **(참여/협력요인)** 정부의 Japan Platform 참여요인은 크게 정부의 ODA 정책 이행 도구,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효율적 자금 활용 측면으로 분석된다.
- **정책 이행 도구:** Japan Platform은 일본 정부의 ODA 정책 이행 도구로서, ODA 정책 기조와 인도적 지원 우선순위에 부합한 민관협력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ODA 자금이 Japan Platform의 엄격한 관리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JPF는 일본의 국제적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선진공여국의 위상 강화:** Japan Platform은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 채널로 기능함에 따라 일본이 선진공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사회협력을 실천하는 중요한 명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부로서는 G7 국가이자 DAC 회원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평판과

53) Japan Platform 관계자 인터뷰: Hiroaki Higuchi (2024.8.27.).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효율적 자금 활용:** Japan Platform은 NGO, 민간, 정부가 협력하는 컨소시엄으로, 일본 정부는 JPF를 통해 NGO와 협력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⁵⁴⁾

○ 기업

- **(협력 방식)** 일본 기업의 연합체인 경단련(Keidanren)은 Japan Platform의 설립에 공동으로 기여하면서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Japan Platform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면 아시스, 후지츠, 토요타 등을 비롯하여 약 80여 개 회사들이 Japan Platform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정기 후원이나 재난 댈생시 기부금 및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모금캠페인에 참여한다.
- **(참여/협력요인)** 기업이 Japan Platform과 협력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⁵⁵⁾
 - **CSR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목표를 실현하는 창구로서 Japan Platform을 활용한다. 이들은 Japan Platform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국내 맥락에서 기업의 기부금품 후원 참여와 임직원 봉사활동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한다.
 - **신뢰할 수 있는 기부 채널 확보:** 재난 발생 시 기업들이 기부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십자사나 국제기구 외에 개별 NGO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Japan Platform이 일본 정부의 공식 인도적 지원 채널로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 기업 협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참여 장애요인)** 한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Japan Platform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인들이 제기됐다.
 - **기업의 독립적 CSR 전략:** 일부 대규모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CSR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Japan Platform과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국제적 인지도의 부족:** Japan Platform은 일본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지도가 부족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파트너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하여

54) Japan Platform 및 MOFA 인터뷰: Hiroaki Higuchi (2024.8.27.), Kusakabe hideki, Okawa Shinsuke, Kawai Takayuki, Iwakami Kenzo (2024. 8.30)

55) 기업 인터뷰 Kinbara Kazuyuki (2024.8.27.), Yabe Hidetaka, Ujiie Keiichi, Tsuruga Kazuto (2024.8.30.)

기업들은 국제기구, 적십자, 인지도가 높은 국제NGO와의 협력을 선호한다.

- **협력 방식의 한계:** 기업을 단순히 기부자로 인식하고 자금 지원 창구로만 활용하는 협력 방식에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기부금품 후원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등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한다.

○ NGO

- **(협력 방식)** NGO는 Japan Platform 설립의 주도기관으로, 이사회, 상임위원회, NGO 유닛 등 Japan Platform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대응 활동의 주체로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필을 개시하며, 사업 제안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현장에서는 긴급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그 후에는 결과 보고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투명성을 보장한다.
- **(참여/협력요인)** NGO의 Japan Platform 주요 참여요인은 안정적 재원의 확보, 플랫폼 브랜드 참여를 통한 기관 신뢰도 강화, 공동학습과 역량강화의 기회로 정리된다.⁵⁶⁾
- **재원의 확보:** NGO들은 Japan Platform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긴급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재난에 대중의 기부가 집중되고, 해외 재난의 경우 국제기구나 적십자사와 같은 잘 알려진 기관에만 기부가 몰리는 경향으로 인해 NGO들의 대응 활동이 위축되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 **브랜드 가치 강화:** Japan Platform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표적 민관플랫폼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으로 인하여 Japan Platform에 참여하는 NGO들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신뢰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 단체에 대한 신뢰 상승에 기여한다.
- **공동 학습 및 역량 강화:** NGO들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출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NGO 워킹그룹 등 단체 간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성공 사례와 개선할 점을 논의한다. 이러한 공동 학습 기회는 각 기관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56) NGO 인터뷰: Kiyama Keiko (2024.8.29), Takeshi Komino (2024.8.30), Yuji Kawai (2024.8.30)

2-4-2. 작동기제

Japan Platform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작동 기제를 대외환경적 층위(Macro level), 플랫폼 조직적 층위(Meso level), 회원단체 층위(Micro level)에서 제도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6] JPF 작동기제

층위	제도적 요소 (Hardware)	사회문화적 요소 (Software)
Macro (대외환경)	정책적 지지: -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부합 -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협력 예산확보	-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일본 국가위상 부합 - 시민사회협력 의무 이행 의지
Meso (플랫폼 조직)	- 정부와 민간의 포괄적 협력체계 - 법인격체로서 안정적 운영구조 - 기부금품 세액공제혜택 제공 -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구조 -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 - 투명성과 책무성 담보기제 - NGO역량을 고려한 분류제도	- 정부, 민간, 기업의 공동 주도로 설립 - 정부 파트너로서의 플랫폼 브랜드 신뢰 - 일본 인도적 지원 분야 NGO의 대표성 - 사무국의 전문성에 대한 NGO의 신뢰
Micro (회원단체)	- 참여NGO의 자격요건 구비 및 유지(조직역량, 대응경험) - NGO 대응역량 및 현지 네트워크	- Japan Platform에 대한 주인의식 - 회원NGO간의 협력과 소통 - 적극적·주도적 참여 - 학습과 성장 의지

출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Macro level

- **(제도적 요소)** Japan Platform의 형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외부 제도적 요인 중 하나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지이다. 일본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회문화적 요소)** 일본은 선진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증시된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NGO와 정부 간 협력의 동력이 된다.

○ Meso level

- **(제도적 요소)** Japan Platform은 일본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 협력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정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비영리민간법인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기부 참여를 촉진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어 있으며, NGO의 역량과 규모를 고려한 분류 체계를 통해 일본 NGO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으며, 긴급 대응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 **(사회문화적 요소)** Japan Platform은 일본 재난대응 NGO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기업과 대중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파트너로서의 신뢰는 개별 회원 NGO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NGO들이 플랫폼 내에서 원활하게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사무국의 사업 관리 및 평가에서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어, NGO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 Micro level

- **(제도적 요소)** 개별 NGO 차원에서 보면, 참여 NGO들은 정부 재정 및 민간 후원을 바탕으로 대응 활동을 수행할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NGO가 안정적으로 대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사회문화적 요소)** Japan Platform에 참여하는 NGO들은 플랫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호 학습과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의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과정은 NGO들이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4-3. 장애요인

○ 대외적 측면

- **(ODA 예산 정제)** 일본 국민들이 해외 재난 지원보다는 국내 문제 해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ODA 예산의 감소는 NGO 활동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 **(민간의 낮은 기부 참여)** 일본의 민간 모금은 주로 국내 재난에 집중되며, 해외 재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국제기구나 적십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해외 재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NGO들이 민간 기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 **(대국민 인식 및 모티브 부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국내 상황의 특성상 일본 기업과 국민들은 해외 재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낮고, 이에 대한 기부 동기가 부족하다. 이는 해외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이나 모티브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NGO들이 해외 재난에 대한 민간 기부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대내적 측면

- **(정부 의존도)** Japan Platform은 재정의 90% 이상을 일본 외무성의 자금에 의존한다. 이는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부 정책 변화나 ODA 예산 감소에 취약하다. NGO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부 정책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정부가 외무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며, NGO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 **(복잡한 행정 절차)** Japan Platform의 프로그램 승인 절차는 외무성과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느려질 수 있다. 특히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자금 배분이 어려워,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Japan Platform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행정절차의 개선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NGO들이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JPF 자금 승인이 나기 전에도 대응을 시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 **(회원단체 간의 사무국에 대한 기대 차이)** Japan Platform의 사무국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회원단체들 간 기대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회원단체는 협의와 소통, 조정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단체들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기능을 중시한다. 이러한 기대 차이는 JPF의 방향성 정립과 그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 **(미디어 협력 부족)** 민간 기부 독려와 대국민 인지제고에 있어 가장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가 미디어임에도 Japan Platform의 경우 미디어 협력은 매우 취약하다.

2-5. 주요 특징 및 시사점

JPF는 일본 정부, NGO,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재난과 인도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JPF 사례는 한국이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참고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시사점이 있다.

2-5-1. 주요 특징

- **(플랫폼 설립 필요성)** 열악한 대중 모금환경에 처한 일본 NGO의 해외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NGO가 주도하여 정부와 기업을 설득하여 공동협력플랫폼으로 설립됐다.
- **(민관협력의 대표성: JPF를 통한 재난 대응 자금 지원 체계)** JPF 설립 이전에는 정부가 NGO에 재난 대응 기금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JPF 설립 이후 정부(MOFA)가 자국 NGO들에게 재난 대응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가 확립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고 NGO와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운용에 용이한 구조다. JPF를 통하여 정부는 선진 공여국으로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가시성과 위상을 제고하고 NGO는 JPF를 통한 대응 기금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인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됐다.
- **(국내외 재난 대응 NGO HUB로 확대)** 설립 초기에는 해외재난 대응에 국한되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재난 대응을 위한 기업과 대중의 기부금이 조성되며 국내재난 대응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 **(높은 정부재원의존도)** 그러나 해외재난의 경우 기업과 대중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전체 재원의 90%가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됐다. 설립 시의 목표는 정부와 민간 자금을 50:50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의 모금시장과 기부문화의 특성으로 민간 자금 유치가 어려워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공동모금보다 효과적인 정부 자원 채널로서의 기능)** 따라서 JPF는 공동모금플랫폼의 기능보다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자원 채널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외무성이 NGO에게 직접 지원하는 개발협력 재원에 비하여 JPF 인도적 지원 재원은 재난대응의 특성에 맞게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는 특징⁵⁷⁾이 있다.
- **(외무성의 절대권한)** 특히 해외재난대응의 경우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외무성의 최종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외무성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여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지만, 그 한 표는 절대적이다. 이러한 절대적 권한으로 인하여 NGO는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JPF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57) 국내 재난의 경우 1-2일 내에 대응이 가능하며, 해외 재난의 경우 1-2일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실행되기까지는 약 3주 정도 소요됨. 일반적인 개발협력그랜트 배분 소요기간이 3~4개월인 것에 비하여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엄격한 책무성 절차)** NGO의 역량강화와 자금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과 규모의 NGO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JPF의 책무성 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 **(단체 간의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 작은 규모의 NGO가 운용할 수 있는 챌린지펀드 마련, 워킹 그룹을 통한 NGO간 상호 교류와 학습 증진 등 플랫폼 내 다양한 NGO들이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 JPF 상임위원회에서 프로젝트 승인여부가 결정되지만 최종 승인에는 재무성의 예산 집행 허가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 동안 NGO들은 JPF 사전승인을 담보로 자체적인 모금을 통하여 재원을 선 집행할 수 있다.
- **(미디어 협력 취약)**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지제고와 기부 활성화에는 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JPF의 경우 미디어 협력이 가장 취약한 부문이다.

2-5-2. RAPID에 대한 시사점

- **(정책적 지지 확보와 제도화)** 일본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은 JPF의 민관협력체계가 유지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는 민간 NGO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국제적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인도적 지원 분야 행위자들을 플랫폼으로 모으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RAPID가 대표적인 한국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플랫폼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 **(일본 NGO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설립과 운영)** 일본은 주요 인도적 지원 공여국이지만, 국내 기부문화와 모금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해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NGO에 대한 신뢰 부족은 일본 NGO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JPF는 일본 NGO 활동을 지원하고 NGO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설립됐다. JPF는 다양한 규모와 역량을 지닌 NGO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본 NGO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JPF의 이러한 설립 및 운영 방식은 한국 RAPID 파트너십의 방향성과 체계 구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인도적 지원 생태계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의 포괄성과 대표성 확보)** JPF는 일본을 대표하는 재난 대응 민관 플랫폼으로서 정부, 기업, NGO, 미디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폭넓은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JPF에는 47개의 NGO가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 NGO 공식 지원 창구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지도와 모금액량이 높은 일본적십자사도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적십자사의 경우 JPF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정책 협력, 워킹그룹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Japan Platform의 인도적 지원 분야 공동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면서 참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범주를 다양하게 마련한 점에서 RAPID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브랜드 가치와 파트너십 범주의 층위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 JPF의 설립과 운영에는 NGO뿐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반영되고 있다. 외무성은 JPF 해외재난대응 재원의 90%를 지원하는 주요 공여자임과 동시에 민간법인인 JPF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JPF가 독립적인 비영리NGO이며 NGO의 적극적이고 주도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관주도적 특징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NGO의 인도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대응 활동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를 양산한다. 민간NGO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적 관계 유지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공동대응방식: 민관합동대응보다는 NGO간 공동 대응)** JPF의 공동대응의 범주는 특정 위기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종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NGO들이 각자의 프로젝트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프로젝트 추진 시 회원단체 간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이 장려되고 있지만, 실제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은 드물다. 다만,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사업을 계획하는 기관들이 수요 조사 단계에서 공동 조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JPF는 한국의 튀르키예 우정마을 건립과 같은 민관합동대응사업의 형태를 추진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와 민간 상호 간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양측 모두 민관합동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JPF가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한 경험⁵⁸⁾이 있지만, 업무 방식과 지향 가치의 차이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을 플랫폼 내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RAPID 모델이 추구하는 공동대응의 범주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2023년 튀르키예 우정마을 건립의 교훈과 함께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

58) NGO 인터뷰: JPF 설립 초기에는 MOFA가 JPF를 통해 NGO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일본 NGO들이 공동으로 재난 대응 캠프(Japan Camp)를 운영해야 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현지 주민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일본인의 가시성을 중시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이러한 협력방식은 사라졌다.

- **(플랫폼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 사업 관리 중심)** Japan Platform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NGO들의 협의체이자 조정 기구로서, 모금 및 배분, 그랜트 관리, 사업 운영, 평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능을 소화하기 위해 사무국은 예산과 인력 면에서 상당히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운용 예산 약 740억 원, 상근 직원 약 40명). JPF는 공동모금 및 대응 플랫폼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그랜트 사업 수행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무국의 중점 기능과 전문성은 모금이나 홍보, 인지 제고 같은 모금 플랫폼의 역할보다는, NGO의 그랜트 사업 관리 역량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 **(파트너십 평가의 필요성)** 정부 정책 문서에서는 민관협력의 방향에서 민간단체의 역량 활용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외무성)가 자국 NGO의 역량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여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Japan Platform 내에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은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 묘사되고 있다. JPF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만, 파트너십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기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파트너십 평가는 협력의 질적 향상, 신뢰 구축, 책무성 강화, 투명성 제고,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RAPID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과 성숙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할 요소가 된다.

3. 캐나다

3-1. 파트너십 제도와 환경

3-1-1. 정부의 인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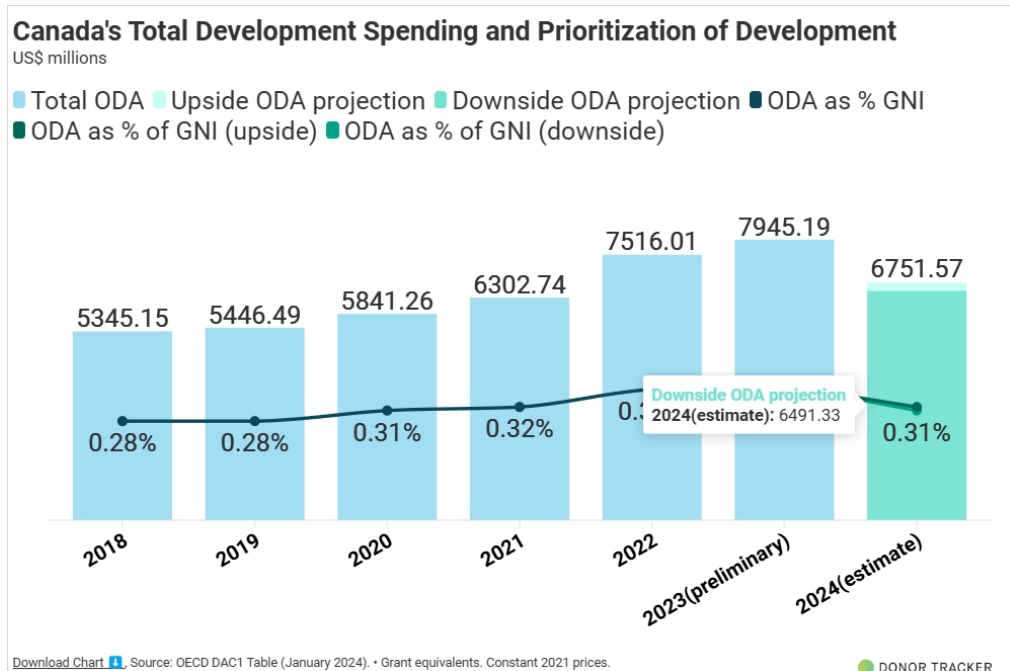
○ ODA 정책

- **(정책방향)** 캐나다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은 2017년 FIAP(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도입 이후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FIAP은 빈곤 퇴치와 포용적인 국제사회 구축을 위해 성평등 축진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모든 정책 중심에 배치, △ 건강, 교육 등 인간 존엄성 보장 △포용적 경제 성장 추구, △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 △ 투명한 거버넌스 강화, △ 평화와 안보 증진이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 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⁵⁹⁾
- **(이행방식)**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이행방식으로는 국제기구, NGO,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또한, 원조 제공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ODA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방식의 다양화와 현지 파트너의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 **(ODA 예산)** OECD에 따르면⁶⁰⁾ 2023년 기준 캐나다 ODA 규모는 80억 달러로 GNI 대비 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9) Global Affairs Canada, Canada's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priorities-priorites/policy-politique.aspx?lang=eng (검색일: 2024.09.05.)

60) OECD iLibrary. (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2dcf1367-en (검색일: 2024.9.23.)

[그림 23] 캐나다의 ODA 예산 추세



출처: Donortracker⁶¹⁾

○ 인도적 지원 정책

- **(정책방향)**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은 별도의 정책이 아닌 FIAP의 정책 우선순위 틀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지원 원칙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 **(인도적 지원 이행방식)** 다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캐나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 기관들인 국제기구,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연맹, NGO 등을 통한 다년간 프로그램 지원 및 긴급 대응이 우선시 되며, 정부 차원의 대응 시에도 캐나다 적십자사의 의료팀과 구호물자를 활용한다. 그 외 UN이나 현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캐나다 군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DART,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이 초기에 파견되는 데 DART는 주로 식수정화, 긴급의료,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최장 60일 기간 동안 활동하며 국제기구나 NGO들의 긴급구호와 대응 활동과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 **(인도적 지원 예산)** 양자 간 ODA 중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9억5천3백만 USD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캐나다 ODA 내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중요한 전략적

61) Dnortracker. Canada. https://donortracker.org/donor_profiles/canada (검색일: 2024.10.29.)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데, 2021/22년의 경우 전체 인도적 지원 ODA의 32%를 시민사회를 통하여 집행하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했다.⁶²⁾ 예산지원은 긴급대응의 매칭펀드를 제외하고는 다년(3년) 기금이며 기금의 종류는 코어 펀딩 방식으로 지원된다.

○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NGO)** 캐나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비정부기구(NGO), 민간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민관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NGO의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현장 전문성과 네트워크,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캐나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민간 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여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민관협력의 방식은 정책대화, 조정,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에 따른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 **정책대화 및 조정 채널:** 정책대화의 경우 캐나다 NGO협의체인 Cooperation Canada를 통하여 ODA 및 인도적 지원 부문의 전반적인 정책 사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조정과 정부의 지침 관련 주요 민간소통 채널로는 인도주의 대응 네트워크(HRN)를 활용하고 있다.⁶³⁾
- **자금지원채널:** 캐나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민간 기금은 파트너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된다.
- **긴급재난지원기금(EDAF,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 캐나다 적십자사를 통해 집행되는 기금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재난 대응 시 공중보건 활동분야에 사용된다.
- **캐나다곡물은행 식량지원기금(Canadian Foodgrains Bank Food Assistance Fund):** 식량지원 전담 기금으로 캐나다의 기독교기반 식량지원 NGO 협의체인 CFGB(Canadian Foodgrains Bank, 캐나다곡물은행)를 통해 집행되는 기금으로 3년간(2021-2024) 총 7천5백만 캐나다 달러가 배정됐다.
- **캐나다 인도적 지원 기금(Canadian Humanitarian Assistance Fund, 이하 CHAF):** CHAF는 중소규모 인도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3년간 총 1천5백만 CAD가 인도적지원 NGO 공동모금 및 대응 플랫폼인 Humanitarian Coalition(이하 HC)에 배정됐다.

62) Cooperation Canada, <https://aidwatchcanada.ca/wp-content/uploads/2023/10/2023-Canadian-Aid-Trends-Highlights.pdf> (검색일: 2024.10.28.)

63) GAC 인터뷰: Matthieu Kimmell (2024.9.25.)

- 이 외에도 대형 인도적 위기 발생 시 HC 회원단체들의 대중과 기업 상대 공동모금에 대하여 4:1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기금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출식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인출식 방식(Draw-down)은 사전 승인된 자금이 특정 기준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집행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27] 캐나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기금 종류

기금 종류	기금명	채널/지원대상	비고
다자기금	UN Pooled Fund: CERF	UNOCHA	UN 공동기금 기여
긴급대응기금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	캐나다 적십자사/캐나다 적십자사 및 NGO	캐나다 적십자사의 중소규모 재난 대응 지원기금
캐나다인도적지원 기금	Canadian Humanitarian Assistance Fund	HC / NGOs	NGO 중소형 재난대응지원기금
	HC matching fund	HC / NGOs	HC 회원 NGO의 대형 재난 대응 모금액 매칭 방식
식량지원기금	CFGB Food Assistance Fund	CFGB / NGOs	식량지원 특화 기금

출처: GAC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⁶⁴⁾

3-1-2.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 제도적 환경

- **(기부규모)** 캐나다는 2016년 CAF⁶⁵⁾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이 0.77%에 달하며 미국 (1.44%), 뉴질랜드 (0.79%)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캐나다는 대중 기부가 활발한 국가로, 2017년에 발간된 'Canada Giving Report'⁶⁶⁾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기부에 참여한 국민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약 64%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특히 지역 내 기부와 종교적 기부가 주도적인데 캐나다의 기부자의 30%는 종교적인 이유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기부를 제외하고 가장 큰 기부 영역은 병원, 대학교 등 공공 서비스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HC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캐나다의 연간 기부 규모는 약 110억 캐나다 달러에

64) Global Affairs Canada,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response_conflict-reponse_conflits/how_we_respond-comment_nous_repondons.aspx?lang=eng (검색일: 2024.9.19.)

65)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발표자료[2024 데이터로 보는 국내 기부 규모 변화]에서 재인용.

66) CAF Canada: *Canada Giving 2017*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7-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17>(검색일: 2024.9.23.)

달하며 주로 종교 관련 기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으나 국제 원조와 인도적 지원 분야로 유입되는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부금의 약 6%~11%로 6억에서 12억 달러 정도만이 해외 구호 활동을 위한 기부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⁶⁷⁾

- **(인도적 지원 기부 특성)** HC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의 기부자들은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에 대한 기부 우선순위를 다르게 두고 있다. 자연재해와 같은 국내 문제에 대한 기부는 비교적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국제 문제에 대한 기부는 특정 위기 상황, 즉 자연재해나 전쟁 등 단기적이고 시급한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터키-시리아 지진 같은 사건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인 분쟁이나 지속적인 기근과 같은 위기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기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부자 동향)** 최근 캐나다에서 기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CanadaHelps의 2024년 기부 보고서⁶⁸⁾에 따르면, 기부를 하는 캐나다인의 비율이 2010년 23.4%에서 2021년 17.7%로 떨어져 11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젊은 세대의 기부 경향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NGO나 단체에 충성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부하는 브랜드 충성 현상이 강했지만, 젊은 세대는 특정 단체보다 문제 중심, 즉 물, 여성 권리, 기후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CAF, 2017) 여러 NGO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캠페인에 더욱 기꺼이 기부하는 성향이 있음이 자체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HC 관계자가 밝혔다.

○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참여

- **(시민사회 발전 배경)**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캐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오랜 협력관계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을 지원하면서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1970년대에 이르러 보다 체계적인 해외 구호 개발 활동에 도입했다. 1968년 정부는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개발청)를 설립했고, 같은 시기에 시민사회에서는 캐나다 국제협력NGO협의회인 CCIC(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⁶⁹⁾를 설립하며 점차 역할을

67) HC 인터뷰 Richard Morgan (2024.9.24.)

68) Canada Helps, *Giving Report 2024*, <https://indd.adobe.com/view/763060b8-d8a0-48c9-8325-c9e619340e9a> (검색일: 2024.9.23.)

69) CCIC는 Cooperation Canada의 전신으로 2008년 새로 선출된 정부의 NGO 자금지원을 중단하면서 재정 위기를 겪은 후 내부적인 구조개혁 절차를 거쳐 2020년 Cooperation Canada로 브랜드명이 변경됐다. (출처: Cooperation Canada 홈페이지, <https://cooperation.ca/history-2/> (검색일: 2024.10.28.)

확장했으며 다수의 캐나다 NGO가 1970년대에 설립됐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대규모 기근, 자연재해, 분쟁지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캐나다 NGO들은 긴급구호 및 재난 대응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고 월드비전 캐나다, 옥스팜 캐나다, 세이브더칠드런 캐나다와 같은 국제 NGO들은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NGO의 현장 네트워크와 축적된 전문성, 원칙에 입각한 수준 높은 대응 등을 높이 신뢰하며 평균적으로 인도적 지원 예산의 25%를 NGO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

-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 네트워크)** 캐나다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Cooperation Canada:**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는 캐나다 NGO 협의체로, 약 100개의 캐나다 NGO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정책 옹호, 역량 강화, 회원단체 간 네트워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적 지원 정책 옹호를 위해 별도로 HPAG(Humanitarian Policy Advocacy Group, 인도적지원 정책옹호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 **인도적 지원 네트워크(HRN):**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NGO들의 네트워크로 35개의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Cooperation Canada가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정부의 대민간 주요 소통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외무성이 코어펀딩을 지원하고 있다.
 - **HC:** 12개 캐나다 기반 주요 국제 NGO들의 해외 인도적 지원 공동모금 및 대응 플랫폼이다. 대형 인도적 위기 발생 시 공동모금을 추진하며, 모금된 금액에 대해 캐나다 외교부가 매칭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또한 외교부의 중소규모 재난 대응 기금인 CHAF를 회원단체에 배분한다.
 - **CFGB:** 15개 캐나다 교회 및 교단 기반 NGO의 협의체로, 공동모금 및 배분 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식량 지원에 특화되어 있으며, 회원단체의 공동모금 활동에 대해 정부의 식량 지원 기금이 4:1 비율로 매칭된다.

이처럼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서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한다. 인도적 지원 정책 사안 논의는 HPAG가 담당하고, 정부와의 소통 및 민간단체 간 조정은 HRN이 맡으며, 인도적 지원 대응 활동과 기금지원은 HC와 CFGB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2. 플랫폼 형성과 발전과정

3-2-1. 플랫폼 개요

○ 개요

HC는 캐나다에 등록된 12개 대표적인 국제 NGO의 공동모금 및 대응플랫폼으로 민간의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표 28] HC 개요

	설립 연도	설립 및 운영주도 성격	회원단체 수	법적지위
Humanitarian Coalition (HC)	2009년	민간 주도 설립 / 정부 지원	12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 설립목적 및 미션

HC는 대규모 재난과 인도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캐나다 내 주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공동모금 및 대응플랫폼이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다수의 NGO가 개별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아닌, 공동모금을 통해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이를 회원단체에 배분하여 구호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중 모금을 통해 국민이 인도적 위기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 규모를 증대하고 더 많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한다.

○ 성격과 기능

- **(공동모금 및 배분)** 국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 인도적 위기 발생 시 12개 회원단체들이 공동으로 모금하고 모금된 재원을 회원단체에 배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 **(민관협력채널)** HC는 외교부의 시민사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 주요 채널 중 하나로 대형재난을 위한 공동모금액에 대한 매칭펀드를 비롯하여 중소규모 재난 기금인 CHAF를 제공한다.

○ 재원 규모 및 조달 출처

HC의 재원은 주로 회원단체의 기부금, 일반 대중의 기부, 그리고 캐나다 외교부의 매칭 펀드와 기금을 통해 조달된다. 2023년 HC 외부 감사 보고서(Financial Statement)⁷⁰⁾에 따르면, HC의

70) Humanitarian Coalition Financial Statement 2023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sites/default/files/2024-06/Humanitarian-Coalition-2023-Financial-Statement-Signed.pdf> (검색일: 2024.11.2.)

총 재원은 4,300만 CAD였으며, 이 중 외교부 기금이 3,700만 CAD로 전체 재원의 87%를 차지했다. 그 외 HC 자체 모금으로 370만 CAD, 긴급 대응 기금 100만 CAD, 그리고 회원 회비 46만 CAD로 구성되어 있어, 외교부 기금이 HC 재원의 주요 출처임을 알 수 있다.

○ 회원구성

HC의 회원은 자국에 등록된 국제NGO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류된다. 2024년 현재 총 12개의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들 회원단체는 대형 글로벌 NGO를 비롯하여, 종교기반 단체(CFGB, Lutheran World Relief, Islamic Relief), 분야전문(Humanity and Inclusion, Doctors of the World)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캐나다 인도적 지원의 선도 그룹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 **(정회원)** 정회원의 경우 각 단체가 연 집행예산 10백만 CAD(원화 약 100억 원 규모), 대중 모금규모 2백만 CAD(약 20억원) 규모를 모금할 수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대응 역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 **(준회원)** 캐나다 정부(외교부)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한 기관으로 가입요건 중 하나인 집행예산과 모금규모는 미치지 못하지만 캐나다 정부의 주요 파트너 기관으로서 각 장애 및 보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들이다.

[붙임제] HC 회원단체

- 정회원(10개 단체): Action Against Hunger Canada, Canadian Lutheran World Relief, CARE Canada, CFGB, Islamic Relief Canada, Oxfam Canada, Oxfam Quebec, Plan International Canada, Save the Children Canada, World Vision Canada
- 준회원(2개 단체): Doctors of the World, Humanity & Inclusion Canada

- **(회비)** HC의 멤버십 비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회원 기관의 모금액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을 책정하며, 1:20에서 1:40까지 다양하다.

3-2-2. 형성과 발전과정

○ 형성 배경

- **(분산된 모금활동으로 인한 비효율성)** HC는 캐나다에서 국제적 재난 발생 시 혼란스러운 모금과 대응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대응 시 캐나다 내 여러 NGO들이 경쟁적으로 각자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자원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적 대응 시스템 필요성)**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여러 NGO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중복 투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 간 협력을 통해 빠르고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6개의 대형 국제 NGO들(Oxfam Quebec, Oxfam Canada, Care Canada, Save the Children Canada, Plan Canada)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공동모금플랫폼인 DEC를 모델로 삼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공동모금 및 대응 플랫폼을 설립하게 됐다.⁷¹⁾
- **(정부와의 협력 강화)** HC 설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캐나다 정부, 특히 외교부(GAC)와의 협력 강화였는데 외교부는 NGO가 모금한 금액에 대한 매칭펀드를 지원하게 되면서 기부자들에게도 HC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며, 기부금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처음부터 외교부가 HC 회원들에 국한하여 매칭기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공모방식으로 기금을 제공했으나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대응 시 보다 원칙에 기반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국제적 대응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모인 HC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⁷²⁾
- **(회원 확대)** 초기에 대형 국제 NGO로만 구성되었던 HC는 2017년부터 캐나다의 대표적인 종교기반 단체인 CFGB(기독교), Islamic Relief(이슬람교), Canadian Lutheran World Relief가 가입하면서 종교적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했다. 2020년에는 외교부의 요청으로 의료 전문기관인 Doctors of the World와 장애 분야 기관인 Humanity & Inclusion International이 가입하여 현재 12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 **(결과적 효과)** 결과적으로 HC는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기부금 모금의 증가, 긴급구호의 신속성 강화, 정부 및 미디어, 기업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체계로 입지를 구축했다. 또한 HC는 각 NGO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지만, 모금된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기본적인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부자들과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71) HC 인터뷰: Richard Morgan (2024.9.24.)

72) GAC 인터뷰: Matthiew Kimmells, Lisa Fry (2024.9.25.)

3-3. 플랫폼 체계와 운영방식

3-3-1. 플랫폼 운영체계

○ 의사결정체계

HC의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이사회, 프로그램 위원회,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으며 회원단체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 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회원단체 가입을 승인하고 HC의 전략적 방향과 주요 정책, 어필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HC 정회원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회원은 이사회 구성에서 제외된다.
- **프로그램 위원회 (Program Committee)**: 프로그램 위원회는 각 회원단체들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자금 배분과 구호 활동을 계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긴급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
-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Fundrais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HC의 공동모금 캠페인과 대중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위원회는 모금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 및 대중과의 소통 방안을 결정한다.

○ HC의 주요 파트너

- **정부(외교부)**: HC의 주요 파트너로서 외교부는 HC의 공동모금에 대한 매칭 펀드와 CHAF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어 각 단체들은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외교부의 승인을 득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교부는 사실상 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신호등”방식으로 운용되는데, “Green Light(전면 승인)”, “Yellow Light(조건부 승인)”, “Red Light(승인 불가)”로 구분된다.
- **Green Light(전면 승인)**: 프로젝트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되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업이 예상된 절차나 정책, 그리고 예산 배분에 적합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후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다.
- **Yellow Light(조건부 승인)**: 일부 요건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 잠재적으로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완전한 승인 전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 **Red Light(승인 불가)**: 사업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 상태로는 추진이 불가함을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재검토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미디어)** 공익광고를 무료로 송출하거나 광고 공간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한다. 대표적인 미디어 파트너로 Bell Media, CBC/Radio-Canada, Rogers TV, Shaw Media가 참여하고 있다.
- **(기업)** 대표적인 기업파트너로 eBay Canada와 PayPal이 있으며, 기부 캠페인 홍보 및 결제 수수료 면제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Rona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PATTISON Outdoor Advertising은 디지털 광고를 통해 긴급 어필 메시지를 전파한다.
- **(타 서포터 조직)** 대학이나 지역사회조직, 인플루언서 등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활동을 알리고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을 홍보한다.⁷³⁾

○ 사무국 기능과 역할

HC는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의 숙련된 직원들이 정부와 기업, 미디어 파트너, 회원단체 간의 활동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동모금 및 정부기금 운용, 회원단체 조정 및 소통, 대외 파트너십 관리, 홍보 및 대중 캠페인 기획 및 운용,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공동모금 및 정부 기금 운용)**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공동모금 캠페인을 조직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기금(CHAF)을 효과적으로 배분 및 운용한다.
- **(회원단체 조정 및 소통)** 회원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 단체의 활동을 조율하며 일관성 있는 대응을 보장한다.
- **(대외 파트너십 관리)** 정부 기관, 민간 기업, 미디어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 및 관리하여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 **(홍보 및 대중 캠페인 기획과 운용)** 대중이 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기부 및 지원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
-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회원단체가 수행하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73) HC 홈페이지: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our-partners> (2024.9.20.)

3-3-2. 대응 방식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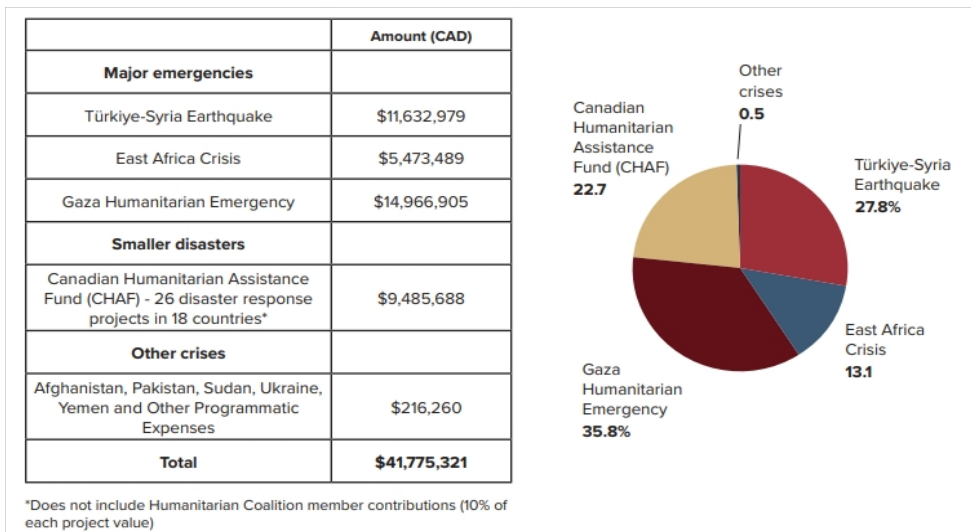
○ 대응재난

대규모 인도적 위기와 중소규모 재난을 포함하며 재난의 종류는 자연재해, 분쟁, 난민위기 등 다양하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HC가 정식으로 설립된 2009년부터 22건의 재난에 공동모금을 실시했다.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의 경우 회원단체 간 공동모금을 실시하여 정부 자금을 매칭하고, 중소규모 재난의 경우 외교부의 CHAF 기금을 활용하여 대응한다. 공동모금의 경우 대중과 미디어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긴급재난(예: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등)이 모금 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기근이나 내전 등 만성적 위기나 언론과 대중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접근이 어려운 분쟁의 경우 모금 성과가 낮다(예: 가자지구 분쟁, 아프리카 식량위기).

- **(2023년 대응재난)** 2023년 대응한 대형재난은 3건으로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는 총 2,300만 CAD를 지원했으며 그중 정부 매칭기금은 1,000만 CAD가 투입됐다. 동아프리카의 가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기금 500만 CAD와 민간모금 500만 CAD가 지원됐다. 또한,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는 총 2,800만 CAD가 지원되었고, 그중 1,377만 CAD는 정부 매칭 기금으로 마련됐다.
- **(2023년 소형재난)** 한편, 소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CHAF를 통해 18개국 2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총 1,080만 CAD 이상이 허리케인, 지진, 사이클론, 홍수 등 다양한 국지적 재난 대응에 지원됐다.

[그림 24] 2023년 HC 대응



출처: HC 홈페이지⁷⁴⁾

○ 어필개시방식

이사회에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어필 여부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재난의 피해규모 및 영향, 시급성)** 피해자가 최소 5,000명 이상이며, 자체 자원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공동모금 어필을 고려한다.
- **(대중의 관심도 및 기부 참여 가능성)** 미디어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높아 모금 참여 가능성이 클 때 어필 고려.

○ 대응절차

- **(재난 발생 및 사전 평가)** 재난이 발생하면 HC는 이를 신속히 평가하여 공동모금(어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무국은 회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해당 재난이 공동모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예: 피해 규모와 긴급성, 대중의 관심도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 **(외교부와의 협력 및 승인 절차)** 사무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시 외교부의 사전심의 절차를 요청한다. 외교부가 어필 개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Green Light)를 보내면, HC는 구체적인 어필 계획을 세워 대중 모금을 시작한다.
- **(회원단체 통합 및 개별 어필 중단)** 공동 어필이 개시되면 모든 회원단체들은 개별 모금을 중단하고 HC의 어필을 통해 모금을 진행한다. 어필 기간은 보통 3주간 유지되며, 회원단체는 HC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한다.
- **(어필 홍보 및 대중 참여 독려)** HC는 미디어 파트너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어필을 홍보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부 참여를 독려한다. 공동모금 로고와 참여 단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대중이 신뢰를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매칭 및 자금 배분)** 공동모금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기부금 총액에 따라 1:1 비율로 매칭되고 최대 1천만 캐나다 달러까지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기금과 모금된 금액이 합쳐져서 회원단체에 배분된다.
- **(현장 활동 및 보고)** 공동모금 대응 후 사무국은 통합 활동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각 회원단체들이 제출하는 개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구호 활동의 성과와 기부금 사용 내역을 포함하며 공동 대응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공개된다.

74) HC 홈페이지.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sites/default/files/2024-08/OUR%20FUNDS%20AND%20SPENDING%20IN%202023.pdf>(검색일: 2024.10.29.)

○ 배분방식

- **(매칭펀드)** 사전에 승인된 배분 공식에 따라 회원단체에 배분된다. 이 공식은 각 기관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며, 3년 동안의 각 회원단체의 인도적 프로그램 지출 평균과 연간 모금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⁷⁵⁾
- **(CHAF)** CHAF 배정은 평균 5일이 소요되지만, 외교부의 Green Light(전면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Green Light(전면 승인)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조건이다.⁷⁶⁾

○ 현지화 고려

- HC의 인도적 지원 대응 방식은 약 140여 개국에 걸친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원단체들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외교부가 H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 광범위한 대응 네트워크와 전문성에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교부는 대형재난뿐 아니라 중소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HC에 일괄적으로 기금을 지원한다. HC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보다는 회원 NGO들이 각자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구조에 중점을 둔다. 즉, HC 자체적으로 현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회원단체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을 지원하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사업 수행 지침의 변화를 통해 현지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파트너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접비 배정(7.5%)이 현지화 조치에 포함한다.

3-3-3. 대응 프로그램 사례

○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가자지구 대응

- 2023년 10월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HC는 공동모금 및 대응을 결정하고 어필을 시작했다. 3주간의 공동모금 캠페인 기간 동안 1,450만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가 1,380만 달러를 매칭하여 총 2,83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이 형성됐다. 12개 HC 회원단체 연합으로 HC 사무국은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장 대응을 준비하는 회원단체 8개 기관이 현지 파트너와 함께

75) HAG Independent Think Piece(2017), Joint Funding Mechanisms for Humanitarian Response. <https://humanitarianadvisorygroup.org/wp-content/uploads/2020/12/HAG-Independent-Think-Piece-Joint-funding-mechanisms-July-2017.pdf>

76) HC 인터뷰: Richard Morgan (2024.9.24.)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중심으로 식량, 현금지원, 식수, 위생용품, 의료 물자 지원 대응에 참여했다.

- (2023년 가자지구 대응 타임라인)

- ① 2023년 10월 7일 - 정부 매칭 기부 시작: 캐나다 정부는 10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인 기부금에 대해 1:1 매칭 기부를 제공하기로 발표했으며, 매칭 한도는 최대 1천만 달러로 설정.
- ② 2023년 10월 23일 - 가자 인도적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 시작: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 시작
- ③ 2023년 10월 23일~11월 12일 - 회원기관들의 현지 대응 및 기부 유치: 각 회원기관들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가자지구와 서안 지구에 필요한 구호 물품과 의료 지원 제공. 이 기간 동안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유입.
- ④ 2023년 11월 12일 - 정부 매칭 기부 종료: 캐나다 정부의 매칭 기부 프로그램 종료. 이 기간 동안 모금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총 1천만 달러의 매칭 한도를 초과하여 1,380만 달러 매칭으로 상향 조정.

- (사무국의 조정 활동) 폭력 사태 발생 직후인 2023년 10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차례의 입장문과 보도를 통하여 분쟁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구호모금 독려, 정부와의 협력 강조, 인도적 지원의 지속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긴급 모금 호소(어필) 캠페인 시작 및 관리:** 사무국은 가자지구의 상황 악화에 따라 10월 23일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며 대중들에게 구호 자금 모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했다.
- **성명서 작성 및 대중 홍보:** 사무국은 가자지구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식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과 대중에게 배포했다.
- **정부와의 협력 및 매칭 기부 홍보:** 캐나다 정부가 매칭 기부를 발표하자, 사무국은 이를 국민에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고, 이를 통하여 기부금의 가치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더 많은 기부를 독려했다.
- **실시간 업데이트 및 정보 제공:** 사무국은 캠페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기부자들과 대중이 현재 진행되는 구호활동 및 모금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 및 대응 결과 보고서 작성:** 사무국은 모금 캠페인이 종료된 후에는 모금 결과와 지원 활동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중과 기부자들에게 공유했다.

3-3-4. 책무성 제도와 절차

○ 책무성 제도

HC의 책무성 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회원단체 가입기준이 시작점이다. 까다로운 가입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회원단체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다.

- **(NGO 가입 자격)** HC 회원단체로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1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예산 규모 및 구호 역량 보유: 회원단체는 규모 있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약 1천만 달러 이상의 운영 예산을 보유하여 긴급구호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② 국제적 인도적 표준 준수: Core Humanitarian Standard 인증을 받고 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의 행동강령, Cooperation Canada의 윤리강령을 포함한 국제 인도적 원칙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관으로서 수준 높고 원칙에 기반한 인도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③ 투명성 및 공적 신뢰: 모든 회원은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신뢰성 있는 공적 기록을 갖추고, 상호 책임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는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단체 네트워크인 HRN에도 소속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투명한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④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 보유: HC 회원단체들은 재난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넓은 현지 협력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단체여야 한다.⁷⁷⁾

이처럼 HC 회원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들에 대한 정부와 대중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기관들은 소수의 대형 국제NGO에 국한되기 때문에 HC의 배타성에 대한 외부의 지적도 존재하고 있지만 HC 회원단체와 주요 파트너인 외교부 모두 상기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은 없다.

77) Humanitarian Coalition, Summary of Membership Criteria,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sites/default/files/basic-page/membership_criteria_excerpt_0.pdf (검색일: 2024.9.13.)

○ 평가체계 및 방식

- (사업 평가)

- **실시간 검토(RTE, Real-Time Evaluation)**: 대형재난 대응 사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실시간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방문**: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파트너의 역량과 실질적인 프로젝트 운영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한다.
 - **외부 평가**: 일부 프로젝트에는 외부 평가자가 참여하여, 프로젝트 종료 후 총괄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는 향후 유사한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 (**파트너십 평가**) 별도의 파트너십 평가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HC의 전략 갱신 주기인 5년마다 전략 이행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⁷⁸⁾

3-4. 작동기제 및 장애요인

3-4-1. 주체별 참여유인

○ 정부(외교부)

- (협력 방식)

- **재원 제공**: 정부가 국민의 기부금에 1:1 비율로 매칭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그랜트 성격의 CHAF를 제공하여 대형재난 및 중소형 재난에 대하여 자국의 NGO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의사결정 참여**: 외교부는 CHAF 자금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운영 전 그린라이트(green light) 승인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가 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GAC는 프로젝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한 후 승인하며, 승인 후에는 15일 내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참여/협력요인)

- **가시성 향상**: 캐나다 정부는 다자기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때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HC와 협력하면 플랫폼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78) HC 인터뷰: Richard Mogan (2024.9.24.)

추적할 수 있고, 기부자들에게도 더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보여줄 수 있으며,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 **효율성 및 신속성:** 정부는 개별 NGO와 각각 협력하는 것보다 HC를 해 이미 역량이 검증된 NGO 지원을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지원과 대응이 가능하다.
- **높은 품질의 대응:** HC는 엄격한 인도적 기준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HC 지원을 통하여 구호 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인도적 대응을 보장할 수 있다.
- **공적 기여 확대 효과:** HC가 모금한 금액에 정부 재원을 1:1로 매칭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공적기여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⁷⁹⁾

○ 기업

- (협력 방식)

- **기부 및 매칭 기부:** 기업은 HC의 공동모금에 직접 기부하거나 직원 및 고객 기부에 매칭하여 참여한다. 예를 들어, eBay Canada는 직원 기부액을 1:1로 매칭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PayPal은 고객 기부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기부 효과를 두 배로 확대한다.
- **서비스 제공:** 일부 기업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에 기여한다. Shaw는 재난 현장에 통신 인프라를 제공해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캠페인 협력:** 기업은 HC의 공동모금 캠페인을 대중에게 홍보하여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Bell Media는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홍보하며, 일부 기업은 사내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 (협력요인)

- **사회적 책임 실천:** 기업은 HC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CSR)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은 지역사회와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 **직원 및 고객 참여 강화:** HC와의 협력은 직원과 고객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부와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기부 효과를 높이거나

79) GAC 인터뷰: Matthiew Kimmells, Lisa Fry (2024.9.25.)

고객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은 직원과 고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 **브랜드 가시성 증대:** 기업은 HC의 캠페인 홍보와 파트너십을 통해 대중에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재난 구호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연계된 활동은 브랜드에 긍정적인 가시성을 더해주며,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정부와의 협력 기회 확장:** HC는 캐나다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업이 HC와 협력하는 것은 정부와의 관계를 넓히고 지원을 받을 기회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⁸⁰⁾

○ NGO

- (협력 방식)

- **공동 운영:** HC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절차에 회원단체가 직접 참여하며 공동으로 운영하고 모금하고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 **자원 공유:** 회원단체 간의 정보와 기술, 인력 등 자원 공유를 통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한다.
- **사업수행:** HC를 통해 모금되고 배분된 재원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 (참여유인)

- **자금 조달 기회 확대:** HC의 회원단체로서 캐나다 정부 및 민간 기부자와의 매칭 그랜트를 통해 더 큰 자금 조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 **대중 인식 및 신뢰도 향상:** HC를 통해 회원단체들은 여러 NGO들과 협력하여 하나의 브랜드 아래 대중에게 홍보하고,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보다 더 큰 인지도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며, 캐나다 국민들로부터의 지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 **정부와의 관계 강화:** HC의 회원단체로서 캐나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부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 **공동 홍보 및 자원 동원:** HC의 일원으로서 각 회원단체는 다른 NGO들과 협력하여 공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는 활동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많은 조직이 함께할 때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 **전문성 강화 및 협력 확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준회원(예: Doctors of the World, 보건의료전문기관)의 경우 HC 가입을 통하여 HC 내에서 다양한 NGO들과 협력함으로써

80) HC 인터뷰: Richard Mogan (2024.9.24.)

특정 분야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⁸¹⁾

3-4-2. 작동기제

HC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작동 기제를 대외환경적 층위(Macro level), 플랫폼 조직적 층위(Meso level), 회원단체 층위(Micro level)에서 제도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9] HC 작동기제

층위	제도적 요소 (Hardware)	사회문화적 요소 (Software)
Macro (대외환경)	-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확보 - 안정적 예산 지원 - 정부와 민간 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장	- 활발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 NGO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 - 다문화 사회
Meso (플랫폼 조직)	- 민간 주도/ 정부지원방식 - 법인격체로서의 안정된 운영구조 - 기부금품 세액공제 혜택 - 민주적, 주도적, 참여적 의사결정 -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집행 제도 (인출식 방식) - 엄격한 책무성 및 질 관리 - 단순한 미션	- 신뢰와 협력의 조직 문화 - 높은 플랫폼 브랜드 신뢰도
Micro (회원단체)	- 회원단체의 대응 역량과 전문성	- 공동의 미션과 비전 공유 - 적극적 참여와 협력의지

○ Macro level

- (제도적 요소)

-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캐나다 정부와 NGO 간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NG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 자금을 적시에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자금을 배분하고 민간단체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정적인 예산 지원 체계가 인도적 지원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캐나다 정부는 매칭 펀드, 중소기업 재난 지원 기금(CHAF) 등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자금을 유연하게 배분하며, NGO들은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 정부와 민간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장이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81) NGO 인터뷰: Chinelo Agom-Eze (2024.9.23.), Andre Charlebois (2024.9.26.), Nadja Pollaert (202.9.27)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대응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 자금을 감독하고 배분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NGO들은 현장에서 구호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는 실행 파트너로서 활동하며, 이로써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을 통해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 (사회문화적 요소)

- 캐나다는 성숙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문화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제공한다.
- NGO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가 존재하여, 정부와 대중 모두가 NGO를 신뢰하고 지원한다. NGO들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신뢰 기반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다문화 사회로서의 특성은 캐나다가 글로벌 인도적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배경이 된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환경 덕분에 캐나다 국민들은 전 세계의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부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표현한다.

○ Meso level

- (제도적 요소)

- HC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NGO들이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이끌어가면서도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과 정책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자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 법인격체로서의 안정된 운영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 법인으로서의 구조적 안정성은 HC가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회원단체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한다.
- 기부금품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대중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부자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의 재정적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 민주적, 주도적, 참여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어 회원단체들이 플랫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모든 회원단체는 정기 회의와 평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영 방안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집행 제도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인출식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중소기업 재난 상황에서 CHAF 프로그램을 통해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엄격한 책무성과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HC는 자금 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며, 회원단체들이 규정에 맞춰 자금을 사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플랫폼의 신뢰성을 높인다.
- HC는 재난 대응에만 집중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운영되어 회원단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제공하며, 모든 단체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 (사회문화적 요소)

- 신뢰와 협력의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회원단체 간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HC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모든 회원단체가 인도적 지원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플랫폼의 높은 브랜드 신뢰도는 HC가 캐나다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다. 국민들은 HC의 활동과 투명성을 신뢰하며, 이로 인해 기부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Micro level

- (제도적 요소) 회원단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한다. 각 단체는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호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HC의 자금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펼친다.

- (사회문화적 요소)

- 회원단체들은 공동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며, HC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의 공통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이러한 공통된 목표 의식은 모든 단체가 인도적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는 근거가 된다.
- 회원단체들은 HC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각 단체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긴급 상황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구호 활동에 기여한다.

3-4-3. 장애요인

○ 대외적 요인

- **(미디어의 한계)** 캐나다에서는 CBC 등 주요 미디어가 상업적으로 운영되므로, 인도적 위기 관련 대규모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미디어는 위기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기부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인 미디어가 여전히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참여도는 제한적이다. 이는 영국의 BBC가 대규모 인도적 위기 모금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 대내적 요인

- **(대형단체 중심의 배타적 성격)** HC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자금을 대한 접근성을 사실상 회원단체들로 한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소형 NGO들의 참여가 제한된다. 공식적으로 모든 NGO에 개방된 구조를 표방하지만, 연간 모금 규모 100억 원 이상(10 million CAD)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요구하여 대형 NGO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HC 외부의 NGO들은 자금을 확보할 기회가 제한되며, 캐나다 내 대형 NGO들이 HC를 통해 인도적 지원 자금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과 관료적 절차의 장벽)** HC의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 구조는 대형 NGO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중소형 NGO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신속히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자금지원 절차가 매우 관료적이며, 자금 집행 승인 과정에서의 지연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준회원의 경우 CHAF 기금의 경우 접근이 불가하고 공동모금에 대한 매칭 펀드에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나, 외교부의 최종 승인 과정이 지연될 경우 중소형 NGO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NGO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준회원인 중형 NGO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선제적 자금 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한계를 초래한다.
- **(혁신적 접근과 HDP Nexus의 한계)** HC는 기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Silo) 방식의 구조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어,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Nexus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HC가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데 그치며 혁신적인 지원 모델이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진다. 소규모 NGO들이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도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HC의 지원 방식은 고정된 형태에 머물고 있다.⁸²⁾

82) 관계자 인터뷰: Chinelo Agom-Eze (2024.9.23.), Shannon Kindornay (2024.9.25.), Andre

3-5.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5-1. 주요 특징

- **(HC와 그 회원단체에 대한 정부의 신뢰)** 캐나다는 오랜 시민사회 전통을 통해 인도적 지원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와 NGO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1980년대 이후 NGO들은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며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 HC의 회원단체들은 캐나다 국제NGO를 대표하는 대형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는 강력하다.
- **(대표적 인도적 지원 공동대응 플랫폼)** HC는 캐나다에서 정부, 대중, 민간기업의 자원과 강력한 신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적 기준과 원칙을 중심으로 가시성(visibility), 신속성(speedy), 영향력(impact)을 핵심 가치로 하여 정부와 NGO 간의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모금 피로가 협력 필요성으로 전환)** 대형 국제 NGO 간의 모금 경쟁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NGO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통해 형성된 협력체계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파트너십 모델로 자리 잡아,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상호 보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공동모금 방식의 효과성)** HC는 공동모금 방식을 통해 개별 NGO가 단독으로 모금할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으며, 다양한 NGO의 전문성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중과 정부의 신뢰를 강화하며,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기부 참여 유도 및 기부 피로 완화)** HC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여러 NGO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 피로(donor fatigue)를 완화한다. 기부자들은 HC를 통해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에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협력과 인도적 원칙 중시)** HC는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며, 인도적 원칙과 목표 실현에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는 대중의 높은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공동 목표를 위한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공동모금 및 배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HC는 대형 국제 NGO들이 공동으로 모금하는

Charlebois (2024.9.26.), Nadja Pollaert (202.9.27)

플랫폼으로, 모금된 자금을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와 회원단체 간에 직접적인 공동사업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는 예산 지원과 관리에 주력한다.

- **(다양한 네트워크 간 역할 분담과 상보성)** HC는 인도적 대응 중심의 연합체로서 모금, 배분, 대응에 집중하며, 인도적 지원 정책, 역량 강화, NGO와 정부 간 조정은 HRN과 HPAG가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 분리로 인해 HC 회원은 반드시 HRN 회원 자격을 가져야 하며, 정부 정책 관련 옹호 활동을 위해서는 Cooperation Canada 산하 HPAG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대형 국제 NGO 중심의 배타적 구조와 혁신성 부족에 대한 비판)** HC는 대형 NGO들이 주로 정부 지원금과 대중 모금을 흡수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의 HC 회원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동료 NGO 네트워크로부터 HC가 NGO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3-5-2. RAPID에 대한 시사점

- **(정책적 지원 필요성)** 공공 부문의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민간 주도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단체를 정부 인도적 지원의 보완적 /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에 따라 정책적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합의점이 도출된다.
- **(한국 NGO 생태계를 고려한 협력모델 필요)** 대형단체 중심의 배타적 모델보다는 보다 포용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책임있는 방식을 양질의 대응을 제공하는 대원칙 하에 전문분야를 구축한 중소규모의 인도적 지원 NGO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사전 구축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 제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현지화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협력 모델 개발 필요성)** 대형 국제 NGO와 비교할 때 현지파트너와 직접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중소형 NGO들이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에 입각하여 현지 파트너와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단순화된 목표와 명확한 기능 설정의 필요성)** RAPID 프로그램이 다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기능을 단순화하여 특정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점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공동모금이나 신속 대응과 같은 특정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가시성(visibility), 신속성(speedy), 영향력(impact)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RAPID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자금 배분과 관리 시스템 도입)** 캐나다의 매칭 펀드 모델처럼 RAPID 프로그램도 자금 지원 방식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속히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 **(학습 및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포함)** RAPID 프로그램은 단순히 모금 및 자금 분배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과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참여 단체들이 상호 협력과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한국 NGO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역량을 키우고 현지화 및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호주

4-1. 파트너십 제도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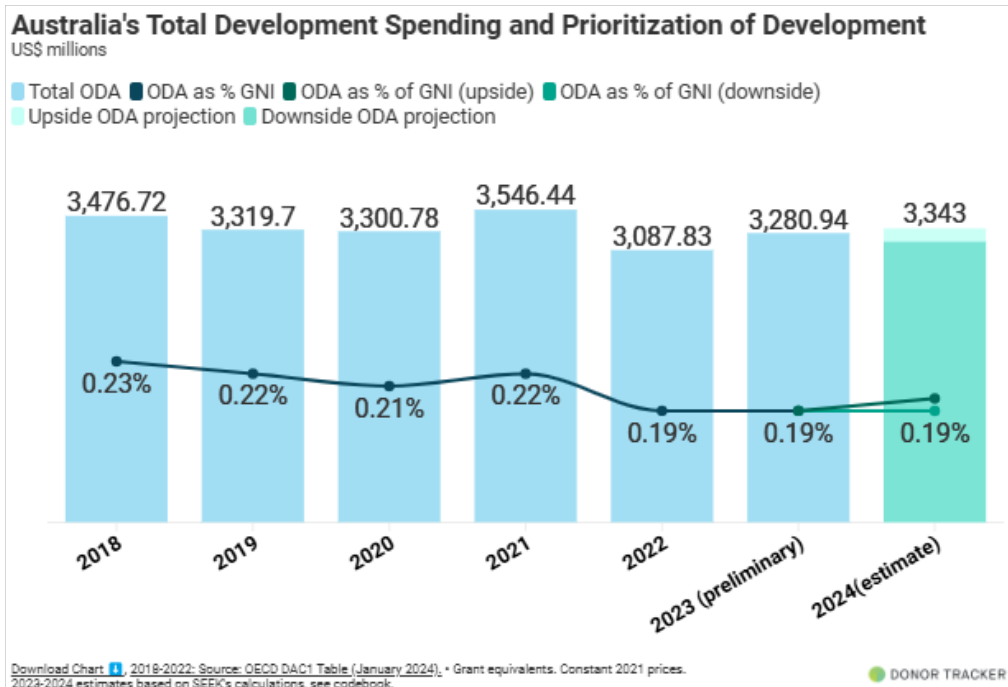
4-1-1. 정부의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제도

- **(호주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호주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부처인 DFAT가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이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 '호주의 강점을 활용', '품질과 투명성 강화', '지역 주도의 변화를 지원', '공동 효과 극대화'를 활용한다. 호주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2024/25년 ODA 4,961.5백만 AUD 규모의 ODA를 제공했다(DFAT, 2024a).⁸³⁾ 호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한다. 특히 호주가 가장 잘 알고,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호주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태평양,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호주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 정책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며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며, 2024/25년 인도적 지원 부분 예산으로 675.9백만 AUD를 배정했다(DFAT, 2024a). 이는 같은 해 호주 ODA의 7.3%에 해당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이는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및 위기 회복력을 외교 정책과 개발 프로그램에 내재화하며, 준비 및 대비 태세를 갖추고, 위기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의 목표와 우선순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호주 내외에서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것'이다.

83) DFAT.(2024a) Australi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EVELOPMENT BUDGET SUMMARY 2024-25.

[그림 25] 호주의 ODA 예산 추세



출처: Donortracker⁸⁴⁾

○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 **(호주 정부의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호주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전 국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정부 기관 간 협력 및 비정부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한다. 특별히 호주 NGO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적 지원의 핵심적 요소로 활용한다(DFAT, 2024b)⁸⁵⁾
- **(호주 인도적 파트너십 AHP)** 호주 정부가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한 프로그램은 AHP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DFAT과 호주 NGO 간의 10년간(2017-2027) 진행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AHP는 호주의 인도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력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호주 NGO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난 및 장기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AHP는 파트너 국가, 지역 조직 및 커뮤니티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84) Donortracker. Australia. https://donortracker.org/donor_profiles/australia (검색일: 2024.11.05.)

85) DFAT. (2024b). Australia's Humanitarian Policy: Making a difference for people in crisis.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재난 대응, 재난 대비 및 회복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AHP는 태평양,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중동에서 발생하는 급격하고 장기적인 위기에 대응해 왔으며, 2017년 이후 AHP 파트너들은 사이클론, 지진, 화산 폭발, 가뭄, 갈등, 경제 위기 등 32개국에서 60건의 대응 활동을 통해 1천만 명 이상에게 지원을 제공했다.

- **(AHP 주요 내용)** AHP의 지원 활동은 식수 및 위생, 긴급 교육, 긴급 대피소 및 인도적 물품 제공, 예방 접종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 식량 안보 및 생계 지원, 성별 기반 폭력 및 아동 보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와 포용 프로그램, 현금 기반 지원, 장기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⁸⁶⁾ Caritas Australia/CAN DO(Church Agencies Network - Disaster Operation),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CARE Australia, Save the Children Australia, World Vision Australia, Oxfam Australia가 참여한다.⁸⁷⁾

[글상자] AHP 참여단체

호주 AHP에 참여하는 6개의 NGO 및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파트너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 CARE Australia: Partnering with Live & Learn,
2. Save the Children,
3. Caritas Australia / CAN DO(Church Agencies Network - Disaster Operation: Lead consortium partner in the Church Agencies Disaster Operations (CAN DO) network. CAN DO brings together Caritas Australia, Act for Peace,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Anglican Board of Mission, Anglican Overseas Aid, Australian Lutheran World Service, Transform Aid International and Uniting World.
4. Plan International Australia: Partnering with ActionAid, ChildFund Australia, International Medical Corps UK, CBM Australia and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5. Oxfam Australia: Partnering with ABC International Development, CBM Australia and Habitat for Humanity Australia.
6. World Vision Australia: Partnering with Habitat for Humanity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CBM Australia and Field Ready.

- AHP는 2017년에서 2024년까지 8년간 32개국, 64번 대응을 통해 11,741,876명의 수혜자(직접 수혜자 6,374,324명, 간접수혜자 5,367,552명)를 지원했고, 총 262.5백만 AUD를 집행했다(AHP, 2024).⁸⁸⁾

86) 호주 AHP. 호주 DAFT 홈페이지. <https://www.dfat.gov.au/development/topics/development-issues/building-resilience/humanitarian-preparedness-and-response/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 (검색일: 2024.10.23.)

87) AHP. AHP 홈페이지. <https://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org/about> (검색일: 2024.10.23.)

88) AHP.(2024). AHP Humanitarian Response Update.

4-1-2.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 제도적 환경

- **(호주 기부모금 현황)** 호주의 기부 모금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기부 규모와 GDP/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공여국에 비해서 크지는 않고 한국과 유사하거나 작은 규모다. 호주 자선기관의 등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 Commission, 호주 자선·비영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2015년 54,468개에서 2023년은 59,929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ACNC, 2024).⁸⁹⁾ 호주 사회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18년 기준 GDP의 0.81%에 해당하는 131억 AUD로 미국의 2.1%, 뉴질랜드의 1.84% 캐나다의 1%, 영국의 0.96%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개인기부액 비중을 비교하면, 호주는 0.38%로 미국의 1.44%, 뉴질랜드의 0.77%, 캐나다의 0.77%, 영국의 0.54%에 비해 작다(Philanthropy Australia, 2024).⁹⁰⁾ 2016년 기준 GDP 대비 기부총액은 0.5%로 미국의 1.44%, 뉴질랜드의 0.79%, 캐나다의 0.77%, 영국의 0.54%, 한국의 0.5%에 비해 호주는 0.23%로 낮은 규모다(아름다운재단, 2024)⁹¹⁾. 그리고 2018년 호주의 민간 자선규모는 741백만USD로 한국의 852백만 USD에 비해 작은 규모이고, GNI 대비 비중은 0.05%로 한국과 같다(정복교 외, 2022)⁹²⁾.

○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 참여

- **(ACFID, IDEC 중심의 인도적 지원 공동대응)** 호주 시민사회의 주요 NGO들은 무력 분쟁지역에서 긴급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설립됐다(OECD, 1988; Smillie, 1995; Barnett and Weiss, 2008; Barnett, 2011; Kilby, 2015). 호주 NGO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동대응은 1965년 설립된 호주 NGO협의회인 ACFI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CFID는 인도적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호주 NGO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1968년 베트남 지원모금, 1971년 방글라데시 난민지원을 했고, 이 과정에서 1973년 영국의 DEC 모델과 같은 IDEC(International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국제재난구호

89) ACNC. (2024). Australian Charities Report.

90) Philanthropy Australia. (2022). Giving Trends and Opportunities.

91) 아름다운재단. (2024). 2024 데이터로보는국내기부규모변화. 기빙코리아2024.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장윤주, 이영주, 신성규, 정민정. CAF, 2016에서 인용

92) 정복교, 김성주, 윤정아. (2022). 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기빙코리아 2022.

위원회)를 ACFID 내에 설립했다. 이후 IDEC는 1974년 에티오피아 기근, 1975년 동티모르 위기, 1979~80년 캄보디아 위기, 1985-85년 에티오피아 기근, 1991년 아프리카 위기 해소 등에 참여하는 호주 NGO들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지원했다. 1993년 모금액 배분, 상주 사무국 설치, 모금실패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IDEC가 해체된 이후 2000년대 초에 ACFID 내에 긴급구호포럼이 구성되어 인도적 지원 활동의 조정역할을 담당했고, 이 조직은 인도주의참조그룹(HRG, Humanitarian Reference Group)으로 발전했다(Kilby, 2015).⁹³⁾

- 2024년 현재 호주의 주요 NGO들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AHP에 참여하거나, 인도적 위기 공동대응 플랫폼인 EAA(Emergency Action Alliance, 긴급대응연맹)에 참여하여 확보한 자금과 자체 모금한 자금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4-2. 플랫폼 형성과 발전과정

4-2-1. 플랫폼 개요

○ EAA는 호주에 등록된 15개의 대·중형 NGO가 참여하여 정부의 ODA 자금과 미디어의 홍보를 통해 대중의 기부와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조성된 자금을 회원단체에 배분하여 이들이 대난 피해국가와 지역에서 대응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가진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표 30] EAA 개요

	설립 연도	설립 및 운영주도 성격	참여 단체 수	법적지위
EAA	2021년	민간 설립 및 운영주도 정부 지원형	15개	정부기관인 ACNC에 등록된 모금자격증을 가진 CLG(Company Limited by Guarantee)

4-2-2. 형성과 발전과정

○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 **(IDEC 해체)** 호주 시민사회가 1973년 설립하여 20년간 활동했던 공동대응 플랫폼인 IDEC가 1993년 해체된 이후 ACFID의 HRG으로 인도적 지원활동 조정노력을 하는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그러나 회원단체들이 각자의 브랜드와 통제권을

93) Kilby Patrick. (2015). NGOs and Political Change, A History of the 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유지하고자 하여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 **(EAA 출범)** 이후 2021년 정부와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어 설립됐다. NGO간 워킹그룹을 설립하여 어떻게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성할지 브레인스토밍하는 단계를 거치고, 소규모로 워킹그룹을 운영했고, 워킹그룹에서 공동대응 플랫폼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정부 DFAT와 ACFID가 지지하여 2021년 EAA가 출범했다.
-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지)** 호주 정부-시민사회 내에서 글로벌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공동모금이 개별모금보다 모금규모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호주 정부 인도적지원 부서 고위 책임자 및 DFAT 장관 Julie Bishop의 지지 하에 EAA를 시작했다.⁹⁴⁾
- **(정부 파트너십 역할 분담)** 정부와의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도적 지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에 맞는 AHP 외에 시민사회 자율성을 존중하고 활용하여 호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EAA가 운영되는데, 이는 정부 주도-시민사회 실행과 시민사회 주도-정부 지원이라는 2개의 프로그램이 상호보완적으로 실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성격과 기능

- **(비전과 미션)** EAA의 비전은 '더 많은 자원이 동원되고 인도적 협력이 극대화되어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세상'이며 미션으로는 '더 많은 기금 모금: 명확하고 신뢰받는 통합된 목소리를 통해 EAA는 호주인들이 인도적 위기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와 '더 큰 영향력 미침: 인도적 위기를 겪는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제공한다'를 설정했다.
- **(4대 목적)** EAA는 공동대응 플랫폼으로써 4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미디어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부 수익을 최대화하고 증가시키며, 기부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둘째는 중앙화된 기부 메커니즘이 비상 상황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도달하는 방법임을 입증하여 대중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한다. 셋째는 조직의 기반을 강화하고 낮은 비용 구조를 유지하며, 회원과 파트너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을 유지한다. 넷째는 더 많은 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피해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을 증대한다.

94) EAA 사무총장 Morris Kerren 인터뷰. (2024.9.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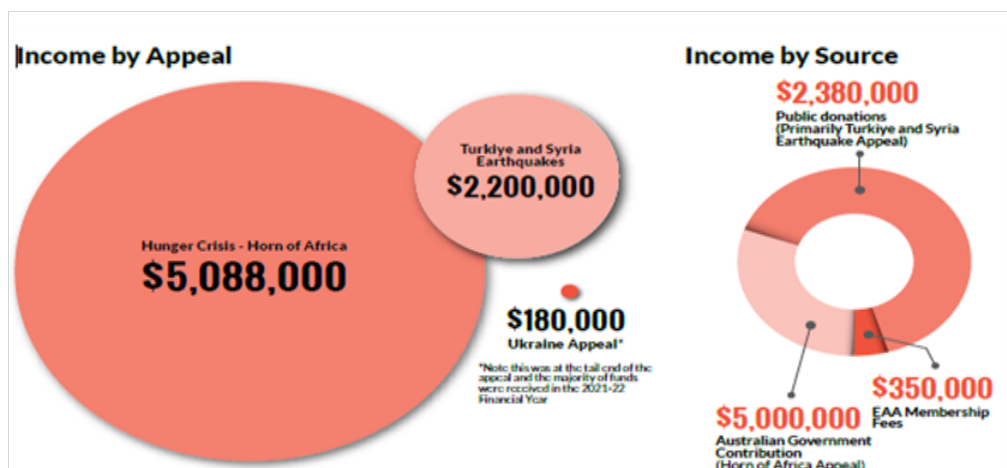
- **(4대 목표와 운영원칙)** EAA의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규모 인도적 재난 발생 시 호주 NGO들이 공동으로 모금할 수 있는 인증된 국가 차원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금액을 최대화하고, 회원단체에 신속하게 자금을 분배하여 더 큰 영향을 보장한다. 둘째, 재난에 대한 대중, 방송사 및 기타 기관의 대응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기관 간 협력, 조정 및 소통을 촉진한다. 넷째, 모금된 자금이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완전하게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EAA는 운영원칙으로 신뢰, 협력, 책무성, 효과성, 투명성을 제시한다(EAA, 2023)⁹⁵⁾.
- **(3대 전략)** EAA의 첫째 전략은 '새로운 및 기존 파트너의 영향력을 가속화'이다. 2027년까지 미디어, 기업 및 자산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속화하여 비상 상황 시 기부자와의 연결을 최대화할 것이다. EAA는 호주 대중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디어 파트너로부터 더 큰 지원 확보, 신규(상업 및 커뮤니티) 미디어 기관의 지원 확보, 대중에게 친숙한 브랜드의 지원 확보, 이 협력을 위한 호주 정부의 지원 확대를 추구한다. 둘째 전략은 '위기 상황에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의 최대화'다. EAA는 2027년까지 긴급구호 모금 활동을 강화하여 회원들의 긴급 지원 활동에 대한 호주 대중의 지원을 크게 증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호주 국민이 기부하고자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모금 시기 설정, 기부의 편리성을 위해 최신 기법과 기술 활용, 기부자와 후원자를 이해하여 기대를 초과하는 경험 제공, 후원자와 호주 대중에게 EAA의 영향을 공유하여 그들이 만들어 낸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가능한 한 많은 호주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모금 계획을 구성하여 회원들이 대규모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구한다. 셋째 전략은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조직 구축'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갖춘 지속 가능한 조직을 구축하고, 회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투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조직 유지,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한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 더 큰 영향을 위한 협력에 헌신하는 훌륭한 회원 유지, 후원자와 파트너에게 영감을 주는 성과 스토리 공유'를 활용한다(EAA, 2024).⁹⁶⁾
- **(모금실적)** EAA는 2021년 설립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기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해 총 3번의 공동대응을 실행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그림 26]와같이 3개의 공동모금 총수입은 7,468,000 AUD(약 67억6,310만 KRW)다. EAA의 전체수입은 총

95) EAA. (2023). Annual Report 2022-2023.

96) EAA. (2024). EAA Strategy.

7,730,000 AUD(약 70억 KRW)며, 이중 대중모금 수입은 2,380,000 AUD(약 21억5,535만 KRW)로 전체의 30.8%이고, DFAT가 제공한 ODA 자금이 5,088,000 AUD(약 46억774만 KRW)로 전체의 64.7%이고, EAA 회비 수입이 350,000 AUD(약 3억1,696만 KRW)로 4.5%다. 공동모금플랫폼인 EAA가 설립한 지 3년이라는 초기를 고려하면 아직, 정부가 지원한 ODA 자금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 호주 EAA의 3년간 모금 내용



출처: EAA. (2023). Annual Report 2022-2023.

- **(공동어필별 배분 실적)** 3차례의 어필을 통해 모금한 금액 배분 및 활동 실적은 다음 내용과 같다. 배분 특성 차원에서 3차례의 공동어필해서 모금한 자금의 배분결과를 보면, 3차례 모두 UNHCR호주, 세이프더칠드런호주(16%), 케어호주, 플랜인터내셔널호주 등이 10%이상의 자금을 배분받았고, 옥스팜호주가 2차례 10%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 단체인 뱀티스트월브에이드, 액션에이드호주, 애드라호주, 호주루터런월드서비스, 티어펀드호주 등, 앵글리칸오버시사이트 등이 1~4% 등 작은 비중을 배분받았다. 즉, 대형단체들이 공동모금의 큰 수혜자임을 알 수 있다.

[표 31] EAA 긴급 어필 종류(2021~2023)

긴급 어필	기간	금액 (AUD)	재난유형
우크라이나 전쟁	2022~23	435만	전쟁
아프리카 기아 (아프리카 볼 지역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2022~23	588만	기아
튀르키예·시리아지진	2023	235만	지진

출처: EAA 홈페이지.⁹⁷⁾

4-3. 플랫폼 체계와 운영방식

4-3-1. 플랫폼 운영체계

○ 의사결정체계

- **(이사회)** EAA의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회원이사는 6명인데, 15개 회원단체 중 6개 단체에서 선발된 6명(티어펀드(회장), 플랜인터내셔널, 액션에이드 호주, UNHCR호주, 차일드펀드호주, 세이브더칠드런 출신)이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이사는 3명인데, 현재 ABC 방송국 출신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명은 공석이다.
- **(3대 상임위원회)** EAA 어필, 배분, 재무위험관리 등 총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어필위원회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면, 긴급히 논의하여 공동어필 여부를 결정한다. 배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어필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회원단체들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위험관리 위원회는 회원단체들에 배분된 자금의 실행 등을 감독하는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어필위원회에는 ActionAid(의장), Oxfam, Save the Children, Caritas, UNHCR, CARE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배분위원회에는 Oxfam(의장), Caritas, Act for Peace, Anglican Overseas Aid, Plan International, CARE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재무위험관리위원회에는 ChildFund (의장), TearFund, UNHCR 그리고 독립전문가 1인 등 4인이 참여한다(EAA, 2023).
- **(회원 및 파트너)** EAA의 회원은 ACFID 회원인 15개의 호주 NGO이며, 파트너로 30개 이상의 호주 가족신탁기금(trust)과 재단 그리고 미디어들이 함께 한다. EAA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호주의 국영 방송사인 ABC(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호주방송국)과 국영방송사이면서 소수민족 등 공익주제를 다루는 SBS(Special Broadcasting

97) EAA. 아프리카 식량위기, 우크라이나 위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 내용. EAA 홈페이지. <https://emergencyaction.org.au/hunger-crisis> (검색일: 2024.11.02.)

Service, 특별방송사) 2개 인데, 이들 방송사는 집중 어필방송을 방영한다. 또한 호주 DFAT가 그동안 세 번 진행된 공동어필 때마다 각 500백만AUD(45억2,805만KRW)를 제공했다.

○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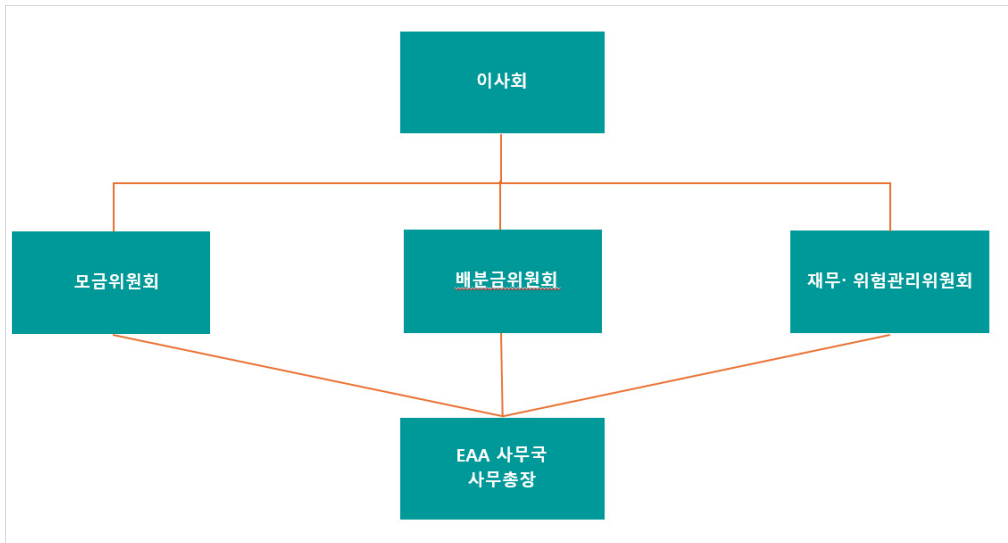
- **(역할)** 사무국의 역할은 이사회와 3개 위원회와 협력하여 어필과 홍보, 배분 및 보고와 관련된 실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미디어, 정부, 기업과 도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 **(운영)** EAA 회원단체는 단체 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달리 납입한다. 단체 연간 수입기준에 따라서 소규모(5개)/중규모(8개)/대규모(2개) 기관으로 구분했으며, 각각 1만/2만/3만 AUD의 연회비를 납입한다. 2023년 연간 회비 수입은 총 32,000 AUD(2억8,979 KRW)이며, 연회비로 사무국 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업체 비용, 보험, 광고 대행사, 디자인, 웹사이트 운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험 등 운영비를 지출한다. 사무국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가 필요할 경우 회원단체에서 단기적으로 관련 담당자를 파견하기도 한다. 회원(이사)기관 ChildFund Australia에게 월 3,000 AUD(271 KRW)를 지불하고 사무국 급여 지급을 포함한 회계 및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글상자] EAA 회원단체

EAA의 15개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ActionAid UK △ADRA △ACT FOR PEACE △Australian Lutheran World Service △Anglican Overseas Aid △CARE △BAPTIST WORLD AID △Caritas AUSTRALIA △cbm △Child Fund Australia △OXFAM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Tearfund △UNHCR The UN Refugee Agency Australia for UNHCR

- **(홍보)** EAA는 신생단체이기에 브랜드 파워가 약하며, 현재는 어필 에 참여하는 회원단체 중 대형 NGO의 로고를 보고 EAA를 인식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공동브랜드로서의 EAA를 알리는 게 중요하며, ABC, SBS 등과의 공동어필이나 가디언 기사 등에 노출하는 등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한 어필 시의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력을 하는 이유도 기업의 기부금 확보보다는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그림 27] EAA 조직도



출처: EAA. (2023). Annual Report 2022-2023.

4-3-2. 대응 방식과 절차

○ 대응재난

- **(3대 기준)** EAA가 공동대응하는 재난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개다. 첫째 기준은 해외 재난이 국제 인도적 대응을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이며, 둘째는 EAA 회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다. 최소한 5~6개 회원단체들이 현장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인도적 상황에 대한 기존 대중의 공감 증거가 있거나, 어필 캠페인을 시작할 경우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다.

○ 대응절차

- EAA가 글로벌 인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어필 여부 결정

- 어필위원회가 긴급하게 대응여부 논의를 한 후 이사회에 공동어필 여부를 권고한다.
- 이사회에서 어필위원회로부터 공동어필을 권고받고 논의 후 결정한다.

② 공동어필 실행

- 공동어필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후 재난 발생 후 첫 2주간 EAA 공동어필을 할 때 회원단체들은

개별어필은 하지 않는다. 공동어필 시작 전에 개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동어필 종료 후에도 개별단체들이 어필할 수 있다.

- ABC, SBS와 연계해 공동어필을 진행한다.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해 타 미디어에 설명한다.
- 회원단체 협조를 받아 현장사진을 받아 공동 어필 사이트에 게재한다.
- 어필위원회에서 광고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모금액의 10% 이하로 광고액을 결정한다.
- 모금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시간 콜센터가 아닌 자동응답기 연결해 기부자들이 신용카드번호 또는 은행을 연결하게 한다.
- 명확하게 정해진 공동어필 종료 시점은 없고, 모금되는 추이를 보면서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모금된다면 지속하되,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없어졌을 때 종료한다. 이전 어필에서 95%가 인터넷 통한 모금이고, 5%가 전화모금이다.

③ 자금 배분

- 배분위원회에서 회원단체의 역량진술서(formal capacity statement) 수령하고 회원단체의 현장 파트너, 초기대응, 필요액, 사용가능한 자금,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참고해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15개 회원단체에 대한 금액결정은 모두 모여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 설립 이후 진행된 3번의 경험상, 공동어필이 시작된 후 4-6주 안에 200~300만 달러 등의 모금액이 입금되는데, 입금되면 다시 한번 회원단체들로부터 이전과 상황 변화는 없는지,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 회원단체 개별적으로 모금역사 등 기준을 반영해 작성한 '배분공식(Allocation formula)'을 적용해 단체별로 배분한다. 이를 위해 15개 회원단체는 1년에 한 번씩 긴급대응을 포함한 인도적지원에 대한 지출 내역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하고, 이를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할당 비율을 결정한다. 공동어필에 참여를 안 하는 단체는 배분하지 않는다.
- 특정 공동어필에서 1~2개 단체가 빠졌다면 그 비율만큼의 자금은 타 단체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 모든 회원단체는 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4만 AUD(3,622만 KRW)를 배분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규모 상관없이 EAA 공동어필을 통해 확보한 모금액 관리에 각 단체별로 최소한의 관리 비용이나 인력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공동어필을 하는 동안 최소 3~5번의 모금액이 회원단체에 배분된다. 공동어필 시작 후 어필이 정점을 찍은 6주 이후에 2번째 송금이 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3번째 송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개의 경우 100만 AUD(9억561만 KRW)까지 모금이 된 다음 첫 번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첫 번째 배분 이후 두 번째까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각 단계별로 대응에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여전히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인지 사무국이 확인하고 송금한다.

④ 사업시행과 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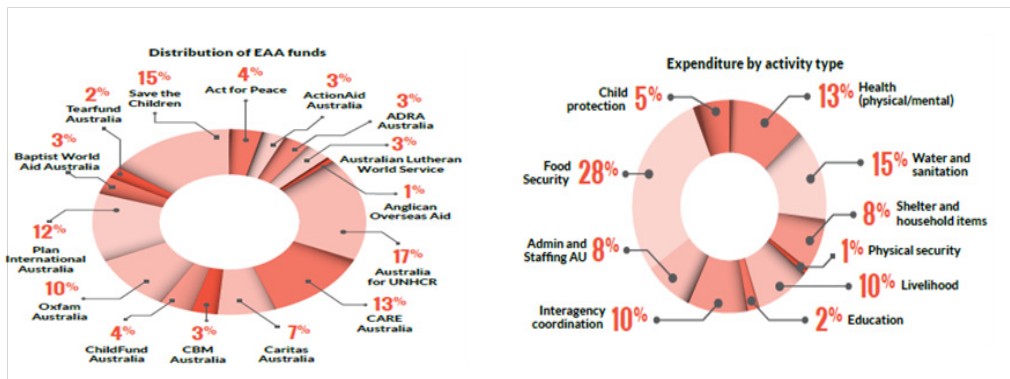
- 공동어필을 통해 모금된 자금을 배분받은 단체는 최대 24개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사업시행 단체는 총 4차례(1개월, 3개월, 6개월, 24개월)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대중 대상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4-3-3. 대응 프로그램 사례

○ 아프리카 기아(2022~2023년)

- **(동아프리카 기아 지원)** EAA는 2022~2023년 아프리카 뿔 지역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의 기아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공동어필을 진행했다. EAA는 공동어필을 통해 588만 AUD(53억 2,498 KRW)을 모금했고, 영양실조에 빠진 1,15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를 지원했고, 식량위기에 처한 5,980만 명에 식량을 지원했다. 또한 국내실향민 및 난민 1,700만 명을 지원했다. 참여한 총 15개 단체에 배분됐다. 가장 큰 비중의 모금액을 받은 단체는 UNHCR호주(17%)이고, 세이프더칠드런호주(15%)이고 케어호주(13%), 플랜인터내셔널호주(12%), 옥스팜호주(10%) 등이 10% 이상의 자금을 배분받았다. 그리고 티어펀드호주(2%), 뱍티스트월브에이드, 액션에이드호주, 애드라호주, 호주루터월드서비스, CBM호주 같은 단체들은 3%의 자금을 배분받았고, 최소자금을 배분받은 단체는 1%를 배분받은 앵글리칸오버시시에이드다. 자금이 사용된 분야는 식량안보(28%), 물과 위생(15%), 건강(13%) 등에 큰 비중으로 사용됐다(EAA, 2023).

[그림 28] EAA의 아프리카 기아 공동어필 모금 금액 배분 및 사용 내용



출처: EAA. (2023). Annual Report 2022-2023.

4-3-4. 책무성 제도와 절차

○ 책무성 메커니즘

- **(회원)** EAA에 참여하는 15개의 NGO는 ACFID 회원인데, 회원가입 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사인한다. 또한 DFAT의 시민사회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에게 필수적인 인증제도(creditation)에 참여하는 단체이므로, 최소한 이상의 제도적 책무성이 검증된 단체들이다.
- **(사업 보고서)** EAA 공동어필을 배분받은 단체들은 사업시행 1개월에 개시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3개월, 6개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6개월 보고 내용이 중요하다. 보고서에는 TOC(Theory Of Change), PDM(Project Design Matrix)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내러티브 중심으로 기술한다. 이후 24개월 종료 후 보고서를 EAA 사무국에 제출한다. 보고서 양식은 사업분야, 활동내용, 대상 수혜자, 수요조사, 현지파트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하며, EAA는 참여단체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취합하여, 대중 대상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책무성 원칙을 준수한다.

○ 평가체계 및 방식

- **(동료검토 방식의 종료평가)** 배분위원회에서 역량진술서(capacity statement)를 검토했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으로 24개월 사업종료 이후 동료검토를 실시한다. 주 평가 항목은 CHS의 5개 지표 활용 기준에 충족하는지, 현지화 기준에 충족하는지 등이고, 이를 기준으로 참여단체에 실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단체는 자 기관 평가에서는 배제된다. 만약 평가점수가 부정적이면 재정적으로 향후 배분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AA는 평가를 통해 모금액 규모 증대 외에,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장려하여 향후 어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다른 참여단체와 공유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평가 진행하지 않음)** EAA는 현장 모니터링이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회원단체들은 ACFID 회원단체로, 가입 시 이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체결한 검증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현장평가보다는 보고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 **(단체 최고위급 대상 숙고 워크숍 개최)** 공동어필 종료 후 모든 회원단체의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여 피드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숙고(reflection)워크숍을 실시한다. 모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점,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성과, 영향력, 참여단체에게 주어진 업무와 일하는 방식, 프로세스 개선점 등 전반에 관한 의견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리더십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호주 정부 파트너십 평가)** EAA는 2021년 설립 후 3년 정도 된 초기이기 때문에 파트너십 평가보다는 사업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DFAT 차원에서 진행하는 파트너십 평가에는 DFAT과의 소통, 계획 대비 자금 사용 결과, 합의된 방식으로 보고 유무, 대중 참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4-4. 작동기제 및 장애요인

4-4-1. 주체별 참여유인

○ 정부

- **(협력방식)** EAA 창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핵심적 협력 파트너인 호주 외교부는 재원 제공과 사업운영에 대한 협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설립이 3년 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사회 참여방식은 아니지만, EAA 운영에 대해 열어놓고 이사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 **(참여/협력요인)** 정부의 EAA 참여/협력요인은 크게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두 가지 프로그램의 전략적 활용, 자금제공, 인지·지지도 제고다.
 - **인도적 지원 민관파트너십:** 호주 정부는 2024년 발간한 인도적 지원정책문서인 'Australia's Humanitarian Policy'에서 제시한 접근 방식 중 하나인 '정부 기관 간 협력 및 비정부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한다.'라고 밝히며, 호주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DFAT, 2024b)⁹⁸⁾
 - **AHP와 EAA 지원의 전략적 활용:** 호주 정부는 2017년 시작한 10년짜리 장기 프로그램인 인도적 지원분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AHP'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AHP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호주 NGO 6개(총 24개)와 협력하는 방식 외에 NGO들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플랫폼인 EAA에 대해 ODA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민사회와 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3년 단위의 자금제공 중심 협력:** 호주 DFAT는 자체 조달규정에 근거해 3년 단위로 EAA와 협약서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2021년 이후 EAA가 실행한 3번의 공동대응에 대해 DFAT가 제공한 ODA 자금은 총 5,088,000 AUD(46억774만 KRW)로 EAA의 3년간의 모금액 총 7,730,000 AUD((70억 KRW)의 64.7%로 가장 큰 비중을

98) DFAT. (2024b). Australia's Humanitarian Policy: Making a difference for people in crisis.

차지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통한 인지·지지도 제고:** 호주 정부는 EAA 공동어필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참여하는 기업, 미디어, 시민 및 호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호주 NGO뿐 아니라 호주 정부의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제고와 지지를 끌어내고자 한다. 정부가 EAA를 지원함으로써 공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사업 자금이 확보되는 등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와 대중들이 EAA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EA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하려는 가치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중 모금액을 늘리는 것과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 미디어

- **(협력방식)** 미디어는 EAA 운영의 핵심적 협력파트너로 공동어필과 공동모금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출신 이사 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미디어와의 효과적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 **(참여/협력요인)** EAA가 미디어와 협력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방송사 중심의 참여:** EAA는 국영방송사인 ABC와 SBS를 중심으로 공동어필을 위한 미디어 홍보를 한다. 미디어와의 협력은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어필 활동을 전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AA 이사회가 공동어필을 결정한 후 ABC와 연계해 ABC 라디오방송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고, ABC 긴급재난 모금 웹사이트에서 EAA 어필을 게재한다. EAA는 ABC, SBS와는 3년간의 협약기간을 맺고 협력하며, EAA 이사회에는 ABC 국장 출신 인사가 참여해 미디어와의 협력을 지원한다. 국영방송 외에도 민영방송사인 채널 7, 9, 10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미디어협력체 조직:** EAA는 공동어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미디어협력체인 RRN(Rapid Response Network, 긴급대응네트워크)를 조직해 운영한다. 공동어필을 위해서 방송사 외에도 신문사인 가디언 기사 말미에 홍보문구를 제시하는 식의 방법도 활용한다.
- **(참여 장애요인)** 미디어의 EAA 활동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다음의 내용이 제시됐다.
 - **미디어의 중립성:** 인도적 위기에 대한 공동어필 참여에 대한 미디어 참여에 대해 미디어 내부에서 '미디어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 기업

- **(협력방식)** 기업은 EAA 운영에 있어 아직은 상대적으로 비적극적인 파트너로 존재하며, 공동어필과 공동모금의 홍보채널 역할과 자원동원자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 **(참여/협력요인)** 기업의 EAA 참여에 대해 미디어 통한 참여 및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요인이 존재한다.
- 미디어 통한 EAA 인지 제고 후 접근 전략: EAA는 미디어와의 파트너십을 탄탄하게 구축한 후, 호주국립은행, Coles, Common Wealth Bank, West Field Australia 등과 같은 기업과의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 **기업과의 다양한 방식의 협력:** 기업과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형 쇼핑몰의 경우, 수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여 고객 기반이 크거나 매장 방문하는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브랜드를 통해 방문 고객이 EAA 공동어필을 인지하고 스캔하여 기부할 수 있는 QR 코드 활용을 통한 어필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웹 어필이 95%인 점과 젊은 층의 참여 등을 고려해 oOh!, 틱톡, 유튜브, 구글, 메타 등 다양한 온라인 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 **(참여 장애요인)** 호주 기업들은 소수민 등 호주 내부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고 이는 EAA가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다.

4-4-2. 작동기제

○ 플랫폼 작동기제는 [표 32]와 같다.

[표 32] EAA 작동기제

층위	제도적 요소 (Hardware)	사회문화적 요소 (Software)
Macro (대외환경)	- 정부의 제도적 NGO 지원(ACNC) - ACFID 행동강령등 시민사회 내 제도적 장치	- IDEC 20년간의 운용 경험 - 국영방송사 참여 통한 신뢰성 확보 - NGO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긍정적 가치
Meso (플랫폼 조직)	- 회원들의 적극적 협력체계 기반 - 효율적 운용(이사회, 상임위, 단체 규모별 차등적 회비, 배분공식 등)	- 공동브랜드 참여 통한 신뢰확보 - 일정 수준의 모금윤리 준수기제 확보 - 공동홍보 콘텐츠 활용 용이
Micro (회원단체)	- AHP외에 정부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참여 확대 기회	- 개별보다는 공동으로 더 많은 모금 - 미디어 활용의 용이함 (중형단체) - 종교를 뛰어넘는 지지자 저변확대

○ Macro level

- **(제도적 요인: 정부의 제도적 NGO 지원, 시민사회내 제도적 장치)** 호주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분야 공공대응 플랫폼인 EAA가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요인의 핵심 요인은

호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다. 정부의 자선·비영리단체 등록제도인 ACNC는 EAA가 대중을 대상으로 어필활동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의 EAA에 대한 ODA 지원이 공적인 신뢰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NGO 단체 및 미디어,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호주 NGO협의체인 ACFID 회원만이 EAA 참여가 가능한데, ACFID 회원들은 가입 시 행동강령에 사인하므로 EAA에는 모금 윤리 관련 일정 수준의 견제 기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호주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AHP에 비해 행정 부담이 작고 보다 NGO 기반 플랫폼이므로 유연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 **(사회문화적 요인: 공유된 경험, 방송사의 신뢰성, 공동이라는 가치 제공)** 호주 시민사회가 IDEC를 통해 20년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동어필을 수행한 경험과 ACFID를 통한 지속적인 NGO들의 인도적 위기 활동에 대한 조정 노력 등은 EAA가 활동하게 된 공유된 제도적 지식(institutional knowledge)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EAA 공동어필에 참여하는 ABC, SBS 등 국영방송국의 신뢰성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제시한다. 공동대응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 단체들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과 공동으로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제공한다.

○ Meso level

- **(제도적 요인: 회원들의 적극적 협력체계 기반 효율적 운용)** EAA 회원 NGO의 협력체계가 잘 운용되고 있다. 이사회, 3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어필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단체 규모를 배려한 대, 중, 소 단체별 차등 있는 회비납부 시스템, 단체의 역량과 경험을 반영한 배분 공식 같은 체계적인 배분 시스템 운용 등도 EAA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데 기여하는 요인이다. 기본적으로 EAA가 어필, 배분 등 필요한 내용이 윈스톱서비스로 작동하도록 회원단체, 정부, 미디어, 대중 기부자 등을 관리하여 공동어필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성공에 기여하는 제도적 요인이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어필 및 사업관리도 중요하며, 회원단체인 Child Fund 호주의 사무국 공간 및 행정시스템 지원도 설립 3년 차 신생 단체인 EAA의 효율적 사업수행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 **(사회문화적 요인: 공동브랜드 참여 통한 신뢰 확보, 일정 수준의 모금윤리 준수 기제, 공동홍보 콘텐츠 활용 용이)** EAA가 가지는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NGO들의 공동브랜드라는 명분은 정부나 기업, 미디어 및 국민들에게 협력이라는 긍정적 가치와 효율성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해 플랫폼 성공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ACFID 회원만이 참여하기에 어필에 있어 일정 수준의 윤리적 차원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다. EAA를 통해 또한 공동어필을 위한 홍보자료로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 Micro level

- **(제도적 요인: 정부 파트너십 참여 기회 확대)** EAA는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AHP 외에 새로운 공간을 제도적으로 제시해서 플랫폼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정부 파트너십 확대라는 기회를 제시한다.
- **(사회문화적 요인: 참여단체의 모금규모 확대, 미디어 활용, 지지저변 확대)** EAA는 글로벌 인도적 위기에 개별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대중 어필, 미디어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중소형 단체들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중소형 개별단체가 직접적으로 미디어를 연계하기 어려운데, EAA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정부, 대중을 대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자금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많은 종교기반 단체들의 경우 EAA에 참여함으로써 동일 종교 중심의 회원을 넘어 지지저변을 확대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4-4-3. 장애요인

○ 대외적 측면

- **(국제문제에 대한 호주 사회의 관심 부족)** 일반적으로 호주 국민을 포함한 사회의 주요 구성 주체들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 무관심하고, 국내 문제(원주민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호주가 인접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호주 기업들은 대개 국내에서 자신들의 가시성(visibility)을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국내 활동을 하는 NGO에 더 많이 후원한다. 소비자층이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가자지구 문제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수단 기근과 같은 만성 위기들과 같은 인도적 위기는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과 미디어 참여)** 가자지구 지원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성이 있는 지원에 대해 국영방송국이 참여한다면, 그에 대한 보수정치인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방송국의 자체 검열적 반응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영방송국인 ABC가 EAA 홍보할 때 미디어로서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대내적 측면

- **(시민사회 내 주요 단체 불참)** 시민사회에서 비중 있는 단체인 월드비전은 자체적인 전략, 모금경쟁 등을 고려하여 EAA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적십자는 과거 IDEC 시절 인도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 이슈를 이유로 탈퇴한 이후 EAA에도 합류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시민사회 전체가 단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어필이 진행되어, EAA 참여단체와 일부 대형단체 간의 모금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 **(낮은 브랜드 인지도)** EAA는 설립된 지 3년 된 단체이므로 호주 사회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태다. 실제로 기부자들이 EAA가 아닌 참여 NGO단체의 로고를 보고 EAA에 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중 어필에서는 결정적인 내용으로 큰 도전과제다.
- **(모금집중이 가져오는 플랫폼 성격에 대한 우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EAA가 미디어와의 협력 비중이 큰 가운데 어필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칫 마케팅회사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개선이 필요한 배분 시스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작은 호주의 모금시장에 비해 많은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개별 단체에게 적게 배분되는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EAA가 활용하는 배분 공식이 과거의 경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중소단체에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4-5. 주요 특징 및 시사점

4-5-1. 주요 특징

○ 정부와의 파트너십

- **(호주의 인도적 지원 지지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 호주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AHP 외에 호주 국민, 기업, 미디어 등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할 공간이자, 나아가 호주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지와 지지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EAA의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ODA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 **(적극적인 미디어와의 협력 및 우려 존재)** 국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미디어의 정치적 민감성 및 미디어 어필 중심으로 인한 마케팅 중심의 어필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선 미디어 활용 브랜드 인지제고 후 기업참여 전략)** 미디어 파트너십으로 호주 사회 내에서 일정 수준으로 공동대응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드 인지제고 후 이를 인지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려는 단계적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 효과적 시민사회 공동대응 플랫폼

- **(시민사회 내 공동어필 경험)** 과거 시민사회에서 20년간 인도적 지원 공동대응 플랫폼인 IEDC를 운용한 경험과 ACFID의 인도적 지원 조정 활동의 경험이 시민사회 내에서 제도화된 지식으로 공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내부에서 참여에 대한 명분이 형성되어 작동했다.
- **(시민사회 내 완전한 합의 부족 및 경쟁존재)** EAA가 시민사회 공동브랜드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월드비전호주 및 적십자와 같은 대형단체들의 EAA 불참은 시민사회 내 단일한 공동어필이 아닌 경쟁이라는 우려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해야할지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EAA는 중앙 집중화된 어필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 **(공동브랜드로서의 영향력 발휘)** 개별NGO 단체의 자체 모금보다, 사회에서 공동브랜드가 갖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활동 수행을 가능케 한다.

4-5-2. RAPID에 대한 시사점

○ KOICA의 인도적 지원 민관 파트너십 전략

-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집중적 상호보완성 외에 포괄적 상호보완성 실현 가능)** KOICA가 현재 진행하는 RAPID, 인도민협프로그램(HPP) 외에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은 KOICA의 인도적 지원수행 민관 파트너십 전략을 다양화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즉, KOICA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RAPID, 인도민협프로그램(HPP)을 운용하여 시민사회와 전략적·집중적 상호보완성을 실현하는 것 외에, 공동대응 플랫폼을 통해 시민사회 주도의 인도적 지원을 지원하여 포괄적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 정부의 안정적 재원 지원

- **(초기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재정 지원)** KOICA가 공동대응 플랫폼의 초기단계 이후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 참여와 인지제고 및 지지 확대

- **(공동대응 플랫폼 통해 다양한 한국 사회 주체들의 인도적 지원 참여 공간 확대)** KOICA가 현재 진행하는 RAPID, 인도민협프로그램(HPP) 외에 중장기적으로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성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개발NGO 외에 기업, 미디어, 다양한 경제·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

-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제고 및 지지 확대)** 한국의 모금시장이 국제사회에서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NGO들의 참여와 주요 방송사 등 미디어 참여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가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는 나아가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를 제고할 것이고, 나아가 지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효과적 운용을 위한 과제

- **(시민사회 내 주요 단체의 참여 확보 필요)**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단체들은 그 수가 제한적이다. 이에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또는 개별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NGO 단체들이 공동대응 플랫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호주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단체가 공동대응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모금 경쟁자로 남게 되어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고, 공동브랜드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참여단체 간 형평성 있는 운영)** 공동어필이 주목적이기에 어필 과정과 모금액 배분 그리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 대형단체와 중소형 단체들이 형평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소결

5-1. 4개국 주요 특징

○ 민관협력과 정책적 지원

- **(인도적 지원 예산 및 민관협력 규모)** 영국은 양자 ODA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가장 큰 국가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1조 3천억 원, 1조 2백억 원을 기록하며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호주는 5천4백억 원으로 다른 3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2년 기준 민관협력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약 1조 8천9백억 원에 달하며 이는 양자 ODA 예산의 11.4%에 해당한다. 민관협력 예산 비율 측면에서는 캐나다가 15%로 가장 높으며, 그 금액은 약 1조 4천6백억 원에 이른다. 호주는 4천2백억 원으로 ODA 예산의 11.8%를 차지하며, 일본은 약 3천억 원으로 양자 ODA 예산의 1.2% 수준에 그쳐 4개국 중 민관협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정부의 정책적 지지가 각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일본의 JPF와 캐나다의 HC는 정부가 NGO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그랜트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영국과 호주는 민간 주도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NGO 활동의 효과성과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책적 제도 기반 구축)**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모두 정부가 민관협력을 공식적으로 장려하며, 정책적 제도 기반을 통해 플랫폼을 뒷받침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정부의 직접적 자금 지원 비중이 높아 정부 주도의 그랜트 관리가 플랫폼의 주요 역할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JPF는 정부의 높은 지원 비율과 외무성의 운영위원회 참여로 강력한 정부 영향력을 보인다.

○ 자금조달과 대중의 참여

- **(공동모금과 자원 동원 시스템)** 네 국가의 플랫폼은 모두 공동모금 체계를 통해 대중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영미권 플랫폼인 영국 DEC, 캐나다 HC와 호주 EAA는 대중 기부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고, 기부 피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의 JPF는 해외재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영미권 플랫폼보다 취약하여 정부 재원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NGO들의 대중 모금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모금시장 및 기부문화)** 영국과 캐나다는 활성화된 모금시장과 높은 개인기부 참여율을 보인다.

영국의 모금 시장 규모는 24조 원, 캐나다는 11조 원에 달하며, 영국 대중의 71%, 캐나다의 62%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모금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부 문화가 덜 성숙하여 기부율이 16%에 그친다. 일본의 모금 시장 규모는 약 10조 9천억 원으로, 한국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른다. 상대적으로 작은 일본의 모금시장과 낮은 기부율이 JPF가 정부 재원에 의존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한다.

○ 플랫폼 설립 배경 및 운영구조

- **(설립목적과 회원구성)** 영국, 캐나다, 호주는 소수의 대형 국제 NGO를 중심으로 경쟁적 모금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공동모금과 대응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영국 DEC는 15개, 캐나다 HC와 호주 EAA는 각 12개 기관으로 이들은 국제적 대응 역량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관이다. 반면 일본 JPF는 열악한 국내 NGO의 대중 모금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NGO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설립된 만큼 일본의 다양한 규모와 역량의 NGO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회원 수는 총 47개다. 또한 타 플랫폼과 다르게 기업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약 100여 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플랫폼 운영과 기능)** 영국, 캐나다, 호주는 NGO 주도로 자금의 공동모금, 배분, 긴급 대응, 홍보 기능에 집중하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본 JPF는 설립 초기부터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JPF의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특히 외무성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가지며, 정부의 높은 통제력을 행사한다. JPF는 공동모금플랫폼이지만, 정부의 그랜트 사업 관리 기능이 플랫폼의 주요 역할과 기능으로 자리 잡고있는 점이 특징이다.
- **(대응 범위)** 영국 DEC, 캐나다 HC, 호주 EAA는 대형 인도적 위기에 대한 공동어필과 대응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캐나다 HC의 경우 정부가 중소규모 재난에 대한 기금을 HC에 배분함으로써 대형 인도적 위기와 중소규모 재난 모두를 대응한다. 영국은 Start Network가 중소형 재난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JPF의 경우 타 플랫폼과 차별적으로 국내재난과 해외재난에 모두 대응하며, 대형 인도적 위기를 비롯하여 중소규모의 재난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영국 DEC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을 위하여 공동모금을 추진했으며, 캐나다 HC는 대형 위기 6건, 중소규모 재난 19건, 일본 JPF는 20건의 해외재난대응이 있었으며, 호주 EAA는 3건의 대형재난에 대응했다. Start Network는 총 90건의 중소규모 재난에 대응했다.

○ 투명성 및 책무성

- **(엄격한 책무성 및 투명한 자금 관리)** 각국의 플랫폼은 자금 집행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하고, 참여단체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책무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과 최소기준인 스피어 기준, 인도적 대응 행동강령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업수행기준 준수와 더불어 각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업과 재무 기준을 충족한다. 일본의 JPF는 의무성이 지원하는 자금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 단계마다 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보고와 검토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엄격한 절차는 특히 일본 정부가 NGO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중히 하는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 그랜드바겐의 이행

- **(현지화 고려)** 4개국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그랜드바겐에 서명하며 현지화를 지지하고 있다. 소수의 대형 국제NG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미권 플랫폼의 경우에는 개별단체 차원에서도 그랜드바겐에 서명하고 자체적인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차원에서도 현지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HC는 인도적 대응활동의 기획단계에서 현지파트너의 참여를 의무로 하고, 현지파트너가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간접비 7.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화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수의 회원단체들이 현지파트너들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하여 대응하며 사업비에 현지파트너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호주 EAA는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NGO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 한편 현지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으로는 영국의 Start Network가 있다. 중소기업 재난 대응에 특화하여 설립된 Start Network는 영국의 국제NGO 뿐 아니라 현지에 기반한 국가NGO와 지역NGO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 현지주도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 자원 모금 및 배분 체계

- **(공동모금)**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공동모금이 결정된 후 공동어필을 시작하는 2~3주 기간에는 개별회원단체의 모금이 금지되고 공동어필 기간 전후에만 개별적인 모금활동을 수행하여 공동모금플랫폼으로서의 협력 기능을 강조한다. 캐나다와 영국은 기업과 대중을 상대로 모금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해당 재난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배분)** 4개국 플랫폼 모두 긴급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배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 DEC, 호주 EAA, 캐나다 HC는 NGO 주도의 자율적 배분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회원 NGO들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배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일본의 JPF는 NGO 분류 기준에 따라 배분금 상한선이 있으며 실제 프로젝트의 승인 및 배분 결정은 상한선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만 외무성의 승인이 필수조건이다.

○ 이해관계자 참여와 영향력

- **(미디어와의 협력 및 영향력)** 정부 영향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플랫폼은 영국으로 DEC는 설립역사도 가장 길고, 모금 규모도 거의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정부재원비율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영국의 대중모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디어로 영국 국영방송인 BBC는 DEC의 운영에도 참여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하다. 호주 EAA 역시 미디어와의 협력이 원활한 플랫폼으로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대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정부와의 협력 및 영향력)** 일본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영향력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큰 플랫폼으로 정부재원 비율이 각 76%, 88%에 달한다. 이 두 플랫폼의 경우 정부의 인도적 지원 그랜트 관리 기능이 사무국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정부 재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캐나다의 경우, 대형재난의 대중모금에 대한 1:1 매칭기금과 더불어 중소규모 재난을 위한 그랜트(CHAF)가 지원된다. 각 2000년과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재원 규모도 약 600억 원, 400억 원 규모다.
- **(NGO 협의체와의 협력)** 각 국가의 플랫폼은 기존의 민간단체 협의체와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다. 일본의 JPF는 협의체인 JANIC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대응에 집중하며, 정책 옹호와 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영역의 조정 및 협력은 JANIC이 담당한다. 또한, JPF의 회원 가입 조건 중 하나로 JANIC의 회원이어야 하며 JANIC의 책무성 자가 평가를 완료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은 호주의 EAA와 캐나다의 HC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캐나다 HC의 경우 역할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HC 회원들은 HRN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교부 그랜트 사업과 관련된 협의, 소통, 역량 강화를 지원받는다. 또한, CC의 NGO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다.
- **(NGO 생태계 영향)** 일본의 JPF를 제외한 영미권 3개 국가는 각 플랫폼 회원 수가 12~15개로, 주로 대형 국제 NGO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위해 회원기관이 일정 수준의 사업 규모, 국제적 네트워크, 국제 책무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가입기준

때문이며, 이러한 조건은 주로 대형 국제 NGO에 해당된다. 그 결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형 NGO들의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대중 모금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그랜트 기금도 HC를 통해서만 집행되기 때문에, HC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규모 캐나다 NGO들은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성과 관리 체계

- **(사업평가)** 각 플랫폼은 진행된 대응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방식은 내부 평가와 외부 독립평가, 동료평가, 현장평가 등의 인도적 지원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영국은 대응 초기부터 대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 컨설턴트가 참여하고, 주요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멤버십 검토와 실사 자체평가 기준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회원단체의 책무성과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한다. 일본의 경우 회원자격 검토, 배분금 기준 상한선 검토, 프로젝트 단위 활동별 월간보고, 중간보고 등 사무국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지만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나, 파트너십 성과 평가 체계는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 캐나다와 호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동료검토, RTE(Realtime Evaluation, 실시간), 필요시 독립 평가방식을 사용하며 사무국의 평가기능은 강하지 않다.
- **(파트너십 평가)** 파트너십 자체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한 곳은 없다. 다만 자체적인 워크숍이나 정례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파트너 간 피드백을 교환하며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 평가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3] 4개국 플랫폼 요약

구분	국가/플랫폼 항목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START Network	Japan Platform	Humanitarian Coalition	Emergency Action Alliance
제반환경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정책 및 전략	정책 및 전략	정책 및 전략	정책 및 전략	정책 및 전략
	공식 파트너십 유무	○	○	○	○	○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영자 ODA중) (2022년 기준 ⁹⁹⁾)	13억5천만 USD (1조7,000억 원)	745백만 USD (1조288억 원)	953백만 USD (1조3,145억 원)	396백만 USD (5,460억 원)	
	민관협력예산규모 ¹⁰⁰⁾ (2022년 기준)	13억 6,900만 USD (1조 8,900억 원)	2억4천2백만 USD (3,339억 원)	10억 6,400만 USD (1조4,678억 원)	3억9백만 USD (4,264억 원)	
	민관협력예산비율 ¹⁰¹⁾ (2022년 기준)	11.4%	1.2%	15%	11.8%	
	모금시장 규모	139억 GBP (24조 7,716억 원)	1조2,126억 엔 (10조 9,500억 원)	110억 CAD (11조330억 원)	13.1억 AUD(2018년) (1조1,863억 원)	
플랫폼	개인이 부참여비율 ¹⁰²⁾ (2023년 기준)	71%	16%	62%	56%	
	설립배경/목적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현지화 중소형 재난지원	NGO 생태계 및 역량강화	모금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민간모금 동원 (단체 간 공동의 자원과 역량 취합하여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민간의 모금 동원 및 대중인지 제고
	설립시기	1963년	2010년	2001년	2009년	2021년
	대응재난규모	대형재난	중소형 재난	국내 및 해외의 대형재난	대형재난: 매칭펀드 중소형재난: 그랜트	국제인도적 재난
	연간 대응재난 수 (23년 기준)	1건 (투르키에-시리아 지진)	90건	20건 (해외)	대형 6건/중소형 19건	3건
	정부의 참여수준	매칭기금 지원 (UK Aid Match)	그랜트 지원	운영위 참여 코어퍼닝	매칭기금지원(대형) 코어퍼닝	코어퍼닝

구분	항목	국가/플랫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START Network			
					그랜트지원 사업승인	그랜트지원(중소규모) 사업사전승인 (그랜트사업)	
	전체 재원 중 정부예산비율(2023기준)	4.6%	9.5%	75.8%	87.8%	64.7%	
	전체 재원 규모(2023기준)	2억 1,569만 GBP (3,843억 원)	2,189만 GBP (390억 원)	61억 엔 (600억 원)	4,300만 CAD (431억 원)	773만 AUD (70억 원)	
	미디어 협력수준 (정식 파트너/간헐적 협력/ 없음)	공식파트너 (BBC, ITV, Channel 4 등)	없음	간헐적 협력	공식 파트너 CBC, corus, Radio-Canada, Rogers Sports & Media, SOPTLIGHT, Bell Media, QUEBECOR	공식 파트너(ABC, SBS)	
	사무국 기능 모금 및 홍보 배분관리 사업관리(그랜트관리) 여량강화 정책 옹호 협의 및 조정	모금 및 홍보 배분관리 협의 및 조정	배분관리 여량강화 협의 및 조정	모금 및 홍보 배분관리 (그랜트관리) 여량강화 정책 옹호 협의 및 조정	모금 및 홍보 배분관리 협의 및 조정 사업관리	모금 및 홍보 배분관리 협의 및 조정 사업관리	
	직원규모	36명	55명	40명	8명	2명	
	참여NGO 수	15개	97개	47개	12개	15개	
	참여NGO 종류	자국 NGO	자국+현지 NGO	자국 NGO	자국 NGO	자국 NGO	

구분	국가/플랫폼 항목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START Network	Japan Platform	Humanitarian Coalition	Emergency Action Alliance
	참여 NGO 가입기준 수준 (가입자격요건에 NGO의 규모 포함)	대형	대형 및 중소형	대형 및 중소형	대형 및 중형	대형 및 중형
	성과관리(평가체계)	O	x	O	O	O
	평가방식 - 프로젝트 평가 - 프로그램 평가	프로젝트 평가	x	프로젝트 평가 (사무국 & 외부)	프로젝트 단위 및 대응제한 단위 (동료평가, 외부평가, RTE)	동료평가
	파트너십 평가제도	x	x	x	x	x

99) OECD Library

100) Donor Tracker

101) Donor Tracker

102) WORLD Giving Index (2023) 성인의 현금기부

5-2. RAPID에 대한 시사점

-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RAPID에서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도적 차원, 이해관계자 차원, 운영적 차원에서 도출했다.

[표 34] 각국 플랫폼 사례를 통한 시사점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제도적 차원	• 인도적 지원 관련 정부의 제도적 지원 (UK Aid Match, Gift Aid 등) 마련 • 그랜드버겐 이행 의무 연계성(재정 투명성 강화, 현지화, 보고 절차 간소화 등) • RAPID의 대표성 및 브랜드 가치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KOICA 로고 사용, 정부 예산 지원 등)	• 정책이행 수단으로서의 민관협력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확보 • 독립된 비영리민간법인에 대한 정부 영향력 행사 범위와 수준 고려 필요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파트너십 • 안정적 정부 재원	•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정부 주도 AHP 외에 민간 주도 EAA 제시해 정부의 다양한 전략적 선택 가능 • 정부 재원의 안정성	• 확고한 정책 및 전략 이행의 파트너로 민간채널의 적극적 활용. (HC, CFGB, HRN, CC) • 정치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 HC에 대한 강력한 신뢰 (HC 회원의 국제적 대응 역량) • 정부 재원의 안정성
이해관계자 참여	• 회원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환경 마련 • RAPID-미디어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모금과 홍보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공동모금으로 확대할 경우 미디어 역할이 핵심적)	• 높은 정부 재원 비율(약 80%)이 JPF 사무국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 • 정부 재원 외 자원 출처의 다양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 강화: 해외재단대응 및 지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보를 위한 모티브 중요 • 기업의 경우 단순 후원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참여 기회 제공 고려 • 동로NGO네트워크와의 상보적 역할과 기능 수행	• 미디어, 기업, 경제·사회단체 및 국민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인도적 지원 참여 공간 확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 인지도고 및 지지확대 • 미디어의 참여가 공동모금을 알리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역할 수행 • NGO 간 모금 경쟁 구도 파악 중요 (VV 미참여)	• 정부의 재원참여 비율 절대적으로 높지만(85%) 가버넌스에 대한 정부 영향력은 낮음 - 수평적 관계 • 유관 동료 네트워크와의 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인한 상호보완성 강화 • 배타적 회원제도가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 중요 • 모금경쟁구도 파악 중요
플랫폼 운영	• RAPID민의 고유한 전략 및 방향성 마련 (중소형/잇힌 재단, 혁신적이고 실험적)	• 국내외 재난대응NGO플랫폼으로서의 대표적 지위 확보. 한국의 경우 다양한 모금플랫폼을	• 공동 브랜드로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해 시민사회 내의 대형 및 중형규모의	• 명확하고 단순한 미션 수행 및 이를 중심으로 한 단체 간 협력 및 운영구조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적인 시도, 짧은 공동모금 기간 설정, 개별사업/현지 맥락에 대한 정보 공유 등) - 모든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규정 필요 (RAPID 운영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 RAPID 특화된 성과관리체계 마련 - 인도적 지원의 책무성 준수 강화(이재민 책무성, CHS, Due diligence, 세이프 가딩 등) - RAPID 프로그램 결정, 배분, 평가, 성과 관리 과정에 회원단체의 참여 - 모금과 홍보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 설립	품이 있으나 해외재난대응특화 모금플랫폼으로서의 전문적 입지 확보 필요. - 국가 내 NGO 생태계 특성에 부합한 포용적 플랫폼으로 구성하되 질과 책무성을 준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 참여적 의사결정 거버넌스 및 학습 공간 확보 - 인도적 지원 특성에 부합한 신속한 수행 절차 마련(긴급구호) - 이해관계자 맵핑을 통한 플랫폼의 중점 기능과 역할 범위 설정 필요 (PF 경우 대중모금을 위한 모금 홍보보다 그랜트관리 기능이 강한 특성 보유) - 공동모금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금과 홍보 전문성을 갖춘 독립 사무국 설립 중요 - 회원의 종류 구분하여 협력 범위 다양화 시도 (예:적십자사의 경우 정부재원을 받지 않고 정책 조정에 참여)	NGO 참여 확보 필요 - 모금, 배분 등에 있소 참여 NGO 간 형평성 있는 운영 필요 - 대중모금을 위한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	구축 - 공동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입지 확보 중요 - 인도적 지원 특성에 부합한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집행 절차 수립 중요 - 이해관계자 맵핑을 통한 플랫폼의 중점 기능과 역할 범위 설정 필요. - 대중모금 강화를 위해서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구축 중요

- 각 국가 플랫폼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시사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제도운용

- **(정부의 제도적 지원 마련)** 인도적 지원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관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UK Aid Match, Gift Aid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민간 모금을 활성화와 민관파트너십 가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예산 매칭 방식이나, 그랜드바겐의 이행 의무를 연계하여 현지화, 보고 절차 간소화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 **(민관 파트너십의 지속성과 대표성 확보)** RAPID와 같은 인도적지원에서 민간의 역할을 기반으로하는 프로그램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브랜드 가시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RAPID 로고 사용 및 정부 예산 지원 등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 영향력의 범위와 수준 설정)**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법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 **(다양한 전략적 선택 가능성 제공)** 정부 주도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원 채널(호주 EAA 등)을 도입한다면, 정부로서도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노력)** 인도적 지원 공간을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원칙에 기초하여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인도적 지원의 비정치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며, 인도적 원칙에 충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이해관계자 참여 차원

- **(대정부 관계 균형 확보)** 일본 JPF 사무국의 재원 중 약 80%가 정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정부 재원 비율은 사무국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정부의 재원 비율이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은 낮다. 영미권 플랫폼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명확한 역할 인식의 차이에 기반하여 NGO들을 정부전략이행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와 NGO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할 수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일본에서는 NGO가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기보다는 정부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NGO의 역할이 제한되고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운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정부관계에 있어 균형 잡힌 협력구조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 후원을 확대하여 재원의 다각화 모색이 중요하다.

- **(기업의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기업이 단순 후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인도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재원의 다각화를 위한 후원처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직접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NGO 생태계 분석과 그에 따른 방향 설정)**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중 동료 NGO 네트워크와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NGO 협의체 JANIC을 통해 JPF가 집중하기 어려운 정책옹호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HC와 영국의 DEC, 호주의 EAA도 각각 공동모금 및 대응플랫폼의 기능에 집중하면서 그 외 정책옹호, 역량강화 등의 영역에서는 BOND(영국 협의체), Cooperation Canada(캐나다 협의체), ACFID(호주 협의체) 등 협의체를 비롯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이는 RAPID의 방향성과 기능의 범위 설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 **(미디어 영향력 고려)** 영국과 호주의 사례처럼 대국민 인식 제고와 대중 모금 확대를 위해 미디어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플랫폼의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져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플랫폼 운영

- **(RAPID 플랫폼 설계)** 영미권의 플랫폼은 대형 NGO 간 모금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형성됐다. 반면, 일본은 대중 모금의 어려움으로 NGO 생태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민간, 정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플랫폼이 설립됐다. 이러한 형성 배경의 차이는 RAPID 플랫폼을 어느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모금 경쟁이 치열한 대형 NGO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NGO 생태계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단체들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플랫폼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RAPID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플랫폼 회원구성과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촉진)** 기존 공동모금플랫폼들은 대형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모두 흡수하며, 대형 공여국 NGO 중심의 공동모금 체계가 현지화나

HDP 넥서스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Start Network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의 RAPID 플랫폼도 기존 공여국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 참여단체들이 RAPID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재난 대응의 대표적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발전)** 국내외 재난 대응 NGO 플랫폼으로서 대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는 다양한 모금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해외 재난 대응에 특화된 모금 및 대응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이고 전문적인 입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참여적 의사결정 및 학습 공간 확보)** 4개국 플랫폼 모두 회원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워킹그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 간 학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과 주인의식, 주도력을 강화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RAPID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APID 프로그램의 결정, 배분, 평가, 성과관리 과정에 회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포용적 플랫폼 구성)** 영미권의 대형단체 중심의 배타적 모델보다는 일본 JPF의 포용적 모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JPF가 일본 NGO 생태계와 NGO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설계된 바와 같이, RAPID의 파트너십은 한국 NGO 생태계, 정부 재원규모와 ODA 및 인도주의 정책/전략을 고려하여 소수의 대형 NGO에게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NGO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역량 편차의 보완 장치)** 다양한 NGO의 참여는 생태계의 포용성을 강화하지만 그만큼 기관 간의 역량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JPF의 사례처럼 NGO의 역량에 따른 분류제도와 협력 방식을 다양화하여 포용성을 강화하면서 질과 책무성을 준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대응의 품질 제고를 고려할 수 있다.
- **(독립된 사무국 설치 및 전문성 강화)** 4개국 모두 독립적인 사무국이 설치되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금활동을 수행하고 기부금 세제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RAPID의 방향성에 따라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금과 홍보,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사무국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집행)** RAPID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매칭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이

강화되어 어느 정도의 재원 유연성이 확보 되었으나, 사업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인도적 지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집행 절차를 마련하여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적 지원 활동의 즉각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공동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영향력 유지)** 공동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용성을 고려하면서 참여단체의 기준, 플랫폼의 미션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RAPID 발전방안 제안

○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RAPID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현재 ‘RAPI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둘째는 현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한 ‘공동모금플랫폼’이다.

1. 국내 이해관계자 제안

○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팀은 국내 이해관계자 가운데 RAPID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KOICA, RAPID 참여 NGO, RAPID 미참여 NGO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5] 핵심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요

참여 대상	참여 기관 및 인원수	조사 내용
정부	KOICA 2개 부서 3명	1. RAPID 활성화 방안①: RAPID와 RAPID Plus RAPID와 RAPID Plus 구분 기준 RAPID와 RAPID Plus 컨소시움 동의/반대 여부
RAPID 참여 NGO	5개 NGO 9명	2. RAPID 활성화 방안②: RAPID의 풀 확대 RAPID 참여 단체 수 확대 RAPID 참여 단체 수 확대 시 최소 기준
RAPID 미참여 NGO	6개 NGO 6명	3. RAPID 발전 방안(공동모금플랫폼 전환)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의 전환 동의/반대 여부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의 전환 시 운영 주체

1-1. RAPID 활성화 방안①에 대한 제안

○ RAPID와 RAPID Plus 구분 기준

- 인도적 지원 상시 인력, 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인도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현장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도적 지원 대응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이

제안됐다.

○ RAPID와 RAPID Plus 컨소시엄에 대한 의견

- **(동의)** 현 RAPID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중·소형 단체의 경우는 현 RAPID 참여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를 밝힌 기관들이 다수 존재했다.
- **(반대)** 인도적 지원, 특별히 긴급한 대응인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성, 개입의 적시성을 위해 '간단한 의사결정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와 조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컨소시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효과적인 컨소시움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여, 긴급한 대응보다는 만성화된 위기 상황에서의 개입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사업 분야보다는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파악됐다.

1-2. RAPID 활성화 방안②에 대한 의견

○ RAPID 자체 풀 확대에 대한 의견

-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RAPID 참여기관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며, 독립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컨소시엄 참여로 한정해서 참여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모집·선발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 RAPID 풀에서 인도적 위기 현장성이 높은 기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수의 일부를 보존하는 쿼터 보장 제도가 제안됐다.

○ RAPID 자체 풀 확대 시 참여 기준의 최소 기준

- 인도적 지원 인력 기준 축소(최소 1-2명으로 제안),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역량에 대해선 평가 후 지원 예산 규모를 합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됐다. 또한 최소 기준 자체보다는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1-3. 공동모금플랫폼에 대한 의견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인도적 지원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 대국민 대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지 제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동모금플랫폼의 경우 소수단체의 부정행위가 플랫폼 멤버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셰이프가딩과

같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부분임이 강조됐다.

- **(반대)** 현실적으로 공동모금에 대한 효과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공동모금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 **(기타)**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금생태계의 중요한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와의 역할 정리 및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 시 운영 주체

- 현행 KCOC는 140여 개 NGO의 협의체로서 소수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NGO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 국내 생태계 민간부문에서는 KCOC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과 협력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행위자이므로 공동모금플랫폼을 위한 별도 운영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 KCOC의 조력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 공동모금플랫폼의 운영 주체는 반드시 대중모금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주체여야 하며,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모금뿐 아니라 배분, 회계 등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

2.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방안

2-1. RAPID 활성화 방안

2-1-1. 정체성

○ 목적

-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긴급대응 포괄적 파트너십(RAPID)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 미션

-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한다.
- 이재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 다양한 행위자(정부, NGO, 기업, 미디어 등)들이 협력한다.

○ 원칙

-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과 파트너십 원칙¹⁰³⁾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십 모델을 지향하며 다음의 원칙과 가치를 실천한다.
- **인도성(Humanity)**: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인 인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며, 모든 활동은 고통 경감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 **평등성(Equality)**: 지원 대상자와 참여단체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지향한다.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며,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차별 없이 지원을 제공한다.
- **결과 지향(Results-Oriented Approach)**: 활동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결과 지향적인 접근을 실천한다. 측정가능한 목표와 성과를 설정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의 실질적 영향을 극대화한다.
-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참여 주체 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한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자원을 최적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103) 파트너십 원칙(The Principles of Partnership)은 2007년 글로벌 인도주의 플랫폼(Global Humanitarian Platform, GHP)에서 UN, NGO, 정부 기구, 적십자 및 적신월사 연맹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 단체 간의 협력 필요성을 기반으로 채택된 공동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http://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other/principles-partnership-global-humanitarian-platform-17-july-2007>

-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 의사결정, 자원배분, 성과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며, 파트너와 지원 대상자에게 책임 있는 활동을 보장한다.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활동의 품질을 높인다.

○ 가치

- 다음의 가치를 기반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 **사람 중심(People-Centered):**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상호신뢰(Mutual Trust):** 파트너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
 - **현지중심(Local-Centered):** 현지의 필요와 역량에 기반하여 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 행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대응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상호학습(Mutual Learning):** 참여단체와 파트너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질적제고(Quality Improvement):** 활동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2-1-2. 구성

2-1-2-1. 구성단위

- RAPID 활성화 단계에서는 효과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 참여 주체 구성을 다변화한다.

○ RAPID 플랫폼

RAPID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RAPID 멤버(RAPID 및 RAPID Plus), RAPID 파트너 그리고 사무국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 RAPID 멤버단체

- **(RAPID 단체)** 긴급한 인도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보유한 NGO로 구성한다. 2024년 현재 기존 선정된 단체들이 RAPID 단체 해당한다.
- **(RAPID Plus 단체)** RAPID 단체의 규모와 실적, 체계에는 미치지 못하나, RAPID의 통합 브랜드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 NGO로 분야 전문성 혹은 현장성을 보유한 단체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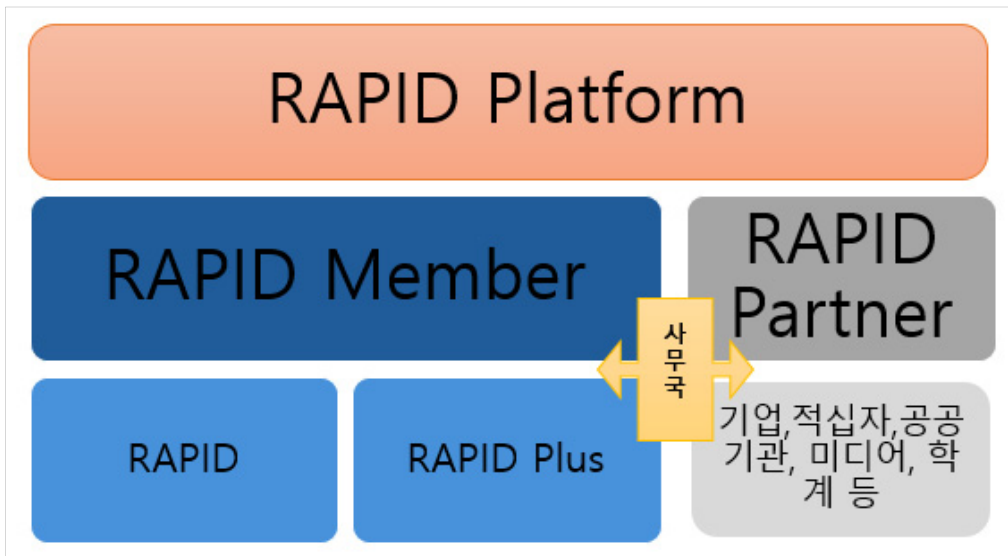
○ RAPID 파트너 기관

- RAPID에 참여하는 RAPID와 RAPID Plus 단체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공공기관, 기업, 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통합 파트너십으로서의 시너지 강화에 기여하는 기관들이다.

○ RAPID 사무국

- RAPID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KOICA 및 멤버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실무를 집행한다.

[그림 29] RAPID 플랫폼 구성주체



2-1-2-2. RAPID 멤버구성

○ RAPID 멤버인 RAPID 단체와 RAPID Plus 단체구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RAPID 및 RAPID Plus 참여단체 기준 (안)

단체분류	RAPID 단체	RAPID Plus 단체
기본개념	정회원 개념 긴급구호 및 조기 복구 단계의 인도적 자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구축한 단체	협력회원 / Pool 개념 현장성: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국가/지역에서 오랜 활동경험을 통하여 탄탄한 현지네트워크 확보 분야전문단체: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분야전문성을 보유하여 RAPID 통합 브랜드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 분야전문성: 젠더, 장애, 보건의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
선정기준: 공통요건	인도주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RAPID의 목표와 비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RAPID의 가치에 동의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한 기관이 신청 가능함. [신청기본요건] ①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법인 ② 설립 이후 최소 3년 이상의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수행 경험 보유 ③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사 운동과 재난 구호 NGO를 위한 행동강령 서명 ④ 해외 활동 국가(지역)이 3개국 이상 (※ 대응 가능한 지부나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현지파트너를 통한 대응이 가능한 국가) ⑤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하여 재무 투명성과 건전성 인증 ⑥ 자부담 비율 매칭 가능	
세부기준	[실적] ① 최근 3년 해외 인도적 지원(긴급구호) 실적 3억 원 이상 (자체 대응 포함) ② 최근 3년 해외사업을 위한 자체 자원 동원(모금) 실적 10억 원 이상. ③ KOICA, 모금회, 국제기구 등 외부 재원을 통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N건 이상 (단, 최근 3년 이내 경고 등의 징계 조치 경험이 없어야 함) [인력] - 국내 및 현장 인력 ①-1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당 부서 인력의 70% 이상이 인도적 지원 관련 교육 이수 ①-2 또는 50% 이상의 인력이 해외재난재해 인도적 지원 활동 경험 보유	[분야전문성 고려] 분야에 특화된 해외사업실적 분야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력 보유 [실적] ① 최근 3년 해외 인도적 지원(긴급구호) 실적 1억 원 이상 (분야 전문 단체의 경우 관련분야에서의 실적) ② 최근 3년 해외사업을 위한 자체자원 동원(모금) 실적 3억 원 이상 ③ KOICA, 모금회, 국제기구 등 외부 재원을 통한 유사 사업 수행실적 1건 이상

단체분류	RAPID 단체	RAPID Plus 단체
	[체계] ① N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유(지부 및 현지 파트너십 협력체결) ② 세이프가딩 제도 및 지침 유무	[인력] ①-1 사무국 내 상근 직원 중 최소 1인 이상의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 유경험자 ①-2 또는 1인 이상의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체계] ① 해외활동 국가가 3개국 이상 (지부 혹은 현지 파트너십 협력체결)
참여방식	단독사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 참여	컨소시엄 사업 참여 단체전문성과 부합 시 특정 분야에 대한 단독 사업 수행 (예: 보건 위기 대응 시 보건전문기관의 단독사업수행 가능)

※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실제 참여단체를 선발하는 시점에 국내 NGO의 인도적 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분석 및 수정되어야 함

2-1-2-3. RAPID 파트너 기관 구성

- RAPID 파트너 기관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37] RAPID 파트너 기관 역할

기관	역할
대한적십자사	• 인도적 지원 전문기관으로 RAPID 전문성 제고에 기여 • ICRC/IFRC와의 연계하여 접근성 해소 기여 • 대중 인지 제고
기업	• 현물, 통신, 수송 등 기업의 전문성 기여 • 기술협력 • 혁신사업참여
미디어	• 대국민 인지제고 기여 • RAPID 성과홍보 기여
학계/연구기관	• 연구와 데이터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의사결정지원 • 대응 경험의 지식화 • 혁신사업 참여
KCOC	• NGO 협의회로써 NGO간의 의견 조율, 조정 • 인도적 지원 정책 협의, 팔로업, 옹호를 통해 RAPID는 대응 플랫폼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 대중 인지 제고, RAPID 브랜드 인지 제고

2-1-3. 사업

2-1-3-1. 사업구성

○ RAPID 활성화 단계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

- **민관합동대응사업(RAPID Integrated Response)**: 대형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정부와 NGO, 적십자,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RAPID 통합 브랜드 사업으로서 대응의 영향력과 가시성 확산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긴급구호와 조기복구 단계에서 정부와 민간 간 합동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의 공동기획 및 공동수행을 주 내용으로 하며, RAPID 민관합동대응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하나의 브랜드 사업으로 진행한다.¹⁰⁴⁾
(예: 2023년 튀르키예 KDRT 3진 파견 시 정부-민간 합동수요조사, 이후 한-튀 우정촌 합동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를 향후 RAPID 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필요시 민관합동대응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RAPID의 통합브랜드를 활용하여 가시성과 영향력 확대할 수 있다. (예: 대한적십자사의 튀르키예 우정촌 건립. 동일한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가시성 확대)
- **민간공동대응사업(RAPID NGO Joint Response)**: 특정 긴급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RAPID 단체들이 긴급구호 및 조기복구 성격의 사업을 RAPID 차원의 공동 대응목표(Outcome)를 설정하고 각 참여 단체들의 사업(output)을 통하여 공동 대응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예: RAPID 동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 사업).
- **RAPID Learning Lab 사업**: RAPID 내 학습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공간으로 제시 작동한다. 이는 크게 네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 **혁신적 접근**: RAPID 내에서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예: humanitarian financing mechanism, block-chain 도입, anticipatory action 등)
 - **실증연구**: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응 활동의 경험을 지식화한다. (예: ALNAP의 현장 기초데이터 수집)
 - **동료학습**: RAPID 멤버인 RAPID 단체와 RAPID Plus 단체들이 참여하여 종료한 사업에 대해 학습하고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예: 공동종료평가, real-time evaluation 등)

104) 민관합동 대응 사업을 수행할 시 KDRT 활동 종료 전 이재민 구호와 복구, 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합동수요조사 단계에서 RAPID와 연계를 가능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다.

- **현지주도대응:**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현지주도 대응을 촉진하는 방식의 사업을 실행한다. (예: 현지NGO 네트워크 구축, 당사자조직 micro-grant 배분 사업 등 현지화에 기여하는 방식의 시범사업)

[표 38] RAPID 사업유형

유형	주요 내용
RAPID Integrated Response	• 대형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정부, NGO, 적십자,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RAPID 통합브랜드로 사업 • 긴급구호와 조기복구 단계에서 정부와 민간 간 합동 사업(수요조사 및 기획, 실행과정) (예) 2023 튀르키예 KDRT 활동 및 정착촌 사업
RAPID Joint Response	• 특정 긴급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RAPID 단체들의 사업으로 RAPID 차원의 공동의 대응목표(Outcome)를 설정하여 긴급구호 및 조기복구 사업을 수행 • 공동 대응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 (예) 2024 RAPID 동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 사업
RAPID Learning Lab	• RAPID 활성화 단계에서의 여러 행위자들과의 실제적 파트너십 경험 창출 • RAPID와 RAPID Plus, 그 외 행위자들 간의 학습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사업 ①혁신적 접근 ②실증적 연구 ③동료학습 ④현지주도대응

2-1-3-2. 사업수행 방식

- RAPID에서 시행하는 이상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RAPID 멤버인 RAPID 단체와 RAPID Plus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효과성과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다.

○ 방식 1. RAPID 단체 단독참여형:

- RAPID 단체들만 참여한다.

○ 방식 2.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 참여형

- RAPID는 매 사업기간(2년) 심사를 통해, RAPID 단체 자격요건을 갖춘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을 심사해, RAPID 단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자격을 제공한다. 이 경우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의 사무국은 참여단체 중 1개 단체가 담당한다.
- 주로 중견단체인 RAPID Plus 단체들에 대한 기회 제공, 한국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생태계 확장 등의 측면에서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 참여형을 매 사업기간(2년) 마다 필수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표 39] RAPID 멤버 사업 참여방식

방식	참여주체	주요 내용
1. RAPID 단체 단독참여형	RAPID 단체 (2024년 현재 5단체.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매 사업기간(2년)마다 자격 심사해 기관설정
2.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 참여형	복수(2개 이상)의 RAPID Plus 단체	매 사업기간(2년)마다 컨소시엄 자격 심사해 RAPID 단체 자격 부여 *매 사업기간에 필수로 컨소시엄 최소 1개 지정하는 방안고려 필요

2-1-4. 운영조직

2-1-4-1. 운영위원회

○ 구성

- RAPID 단체
- KOICA 담당 조직
- 운영기관 담당자
- 외부 전문가(관련분야 연구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

○ 역할

- RAPID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관리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한다.
- RAPID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전반을 협의한다.
- 사업 대응 분야를 선정한다.
- 필요시 현지 조사 및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모든 위원은 임시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2-1-4-2. 사무국

○ 역할

- RAPID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 재정을 지원한다.

○ 기능

- **(RAPID 멤버관리)** RAPID 단체 및 RAPID Plus 단체 모집, 선정, 운영위원회, 참여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책무성 증진을 담당한다.
- **(배분 및 사업관리)** RAPID 프로그램 자금배분 및 민관합동대응사업, 민관공동대응사업, Learning Lab 사업수행을 위한 절차를 관리한다.
- **(RAPID 파트너 기관관리)** RAPID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미디어 등과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 **(성과관리)** RAPID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와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운영하고 M&E를 지원한다.
 - * RAPID의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실시간 대응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긴급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피해 규모, 요구사항, 자원 배분 현황)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용해 RAPID 지원사업의 통합 성과관리, 공유 및 확산을 지원함. (예: CommCARE)
- **(인지제고 및 성과홍보)** RAPID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 및 사회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알리고, 사업성과를 홍보한다.

2-1-5. 브랜드 홍보

○ 추진 방향

- 미디어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RAPID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아래와 같이 개별사업에 맞게 홍보를 진행한다.
- RAPID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RAPID 활성화 단계에서의 성과와 사례를 정리해, 국민과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브랜드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 추진 수단

- **(전통적 수단)** 대중을 대상으로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정기적으로 RAPID 브랜드를 노출시킨다. 또한 정부 고위급 관계자,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정보 수집에 용이한 일간지를 통한 RAPID 성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담아낸다.
- **(효율성이 높은 수단)** 유튜브, SNS, 팟캐스트와 같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RAPID 브랜드 노출을 병행한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홍보)** 기업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부의 홍보 수단(기업 자체 발간 사보 등), 기업의 사업장(예: 이마트 배너, 쿠팡의 결제창 화면 배너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이런 사례는 RAPID의 이해관계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파트너십 자체에 대한 효과성을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1-6. 핵심작동기제,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주체별 참여유인

2-1-6-1. 핵심작동기제

○ Ma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핵심작동기제는 정부의 ODA 정책 중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 증대가 중요하다.
- 사회문화적 측면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도적 지원 생태계 내 UN 기구뿐만 아니라 INGO, 한국 자생 NGO 등 다양한 유형의 NGO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 Meso level

-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공동대응 모델 활성화와 개발NGO 외 다양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주체의 참여 공간제시가 기능한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형 외 중견 단체들의 참여방식 제공이 영향을 미치는 핵심작동기제다.

○ Mi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핵심작동기제는 안정적 재원 확보(RAPID 단체)이고, 중견단체에게 참여 기회 제공(RAPID Plus단체)이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RAPID 참여단체라는 신뢰성 그리고 공동모금 참여에 대한 동료 간 긍정적 압박(peer pressure), 혹은 집단적 참여의식 및 불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핵심작동기제로 기능한다.

2-1-6-2. 장애요인

○ Ma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정부의 ODA 정책 중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화와 작은 예산규모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분쟁 상황에서의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기능한다.

○ Meso level

-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 중심의 프로그램 운용과 대형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참여기관 제한이 장애요인이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소수단체 참여로 인한 NGO 사회의 전반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Mi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참여단체에 비해 작은 예산규모와 중견단체에게는 사업 참여가 어려운 제도다.
- 사회문화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자부담이 어려운 중견 단체의 존재다.

2-1-6-3. 선결과제

○ Ma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RAPID 브랜드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해결에 대한 국민의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결되어야 한다.

○ Meso level

-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속적 예산 확대와 대형단체 외 중견단체 참여방식 효과적 운용 그리고 적십자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 성과홍보를 위한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정비,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가 중요한 선결과제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단체 간 경쟁 완화 및 협동심 향상, KCOC의 기여 및 대형단체와 중견단체 간 권력균형(power balance)이다.

○ Mi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정부의 예산 확대, 공동어필·모금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정비, 기업의 공식적인 참여 그리고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공동플랫폼이 결국 모금의 효과성 및 개별단체 모금 증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참여를 꺼리는 단체들의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1-6-4. 주체별 참여유인

○ NGO

-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분야의 안정적 예산확보, 정부 협력 통한 국내외, 기관 내 신뢰성 제고, 한국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생태계 확대 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 정부

-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효과적 기여,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대, 신뢰성 있는 인도적 지원 NGO 생태계 구성 지원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회의 인도적 지원 발전 도모, 인도적 지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 풀 확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의 참여공간 제시가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 대한적십자사

- 각국의 적십자사와 연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주도 긴급 대응브랜드 참여 당위성과 인도주의 수호 기관으로서의 참여 당위성이 중요하다.

○ 미디어

-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와 NGO와의 협력 통해 다양한 방송자원 확보가 미디어의 참여유인이다.

○ 기업

- ESG 실천 수단의 확보, 국제사회 인도적 위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확보 및 신뢰성 있는 NGO들에 대한 기부 및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 기회 제공과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요인이다.

○ 학계/연구기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증연구 기회 확보 및 학술실적 제고가 중요하다.

[표 40] RAPID의 핵심작동기제,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주체별 참여유인

내용	핵심작동기제(enabler)	장애요인(disabler)	선결과제	주체별 참여유인
Macro (파트너십 외부수준에 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제도적 측면〉 - 정부의 ODA 정책 중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 증대 〈사회문화적 측면〉 -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인도적 지원 생태계 내 UN 기구뿐만 아니라 INGO, 한국 자생 NGO 등 다양한 유형의 NGO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제도적 측면〉 - 정부의 ODA 정책 중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낮은 우선 순위화와 작은 예산 규모 〈사회문화적 측면〉 -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 분쟁 상황에서의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한 어려움	〈제도적 측면〉 - RAPID 브랜드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 - 정부의 안정적 지원 〈사회문화적 측면〉 - 해외 인도적 위기 해결에 대한 국민의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NGO -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분야의 인정적 예산 확보 - 정부 협력 통한 국내외, 기관 내 신뢰성 제고 - 한국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생태계 확대 기회 확보
				정부 -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효과적 기여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대 - 신뢰성 있는 인도적 지원 NGO 생태계 구성 지원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회의 인도적 지원 발전 도모 - 인도적 지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 풀 확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의 참여공간 제시
Meso (파트너십 자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제도적 측면〉 - 정부-시민사회 공동대응 모델 활성화 - 개발NGO 외 다양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주체의 참여 공간제시 〈사회문화적 측면〉 - 대형 외 중견 단체들의 참여방식 제공	〈제도적 측면〉 - 정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대형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참여기관 제한 〈사회문화적 측면〉 - 소수단체 참여로 인한 NGO 사회의 전반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제도적 측면〉 - 정부의 지속적 예산 확대 - 대형단체 외 중견단체 참여방식 효과적 운용 - 적십자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 - 성과 홍보를 위한 미디어와의 협력 체계 정비 -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	대한 적십자사 -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주도 긴급 대응브랜드 참여 당위성 - 인도주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참여 당위성
				미디어 -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 NGO와의 협력 통해 다양한 비상자원 확보
				기업 - ESG 실천 수단의 확보 - 국제사회 인도적 위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핵심적동기제(enabler)	장애요인(disabler)	선결과제	주체별 참여유인
			〈사회문화적 측면〉 • 단체 간 경쟁 완화 및 협동심 향상 • KCOC의 기여 • 대형단체와 중견단체 간 권력균형 (power balance)	방안화보 • 신뢰성 있는 NGO들에 대한 기부 •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기회 제공
Micro (파트너십 참여하는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제도적 측면〉 • 안정적 자원 확보(RAPID 단체) • 중견단체에게 참여 기회 제공 (RAPID Plus 단체) 〈사회문화적 측면〉 • 정부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 RAPID에 하는 단체라는 신뢰성 • 공동모금 참여에 대한 동료 간 긍정적 압박(Peer pressure), 혹은 집단적 참여의식 및 불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도적 측면〉 • 참여단체에 비해 적은 예산규모 • 중견단체에게는 사업참여가 어려운 제도 〈사회문화적 측면〉 • 자부담이 어려운 중견 단체 존재	〈제도적 측면〉 • 정부의 예산 확대 • 공동어필·모금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정비 • 기업의 공식적인 참여 •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 〈사회문화적 측면〉 • 공동플랫폼이 결국 모금의 효과성 및 개별단체 모금 증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참여를 꺼리는 단체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	학계/연구기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증연구 기회 확보 및 학술실적 제고

2-2. 공동모금플랫폼 방안

2-2-1. 정체성

○ 목적

- 한국 민간의 주체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모금플랫폼을 구성해 긴급한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 미션

- NGO들의 공동모금의 장을 마련하여 기금 모금을 극대화한다.
- 해외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정부, 공공기관, 일반 대중, 기업, 방송사 및 기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한다.
- 해외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인지를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한다.
- 해외 인도적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NGO, 정부, 공공기관, 기업, 미디어 등 기관 간 협력, 조정 및 소통을 촉진한다.
- 공동 모금된 기금을 형평성 있게 참여 NGO에 배분하고,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책무성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

○ 원칙

-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과 파트너십 원칙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십 모델을 지향하며 다음의 원칙과 가치를 실천한다.
- **인도성(Humanity)**: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인 인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며, 모든 활동은 고통 경감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 **상호신뢰(Mutual Trust)**: 파트너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
- **평등성(Equality)**: 지원 대상자와 참여단체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지향한다.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며,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차별 없이 지원을 제공한다.
- **결과 지향(Results-Oriented Approach)**: 활동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결과 지향적인 접근을 실천한다. 측정가능한 목표와 성과를 설정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의 실질적 영향을 극대화한다.
-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참여주체 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한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자원을 최적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 어필, 모금, 자원배분, 성과 평가 및 의사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며, 파트너와 지원 대상자에게 책임 있는 활동을 보장한다.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활동의 품질을 높인다.

○ 가치

- 다음의 가치를 기반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 **사람 중심(People-Centered):**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현지중심(Local-Centered):** 현지의 필요와 역량에 기반하여 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 행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대응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상호학습(Mutual Learning):** 참여단체와 파트너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질적제고(Quality Improvement):** 활동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2-2-2. 공동모금플랫폼 구성

2-2-2-1. 구성단위

- 공동모금플랫폼 단계에서는 효과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 참여 주체 구성을 다변화한다.

○ 공동모금플랫폼

- 공동모금에 참여하는 멤버단체, 파트너 그리고 사무국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 공동모금플랫폼 멤버단체

- 긴급한 인도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금과 사업 차원의 체계와 역량을 보유한 NGO로 구성한다. RAPID 활성화 단계의 RAPID 멤버단체 및 RAPID Plus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 공동모금플랫폼 파트너기관

- NGO 외에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동모금에 기여하는 기관들이다.

○ 공동모금플랫폼 사무국

- 공동모금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으로 공동어필, 공동모금 및 배분과 그 외 책무성, 파트너십 관리 등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30] 공동모금플랫폼 구성주체



2-2-2-2. 공동모금플랫폼 멤버구성

- 공동모금플랫폼 멤버 단체구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공동모금플랫폼 멤버단체 기준(안)

단체분류	멤버단체
기본개념	- 해외 인도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금과 사업 체계와 역량을 구축한 단체 - 긴급구호 및 조기복구 단계에서 현장의 인도적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 단체
선정기준: 공통요건	인도주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공동모금플랫폼의 목표와 비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과 가치에 동의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한 기관이 신청 가능함. [신청기본요건] ①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법인 ② 설립 이후 최소 3년 이상의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수행 경험 보유 ③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사 운동과 재난 구호 NGO를 위한 행동 강령 서명 ④ 해외 활동 국가(지역) 3개국 이상 (※ 대응 가능한 지부나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현지파트너를 통한 대응이 가능한 국가) ⑤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하여 재무 투명성과 건전성 인증 ⑥ 자부담 비율 매칭 가능
세부기준	[실적] ① 최근 3년 해외 인도적 지원 실적(긴급구호) N억 원 이상 (자체 대응 포함) ② 최근 3년 해외사업을 위한 자체 자원 동원(모금) 실적 N억 원 이상. ③ KOICA, 모금회, 국제기구 등 외부 재원을 통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N건 이상 (단, 최근 3년 이내 경고 등의 징계 조치 경험이 없어야 함) [인력] - 국내 및 현장 인력 ①-1 최소 N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도적 지원 담당 부서 인력의 70% 이상이 인도적 지원 관련 교육 이수 ①-2 또는 기관의 50% 이상의 인력이 해외재난재해 인도적 지원 활동 경험 보유 ①-3 최소 N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금홍보 부서 인력이 존재 [체계] ① N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유(지부 및 현지 파트너십 협력체결) ② 세이프가딩 제도 및 지침 유무

2-2-2-3. 공동모금플랫폼 파트너 기관 구성

- 공동모금플랫폼 파트너 기관들의 역할과 참여유인은 다음과 같다.

[표 42] 파트너 기관 역할

기관	역할
기업	• 해외 인도적 재난 발생 시 자원조성 기여 • 해외 인도적 재난 발생 시 모금어필 참여
미디어	• 해외 인도적 재난 발생 시 모금어필 및 모금채널 • 해외 인도적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지제고 기여 • 공동모금플랫폼 성과홍보 기여
공공기관	• 해외 인도적 재난 발생 시 자원조성에 기여(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학계/연구기관	• 공동모금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의사결정지원 • 공동모금 경험의 지식화
KCOC	• 공동모금플랫폼 운영에 대한 NGO 협의회로써 NGO의 의견제시 • 대중 인지 제고, RAPID 브랜드 인지제고

2-2-2-4. 공동모금플랫폼 사업단계

- 공동모금플랫폼은 해외 인도적 위기 발생 시 멤버단체들이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호소하는 공동어필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모금을 한다. 이후에는 대중 모금한 기금(개인, 기업 및 기관 대상 모금 및 정부 제공 ODA)을 멤버단체들에 배분한다. 단체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평가를 실행한다. 사업 종료 후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은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공동모금플랫폼의 사업단계별 내용

	해외 인도적 위기 발생	의사결정 단계	공동어필 단계	공동모금 단계	배분 단계	사업수행 단계	M&E 및 보고 단계
내용	• 해외 대형 인도적 위 기발생	• 플랫폼 해당 단위에서 공동대응 여부 결정	• 대사회적 공동어필 시행	• 공동모금 실행 • 정부가 모금액 고려해 ODA 자금지원	• 모금한 기금을 배분금 식 활용해 모금참여멤버 NGO에 배분	• 멤버NGO가 배분된 기금을 활용해 사업수행	• 멤버NGO가 수행한 사업을 모니터링·평가실행 • 공동어필·모금, 배분 과정에 대해 공동평가 실시 • 사업 보고서 제출
대응 단위	-	• 이사회	• 어필위원회 • 사무국 • 파트너 미디어 • 파트너 기업	• 사무국 • 정부 • 파트너 기업 • 일반기업 • 일반대중 • 공공기관 • 기타	• 배분위원회 • 사무국 • 공동모금참여 멤버 NGO	• 멤버NGO	• 멤버NGO • 사무국

2-2-3. 운영

2-2-3-1. 이사회

○ 구성

- 공동모금플랫폼 멤버단체 대표
- KCOC 등 인도적지원NGO 협의체 대표
- 외부 전문가(관련분야 연구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

○ 역할

- 공동모금플랫폼의 전반적인 조직 및 사업 운영관리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을 결정한다.
- 해외 인도적 위기 발생 시 공동어필 여부를 결정한다.

2-2-3-2. 위원회

○ 구성

- **(어필위원회)** 위원회가 공동어필을 결정하면, 어필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동원해 파트너들과 협의해 어필을 실행하고 이어, 공동모금까지 담당한다.
- **(배분위원회)** 공동모금을 통해 확보한 기금을 배분공식을 통해 공동모금에 참여한 멤버단체들에 배분한다.
- **(책무성위원회)** 배분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한 멤버NGO들의 사업을 모니터링·평가하고 향후 시행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 각 위원회에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적정비율로 참여 (예: 어필위원회에 전직 미디어 전문가 등)

2-2-3-3. 사무국

○ 역할

- 공동모금플랫폼의 이사회와 위원회 멤버단체 및 정부,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등 파트너 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어필·모금, 배분, 사업실행,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서 제출의 실무를 진행한다.

○ 기능

- **(공동모금플랫폼 멤버관리)** 멤버단체 모집, 선정 및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 **(공동어필·모금, 배분 및 사업관리)** 공동모금플랫폼을 통해 추진되는 어필과 모금, 사업비 배분과 사업수행의 과정을 담당한다.
- **(정부 대응)** 공동모금플랫폼에 ODA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및 부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공동모금플랫폼 파트너 기관관리)**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학계 등과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 **(성과관리)** 공동모금플랫폼의 효과적 공동모금 및 사업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와 데이터플랫폼을 관리/운영하고 M&E를 지원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 **(인지제고 및 성과홍보)** 공동모금플랫폼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 및 사회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알리고, 사업성과를 홍보한다.

2-2-4. 브랜드 홍보

- 공동모금플랫폼 브랜드의 홍보방안의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공동모금플랫폼에 활용할 브랜드 슬로건 수립이다. 둘째는 브랜드 홍보와 공동모금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이다.

○ 공동모금플랫폼 브랜드의 슬로건 수립

- 브랜드는 현재의 RAPID 또는 다른 명칭의 브랜드를 결정한다.
- 슬로건은 “더 많은 조직이 함께할 때 더 나은 대응(또는 모금)이 가능하다”라는 캐나다 HC의 슬로건을 참고하여 ‘공동’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담은 명확한 슬로건을 제시한다.

○ 공동모금플랫폼 브랜드 홍보 전략

- 공동모금플랫폼 브랜드는 대중, 기업 등 모금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브랜드 인식은 공동모금플랫폼의 모금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동되나, 브랜드 인식의 성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 공동모금플랫폼의 브랜드 인지 제고를 위해 공동모금플랫폼은 별도의 홍보 전략과 실행계획을 전문성 있게 수립한다.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NGO, 방송사, 기타 관계자들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질지, 각자의 홍보 및 공동 홍보의 연계, 정기적인 브랜드 인식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2-2-5. 핵심작동기제,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주체별 참여유인

- 공동모금플랫폼을 위한 Macro, Meso, Micro 수준에서의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차원의 핵심작동기제, 장애요인, 선결과제와 주체별 참여유인은 다음과 같다.

2-2-5-1. 핵심작동기제

○ Ma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핵심작동기제는 공동모금플랫폼을 규정하는 법적 기반과 모금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세제혜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일 수준)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도적 지원 생태계 내 UN 기구뿐만 아니라 INGO, 한국자생 NGO 등 다양한 유형의 NGO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 Meso level

-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발NGO 외 다양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주체의 참여 공간제시가 핵심작동기제로 기능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공동모금플랫폼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 Mi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핵심작동기제는 참여NGO에 대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약속하는 공동모금방식 및 배분공식이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는 단체라는 신뢰성 그리고 공동모금 참여에 대한 동료 간 긍정적 압박(Peer pressure), 혹은 집단적 참여의식 및 불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공동모금 외 상호학습에 대한 이점이 핵심작동기제로 기능한다.

2-2-5-2. 장애요인

○ Macro level

-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동모금플랫폼을 규정하는 엄격한 법적 기반과 타 모금기관에 비해 불리한 세제혜택, 그리고 상존하는 유사한 공동 또는 개별모금기관이 장애요인이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공동모금방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인식과 신뢰도,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의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중요하다.

○ Meso level

- 제도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최초의 인도적 지원 분야 공동모금플랫폼 운영이라는 사회적 낯섦, 대형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참여기관 제한이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소수단체 참여로 인한 NGO 사회의 전반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장애요인으로 기능한다.

○ Micro level

- 제도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미발생 시의 활동에 대한 준비 부족, 참여단체에 비해 작은 공동모금 및 사업비 배분 그리고 중견단체에게는 사업참여가 어려운 제도가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형단체에게는 공동모금이 개별모금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존재와 기존 기업 및 기관 후원자들의 반대 그리고 단체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다.

2-2-5-3. 선결과제

○ Ma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설립과정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법적, 정책적 제도지원과 타 공동모금기관 수준의 세계혜택 및 ODA 등 초창기 적절한 기반 구축이 되기 까지의 안정적 자금 지원이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해외 인도적 위기 해결에 대한 국민의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부문화 촉진이 중요하다.

○ Meso level

- 제도적 측면에서는 대형단체 외 중견단체 참여방식의 효과적 운용과 효과적 사무국 구성 그리고 운영 부문에 대한 일정 규모의 정부의 ODA 자금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형단체의 선도적 기여, NGO 협의체인 KCOC의 기여, 참여단체 간 경쟁 완화 및 협동심 향상 및 대형단체와 중견단체 간 권력균형(power balance)이 중요하다.

○ Micro level

- 제도적 측면의 선결과제는 정부의 예산 확대와 공동어필·모금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의 협력체계 정비 그리고 기업의 공식적인 참여와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가 있다.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NGO 간의 공동협력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단체들의 기존 후원자들의 이해와 지지가 선결과제다.

2-2-5-4. 주체별 참여유인

○ NGO

-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분야의 안정적 예산확보, 공동협력방식 통한 국내외, 기관 내 신뢰성 제고,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개별 모금과정에서의 조직적, 인적, 재정적 비용감소, 공동어필·모금, 배분 및 사업수행과 M&E 과정에서의 학습, 해외 인도적 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지나친 단체 간 모금경쟁 피로도 해소, 공동모금통해 신규 후원자 개발 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중견단체에게는 공동어필·모금단계에서 대형단체의 사업자료(사진, 사례 등) 및 그간 축적된 경험들을 공유받으며, 개별적으로는 어려운 미디어 접근성 제고 기회 확보, 한국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생태계 확대 기회 확보 등이 참여유인으로 작동한다.

○ 정부

-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효과적 기여,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대, 신뢰성 있는 인도적 지원 NGO 생태계 구성 지원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회의 인도적 지원 발전 도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 풀 확대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의 참여 공간제시도 의미가 있다.

○ 미디어

-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와 NGO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송자원 확보가 참여유인으로 기능한다.

○ 기업

- ESG 실천 수단의 확보와 국제사회 인도적 위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확보, 신뢰성있는 NGO들에 대한 기부 및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 공공기관

- 모금한 자금의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배분처 확보(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별 연합조직 등)가 중요하다.

○ 학계/연구기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증연구 기회 확보 및 학술실적 제고가 중요한 참여유인으로 작동한다.

[표 44] 공동모금플랫폼의 핵심작동기제,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주체별 참여유인

내용	핵심작동기제(enabler)	장애요인(disabler)	선결과제	주체별 참여유인	
Macro (플랫폼 외부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제도적 측면〉 - 공동모금플랫폼을 규정하는 법적 기반 - 모금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세제혜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일 수준) 〈사회문화적 측면〉 -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인도적 지원 생태계 내 UN 기구뿐만 아니라 INGO, 한국 자생 NGO 등 다양한 유형의 NGO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	〈제도적 측면〉 - 공동모금플랫폼을 규정하는 엄격한 법적 기반 - 타 모금기관에 비해 불리한 세제혜택 - 상존하는 유사한 공동 또는 개별모금기관 〈사회문화적 측면〉 - 공동모금 방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인식과 신뢰도 - NGO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 분쟁 상황에서의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한 어려움	〈제도적 측면〉 - 설립과정에 대한 정부 및국회의 법적, 정책적 제도지원 - 타 공동모금기관 수준의 세제혜택 - 초창기 몇 년간 정부의 일정한 ODA 자금 지원 〈사회문화적 측면〉 - 해외 인도적 위기 해결에 대한 국민의 연대 의식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부문화 촉진	NGO	-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분야의 안정적 예산확보 - 공동협력방식 통한 국내외, 기관 내 신뢰성 제고 -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개별 모금과정에서의 조직적, 인적, 재정적 비용감소 - 공동어필·모금, 배분 및 사업수행과 M&E 과정에서의 학습 - 해외 인도적 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지나친 단기간 모금경쟁 피로도 해소 - 공동모금통해 신규 후원자 개발 기회 확보 - 중견단체에게는 공동어필·모금단계에서 대형 단체의 재료(사진, 사례 등) 및 기법 공유받으며, 개별적으로는 어려운 미디어 접근성 제고 기회 확보 - 한국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생태계 확대 기회 확보
				KCOC	- 협의회와 공유한 정체성으로 참여 당위성 제시 -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역할 부여
Meso (플랫폼 자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제도적 측면〉 - 개발NGO 외 다양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주체의 참여 공간제시 〈사회문화적 측면〉 - 해외 인도적 위기 공동모금플랫폼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도적 측면〉 - 최초의 인도적 지원분야 공동모금 플랫폼 운영 - 대형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참여기관 제한 〈사회문화적 측면〉 - 소수단체 참여로 인한 NGO 사회의 전반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제도적 측면〉 - 대형단체 외 중견단체 참여방식의 효과적 운용 - 효과적 사무국 구성 - 운영부문에 대한 일정 규모의 정부 ODA 자금제공 〈사회문화적 측면〉 - 대형단체의 선도적 기여	정부	- 해외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효과적 기여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대 - 신뢰성 있는 인도적 지원 NGO 생태계 구성 지원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회의 인도적 지원 발전 도모 - 인도적 지원 전문가 및 전문가 풀 확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의 참여공간 제시

내용	핵심작동기제(enabler)	장애요인(disabler)	선결과제	주체별 참여유인	
			• NGO협의체 KCOC의 기여 • 참여단체 간 경쟁 완화 및 협동심 향상 • 대형단체와 중견단체 간 권력균형 (power balance)	미디어	•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 NGO와의 협력 통해 다양한 방송자원 확보
				기업	• ESG 실천 수단의 확보 • 국제사회 인도적 위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확보 • 신뢰성 있는 NGO들에 대한 기부 •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기회 제공
Micro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제도적 측면〉 • 참여NGO에 대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약속하는 공동모금방식 및 배분공식 〈사회문화적 측면〉 •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는 단체라는 신뢰성 • 공동모금 참여에 대한 동료 간 긍정적 압박(Peer pressure), 혹은 집단적 참여의식 및 불참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공동모금의 상호학습에 대한 이점	〈제도적 측면〉 • 해외 인도적 위기 미발생 시의 활동에 대한 준비 부족 • 참여단체에 비해 작은 공동모금 및 사업비 배분 • 중견단체에게는 사업참여가 어려운 제도 〈사회문화적 측면〉 • 대형단체에게는 공동모금이 개별모금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존재 • 기존 기업 및 기관 후원자들의 반대 • 단체 구성원들의 반대	〈제도적 측면〉 • 정부의 예산 확대 • 공동어필·모금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의 협력 체계정비 • 기업의 공식적인 참여 • 학계/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적 정비 〈사회문화적 측면〉 • NGO 간의 공동협력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 단체들의 기존 후원자들의 이해와지지	공공기관	• 모금한 자금의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배분처 확보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종교연합회 등)
				학계/연구기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증연구 기회 확보 및 학술실적 제고

2-3.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추진 방안

- 현재 추진 중인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긴급대응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의 RAPID를 향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2-3-1. 1안 - RAPID 활성화와 공동모금플랫폼 병행

○ 내용

- **(RAPID 활성화와 공동모금플랫폼 병행 운용)** KOICA의 긴급대응 프로그램인 RAPI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일정 시기에 공동모금플랫폼을 시작하여 병행한다. RAPID는 정부가 ODA 자금을 역량 있는 NGO에게 제공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긴급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공동모금플랫폼은 NGO의 자율성에 기반해 공동모금을 하고, 이에 정부가 ODA자금을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캐나다의 HC CHAF와 호주의 AHP사례)
- 이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여 정부 주도 + NGO 협력모델과 NGO 주도 + 사회구성원 참여 + 정부협력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 장점과 단점 및 대응방안

- **(장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수행 프로그램인 RAPID와, 시민사회와 민간기관의 자율적 공간과 정부의 협력모델인 공동모금플랫폼 병행으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다원적 운용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기회 확대가 가능하며, 아울러 개발NGO들의 인도적 지원 실행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 **(단점 및 대응방안)** 사회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동시에 2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인해 관심과 역량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 과정 초기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시간이 지나고, 시행주체들이 협력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3-2. 2안 - 공동모금플랫폼 운영

○ 내용

- **(RAPID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RAPI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한국 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제도화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적 여건이 성숙화되면 기존 긴급대응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RAPID를 종료하고,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 장점과 단점 및 대응방안

- **(장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역량을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집결하여 효율적으로 모금을 시행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와 같이 한국 사회의 해외 인도적 지원 분야 대표 브랜드로 국가와 사회적 상징으로 작동 가능할 것이다.
- **(단점 및 대응방안)** 공동모금플랫폼은 해외의 대형 긴급 인도적 지원 상황에만 대응하기에, 활동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호주 EAA나 현 RAPID 동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과 같이 만성재난의 긴급위기를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경우 공동모금플랫폼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형 NGO들이 자체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NGO가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모금 및 사업을 수행해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동모금플랫폼 멤버 확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RAPID 활성화와 공동모금플랫폼 병행 추진(안)

구분		RAPID 활성화 단계 준비 (2024~2025)	RAPID 활성화 단계 (2026 이후 지속추진)
RAPID 활성화	중 장기	• 브랜드 가시성 제고 • 자원 확대	• 공동사업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브랜드 가시성 제고 • 자원 확대 • 포용성 강화
	목표	• 인도적 지원 범위 확대 • 인도적 지원사업 질적 제고 • 인도적 지원 통합 성과 데이터 활용성 증대 • 공동 인지제고 확대 • 공동 성과홍보 강화 • RAPID 지원 KOICA ODA예산 확대 • RAPID 동원 민간재원 확대	• 인도적 지원 범위 확대 • 인도적 지원사업 질적 제고 • 인도적 지원 통합 성과 데이터 활용성 증대 • 공동 인지제고 확대 • 공동 성과홍보 강화 • RAPID 지원 KOICA ODA예산 확대 • RAPID 동원 민간재원 확대 • 참여유형/참여NGO 확대 • 참여단체 역량강화 기회 확대 • 파트너 기관 확대
	참여 주체	• RAPID 5단체	• RAPID 단체 • RAPID Plus 단체
	프로그램	• 민간합동대응사업(RAPID Integrated Response) • 민간공동대응사업(RAPID NGO Joint Response)	• 민간합동대응사업(RAPID Integrated Response) • 민간공동대응사업(RAPID NGO Joint Response) • RAPID Learning Lab 사업
	참여방식	• RAPID 단체 단독참여형	• RAPID 단체 단독참여형 • RAPID Plus 단체 컨소시움 참여형
	과제	• RAPID Plus 단체 및 컨소시움 참여형 제도 준비 • RAPID Learning Lab 사업 준비	• 지속적인 자원 제공 • 참여단체 확대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훈 학습

구분		RAPID 활성화 단계 준비 (2024~2025)	RAPID 활성화 단계 (2026 이후 지속추진)
공동모금 플랫폼			공동모금플랫폼 출범 (2030 이후 지속추진)
	중장기	-	- 플랫폼 글로벌 위상 강화 - 플랫폼 활성화 - 재원 확대
	단기	-	- 플랫폼 가시성 제고 - 글로벌 성과공유 확대 - 플랫폼 참여주체별 전문성/비교우위 활용 - 공동모금플랫폼 지원 ODA예산 확대 - 공동모금플랫폼 동원 민간재원 확대
	참여주체	-	- 개별 NGO - KCOC - 정부(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등) - KOICA - 국회 - 공공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기업 - 학계/연구기관 - 멤버NGO, 사무국, 정부, KOICA, 파트너 기관(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과제	-	- 공동모금플랫폼 관련 법적 제도 준비 - 세제혜택 제도 준비 - 독립법인 및 사무국 구성 - 참여 NGO 구성 - 파트너 기관 섭외 및 협약 - 실제 대비 시뮬레이션 실행 - 참여단체 수 규모 판단 - 공동모금플랫폼 수행 과정에서 의 교환 학습

[표 46] RAPID 프로그램의 공동모금플랫폼 전환(안)

단계	RAPID 활성화 준비기 (2024~2025)	RAPID 활성화기/공동모금플랫폼준비기 (2026 ~2031)	공동모금플랫폼 시행기 (2032 ~)
목표	중 장기	• 브랜드 가시성 제고 • 자원 확대	• 플랫폼 글로벌 위상 강화 • 플랫폼 활성화 • 자원 확대
	단기	• 인도적 지원 범위 확대 • 인도적 지원사업 질적 제고 • 인도적 지원 통합 성과 데이터 활용성 증대 • 공동 인지제고 확대 • 공동 성과홍보 강화 • RAPID 지원 KOICA ODA예산 확대 • RAPID 지원 KOICA ODA예산 확대 • 참여유형/참여NGO 확대 • 참여단체 역량강화 기회 확대 • 파트너 기관 확대	• 플랫폼 가시성 제고 • 글로벌 성과공유 확대 • 플랫폼 참여주체별 전문성/비교우위 활용 • 공동모금플랫폼 지원 ODA예산 확대 • 공동모금플랫폼 동원 민간재원 확대
참여주체	• 2024년 RAPID 참여 5단체	• RAPID 단체 • RAPID Plus 단체	• 멤버NGO, 사무국, 정부, KOICA, 파트너 기관(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KCOC)
프로그램	• 민관합동대응사업(RAPID Integrated Response) • 민간동동대응사업(RAPID NGO Joint Response) • RAPID Learning Lab 사업 (준비기에 시작함)		• 해외 대형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공동어필·모금, 배분, 사업수행, M&E)
참여방식	• RAPID 단체 단독참여형	• RAPID 단체 단독참여형 • RAPID Plus 단체 컨소시엄 참여형	• 공동플랫폼 멤버단체 공동어필·모금 참여 및 개별 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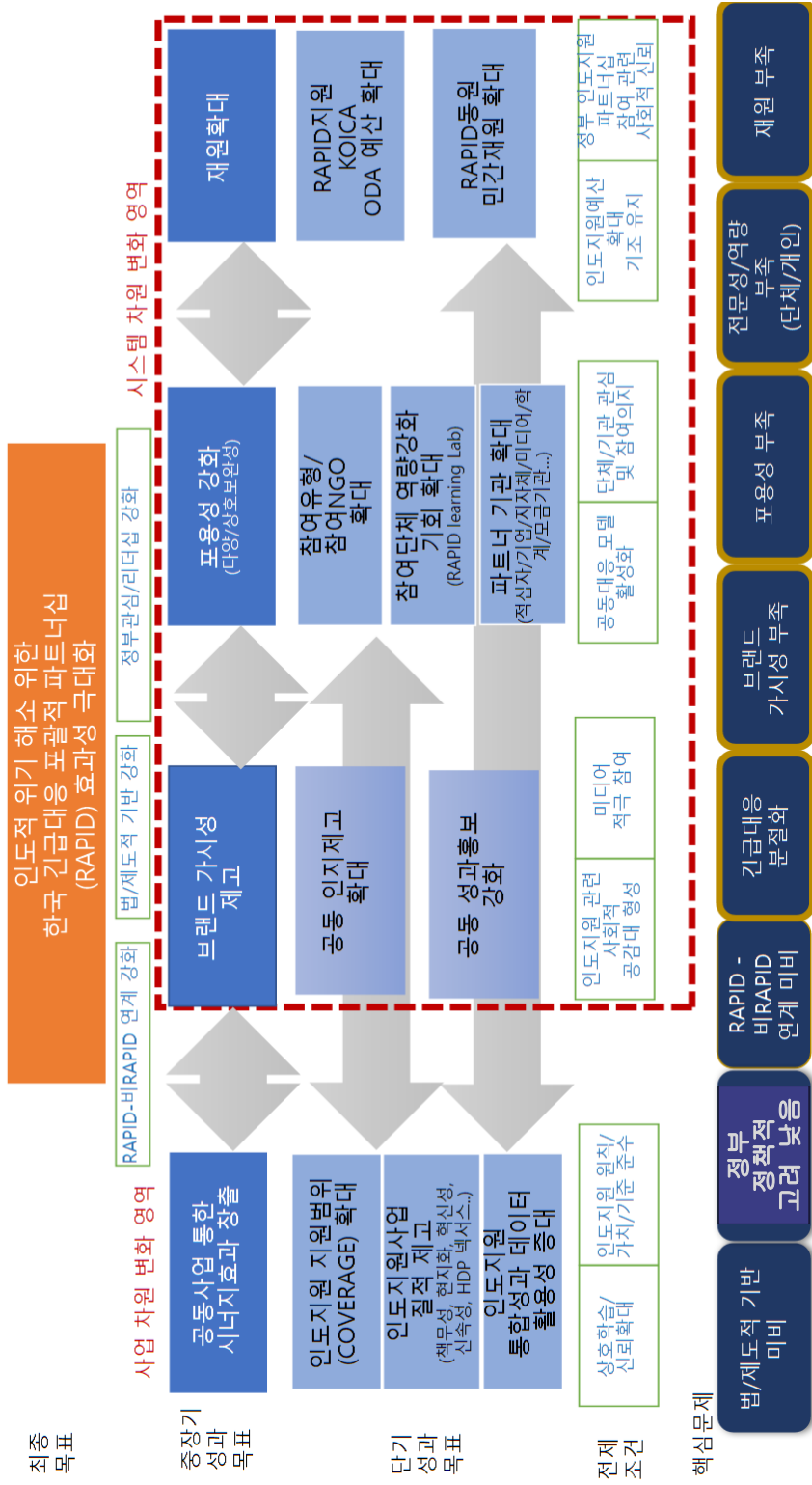
단계	RAPID 활성화 준비기 (2024~2025)	RAPID 활성화기/공동모금플랫폼준비기 (2026 ~2031)	공동모금플랫폼 시행기 (2032 ~)
과제	• RAPID Plus 단계 및 칸소시움 참여형 제도 준비 • RAPID Learning Lab 사업 준비	• <RAPID 활성화> • 지속적인 자원 제공 • 참여단체 확대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교환 학습	• 참여단체 수 규모 확대 조정 • 파트너기관들의 역할 점검 • 공동모금플랫폼 수행 과정에서의 교환 학습
		• <공동모금플랫폼 준비> • 공동모금플랫폼관련 법적 제도 준비 • 세제혜택 제도 준비 • 독립법인 및 사무국 구성 • 실제 대비 시뮬레이션 실행 • 참여 NGO 구성 • 파트너 기관 섭외 및 협약	

3. 성과관리틀 및 성과지표

3-1. 개요

- 본 연구의 요청 과업은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성과지표 도출이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파트너십의 단계별 발전방안에 대한 성과관리틀을 간략한 변화이론 형태로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지표(산출물 지표 포함한 포괄적 의미)를 도출한다.
- 타 공여국 사례 및 한국 맥락 고려
 - 타 공여국의 사례를 보면 민관협력 인도지원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단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민간 주체와 파트너십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즉,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기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파트너십’ 영역에 대해 성과지표를 마련, 성과를 추적, 관리하고 평가에 활용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는다. 타 공여국의 사례는 주로 공동모금플랫폼의 형태로 정부 차원에서 파트너십 성과를 추적, 관리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RAPID 활성화 및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고려
 - 본 연구에서는 III장에서 검토한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 민관파트너십 체계와 현황, 한계와 과제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RAPID 활성화 단계, 중장기적으로는 공동모금플랫폼 단계에 대한 성과관리틀을 구분하여 도출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폴)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RAPID 활성화 단계: 성과관리를 및 성과지표



○ RAPID 활성화 단계에 대한 변화이론(성과관리틀)

- RAPID활성화 단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상위목표는 [그림 30]과 같이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긴급대응 포괄적 파트너십(RAPID)의 효과성 극대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목표와 단기성과목표를 제시했다.

○ 최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

- 변화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트너십 제도와 환경, 운영현황 및 주체별 역량 등의 측면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III장에서는 현재 한국 긴급대응 포괄적 파트너십(RAPID) 체계와 현황상의 문제에는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제도적 기반 미비, RAPID 참여단체 차원의 포용성 부족, 긴급대응 사업 수행을 위한 단체와 개인의 전문성 및 역량부족, RAPID 브랜드 가시성 부족, 재원 부족, KOICA 조직 내 인도지원 지원을 위한 RAPID 및 비RAPID 프로그램 간 연계성 부족 등이 파악됐다.
- [그림 30] 상의 성과관리틀에서는 하단에 짙은 청색으로 현재의 핵심 문제점, 즉 한계를 구분했다. 이 핵심 문제들은 'RAPID 효과성 극대화'라는 최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장애요인(Disabler)으로도 작동한다.

○ 대응영역 및 중장기 성과목표

-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 연구는 RAPID 활성화 단계에서는 5개 영역의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제안한다. 즉, 대외환경적 요소에 해당하는 법/제도 기반, KOICA 내 제도/조직적 요소를 제외하고 변화이론 내 황색 외곽선으로 구분되어있는 △긴급대응 분절화, △브랜드 가시성 부족, △포용성 부족, △전문성/역량부족, △재원부족이다.
- 최상위 목표 달성에 필요한 5개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중장기 성과목표로 전환하여 △공동사업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브랜드 가시성 제고 △포용성 강화(역량강화 기회 확대), △재원확대를 도출했다.
- 4개 중장기 성과목표 중 브랜드 가시성 제고, 포용성 강화(역량강화 기회 확대), 재원확대가 포괄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 RAPID 시스템 차원의 변화 영역(area of change)이라면, 공동사업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은 RAPID 시스템이 작동, 참여단체 간 긴급대응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차원의 변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시스템 차원 변화영역 관련 단기 성과목표/지표

- 시스템 차원의 변화영역에서 중장기 성과목표인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참여유형 및 기관 확대, RAPID Learning Lab을 통한 참여단체 역량강화 기회 확대, 적십자/기업/미디어/학계/모금기관 등 파트너기관 확대 등의 단기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재원확대 달성을 위한 단기 성과목표는 RAPID 지원 KOICA ODA 예산확대, RAPID 동원 민간재원 확대로 설정 가능하다. 여기서 민간재원은 RAPID 참여단체의 부담액과 현 RAPID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은행 등 파트너기관의 재원부담금을 지칭한다. △브랜드 가시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동 인지제고 확대, 공동 성과홍보 강화를 단기 성과목표로 설정 가능하다.
-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지표 및 성과지표는 [표 47]과 같고, 주로 RAPID 관련 KOICA 차원의 문서와 프로그램 구조, 예산 분석 등을 통해 대부분 파악 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성과관리 차원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성과지표로 제시한 참여단체 및 파트너기관의 지원유형, 파트너십, 역량강화 지원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만족도, 활용도는 주기적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수집 가능하다.

○ 사업 차원 변화영역 관련 단기 성과목표/지표

- 변화의 sequence를 고려할 때, 사업 차원의 변화영역인 '공동사업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은 시스템 차원의 의도한 변화가 어느 정도 발생한 이후 기대할 수 있다. 즉, 참여유형 및 기관, 파트너가 확대되고 역량강화 기회가 확대되며 재원 접근성이 제고되었을 때 RAPID 공동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단기 성과목표로는 인도지원 대응범위(coverage), 즉 양적 확대와 인도지원 질적개선, 그리고 인도지원 통합성과데이터 활용성 증대 등이 있다. 이중 인도지원 질적 개선이라는 추상적 성과목표는 현지화 확대, 책무성 제고, 혁신성 제고, 준비도 및 신속대응도 개선, 보고절차 간소화, HDP 넥서스 기여 등 그랜드바젠 및 Good Humanitarian Donorship 등이 강조하는 가치를 참고하여 현실 여건과 준비 정도를 감안하여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참고 지표는 [표 48]과 같다. 특히 '파트너십 통한 가치창출도' 등은 시너지효과 창출에 대한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표 47]과 [표 48]은 파트너십 지원 시스템 차원의 변화와 사업 차원의 변화, 즉 시너지효과 제고 여부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풀이며, 단기적으로는 이중 굵은 글씨로 구분된 대표지표 위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과관리 및 파트너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3-3. RAPID 활성화 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표지표 선정

- 2025년 활성화 준비기에는 [표 47]과 [표 48]이 제시한 지표폴 중에서 RAPID의 실제 발전방향에 따라 활용 가능하고 유용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한다. 아래 지표폴이 제시하는 산출, 성과지표는 활용 가능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RAPID 사무국, KOICA 담당 부서 및 KCOC 등 운영 주체 등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주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수집가능성, 유용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RAPID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이 어느 정도 채택되어 이행되는지에 따라 대표지표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모니터링

- 2025년 중 RAPID 활성화의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대표 산출/성과지표를 설정한 후에는 지표별 기초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연도별 데이터 변화를 추적하되 지표별로 주기는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 RAPID 프로그램의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표별 종료선 데이터의 수집은 활성화 1차년도인 2025년, 2차년도 2026년 이후 활성화의 성과를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시점인 2027년 이후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정책적 수요 혹은 성과 근거에 대한 상위부처 요청 등에 따라 2026년 정도의 시기에 해당 시기까지 발현하고 수집가능한 데이터만을 모아서 중간평가도 고려할 수 있다.

○ 성과평가

- RAPID 프로그램의 이행성과에 대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성과)평가는 2027년 이후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당 평가는 프로그램 층위에 대한 전략평가(strategic evaluation)의 성격을 띠며, 위에 제시한 [그림 30]의 변화이론(성과관리틀)을 기반으로 의도한 성과목표 달성여부/정도 및 작동/비작동요인을 파악하는 이론기반 평가(theory-based evaluation) 접근을 취할 수 있다¹⁰⁵⁾.
- RAPID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핵심 평가질문(key evaluation question)은 △시스템 차원의 의도한 가치창출, 즉 재원 확대/포용성 강화/브랜드 가시성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동사업(파트너십)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었는가? 즉, 인도지원 범위 확대, 현지화/준비도 및 신속대응도/혁신성 강화 등 인도지원 사업 질적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105)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 RAPID의 특징을 고려할 때 with RAPID, without RAPID 상태의 비교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통한 실증적 비교는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있는가? △ RAPID 프로그램 성과목표 달성/미달성/부분달성의 작동요인과 비작동요인은 무엇인가? 등이 가능하다. 단, RAPID 활성화의 방향성 및 채택/이행된 제언의 범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그림 30]의 변화이론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조정된 변화이론을 기반으로 핵심 평가질문을 설계할 수 있다.

[표 47] RAPID 활성화 단계 시스템 차원 지표: 산출/성과(안)

중장기 성과목표	단기 성과목표	지표	유형	설명	출처/방법론
포용성 강화	참여유형/ 기관 확대	RAPID 민간단체(NGO) 지원유형 수	산출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의 수 (현재 1개, 목표치 3개)	RAPID 프로그램 구조 분석
		RAPID 민간단체(NGO) 지원유형별 사업수	성과	민관합동대응사업, 민간공동대응사업, RAPID Learning Lab 사업 등 지원유형별 사업수	RAPID 등록 데이터베이스
		RAPID 지원유형별 등록 단체 수 (이중 중소단체 비중) (예: 중소단체 비중, 분야전문성 및 현장정보유한 단체 비중)	산출물	각 유형별 RAPID에 등록된 단체의 수 (중 소단체 비중)	RAPID 등록 데이터베이스
		RAPID지원 유형별 참여단체 만족도	성과	지원유형에 대한 참여단체 만족도(유형별)	참여단체 대상 설문조사/인터뷰
	파트너 확대	RAPID 파트너 기관수 (대한적십자사, 기업, 미디어, 연구기관, 지자체, 모금단체 등)	산출물	NGO외에 KOICA와 MOU 체결, 정식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기관 수	RAPID 프로그램 구조 분석
		RAPID 파트너 기관 만족도	성과	파트너십에 대한 만족도	참여단체 대상 설문조사/인터뷰
	역량강화 기회확대	RAPID LEARNING LAB 프로그램 수	산출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	RAPID LEARNING LAB 운영 기록
		RAPID LEARNING LAB 참여단체 수	산출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의 수	RAPID LEARNING LAB 참가 기록
		RAPID 예산 중 역량강화 지원 예산 비중	산출물	RAPID 전체 예산 중 역량강화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	RAPID 예산 분석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참여단체 만족도/활용도	산출/ 성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단체의 만족도/ 활용도 (그룹별)	참여단체 대상 설문조사

중장기 성과목표	단기 성과목표	지표	유형	설명	출처/방법론
재원 확대	RAPID 지원 인도지원 ODA예산 확대	KOICA 인도적 지원 예산 중 RAPID 예산 비중	산출물	KOICA 전체 인도적 지원 예산에서 RAPID가 차지하는 비율	KOICA 예산 자료 분석
	RAPID 조성 민간재원 규모 확대	RAPID를 통해 조성된 민간재원 규모	성과	RAPID를 통해 조성된 민간 재원의 총액 (연도별, 전체/사업별)	RAPID 재정 보고서
가시성 제고	공동 성과홍보 확대	RAPID 통한 공동 이니셔티브 성과공유 워크숍 수	성과	RAPID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워크숍의 수	워크숍 개최 기록
		RAPID 통한 참여단체의 SNS 홍보건수	성과	RAPID 관련 SNS 홍보 게시물의 수 (채널별)	SNS 분석 도구
	공동 인지제고 확대	RAPID 공동사업의 미디어 노출건수	성과	RAPID 관련 언론 보도 건수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
		RAPID 브랜드에 대한 민간단체/국민 인지도	성과	RAPID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수준	설문조사 및 국민 인식도 조사

주 1. 각종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2. 굵은 글씨는 대표지표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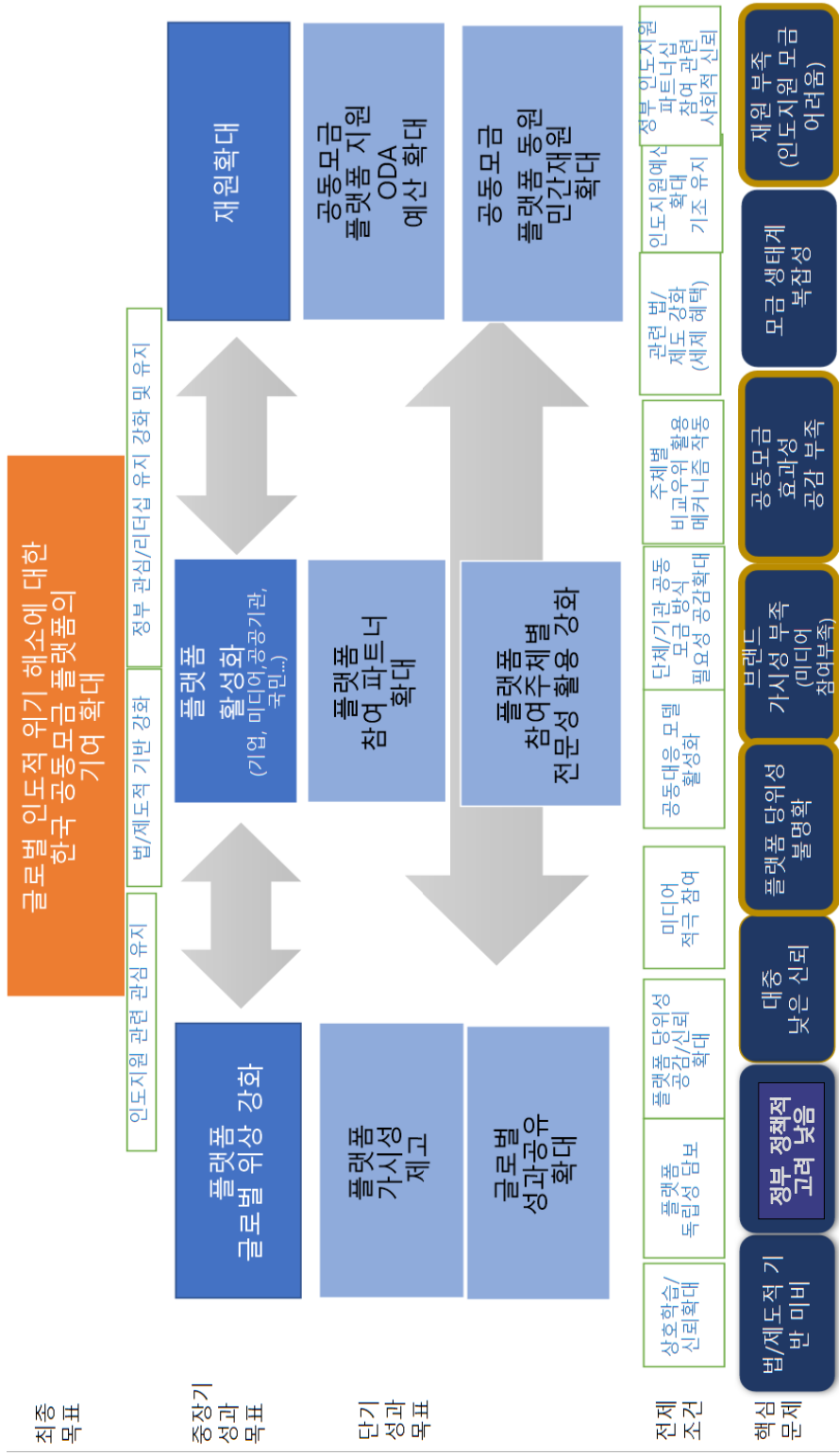
[표 48] RAPID 활성화 단계 사업 시너지효과 제고 차원 지표: 산출/성과

중장기 성과 목표	단기 성과목표		지표	유형	설명	출처/방법론
시너지효과 창출	인도지원 대응범위 (coverage) 확대		RAPID 통해 혜택을 받은 수혜자 수	성과	RAPID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연도별 수혜자 수 (지원유형별, 사업수행 방식별, 국가별, 재난별, 성별 구분)	현장 보고서 및 수혜자 데이터 분석, 성과데이터
	인도지 원 질적 개선	현지화 확대	〈현지화 확대〉 RAPID Learning Lab 사업 중 현지기반 접근(Localization)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 수 및 비율	성과	현지화 노력 반영. RAPID Learning Lab에서 현지기반 접근을 위한 활동(현지 파트너 역량 강화, 현지화 계획 실행, 현지 자원 활용 등)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사업의 수와 전체 사업 대비 비율.	RAPID Learning Lab의 예산 문서 검토, 사업 계획서 및 재무 보고서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 확인.
			현지 행위자 지원 규모/예산 규모	성과	현지 행위자 지원예산 규모, RAPID 예산 중 현지 행위자 지원예산 비율	RAPID 운영보고서
		책임성 제고	RAPID 공동사업에서 공식 ARM(Accountability Resource Manager) 또는 동등한 역할을 가진 담당 직원이 지정된 사업의 비율	성과	RAPID 공동사업 중 ARM 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한 사업의 비율. 지정 여부는 역할 명세서, 계약서, 혹은 내부 관리 문서로 확인	RAPID 사업 보고서
			RAPID 참여단체 중 정기적 책임성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의 비율 (본부/현지파트너 분리지표)	성과	참여단체가 연간 또는 반기별로 책임성 관련 교육을 본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율(본부 직원/현지파트너 대상). 교육 계획서 및 참여 기록으로 검증.	RAPID 참여단체 연간 보고서, 본부/현지파트 너 교육 기록
		혁신성 제고	RAPID learning lab 통한 혁신사업/실증연구/동료 학습 사업 수 (세부유형 별 분리지표)	성과	RAPID learning lab을 통해 수행한 혁신사업/실증연구/동료 학습 수 (연도별)	RAPID learning lab 결과 분석
		HDP 넥서스 확대	RAPID 대응 인도적 지원 사업 중 개발사업으로 연계된 사업 비율(중기)	성과	HDP 넥서스의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 KOICA 국별협력 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연계된 사업 비중 파악,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개발로의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RAPID 및 KOICA 자료 분석, 개발사업으로 연계된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 수 / 전체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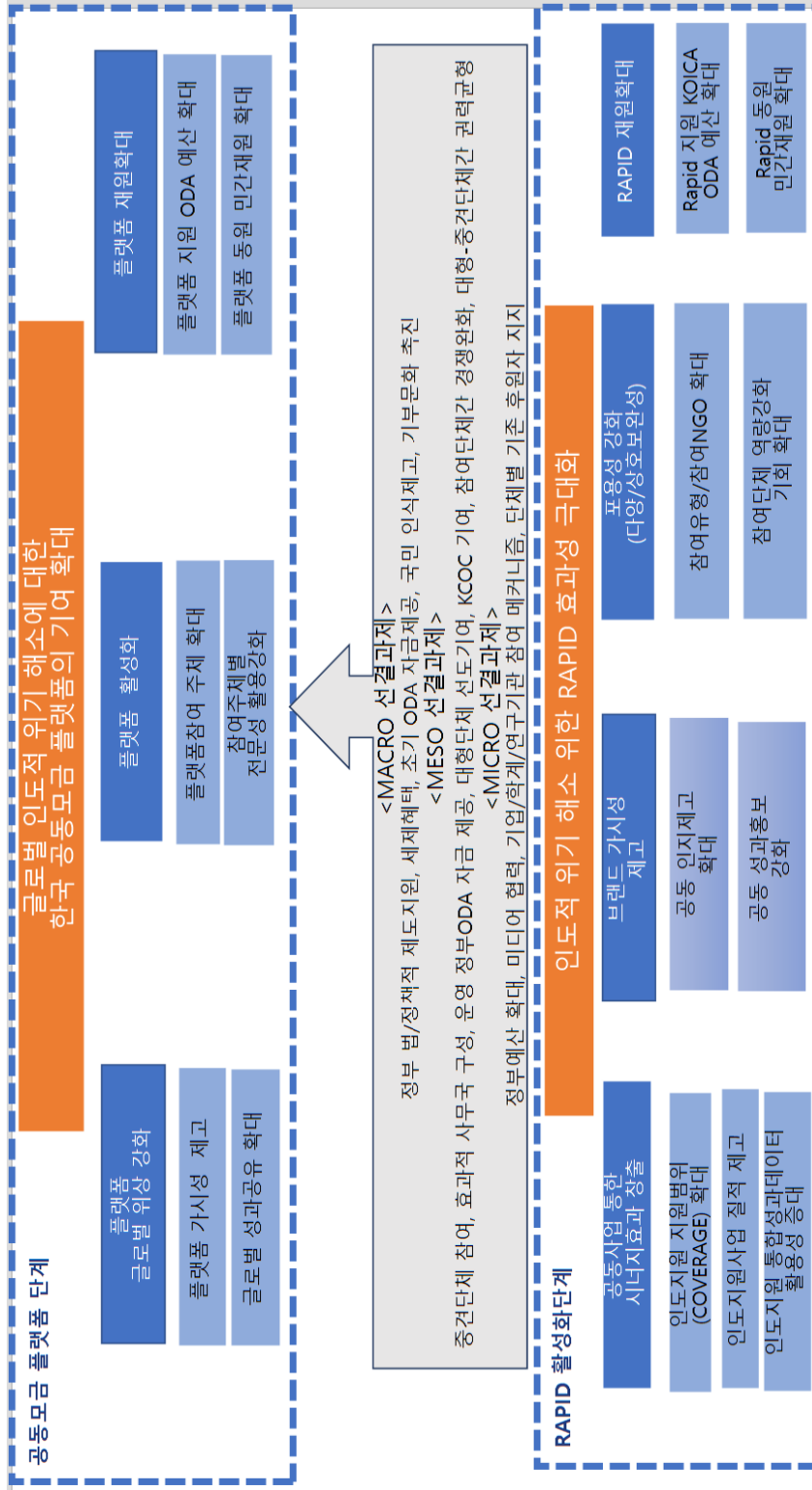
중장기 성과 목표	단기 성과목표		지표	유형	설명	출처/방법론
	준비도/ 신속대 응도 개선		긴급 대응 의사결정 소요시간 (평균, 일 기준)	성과	재난 발생 후 공동사업 의사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RAPID 운영보고서
			재난 발생 후 특정기간 내 RAPID 공동사업 지원을 받은 수혜자 수 (연도별, 재난별, 식량/식수/주거지 등 서비스별)	성과	재난 발생 후 공동사업을 통해 특정 기간 (대응재난성격에 따라 구성. 예: 72시간,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내에 지원받은 수혜자 수(연도별, 재난별, 서비스별) 예: 재난 발생 72시간 내 식량지원 수혜자 수, 1주 내 깨끗한 식수 수혜자 수, 2주 내 임시거주지 수혜자 수	RAPID 사업보고서, 운영보고서
		보고절 차 간소화	RAPID 공동사업 참여 시 의무제출 보고서 수	산출	RAPID 프로그램 참여기관이 사업준비 및 이행, 성과관리 등 단계별 의무 제출 해야 하는 보고서 수 (절차 간소화 노력 필요)	RAPID 운영보고서, RAPID 지침 (간소화 노력 전후 비교)
			RAPID 참여단체의 보고 절차/소요시간 변화	성과	RAPID 프로그램 통한 공동사업 참여 시 보고절차 및 소요시간 감소여부에 대한 참가자 인식 (절차 간소화 노력 필요)	참여기관 설문조사 (간소화 노력 전후 비교)
	통합 성과데이터 활용성 증대		통합 성과관리 실시간 대응 데이터 플랫폼 구축 여부	산출	RAPID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대응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상태, 데이터 활용도, 그리고 플랫폼의 운영 및 업데이트 현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파트너십 통한 가치창출 (통합 지표)	RAPID 참여기관/파트너 간 신규 혜택 접근성 변화여부	중장기 성과	RAPID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기관/파트너 간 제도적 자산 (예시: 대한적십자사 세제혜택) 공유에 따른 새로운 혜택 접근성 개선에 대한 주체별/기관별 인식	설문조사, 인터뷰 (RAPID 활성화 단계 이후 수집)	
		RAPID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가치창출도		(Micro 차원) 파트너십에 참여한 개별참여NGO의 인지도 변화/ 신규회원유입/ 모금증가 (Meso 차원) 파트너십 플랫폼인 RAPID의 브랜드인지도 증가/ RAPID 참여를 희망 NGO(회원)와 기업 등 파트너의 수 증가		

주: 상동

3-3.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성과관리를 및 성과지표



[그림 31] RAPID 활성화 -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변화 선결과제



○ 공동모금플랫폼 단계에 대한 변화이론(성과관리틀)

- [그림 31]은 공동모금플랫폼 단계에 대한 변화이론(성과관리틀)을 [그림 32]는 RAPID 활성화 단계에서 공동모금플랫폼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포함한 전체 구도를 나타낸다. 공동모금플랫폼 단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상위목표는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한국 공동모금플랫폼의 기여 확대'로 설정했다.

○ 핵심문제, 대응영역 및 중장기 성과목표

- 앞서 제시한 RAPID 활성화 단계의 문제점과 한계요인이 유사하게 작용하지만 공동모금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특히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선결과제)는 공동모금플랫폼의 전환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한 공감대 부족, 불확실한 플랫폼 도입의 당위성, 현재 국내 모금생태계의 복잡성과 경쟁관계, 공동모금플랫폼 브랜드의 가시성 부족 등이 있다.
- 이중 공동모금플랫폼 단계에서 대응하는 영역에는 △플랫폼 당위성 불명확, △브랜드 가시성 부족, △공동모금 방식 공감부족, △재원부족 등이며, 이를 중장기 성과 목표화하여 △플랫폼 글로벌 위상강화, △인도지원 생태계 활성화, △재원 확대로 설정할 수 있다.

○ 단기 성과목표/지표

- 공동모금플랫폼을 통한 △재원확대를 위해서는 공동모금플랫폼 지원 ODA예산 확대, 공동모금플랫폼을 통해 조성한 민간재원 확대를 단기성과목표로 설정한다. △인도지원 생태계 활성화 목표를 위해서는 NGO 외에 기업, 미디어, 연구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주체별 전문성/비교우위 활용 강화가 있고, △플랫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가시성 제고, 글로벌 성과공유 확대가 있다.
-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에는 재원확대 관련하여서는 인도지원 예산 확대 기조 유지, 정부의 인도지원 파트너십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있고, 인도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기관 차원의 공동모금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기관별 CEO 차원의 지지 및 의사결정 등이 있다. 공동모금 모델로서 플랫폼의 정체성 확립과 당위성 확립도 필요하다. 플랫폼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적극적 참여와 국민적 지지 및 관심이 필요하다. 법/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 성과목표별 산출물, 성과지표

- 공동모금플랫폼의 성과목표별 산출물, 성과지표는 [표 49]와 같은 표를 활용 가능하고, 그중 굵은 글씨를 특히 대표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표 49]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지표(품): 산출/성과(안)

중장기 성과목표	단기 성과목표	지표	유형	설명	출처/방법론
재원확대	공동모금플랫폼 지원 ODA예산 확대	정부 인도적 지원 예산 중 플랫폼 예산 비중	산출물	정부 인도적 지원 예산에서 플랫폼 예산 차지 비율	정부ODA 예산 자료 분석
	공동모금플랫폼 동원 민간재원 확대 (공동 어필/모금체계)	공동 어필/모금 플랫폼 구축 완료율 (%)	산출물	공동 어필/모금 체계(조직,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완료율	플랫폼 완료 보고서
		공동 어필/모금캠페인 실행 건수	산출물	특정 위기에 대해 실행된 공동 어필/모금캠페인의 건수	캠페인 실행 기록
		플랫폼 모금 민간재원 규모 및 증가율	성과	플랫폼 통해 모금/조정된 민간재원 총액(연도별, 전체 및 사업/캠페인별), 연도별 민간재원 증가율, 플랫폼 다년간 운영 후 중장기 지표로 활용 가능	플랫폼 운영보고서
		플랫폼 참여주체별 기여모금액 증가율	성과	플랫폼 참여기관 (기업/NGO 등)별 기여모금액의 전년대비/이전 캠페인 대비 변화율(연도별/캠페인별),	플랫폼 운영보고서
		플랫폼 지원 국민1인당 기부액/기부횟수	(장기) 성과	플랫폼에 기부하는 국민 1인당 기부액/기부횟수(연도별/캠페인 별/분야별/재난유형별)	플랫폼 운영보고서
인도지원 생태계 활성화	기타 민간주체 참여확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타 민간주체 주체 수 (기업, 미디어, 연구기관, 지자체 등)	산출	MOU 등 약정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한 신규 민간주체 수	플랫폼 운영보고서
	참여주체별 전문성/비교우위 활용 강화	기업(재원), 미디어(홍보), 연구기관(실증연구 협력) 등 전문영역별 활동건수/재원규모	성과	원/연구건수/인력건수 혹은 전체 자원 중 특정 주체 기여 비율(%) 계산	사업별, 캠페인별 각 주체 기여 항목(재원, 홍보, 인력, 연구) 등 분류 및 정량화
글로벌 위상강화	플랫폼 가시성 제고	공동 성과홍보 콘텐츠 제작 건수	산출물	성과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건수	제작 콘텐츠 수
		공동모금 브랜드 언론 노출 건수	성과	공동모금플랫폼 브랜드 미디어 보도 건수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
		모금브랜드 국민인지도	성과	국민 인지도 조사의 모금브랜드 인지도	국민인지도 조사
	글로벌 성과공유 확대	글로벌 공동모금플랫폼 네트워크 가입여부(EAA)	성과	EAA 가입여부	해당 웹사이트
		국제사회 모범사례 공유 여부	성과	그랜드바겐 웹, 연례보고서 및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TIPs ¹⁰⁶⁾ 회원국별 모범사례 공유 여부	그랜드바겐, OECD 웹사이트, 연례보고서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저자 작성

10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TIPS(Tools Insights Practices)는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 및 주제, 영역의 정책, 시스템, 파트너십에 대해 다양한 회원국/기관별 모범사례를 모아서 case study 방식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플랫폼이다.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tips-tools-insights-practices_be69e0cf-en/international-diplomacy-and-partnerships-to-address-global-challenges_b7eea198-en.html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2020).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파트너십 연구보고서”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2021).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 고찰”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2023). “그랜드 바겐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분석 보고서: 양질의 인도적 지원 자원(Quality Humanitarian Funding)을 중심으로”
- 김현성(2022). “CTS기독교TV, 특별 모금방송 진행” <https://www.newspower.co.kr/52020>(검색일: 2024년 6월 19일)
- 북음기도신문(2023). “극동방송, 우크라이나 어린이 20만명 양식 지원 위한 모금” <http://gnpnews.org/archives/146069>(검색일: 2024년 6월 19일)
- 손혜철(2015). “BBS불교방송, 네팔지진피해지역 주민돕기”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45>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 아름다운재단(2024). [2024 데이터로 보는 국내 기부 규모 변화]. 재인용: Giving Korea 발표자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21720/>
- 아름다운재단(2024). 2024 데이터로보는국내기부규모변화. 기빙코리아2024.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장윤주, 이영주, 신성규, 정민정. CAF, 2016에서 인용
- 연간인도주의(KCOC Humanitarian Briefings), KCOC(2024)
- 연합뉴스(2022). “MBC,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자선콘서트”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09300005>(검색일: 2024년 6월 19일)
- 오지영, 박소정(2023).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 월드비전(2024). “월드비전 이슈브리프 OUR PROMISE: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와 제22대 국회의 역할.” 월드비전. 2024년 제17호.
- 이영광(2023). “튀르키예 모금 생방송, ‘십시일반’ 힘 느꼈죠”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18>(검색일: 2024년 6월 19일)
- 정복교, 김성주, 윤정아(2022). 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기빙코리아 2022

한국일보(2023).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415090002190>(검색일: 2024년 6월 19일)

홍지영(2022).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주요 공여국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파트너십 분석을 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연구. 제14권 1호” (23-151)외교부 보도자료(2023.2.19.)

(23-312)외교부 보도자료(2023.4.5.)

KBS(2023).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모금 특별생방송”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id=PS-2023030761-01-000(검색일: 2024년 6월 19일)

KOICA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koica_kr/955/subview.do(검색일: 2024년 6월 20일)

KTV 대한뉴스(2023). “KTV·대한적십자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모금”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670655(검색일: 2024년 6월 19일)

MBC(2015). “MBC 네팔 지진 피해돕기 특별 생방송 <희망 더하기>” <https://blog.mbc.co.kr/1155>(검색일: 2024년 6월 19일)

2. 해외 문헌

ACNC. (2024). Australian Charities Report

AHP. AHP 홈페이지. <https://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org/about>(검색일: 2024. 10.23.)

AHP.(2024). AHP Humanitarian Response Update.

Bryson, John M. and Barbara C. Crosby. (2008). “Failing into cross-sector collaboration successfully.” In The Big Ideas in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Lisa Blomgren Bingham and Rosemary O’Leary (eds.), pp. 55-78. Armonk, NY and London, England: M.E. Sharpe

CAF Canada. (2017). Canada Giving 2017.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7-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17>(검색일: 2024.09.23.)

CAF(2024). “UK Giving: Mapping generosity across the country”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uk-giving-reports/uk_giving_report_2024.pdf

- Canada Helps. (2024). Giving Report 2024. <https://indd.adobe.com/view/763060b8-d8a0-48c9-8325-c9e619340e9a>(검색일: 2024.09.23.)
-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2024). “Charity Commiss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3 to 20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y-commission-annual-report-and-accounts-2023-to-2024/charity-commission-annual-report-and-accounts-2023-to-2024#performance-report>(접속일: 2025년 1월 4일)
- Cohrs, Lena(2024). “UK aid provisional statistics for 2023 – a quarter of UK aid still being spent in the UK” <https://www.bond.org.uk/news/2024/04/uk-aid-provisional-statistics-for-2023-a-quarter-of-uk-aid-still-being-spent-in-the-uk/>(검색일: 2024.11.1.)
- Cooperation Canada. (n.d.). History. <https://cooperation.ca/history-2/>(검색일: 2024.10.28.).
- DFAT 홈페이지. <https://www.dfat.gov.au/development/topics/development-issues/building-resilience/humanitarian-preparedness-and-response/australian-humanitarian-partnership>(검색일: 2024.10.23.)
- DEC(2023). “DEC Annual Report 2022-2023.” London: DEC
- DEC(2024). “DEC Accountability Framework.” <https://www.dec.org.uk/article/accountability-framework>(접속일: 2024년 11월 1일)
- DEC(2024). “DEC Annual Report 2023-2024.” London: DEC
- DEC(2024). “DEC Strategy 2024-2029.” London: DEC
- DEC(2024). “The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DEC) Lessons Paper: Strategic Period(2019-2024).” London: DEC
- DFAT. (2024b). Australia’s Humanitarian Policy: Making a difference for people in crisis.
- DFID(2019). “Guidelines for NGOs applying for CHASE Humanitarian Response Funding. London: DFID
- DFAT.(2024a) Australi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EVELOPMENT BUDGET SUMMARY 2024-25.
- DIGIT NEWS(2024) “How Was the UK’s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Spent Last Year?” <https://www.digit.fyi/how-was-the-uks-conflict-stability-and-security-fund-spent-last-year/>(검색일: 2024.11.01.)

- Donor Tracker. (n.d.). Canada Donor Profile. https://donortracker.org/donor_profiles/canada(검색일: 2024.10.29.).
- Donor Tracker. (n.d.). Japan Donor Profile. https://donortracker.org/donor_profiles/japan(검색일: 2024.08.20.)
- Donortracker. Australia. https://donortracker.org/donor_profiles/australia (검색일: 2024.11.05.)
- EAA. (2023). Annual Report 2022-2023.
- EAA. (2024). EAA Strategy.
- EAA. 아프리카 식량위기, 우크라이나 위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 내용. EAA 홈페이지. <https://emergencyaction.org.au/hunger-crisis> (검색일: 2024.11.02.)
- Elkurd, Lina Y.(2024)“Kuwait Fund and UK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Partner to Aid Children” <https://www.unicef.org/gulf/stories/kuwait-fund-and-uk-foreign-common-wealth-and-development-office-partner-aid-children> (접속일: 2024년 11월 1일)
- Enrichest, The Impact of Charitable Donations: A Focus on Japan's Philanthropic Contributions, <https://enrichest.com/en/blog/impact-of-charitable-donations-focus-on-japans-philanthropic-contributions>(검색일: 2024.10.21.)
- FCDO(2022). “The UK Government’s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Paper. London: FCDO
- FCDO(2022). “UK Humanitarian Framework.” Policy Paper. London: FCDO
- FCDO(2024). “UK and Qatar double joint humanitarian funding to £79.4 million to tackle crises around the world”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d-qatar-double-joint-humanitarian-funding-to-794-million-to-tackle-crises-around-the-world>(접속일: 2024년 11월 1일)
- Gawel, Anna(2024). “Devex Newswire: USAID’s worrying backslide - and its possible future under Trump 2.0” <https://www.devex.com/news/devex-newswire-usaid-s-worrying-backslide-and-its-possible-future-under-trump-2-0-107828>(접속일: 2024년 12월 26일)
- Girvan, Alyssa and Taylor, Becky(2018). “Refugee History: 4 Periods in the UK’s History of Voluntary Refugee Support” <https://refugeehistory.org/blog/2018/6/26/4-periods-in-the-uks-history-of-voluntary-refugee-support>(접속일: 2024.10.21.)

- Global Affairs Canada. (n.d.). Canada's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priorities-priorites/policy-politique.aspx?lang=eng(검색일: 2024.09.05.)
- Global Affairs Canada. (n.d.). How We Respond to Conflict.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response_conflict-reponse_conflits/how_we_respond-comment_nous_repondons.aspx?lang=eng(검색일: 2024.09.19.)
- Good Humanitarian Donorship(2023). "Past Work and Achievements" <https://www.ghdinitiative.org/ghd/gns/about-us/about-ghd.html>(접속일: 2024년 6월 21일)
- Good Humanitarian Donorship(2023). "The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 HAG Independent Think Piece. (2017). Joint Funding Mechanisms for Humanitarian Response. <https://humanitarianadvisorygroup.org/wp-content/uploads/2020/12/HAG-Independent-Think-Piece-Joint-funding-mechanisms-July-2017.pdf>(검색일: 2024.10.02.)
- High-Level Panel on Humanitarian Financing(2016).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Too important to fail-addressing the humanitarian financing gap"
- Hilton, Matthew(2014). "International Aid and Development NGOs in Britain and Human Rights since 1945" <https://humanityjournal.org/issue3-3/international-aid-and-development-ngos-in-britain-and-human-rights-since-1945/>(접속일: 2024.10.21.)
- Humanitarian Coalition. (2023). Financial Statement 2023.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sites/default/files/2024-06/Humanitarian-Coalition-2023-Financial-Statement-Signed.pdf>(검색일: 2024.11.2.)
- Humanitarian Coalition. (2024). Annual Report 2023.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sites/default/files/2024-07/HC_Annual_Report_2023_EN.pdf
- Humanitarian Coalition. (n.d.). Summary of Membership Criteria. https://www.humanitariancoalition.ca/sites/default/files/basic-page/membership_criteria_excerpt_0.pdf(검색일: 2024.09.13.)
- IASC(2023). "The Grand Bargain 3.0"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grand-bargain-official-website/grand-bargain-30-deenfr>(접속일: 2024년 6월 21일)
- IASC(2023). "The Grand Bargain beyond 2023 Framework"

- ICVA(2022). “The Grand Bargain 2.0 Explained: An ICVA briefing paper
- IFRC(2023). “The Grand Bargain and Localisation Commitments” <https://gblocalisation.ifrc.org/wp-content/uploads/2021/02/Section-2.pdf>
- JANIC. (2022). Data Book on NGOs in Japan 2021: NGOs in Figures. February 2022.
-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2021). Donation White Paper 2021. https://jfra.jp/wp/wp-content/uploads/2021/11/GJ2021_infographic.pdf
- Japan Platform. (2024). Annual Report 2024. https://www.japanplatform.org/data/media/japanplatform/page/about/report/pdf/2023_ar.pdf(검색일: 2024.08.21.)
- Japan Platform. (n.d.). Japan Platform 기업회원규정. <https://www.japanplatform.org/data/media/japanplatform/page/support/company/member-rule/contract.pdf>(검색일: 2024.08.21.).
- Japan Platform. (n.d.). 브로셔. https://www.japanplatform.org/lib/data/JPF_en.pdf (검색일: 2024.08.19.)
- Jones, Andres(2015). “The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DEC) and the Humanitarian Industry in Britain, 1963-85”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Vol. 26, No. 4, pp. 573-601
- Kilby Patrick. (2015). NGOs and Political Change, A History of the 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Loy, Irwin(2024). “The New Humanitarian: What could Trump 2.0 mean for humanitarian response?”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analysis/2024/11/07/what-could-trump-us-mean-humanitarian-response-global>(접속일: 2024년 12월 26일)
- Metcalf-Hough, V., Fenton, W. and Manji, F. (2023). The Grand Bargain in 2022: an independent review. HPG commissioned report. London: ODI www.odi.org/en/publications/the-grand-bargain-in-2022-an-independent-review
- Milward, H. Brinton and Keith G. Provan. (2006). “Networks and Partnerships Series: A Manager’s Guide to Choosing and Using Collaborative Networks.” Working Paper,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pp. 8-37
- MOFA.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https://www.mofa.go.jp/files/100514705.pdf>(검색일: 2024.08.20.).
- MOFA. (2024).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GOs: Partnership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Japanese NGOs. <https://www.mofa.go.jp/files/000024755.p>

df(검색일: 2024.08.21.)

OECD iLibrary. (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2dcf1367-en(검색일: 2024. 9.23.)

Philanthropy Australia. (2022). Giving Trends and Opportunities.

Rabinowitz, Gideon(2024). “Final UK ODA statistics for 2023 – The legacy of recent cuts and what is at stake in the budget” <https://www.bond.org.uk/news/2024/09/final-uk-oda-statistics-for-2023-the-legacy-of-recent-oda-cuts-and-what-is-at-stake-in-the-budget>(접속일: 2024년 11월 1일)

Reliefweb(2014). “The Indian Ocean Tsunami, 10 Years On – Lessons from the response and ongoing humanitarian funding challenges” <https://reliefweb.int/report/indonesia/indian-ocean-tsunami-10-years-lessons-response-and-ongoing-humanitarian-funding>(접속일: 2024.10.21.)

talker, Fiona(2024). “Charities in the UK – Market Research Report (2014-2029)” London, United Kingdom. <https://www.ibisworld.com/united-kingdom/market-research-reports/charities-industry/>

Start Network(2023). “Start Network Annual Report 2022.” London: Start Network

Start Network(2024). “Start Network – Start Fund.” London: <https://startnetwork.org/funds/global-start-fund>(접속일: 2024년 11월 1일)

Start Network(2024). “Start Network – Start Ready.” London: <https://startnetwork.org/funds/start-ready>(접속일: 2024년 11월 1일)

Start Network(2024). “Start Network Annual Report 2023.” London: Start Network

Start Network(2024). “Start Network Governance Bodies.” London: <https://startnetwork.org/about/governance-and-assurance/governance-bodies>(접속일: 2024년 11월 1일)

Start Network(2024). “Start Network Mission, Vision and Values.” London: <https://startnetwork.org/about/mission-vision-and-values/team>(접속일: 2024년 11월 1일)

Start Network(2024). “Start Network Strategy 2024-2026” London: Start Network

The Guardian(2024). “British public donated record £13.9bn to charity in 2023”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4/mar/25/british-public-donated-record-13-9bn-pounds-to-charity-in-2023>(접속일: 2024년 11월 1일)

WORLD Giving Index(2023). 성인의 현금기부

인도지원 2025-02-117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발 행 2025년 1월

발 행 인 장원삼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인도지원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전우용사촌

I S B N 978-89-6469-631-6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인도지원 2025-02-117



인도적 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60

<https://www.koica.go.kr>